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I :  
연구총괄 · 2012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책임연구원 | 이 중 원

공동연구원 | 김 준 흥



#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II:

연구총괄 · 2012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책임연구원 : 이종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김준홍(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발 간 사 ■ ■ ■

한국사회는 해방 이후 반세기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사회로 이행하는 세계사에 유례 없는 압축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그 결과 90년대 후반 OECD, G20 가입 등을 통하여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의 측면에서 한국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화는 동시에 도전이기도 합니다. 정보산업의 확산에 따른 고용 없는 성장과 이로 인한 소득의 양극화 문제,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한 세대간 갈등의 대두, 이주노동과 국제결혼 증가에 따른 인종적·문화적 다양성의 진전 등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문제들이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여 사회통합을 통해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미래사회를 담당할 아동·청소년의 시민적 역량과 자질의 함양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아동·청소년의 시민역량 증진과 관련한 연구·조사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0년에는 OECD에서 제안한 핵심역량(key competencies) 연구를 통해서 미래세대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역량을 검토하였고, 2009년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의회(IEA)가 세계 38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제 시민성·시민교육 연구(ICCS)의 조사결과 분석작업에 참여하여 한국 청소년의 시민역량을 다른나라와 비교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본 연구는 2011년에 시작된 ICCS 조사결과 분석의 2차년도 연구로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을 실증적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청소년 및 교육 부문에서 시민역량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2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이 재 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I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 협동연구<br>총서<br>일련번호 | 연구보고서명                                                               | 연구기관           |
|--------------------|----------------------------------------------------------------------|----------------|
| 12-22-01           |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I :<br>연구총괄 · 2012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 한국청소년<br>정책연구원 |
| 12-22-02           |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I :<br>미디어 이용과 가족내부 사회자본을 중심으로     | 한국청소년<br>정책연구원 |
| 12-22-03           |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I :<br>교육분야 민주시민역량 요인과 관계성 분석      | 한국교육<br>개발원    |

2. 참여연구진

| 연구기관       |                | 연구책임자                      | 참여연구진                                            |
|------------|----------------|----------------------------|--------------------------------------------------|
| 주관<br>연구기관 | 한국청소년<br>정책연구원 | 이종원<br>(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김준홍<br>(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br>정선아<br>(숙명여자대학교 교수) |
| 협력<br>연구기관 | 한국교육<br>개발원    | 김태준<br>(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 이영민<br>(숙명여자대학교 교수)                              |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청소년 시민역량에 관한 국제비교 조사결과와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청소년 시민역량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가·시민사회가 지향해야 할 정책과제와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1년부터 시작된 3개년 연속사업의 일환으로서, 연구 2차년도인 올해에는 국내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결과(제1권)와 국제교육성취평가협의회(IEA)에서 세계 38개국 청소년(중2)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 국제 시민성·시민교육 연구(ICCIS)의 조사결과를 분석(제2, 3권)하여 보고서로 발간하였다.

국내 실태조사(2012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결과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은 청소년들의 시민적 지식과 태도 전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시민적 지식은 증가하지만 다른 민족이주민의 평등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사회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감소하고 국가에 대한 긍지·자부심도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둘째, 시민적 자아인식과 행동의 측면에서 전통적 성역할관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청소년들은 남녀 모두 이념적인 차원에서는 양성평등을 지지하지만, 정치·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정치적 효능감, 장래의 정치활동 참여의사 등의 측면에서 남녀간의 차이는 매우 현격하였다.

셋째, 전문고 학생과 비전문고(인문고, 중학생) 학생간의 차이가 매우 뚜렷하였다. 전문고 학생들은 시민적 지식과 정치적·시민적 효능감, 시민적 참여경험이 세 집단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민주적 가치, 시민적 역할, 사회평등관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넷째, 가족배경은 청소년들의 시민의식과 시민역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의 학력이 높고 경제적으로 상위권인 가정의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시민적 지식, 정치적·시민적 효능감, 사회평등의식, 시민적 참여, 장래의 행동의사 등의 측면에서 일관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청소년 시민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로서 학생 권익기구로서의 학생자치활동 강화, 청소년참여의 제도화를 위한 청소년의 회 구성과 운영, 시민교육의 장으로서의 학생자치법정 활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 핵심어: 시민역량, 시민적 지식, 시민적 자아인식, 시민적 참여, 시민행동



## 연구 요약

### 1. 연구목적

- 청소년 시민역량에 관한 국제비교 조사결과와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청소년 시민역량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가·시민사회가 지향해야 할 정책과제와 방향을 제안함.

###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시민역량 관련 국내·외 선행이론, 연구·조사 자료 분석
- 전문가 자문 : 연구주제 관련 학계인사, 전문가로 자문진 구성·운영
- 설문조사 : 2012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 조사내용 : 시민적 지식과 자아인식, 시민적 가치인식과 태도, 시민적 참여와 행동의사
  - 모집단 : 2012년 조사 시점 현재 전국 16개 시·도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청소년
  - 표집방식 : 2011 교육통계연보를 표집틀로 한 층화집락표집
  - 조사방식 : 구조화된 조사표에 의거한 학급 단위 집단조사
  - 표본 : 자료선별을 거쳐 최종분석 대상이 된 표본은 5,568명(181개교)

### 3. 주요 연구결과

#### 1) 집단간 차이 분석

- 시민역량과 관련한 청소년들의 응답경향은 연령별로 주목할만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 청소년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시민적 지식은 증가하지만 정치적·시민적 자아효능감에는 변화가 없었고, 다른 민족/이주민의 평등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사회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국가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도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음. 지식의 영역을

제외한 시민성·시민역량의 측면에서 가령(ageing)은 일관되게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성별 응답결과에서는 전통적인 성역할관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의연히 잔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남녀를 불문하고 대부분의 청소년이 여성의 정치참여를 지지하고, 남자 못지 않게 여자도 정치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치·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정치적 효능감, 장래의 정치활동 참여의사 등의 측면에서 남녀간의 차이는 매우 현격하였음. 양성평등관은 이념적인 차원에서는 보편화되었지만, 일상적인 관심과 태도, 행동의 차원에서는 아직 정착되지 않은 단계임을 알 수 있음.
- 학교 관련 변인에서는 전문고 학생과 비전문고(인문고, 중학생) 학생간의 차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음. 대부분의 조사영역에서 두 집단간의 상이한 응답경향이 정형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전문고 학생들의 시민적 지식과 정치적·시민적 효능감은 세 집단 중 가장 낮았고, 민주적 가치, 시민적 역할, 사회평등 의식에 대해서도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했으며, 학교 안팎에서의 시민적 참여의 경험도 매우 낮은 수준이었음.
- 가족관련 배경변인의 응답결과를 통해 우리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계층화 현상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음. 부모의 학력은 시민적 태도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가정의 경제수준은 시민적 가치인식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었음. 부모학력이 높고 경제적으로 상위권인 가정의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시민적 지식, 정치적·시민적 효능감, 사회평등의식, 시민적 참여, 장래의 행동의사 등의 측면에서 일관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음.

## 2) 변인간 영향관계 분석

- 시민적 지식과 정치적 효능감, 시민적 자아효능감은 긴밀한 상호 영향관계에 있음. 한편, 부모의 학력은 이들 세 변인에 대하여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청소년의 정치적·시민적 효능감은 가정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음.
- 청소년의 정치·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은 시민적 지식과 정치적 효능감, 시민적 자아효능감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정치·사회문제에 관심이 높은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높은 수준의 정치적·시민적 효능감을 나타냄.
- 정보매체의 활용도는 시민적 지식과 정치적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일상생활에서 국내·외 정보를 얻기 위해 정보매체를 자주 활용하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높은 수준의 시민적 지식과 정치적 효능감을 나타냄.

- 사회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청소년들의 국가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사회제도에 대하여 높은 신뢰감을 가진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국가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냄.
- 시민적 지식은 청소년의 양성 평등관, 민족간 평등관, 이주민 평등관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시민적 지식의 수준의 높은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높은 사회적 평등의식을 보유하고 있음.
- 시민적 지식은 청소년의 민주적 가치 지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시민적 지식의 수준의 높은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민주적 가치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냄.
- 시민성과 관련된 학교의 교육환경은 청소년들의 교내 참여활동 경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학급의 토론분위기를 개방적으로 느끼고, 참여활동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학교내의 다양한 시민적 활동에 보다 많이 참가하고 있음.
- 시민적 지식과 정치적 효능감은 청소년들의 학교 안팎에서의 시민적 참여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시민적 지식은 교내 참여활동에 대하여, 정치적 효능감은 교내 참여활동과 공동체 참여활동 모두에 대하여 인과적 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들의 시민적 참여활동은 장래의 투표의사와 정치활동 참여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시민적 참여활동을 많이 하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투표와 정치적 활동 참여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4. 정책제언

- 학생 권익기구로서의 학생자치활동 기능 강화 : 청소년들이 일과시간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학생들의 참여를 통한 학교의 민주적 운영은 시민교육의 매우 중요한 과제임. 사회의 정보화·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학생들의 참여의지와 욕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학교조직은 이와 같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학생자치활동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그 운영방식에 대한 체계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청소년참여의 제도화를 위한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 : 청소년참여정책의 대표적인 사례인 청소년특별회의는 10여년 가까이 정례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낮은 인지도로 인하여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음. 청소년특별회의를 청소년의회로 명칭 변경함과 아울러 청소년 대의기구로서의 기능을 확대·강화하고 청소년관련 사회적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하고 이를 공론화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시민교육의 장으로서의 학생자치법정 활용 : 현재 전국의 300여개교에서 학생자치법정이 운영되고 있으나 교사의 전문성, 관심의 결여 등으로 많은 학교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학생자치법정은 사회질서 유지의 근간이 되는 법률의 중요성과 그 작동원리를 학교 현장에서 체험을 통해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 학생자치법정이 청소년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목 차

|                        |     |
|------------------------|-----|
| 제1장 서론 .....           | 3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3   |
|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    | 6   |
| 제2장 이론적 배경 .....       | 13  |
| 1. 선행조사 검토 .....       | 13  |
| 2. 연구의 분석틀 .....       | 18  |
| 제2장 조사의 개요 .....       | 29  |
| 1. 조사개요 .....          | 29  |
| 2. 조사내용과 도구 .....      | 34  |
| 3. 분석방법 .....          | 43  |
| 제4장 시민적 지식과 자아인식 ..... | 47  |
| 1. 시민적 지식 .....        | 47  |
| 2. 시민적 자아인식 .....      | 49  |
| 3. 종합분석 .....          | 58  |
| 제5장 시민적 가치인식과 태도 ..... | 71  |
| 1. 민주주의와 시민역할 .....    | 71  |
| 2. 사회적 평등관 .....       | 83  |
| 3. 국가와 사회제도 .....      | 93  |
| 4. 종합분석 .....          | 103 |

|                         |                |
|-------------------------|----------------|
| <b>제6장 시민적 참여와 행동의사</b> | <b>119</b>     |
| 1. 정치·사회문제 소통           | 119            |
| 2. 시민적 참여활동             | 125            |
| 3. 장래의 행동의사             | 144            |
| 4. 종합분석                 | 160            |
| <br><b>제7장 결    론</b>   | <br><b>183</b> |
| 1. 요약과 논의               | 183            |
| 2. 정책제언                 | 190            |
| <br><b>부    록</b>       | <br><b>197</b> |
| 부록 1. 조사표               | 197            |
| 부록 2. 기초통계표             | 212            |
| <br><b>참고문헌</b>         | <br><b>245</b> |

# 표 목 차

|                                                  |    |
|--------------------------------------------------|----|
| 〈표 I-1〉 2012년 보고서의 구성 .....                      | 8  |
| 〈표 I-2〉 연구의 영역과 대상 .....                         | 9  |
| 〈표 II-1〉 OECD DeSeCo 핵심역량의 세가지 영역 .....          | 15 |
| 〈표 II-2〉 시민교육의 핵심영역과 주제(CIVED) .....             | 16 |
| 〈표 II-3〉 ICCS의 분석틀 .....                         | 19 |
| 〈표 III-1〉 모집단 구성 및 목표표본 .....                    | 29 |
| 〈표 III-2〉 지역·교급·학년별 조사학교 .....                   | 30 |
| 〈표 III-3〉 지역·교급·학년별 조사인원 .....                   | 31 |
| 〈표 III-4〉 표본의 특성 .....                           | 33 |
| 〈표 III-5〉 조사의 내용 .....                           | 34 |
| 〈표 III-6〉 인지영역의 조사문항 구성 .....                    | 36 |
| 〈표 IV-1〉 시민적 지식- 배경변인별 .....                     | 48 |
| 〈표 IV-2〉 정치·사회문제 관심도- 배경변인별 .....                | 51 |
| 〈표 IV-3〉 내적인 정치적 효능감- 배경변인별 .....                | 54 |
| 〈표 IV-4〉 시민적 자아효능감- 배경변인별 .....                  | 57 |
| 〈표 IV-5〉 연구모형 1- 변인별 기술치 통계 .....                | 59 |
| 〈표 IV-6〉 연구모형 1- 변인간 상관관계 .....                  | 60 |
| 〈표 IV-7〉 연구모형 1- $\chi^2$ 값과 적합도 지수 .....        | 62 |
| 〈표 IV-8〉 연구모형 1- 최종모형의 모수추정치 .....               | 63 |
| 〈표 IV-9〉 연구모형 2- 변인의 기술통계치 .....                 | 64 |
| 〈표 IV-10〉 연구모형 2- 변인간 상관관계 .....                 | 65 |
| 〈표 IV-11〉 연구모형 2- 경쟁모형의 $\chi^2$ 값과 적합도 지수 ..... | 67 |
| 〈표 IV-12〉 연구모형 2- 최종모형의 모수추정치 .....              | 68 |
| 〈표 V-1〉 민주적 가치 지지도- 배경변인별 .....                  | 73 |
| 〈표 V-2〉 민주적 가치 유보에 대한 태도- 배경변인별 .....            | 76 |

|                                                 |     |
|-------------------------------------------------|-----|
| 〈표 V-3〉 전통적 시민역할의 중요성- 배경변인별 .....              | 79  |
| 〈표 V-4〉 사회운동 관련 시민역할의 중요성- 배경변인별 .....          | 82  |
| 〈표 V-5〉 양성평등관- 배경변인별 .....                      | 86  |
| 〈표 V-6〉 민족간 평등관- 배경변인별 .....                    | 89  |
| 〈표 V-7〉 이주민 평등관- 배경변인별 .....                    | 92  |
| 〈표 V-8〉 사회제도 신뢰도- 배경변인별 .....                   | 96  |
| 〈표 V-9〉 자국에 대한 태도- 배경변인별 .....                  | 99  |
| 〈표 V-10〉 지지정당 유무와 정당 지지도 .....                  | 100 |
| 〈표 V-11〉 정당 지지도- 배경변인별 .....                    | 102 |
| 〈표 V-12〉 연구모형 3- 변인의 기술통계치 .....                | 104 |
| 〈표 V-13〉 연구모형 3- 변인의 상관관계 .....                 | 105 |
| 〈표 V-14〉 연구모형 3- 경쟁모형의 $\chi^2$ 값과 적합도 지수 ..... | 106 |
| 〈표 V-15〉 연구모형 3- 최종모형의 모수추정치 .....              | 107 |
| 〈표 V-16〉 연구모형 4- 변인의 기술통계치 .....                | 109 |
| 〈표 V-17〉 연구모형 4- 변인간 상관관계 .....                 | 110 |
| 〈표 V-18〉 연구모형 4- 경쟁모형의 $\chi^2$ 값과 적합도 지수 ..... | 111 |
| 〈표 V-19〉 연구모형 4- 최종모형의 모수추정치 .....              | 112 |
| 〈표 V-20〉 연구모형 5- 변인의 기술통계치 .....                | 114 |
| 〈표 V-21〉 연구모형 5- 변인간 상관관계 .....                 | 114 |
| 〈표 V-22〉 연구모형 5- 경쟁모형의 $\chi^2$ 값과 적합도 지수 ..... | 115 |
| 〈표 V-23〉 연구모형 5- 최종모형의 모수추정치 .....              | 116 |
| 〈표 VI-1〉 정치·사회문제 대화- 배경변인별 .....                | 121 |
| 〈표 VI-2〉 정보매체 활용도- 배경변인별 .....                  | 124 |
| 〈표 VI-3〉 공동체 참여활동 경험- 배경변인별 .....               | 128 |
| 〈표 VI-4〉 교내 참여활동 경험- 배경변인별 .....                | 131 |
| 〈표 VI-5〉 교내 참여활동의 가치- 배경변인별 .....               | 134 |

|                                                  |     |
|--------------------------------------------------|-----|
| 〈표 VI-6〉 학급 토론 개방성 인식- 연령별 .....                 | 137 |
| 〈표 VI-7〉 교내 의사결정 영향력 인식- 배경변인별 .....             | 140 |
| 〈표 VI-8〉 학생-교사관계 인식- 배경변인별 .....                 | 143 |
| 〈표 VI-9〉 합법적 항의행동 의사- 배경변인별 .....                | 147 |
| 〈표 VI-10〉 비합법적 항의행동 의사- 배경변인별 .....              | 150 |
| 〈표 VI-11〉 투표 참여의사- 배경변인별 .....                   | 153 |
| 〈표 VI-12〉 공식적 정치활동 참여의사- 배경변인별 .....             | 156 |
| 〈표 VI-13〉 비공식적 정치활동 참여의사- 배경변인별 .....            | 159 |
| 〈표 VI-14〉 연구모형 6- 변인의 기술통계치 .....                | 161 |
| 〈표 VI-15〉 연구모형 6- 변인간 상관관계 .....                 | 161 |
| 〈표 VI-16〉 연구모형 6- 경쟁모형의 $\chi^2$ 값과 적합도 지수 ..... | 163 |
| 〈표 VI-17〉 연구모형 6- 최종모형의 모수추정치 .....              | 163 |
| 〈표 VI-18〉 연구모형 7- 변인의 기술통계치 .....                | 165 |
| 〈표 VI-19〉 연구모형 7- 변인간 상관관계 .....                 | 166 |
| 〈표 VI-20〉 연구모형 7- 경쟁모형의 $\chi^2$ 값과 적합도 지수 ..... | 168 |
| 〈표 VI-21〉 연구모형 7- 최종모형의 모수추정치 .....              | 169 |
| 〈표 VI-22〉 연구모형 8- 변인의 기술통계치 .....                | 171 |
| 〈표 VI-23〉 연구모형 8- 변인간 상관관계 .....                 | 171 |
| 〈표 VI-24〉 연구모형 8- 경쟁모형의 $\chi^2$ 값과 적합도 지수 ..... | 173 |
| 〈표 VI-25〉 연구모형 8- 최종모형의 모수추정치 .....              | 174 |
| 〈표 VI-26〉 연구모형 9- 변인의 기술통계치 .....                | 176 |
| 〈표 VI-27〉 연구모형 9- 변인간 상관관계 .....                 | 177 |
| 〈표 VI-28〉 연구모형 9- 경쟁모형의 $\chi^2$ 값과 적합도 지수 ..... | 179 |
| 〈표 VI-29〉 연구모형 9- 최종모형의 모수추정치 .....              | 180 |

# 그림 목 차

|                                        |    |
|----------------------------------------|----|
| [그림 I-1] 연구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         | 6  |
| [그림 IV-1] 시민적 지식- 연령별 .....            | 48 |
| [그림 IV-2] 정치·사회문제 관심도- 단순빈도 .....      | 49 |
| [그림 IV-3] 정치·사회문제 관심도- 연령별 .....       | 50 |
| [그림 IV-4] 내적인 정치적 효능감- 단순빈도 .....      | 52 |
| [그림 IV-5] 내적인 정치적 효능감- 연령별 .....       | 53 |
| [그림 IV-6] 시민적 자아효능감- 단순빈도 .....        | 55 |
| [그림 IV-7] 시민적 자아효능감- 연령별 .....         | 56 |
| [그림 IV-8] 연구모형 1- 경로도 .....            | 61 |
| [그림 IV-9] 연구모형 2- 경로도 .....            | 66 |
| [그림 V-1] 민주적 가치 지지도- 단순빈도 .....        | 71 |
| [그림 V-2] 민주적 가치 지지도- 연령별 .....         | 72 |
| [그림 V-3] 시민권 유보에 대한 태도- 단순빈도 .....     | 74 |
| [그림 V-4] 민주적 가치 유보에 대한 태도- 연령별 .....   | 75 |
| [그림 V-5] 전통적 시민역할의 중요성- 단순빈도 .....     | 77 |
| [그림 V-6] 전통적 시민역할의 중요성- 연령별 .....      | 78 |
| [그림 V-7] 사회운동 관련 시민역할의 중요성- 단순빈도 ..... | 80 |
| [그림 V-8] 사회운동 관련 시민역할의 중요성- 연령별 .....  | 81 |
| [그림 V-9] 양성평등관- 단순빈도 .....             | 83 |
| [그림 V-10] 양성평등관- 연령별 .....             | 85 |
| [그림 V-11] 민족간 평등관- 단순빈도 .....          | 87 |
| [그림 V-12] 민족간 평등관- 연령별 .....           | 88 |
| [그림 V-13] 이주민 평등관- 단순빈도 .....          | 90 |
| [그림 V-14] 이주민 평등관- 연령별 .....           | 91 |
| [그림 V-15] 사회제도 신뢰도- 단순빈도 .....         | 93 |
| [그림 V-16] 사회제도 신뢰도- 연령별 .....          | 95 |

|                                       |     |
|---------------------------------------|-----|
| [그림 V-17] 자국에 대한 태도- 단순빈도 .....       | 97  |
| [그림 V-18] 자국에 대한 태도- 연령별 .....        | 98  |
| [그림 V-19] 정당 지지도- 연령별 .....           | 101 |
| [그림 V-20] 연구모형 3- 경로도 .....           | 105 |
| [그림 V-21] 연구모형 4- 경로도 .....           | 110 |
| [그림 V-22] 연구모형 5- 경로도 .....           | 115 |
| [그림 VI-1] 정치·사회문제 대화- 단순빈도 .....      | 119 |
| [그림 VI-2] 정치·사회문제 대화- 연령별 .....       | 120 |
| [그림 VI-3] 정보매체 활용도- 단순빈도 .....        | 122 |
| [그림 VI-4] 정보매체 활용도- 연령별 .....         | 123 |
| [그림 VI-5] 공동체 참여활동 경험- 단순빈도 .....     | 125 |
| [그림 VI-6] 공동체 참여활동 경험- 연령별 .....      | 127 |
| [그림 VI-7] 교내 참여활동 경험- 단순빈도 .....      | 129 |
| [그림 VI-8] 교내 참여활동 경험- 연령별 .....       | 130 |
| [그림 VI-9] 학교내 참여활동의 가치 인식- 단순빈도 ..... | 132 |
| [그림 VI-10] 교내 참여활동의 가치- 연령별 .....     | 133 |
| [그림 VI-11] 학급 토론 개방성 인식- 단순빈도 .....   | 135 |
| [그림 VI-12] 학급 토론 개방성 인식- 연령별 .....    | 136 |
| [그림 VI-13] 교내 의사결정 영향력 인식- 단순빈도 ..... | 138 |
| [그림 VI-14] 교내 의사결정 영향력 인식- 연령별 .....  | 139 |
| [그림 VI-15] 학생-교사관계 인식- 단순빈도 .....     | 141 |
| [그림 VI-16] 학생-교사 관계- 연령별 .....        | 142 |
| [그림 VI-17] 합법적 항의행동 의사- 단순빈도 .....    | 145 |
| [그림 VI-18] 합법적 항의행동 의사- 연령별 .....     | 146 |
| [그림 VI-19] 비합법적 항의행동 의사- 단순빈도 .....   | 148 |
| [그림 VI-20] 비합법적 항의행동 의사- 연령별 .....    | 149 |

|                                       |     |
|---------------------------------------|-----|
| [그림 VI-21] 투표 참여 의사- 단순빈도 .....       | 151 |
| [그림 VI-22] 투표 참여 의사- 연령별 .....        | 152 |
| [그림 VI-23] 공식적 정치활동 참여의사- 단순빈도 .....  | 154 |
| [그림 VI-24] 공식적 정치활동 의사- 연령별 .....     | 155 |
| [그림 VI-25] 비공식적 정치활동 참여의사- 단순빈도 ..... | 157 |
| [그림 VI-26] 비공식적 정치활동 의사- 연령별 .....    | 158 |
| [그림 VI-27] 연구모형 6- 경로도 .....          | 162 |
| [그림 VI-28] 연구모형 7- 경로도 .....          | 167 |
| [그림 VI-29] 연구모형 8- 경로도 .....          | 172 |
| [그림 VI-30] 연구모형 9- 경로도 .....          | 178 |

# 제 1 장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 제 1 장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사회는 해방 이후 근대화·산업화 과정을 통하여 유례 없는 압축성장을 경험하면서 괄목할 만한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 결과 90년대 후반 OECD(1996)·G20(1999) 가입과 더불어 근년의 G20 정상회의 유치(2010) 등을 통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의 측면에서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적 위상의 변화와 더불어 그에 상응하는 민주적 사회시스템의 정립과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라는 새로운 과제가 국가적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21세기 들어 한국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은 경제적·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에 따른 고용 없는 성장은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 빈곤층의 비율도 높은 수준이다. 또한 이주노동자, 국제결혼 가정, 탈북 주민의 증대와 더불어 인종적·문화적 다양성이 진전되면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여 사회통합을 통해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시민역량 증진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민주시민역량" 또는 "시민역량"을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시민사회에 소속된 성원(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자질과 능력(역량)"이라 할 수 있다. 시민사회의 원리·가치에 대한 지식과 태도, 시민공동체에 대한 유대감, 참여의지 및 행동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유사개념으로는 시민지식(civic knowledge),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핵심역량(key competence) 등이 있다.

국제비교 조사결과를 보면 한국 청소년의 시민역량은 다른나라와 차별화되는 매우 독특한 특성과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예컨대, OECD가 주관하는 국제 학업성취도 조사(Programs for International Students Assessment, 이하 PISA) 결과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들의 학습능력(소양)은 OECD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하지만, 학업에 대한 동기나 흥미, 자아효능감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한국교육과정평

가원, 2000). 국제교육성취평가협의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Achievement, 이하 IEA)의 2009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들의 시민지식(civic knowledge)은 조사대상 38개국 중 3위로 매우 높지만, 국가·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와 학교 안팎에서의 사회참여의 수준은 최하위권에 속한다(Schulz, Ainley, Fraillon, Kerr, & Losito, 2010). 공부도 잘하고 학교에 빠짐 없이 출석하지만 학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김기현, 장근영, 조광수, 박현준, 2010), 사회 현실과 구성원리에 대해서 잘 알지만 사회를 불신하고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이 대다수인 것이다. 이와 같은 한국 청소년의 "지식"과 "관심" 또는 "지식"과 "행동"의 괴리현상은 청소년을 경제·사회적 개발을 위한 가용자원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과 입시준비에 편중된 지식전달 위주의 학교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학교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지식과 이에 기초한 경쟁을 강조하는 "개인적 자본"(personal capital)의 관점에 편중되어 타인과의 관계와 협동을 중시하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중요성을 등한시해 왔다. 사회적 자본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타인과의 관계, 사회제도, 사회적 네트워크와 시스템 등 사회 전반의 기능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포괄하는 개념(장근영, 박수익, 2011b)으로서, 개인적 자본은 사회적 자본과의 결합을 통해 비로소 긍정적인 사회발전의 동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세계은행(World Bank)을 비롯한 국제기구는 개발도상국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자본의 기능과 역할에 주목하여 사회적 자본을 조성하고 강화하는 사업과 더불어 관련 지표와 방법론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장근영, 박수익, 2011b). 또한 OECD의 주요 선진국들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사회적 자본축적을 통한 사회통합이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고,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와 빈곤의 문제를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이영현, 2006).

사회적 자본은 시민역량의 핵심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시민역량은 독립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생활하고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역량으로서,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타인과 협력하고 갈등을 관리하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장근영, 박수익, 2011b).

한국사회의 아동·청소년의 시민역량을 계발하고 함양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 단계의 역량 수준을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서 진단하고 그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시민역량을 국제적으로 비교한 가장 체계적인 선행 조사연구로는 IEA의 "국제 시민성·시민교육 연구"(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이하 ICCS)를 들 수 있다. ICCS는 각국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시민역량의 개념을 체계화하고 정교한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2009년 세계 38개국의 청소년(중2)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2010년에 보고서로

발간하였다. 본원은 한국교육개발원과 더불어 조사의 공동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14년으로 예정된 제2차 조사를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3개년에 걸친 연속사업의 일환으로서 ICCS의 2009년 조사결과와 국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의 분석을 통해, 한국 청소년 시민역량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 2차년도인 올해에는 국내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결과(제1권)와 국제교육성취평가협의회(IEA)에서 세계 38개국 청소년(중2)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 국제 시민성·시민교육 연구(ICCS)의 조사결과를 분석(제2, 3권)하여 보고서로 발간하였다.

##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 1) 연구개관

본 연구는 2011년도에 시작된 3개년 연속사업의 일환으로서, 지금까지의 연구 추진경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정리하면 다음과 그림과 같다.



[그림 1-1] 연구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본 연구는 ICCS 사업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한국교육개발원과 공동 주관기관으로 참여한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두 기관은 2009년에 실시된 ICCS 제1차 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2013년까지 매년 영역별로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고, 이를 토대로 2014년 제2차 조사에 활용될 국제조사

문항(International module)과 아시아국가 조사문항(Asian module)의 시안을 개발할 계획이다.

연구는 ICCS의 조사영역 체계와 분석틀을 기본준거로 하여, ① 한국 청소년의 시민역량에 대한 실태조사 분석과 ② 2009년 제1차 국제비교 조사결과에 대한 영역별 분석의 두 갈래로 진행된다. 2011년의 제1차년도 연구에서는 국내 실태조사로서 전국의 초(5~6학년)·중·고교생을 대상으로 ICCS의 조사영역 중 정의·행동영역(affective-behavioral domain)을 조사하였고(장근영, 박수억, 2011a), 국제비교로는 ICCS의 각국 중학교 교장·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환경 데이터를 분석하여 보고서(김태준, 이영민, 2011)로 발간하였다.

올해에도 작년에 이어서 국내 청소년 대상 실태조사와 국제비교 데이터 분석(제1권)을 진행하였다. 국내 실태조사는 전년도에 누락되었던 인지영역(cognitive domain) 문항을 포함하여 시민적 지식과 관련 변인들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ICCS의 인지영역 문항 조사를 위해서는 정의·행동영역 조사와는 별도로 45분 정도가 더 소요되기 때문에 조사시간의 단축을 위하여 간이척도를 개발하여 조사에 활용하였다. 조사대상은 전년도와는 달리 중·고교생에 한정하였는데, 이는 ICCS의 인지영역 조사문항이 중학생(2학년)을 대상으로 개발된 것으로서 초등학교생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국제비교 분석은 1차년도에 이어서 ICCS 2009년 조사데이터를 활용하여 영역별 세부주제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올해에는 청소년 시민역량의 영향요인을 주제로 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 미디어 이용과 가족내 자본(제2권)을,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분야의 영향요인(제3권)을 다루었다. 국제비교 분석은 각각 주제와 관련된 정의·행동영역 문항과 인지영역 문항이 분석대상이 되며, 제3권에서는 ICCS의 일환으로 아시아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아시안 모듈의 문항도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연구가 종료되는 2013년에는 그동안 조사에서 누락된 문항과 아시안 모듈을 중심으로 국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영역별 국제비교 분석보고서를 발간함과 아울러, 그동안의 연구과정에서 나타난 조사도구 및 조사체계상의 문제점 등을 정리하여 IEA에 제안함으로써 2014년 제2차 ICCS 조사를 위한 준비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표 I-1 2012년 보고서의 구성

| 보고서명 | 제1권 : 2012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 제2권 : 민주시민역량<br>영향요인 분석 1 : 미디어<br>이용과 가족내 사회자본을<br>중심으로 | 제3권 : 민주시민역량<br>영향요인 분석 2 : 교육분야<br>민주시민역량 요인과 관계성<br>분석 |
|------|-------------------------------|----------------------------------------------------------|----------------------------------------------------------|
| 조사명  | 2012 민주시민역량<br>실태조사           | ICCS 2009년 조사                                            |                                                          |
| 조사대상 | 한국 중·고교생<br>(1~3학년)<br>6,000명 | 38개국 중학생<br>(2학년)<br>140,000명                            |                                                          |
| 분석대상 | 인지영역 문항<br>정의·행동영역 문항         | 인지영역 문항<br>정의·행동영역 문항                                    | 인지영역 문항<br>정의·행동영역 문항<br>아시안 모듈 문항                       |
| 연구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한국교육개발원                                                  |

## 2) 연구내용: 2012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이 보고서(제1권)에서 다루게 될 "2012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의 연구내용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조사)의 영역과 내용은 ICCS 2009년 조사의 분석틀(assessment framework)을 기본으로 하여 부분적인 수정·보완을 거쳐 구성하였다<sup>1)</sup>. 먼저 연구의 영역은 크게 인지영역(cognitive domain)과 정의·행동영역(affective-behavioral domain)으로 대별된다.

인지영역은 시민사회와 관련한 청소년들의 사고과정과 이해수준을 측정하는 영역으로서 지식(knowing), 추론과 분석(reasoning and analyzing)의 두가지 범주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인지영역에서 다루게 될 연구의 대상을 시민적 지식의 개념으로 통칭하기로 한다.

1) ICCS의 조사문항은 개별 문항들이 반드시 하나의 영역에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두가지 이상의 영역을 측정하는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도 있다. 2011년 1차년도 연구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영역분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는데(장근영, 박수역, 2011b), 이를 참고하여 문항의 영역을 옮기거나 세부분류를 설정하는 등의 보완작업을 진행하였다.

표 1-2 연구의 영역과 대상

| 연구영역    |      | 연구대상     |
|---------|------|----------|
| 인지영역    |      | 시민적 지식   |
| 정의·행동영역 | 가치신념 | 시민적 자아인식 |
|         |      | 시민적 가치인식 |
|         |      | 사회적 평등관  |
|         |      | 시민적 태도   |
|         | 행동   | 시민적 참여행동 |
|         |      | 참여행동의 여건 |
|         | 행동의사 | 향의행동 의사  |
|         |      | 정치참여 의사  |

정의·행동영역은 다시 네가지의 하위영역으로 범주화된다. 가치신념(value beliefs) 영역에서는 시민적 자아인식과 시민적 가치인식, 사회적 평등관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시민적 자아인식에서는 정치·사회문제 관심도와 내적인 정치적 효능감, 시민적 자아효능감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고, 시민적 가치인식에서는 민주적 가치 지지도, 시민적 기본권 유보에 대한 태도, 전통적 시민역할의 중요성 인식, 사회운동 관련 시민역할의 중요성 인식을, 사회평등의식에서는 양성 평등관, 민족간 평등관, 이주민 평등관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태도(attitudes)는 사물, 제도 등에 대한 개인의 생각·느낌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시민적 태도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이에 해당되는 사회제도에 대한 신뢰도, 자국에 대한 태도, 정당 지지도를 분석하였다.

행동(behavior)의 영역은 시민적 참여행동과 참여행동 여건의 두가지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실제적인 참여를 의미하는 시민적 참여행동에서는 정치·사회문제 대화, 정보매체 활용도, 공동체 참여활동 경험과 학교내 참여활동 경험을 분석하였고, 참여행동의 여건에서는 교내 참여활동의 가치인식, 학급의 토론 개방성 인식, 교내 의사결정 영향력 인식, 학교-교사관계 인식을 다루었다.

행동의사(behavioral intention)는 현재 청소년이라는 신분상 제약으로 할 수 없지만 가까운 장래에 또는 성인이 되어 할 수 있는 시민적 행동에 대한 의사로서, 합법적 향의행동 참여의사, 비합법적 향의행동 참여의사, 투표 참여의사, 공식적/비공식적 정치활동 참여의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 3) 연구방법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와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문헌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시민역량과 관련된 선행이론과 조사·연구를 분석하여 연구의 방향설정과 조사데이터 분석의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특히 ICCS와 관련된 연구·분석 자료의 검토를 통해 본 연구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2012년 조사 시점 현재 전국 16개 시·도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청소년을 모집단으로 하였다. 목표표본을 6,000명으로 설정하고 2011년 교육통계연보를 표집틀로 하여 층화집락표집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2012년 6월에서 7월까지 두 달간 전문조사업체에 위탁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훈련된 조사원이 학교를 방문하여 구조화된 조사표에 의거한 학급단위 집단조사의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전국의 181개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자료선별 과정을 거쳐 최종 분석의 대상이 된 표본은 5,568명이었다.

이밖에 연구주제와 관련한 학계인사, 관계 전문가·실무자가 참여하는 자문회의와 관련부처 담당자들과의 정책협의를 통해 연구방향 설정 및 정책대안 도출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에 반영하였다.

## 제 2 장

---

# 이론적 배경

1. 선행조사 검토
2. 연구의 분석틀



## 제 2 장 이론적 배경

### 1. 선행조사 검토

청소년의 시민역량과 관련한 국제비교 연구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OECD의 국제 학생평가 프로그램(PISA)와 핵심역량 정의 및 선별 프로젝트(DeSeCo), IEA의 시민교육 연구(CIVED)와 본 연구에 활용된 국제 시민성·시민교육 연구(ICCS)를 들 수 있다. 이중 주로 지적 능력을 평가하는 PISA를 제외한 DeSeCo 프로젝트와 CIVED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CCS의 주요내용은 제2절에서 다루었다.

#### 1) 핵심역량 정의 및 선별 프로젝트(DeSeCo)

1997년 OECD 국가들은 청소년들의 장래 사회참여를 위해 필수적인 지식과 기능의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국제 학생평가 프로그램(the Programme for International Assessment; PISA)을 시작하였다. PISA는 독해력, 수학, 과학 및 문제해결 능력의 4가지 영역에 걸쳐 각국 청소년들의 성취도를 평가하였는데, 사회에서의 성공은 이와 같은 지적 능력 이외에 보다 근본적인 수준의 역량과 관련이 있다는 인식에 따라 "핵심역량 정의 및 선별"(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이하 DeSeCo) 프로젝트가 별도로 진행되었다(Rychen, D. S., & Salganik, L. H., 2000). DeSeCo 프로젝트는 세계 12개국(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미국 등) 연구진의 참여하에 2003년까지 추진되었다.

DeSeCo 프로젝트에서 정의하고 있는 핵심역량은 성공적인 삶과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내재적 속성과 능력을 의미한다(Rychen & Salganik, 2003; 김기현 외, 2010에서 재인용). 개인적 수준에서 일차적인 욕구 충족, 타인과의 관계 형성, 성취와 만족,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 고용, 정치참여, 정보에 대한 접근 등을 가능케 하며, 사회적 수준에서는 평화와 안녕, 경제적 성취와 부, 사회적

통합, 평등, 인권권리, 환경보존을 가능케 하는 생활의 모든 차원에서 중요시되는 능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김기현 외, 2010).

핵심역량에 대한 DeSeCo 프로젝트의 개념적 틀은 다음 세가지 범주로 유형화된다. 첫째, "도구를 상호적으로 사용하기"(using tools interactively)이다. 세계화·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컴퓨터와 같은 물리적 도구뿐만 아니라 언어, 정보와 같은 지식을 얻고 활용하기 위한 사회·문화적 도구의 상호적 사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도구를 상호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도구의 사용방법 습득에 머물지 않고 도구를 통해 지식과 기술을 만들어내고 가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상호적 사용은 도구가 개인이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도구 그 자체에 대한 친밀감을 요구한다. 이런 의미에서 도구는 수동적인 매개체에 머물지 않고 개인과 그를 둘러싼 환경간의 대화를 가능케 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Rychen, D. S., & Salganik, L. H., 2000).

둘째, 이질적인 집단과 상호작용하기(interacting in heterogeneous groups)이다. 인간은 생애를 통하여 사회적 정체성의 획득과 물질적, 심리적 생존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유대관계에 의존하게 된다. 사회의 다양화, 분절화가 진전됨에 따라 새로운 유대·협력관계의 형성이 불가피해지면서,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한 사회적 자본 구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고 그로부터 이득을 얻는 능력은 미래사회의 잠재적 불평등의 원천이 될 것이다. 이 영역에서의 핵심역량은 타인들과 함께 학습하고 생활하며 일할 수 있는 개인들의 능력으로서 "사회적 역량" "사회적 기술" "문화적 역량"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Rychen, D. S., & Salganik, L. H., 2000).

셋째, "자율적으로 행동하기"(acting autonomously)이다. 개인이 사회발전에 효율적으로 기여하고 직장, 가정, 사회생활에서 부여된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자율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의 행동을 의미하지 않는다. 반대로 이것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자신의 역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생활과 작업(노동)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함으로써 인생을 의미있고 책임감있게 영위하는 능력과 관련되어 있다.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전통사회와는 달리 개인들의 사회적 위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현대사회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Rychen, D. S., & Salganik, L. H., 2000).

DeSeCo 프로젝트에서 규정한 세가지 영역의 핵심역량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 핵심역량                                                 | 정의                                                                                                                                                 |
|------------------------------------------------------|----------------------------------------------------------------------------------------------------------------------------------------------------|
| 도구를 상호적으로 사용하기<br>(Use tools interactively)          | 언어, 상징, 문자, 지식과 정보, 기술을 상호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개인이 세상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개인의 목적에 맞게 변화를 유도하고, 기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도구로서 언어, 상징, 문자, 지식과 정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         |
| 이질적 집단과 상호작용하기<br>(Interact in heterogeneous groups) | 다원화된 사회에서 타인과 공감하며 연대하고 살아가기 위하여 타인과 관계를 원만하게 맺고, 협력하여 일할 수 있으며,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것을 의미                                                               |
| 자율적으로 행동하기<br>(Act autonomously)                     | 다원화되고 변화가 급격한 사회에서 개인은 스스로 정체감을 확립하고 목표를 수립하며,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해 보다 큰 맥락에서 행동하며, 생애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며, 권리와 이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 |

자료: 김기현 외(2010), p. 25

## 2) CIVED

1999년에 실시된 IEA의 "시민교육 연구"(Civic Education Study; 이하 CIVED)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청소년들이 어떤 방식으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국제비교를 통하여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는 일차적으로 학교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공식적인 교과과정뿐만 아니라 학급에서의 토론 기회, 학교내 활동 참여 등과 같은 주제들도 포함하고 있으며, 이밖에 학교밖 영역, 특히 지역사회 내에서의 청소년들의 시민적 참여 기회도 연구에 대상으로 하고 있다(Torney-Purta, Lehmann, Oswald, & Schulz, 2001, p.13).

CIVED 연구가 시작된 배경은 당시 국제사회의 정치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1980년대 후반부터 정치체제의 민주적 개혁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권위주의적 정권이 붕괴된 이후 민주적 정치체제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을 어떻게 새로운 질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가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부각되었다. 또한 전통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청소년들의 투표율 저하, 정치적 참여 감소 등의 문제에 직면하여 지금까지의 시민교육 방식으로는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기존 시민교육의 문제와 한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기초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청소년들의 시민역량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비교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다(Torney-Purta et al., 2001, p. 12)

CIVED의 연구모형은 현대 심리학의 두가지 이론 - 생태체계학적 발달이론(Bronfenbrenner, 1988)과 상황인지이론(Lave & Wenger, 1991; Wenger, 1998) - 에 기초하여, 개인은 그 자신을 둘러싼 사회집단·기관과 제도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사회적 담론(discourse)과 실행(practices)은 가족(부모, 친척과 때로는 확대가족), 학교(교사, 교과과정과 참여 기회), 또래집단(학교 안팎)과 이웃들(학교밖의 청소년관련 조직 포함)과의 접촉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들 대면적 관계에 있는 집단과 기관들 외에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보다 거시적인 사회적 범주가 존재하는데, 여기에는 정치, 경제, 교육, 종교 등 영역의 사회적 제도와 사회과정, 국가의 국제적 위치, 사회의 계층체계 등이 포함된다(Torney-Purta, et al., 2001, pp. 20-21).

연구에 참여한 국가는 모두 28개국으로서, 각국 연구진들은 민주주의와 시민성(citizenship)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시민교육이 핵심적인 영역과 주제를 설정([표 II-2])하였고, 이를 토대로 1999년에 각국 청소년(중학교 2~3학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뒤 2001년에 조사결과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표 II-2 시민교육의 핵심영역과 주제(CIVED)

| 영역                  | 주제                                                                                                      | 하위영역                                                          |
|---------------------|---------------------------------------------------------------------------------------------------------|---------------------------------------------------------------|
| 민주주의                | 민주주의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며, 어떤 제도 및 사회적 실행(practices)과 관련되어 있는가                                                 | 민주주의와 그 정의적 특성<br>민주주의의 사회제도와 실행<br>시민성(citizenship) - 권리와 의무 |
| 국민적 정체성, 지역간·국가간 관계 | 청소년들의 국민적 정체성(또는 국가에 충성심)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또한 청소년들의 국민적 정체성은 다른 나라 및 지역적/국제적 조직에 대한 그들의 관점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 국민적 정체성<br>국가간/지역간 관계                                         |
| 사회통합과 다양성           | 청소년들에게 사회통합과 다양성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그들은 차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 -                                                             |

자료: Torney-Purta, et al.(2001), p. 29의 내용을 재구성함

CIVED의 연구결과는 시민교육을 위한 교과과정 개발과 교사 양성에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시민교육에 있어 교사의 역할은 청소년에게 권리와 의무를 가르치는 것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또래집단의 중요성과 청소년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 내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김태준, 이영민, 2011).

## 2. 연구의 분석틀

2009년 IEA는 CIVED의 연구내용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국제 시민성·시민교육 연구"(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이하 ICCS)를 실시하였다. IEA가 시민교육에 관한 새로운 연구에 착수하게 된 것은 변화된 사회적 상황과 관련이 있다. CIVED는 1980년대 후반 및 1990년대의 정치적 변화가 그 계기가 되었지만, 그 이후 국제사회는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테러리즘의 확산 등에 따른 시민사회에 대한 외적 위협의 증대, 대륙간/국가간 이민과 이주의 증가, 비정부 기구조직의 증가 및 영향력 확산 등을 들 수 있다(Schulz et al., 2010, p. 22).

이와 같은 정치·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시민·시민성 개념의 한계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ICCS는 1999년 CIVED 이후의 환경 변화와 이에 대한 학술적 논의를 바탕으로 각국 연구진의 협의를 통해 조사영역과 내용 및 조사문항을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2009년에 한국을 포함한 세계 38개국의 중학교 2학년생(8학년) 약 14만명을 대상으로 제1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ICCS의 분석틀에 의거하여 국내 청소년(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제1권)와 2009년 ICCS 제1차 조사결과에 대한 심층분석(제2, 3권)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기본준거가 되는 ICCS 분석틀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조사의 영역과 구조

ICCS 연구의 분석틀(assessment framework)은 다음 세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Schulz, et al., 2010)

첫째는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주제들과 관련된 내용영역(content domain)으로서, 시민사회와 시스템(civic society and system), 시민사회 원리(civic principles), 시민참여(civic participation), 시민 정체성(civic identities)의 네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는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태도와 행동에 관한 정의-행동영역(affective-behavioral domain)으로서 가치 신념(value beliefs), 태도(attitudes), 행동의도(behavioral intentions), 행동(behaviors)의 네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마지막으로 인지영역(cognitive domain)은 시민사회와 관련한 사고과정 및 이해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영역으로서 지식(knowing), 추론과 분석(reasoning and analyzing)의 두가지 범주를 포괄하고 있다.

표 II-3 ICCS의 분석틀

| 구 분     |        | 내용영역                                     |                          |                              |                                      |
|---------|--------|------------------------------------------|--------------------------|------------------------------|--------------------------------------|
|         |        | 시민사회와 시스템                                | 시민사회 원리                  | 시민참여                         | 시민 정체성                               |
| 인지 영역   | 지식     | 시민의 역할<br>시민의 권리<br>시민의 책임<br>시민의 기회와 능력 | 평등<br>자유<br>사회통합         | 의사결정<br>영향력 행사<br>공동체 참여     | 시민의 자아상<br>시민 유대감                    |
|         | 추론과 분석 |                                          |                          |                              |                                      |
| 정의·행동영역 |        | 가치/신념                                    | 태도                       | 행동의도                         | 행동                                   |
|         |        | 민주주의적<br>가치/신념<br>시민적 가치/신념              | 자신, 타인, 기관,<br>정책에 대한 태도 | 투표참여 의사<br>의견표현 의사<br>정치적 항의 | 학생활동 참여<br>지역공동체 활동 참여<br>교내 시민활동 참여 |

자료 : Schulz, et al. (2010), p.26

내용영역을 구성하는 네가지 범주는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Schulz, Ainley, & Fraillon, 2011, p. 14).

- 하위영역(sub-domain) : 내용영역의 실질적 혹은 맥락적 요소. 만일 어떤 영역이 독자적으로 정의하고 표현하기에 충분한 독특한 내용을 갖추고 있다면 하나의 하위영역이 될 수 있다. 한편 각 영역 안에 있는 하위영역들간에는 내용상 중복이 있을 수 있다
- 요소(aspect) : 어떤 하위영역 내에 널리 분포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특정한 내용을 의미한다.
- 핵심개념(key concept) : 어떤 내용영역 안의 하위영역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개념과 과정을 의미한다.

ICCS 분석틀에서 널리 사용되는 핵심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chulz, et al., 2011, p. 15).

- 지역사회 공동체(community) : 역사, 가치, 목표 등을 공유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집단. 분석틀에서 공동체 구성원의 자격요건은 공동체의 기능과 관련하여 외적으로 규정된

준거에 기초한 구성원의 자격요건(예: 학생으로서 학교에 출석하는 것)과 개인 자신의 신념에 기초하여 규정된 자격요건(예: 정치적 이슈와 관련하여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의 동일시를 통한 구성원 자격)을 포괄한다.

- 사회(society) : 지리적 경계를 가지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공통의 문화(다양한 민족 혹은 다른 공동체들을 포함)와 상대적으로 자율적, 독립적, 자기 충족적인 삶의 방식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 시민성(citizenship) : 법적인 시민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태 또는 공동체 안에서의 개인의 참여 또는 참여의 결여 상태를 의미한다. "시민성"이라는 표현은 "능동적(적극적) 시민성"이라는 표현과 달리 특정 수준한 참여의 정도를 가정하지 않는다.
- 시민사회(civil) :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연결의 폭이 확대가족보다는 크지만 국가 수준에는 못미치는 사회의 영역을 의미한다.
- 시민공동체(civic) :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연결의 폭이 확대가족보다 큰 범위의 공동체(국가도 포함).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의사결정, 참여, 통치, 입법적 통제의 원리와 메커니즘, 과정들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 2) 내용영역

### • 내용영역 1 : 시민사회와 시스템<sup>2)</sup>

시민사회와 시스템은 시민들이 사회와 맺고 있는 시민 계약과 사회 자체가 수행하는 기능을 뒷받침하는 형식적·비형식적 메커니즘과 조직들을 포함한다. 시민사회와 시스템의 하위영역은 다음의 세가지이다.

시민 : 시민 개념은 개인과 시민집단, 사회공동체간에 이루어지는 시민적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하위영역의 요소들은 다음에 대한 지식·이해와 관련되어 있다.

- 시민사회에서 시민/집단에 부여된 또는 부여되어야 할 역할
- 시민사회에서 시민/집단에 부여된 또는 부여되어야 할 권리
- 시민사회에서 시민/집단에 부여된 또는 부여되어야 할 책임
-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민·집단의 기회구조와 능력

국가기구 : 국가기구는 국민 공통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통치·입법의 과정과 수행을 담당하는

2) Schulz, W., Fraillon, J., Ainley, J., Losito, B., & Kerr, D.,(2008)의 pp. 16-18을 요약 정리한 것임

핵심적인 기구들이다. 국가기구 하위영역의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 입법기관, (중앙/지방)정부, 초국가적/정부간 행정 주체, 사법기관, 법집행 기관, 군대, 관료기구(민간/공공 서비스), 선거관리기구

시민기구 : 시민들이 국가기구와 접촉할 수 있도록 중재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사회에서 그들이 맡은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이다. 시민기구 하위영역의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 종교기관, 회사/법인, 노동조합, 정당, 비정부 기구(NGOs), 압력단체, 대중매체, 학교, 문화적/특수이해 집단

#### ● 내용영역 2 : 시민사회 원리<sup>3)</sup>

시민사회 원리는 시민사회가 공유하는 윤리적 기반을 의미한다. ICCS의 분석틀은 시민사회 원리에 대한 지지 또는 보호와 증진을 시민의 책임으로 간주한다. 개인과 집단의 시민참여 동기를 부여하는 동인으로 시민사회 원리의 하위영역은 다음과 같다.

평등 :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와 존엄성을 지니고 태어났다는 개념에 기초한다. 모든 사람이 공평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원리로서, 이러한 평등의 보호와 증진은 사회 공동체 안에서 평화, 조화, 생산력을 증진시키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자유 : 자유는 UN 세계인권선언(1948)에 구체화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신념의 자유, 언론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가진다는 개념에 기초한다. 사회는 그 구성원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모든 공동체의 자유의 보호를 지원할 책임이 있다.

사회통합 : 민주적 사회에서 개인들과 공동체들 사이에 존재하는 소속감, 연대감, 공동의 비전을 의미한다. 사회통합이 강할 경우 한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과 공동체의 다양성이 적극적으로 용인되고 장려된다. 사회통합의 수준은 사회마다 다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통합과 다양성과 관련하여 의견과 행동의 긴장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으며, 이와 같은 긴장의 해소는 많은 사회에서 지속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 ● 내용영역 3 : 시민참여<sup>4)</sup>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성원들의 활동을 의미한다. 시민참여는 어떤 수준의 공동체에서도, 그리고 어떤 공동체적 맥락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참여의 수준은 단순히 인식하는 단계에서부터

3) Schulz, et al.(2008) p. 19를 요약 정리한 것임

4) Schulz, et al.(2008)의 pp. 20-21을 요약 정리한 것임

영향을 미치기 위해 참여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시민참여의 세 가지 하위영역은 다음과 같다.

**의사결정** : 의사결정은 개인이 속한 공동체나 공동체 안에 속한 집단에 관한 정책의 실행으로 연결되는 적극적 참여를 의미한다. 이 하위영역의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 행정조직 참여, 투표

**영향력 행사** : 영향력 행사는 개인이 속한 공동체에서 정책이나 실행, 다른 사람이나 집단의 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 하위영역의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 공공 토론에 참여하기, 공중의 지지 혹은 반대 시위에 참여, 정책 개발에 참여하기, 행동을 제안하거나 지지하기, 생산방식에 대한 윤리적 신념에 따라 선택적으로 상품구매(윤리적 소비/윤리적 소비자)하기.

**공동체 참여** : 공동체 참여는 공동체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공동체의 궁극적 이익을 도모하는데 주요한 초점을 둔 참여를 의미한다. 이 하위영역의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 자원 활동하기, 종교, 문화, 운동 조직에 참여하기, 지속적인 정보 얻기, 과거 행동에 대해 성찰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기

#### • 내용영역 4 : 시민 정체성<sup>5)</sup>

시민 정체성은 개인의 시민으로서 역할과 그 역할에 대한 지각을 말한다. 개인은 그들이 가족, 동료와 공동체 및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규모의 집단과 맺는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준다. 시민 정체성의 영역은 다음의 두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시민의 자아상** : 자신이 시민 공동체에서 가지는 위치에 대한 느낌과 신념을 의미한다. 시민의 자아상은 개인이 개발하거나 습득한 시민성을 포함한다.

**시민적 유대감** : 시민적 유대감은 개인들이 서로 다른 시민 공동체에 연결되어 있고 각각의 공동체에서 서로 다른 시민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자각을 의미한다.

5) Schulz, et al.(2008)의 pp. 21-22를 요약 정리한 것임

## 2) 정의·행동영역

### • 정의·행동 영역 1 : 가치 신념<sup>6)</sup>

가치 신념은 개념, 제도, 사람, 이념 등의 가치에 관한 신념으로 정의될 수 있다. 가치 신념은 보다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신념의 반영이라는 점에서 태도와 구분된다. 가치 신념은 개인이 갈등을 해결하도록 돕고 자신과 타인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태도를 형성해준다. 가치 체계는 개인들이 받아들이는 가치 신념의 집합이고, 그리고 이 체계는 다시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조사에서 측정할 가치 신념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청소년들의 신념 : 자유, 평등과 같은 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한 청소년들의 신념을 나타내며 내용영역 2(시민사회 원리)에 주로 관련된다.
- 시민 가치에 대한 청소년들의 신념 : 이것은 "좋은 시민"(good citizen)에 관한 청소년들의 믿음을 나타내며, 내용영역 1(시민사회와 시스템)과 주로 관련된다.

### • 정의·행동 영역 2 : 태도<sup>7)</sup>

태도는 아이디어, 사람들, 사물, 사건, 상황 또는 관계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의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가치 신념과는 대조적으로 태도는 그 특성상 더 좁은 범위에 있고 시간이 흐르면서 변할 수 있으며 가치 신념만큼 뿌리 깊지는 않다. 또한 개인들이 동시에 자기 모순적인 태도를 숨기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다음과 같은 유형의 태도가 시민·시민성 영역과 관련되어 있다.

자기자신에 대한 태도 : 청소년들의 신념을 구성하는 다음 내용들이 시민·시민성 영역과 관련되어 있다.

- 정치에 대한 관심 : 정치에 관한 청소년들의 동기화 수준을 반영하며, 내용영역 4(시민 정체성)와 관련되어 있다.
- 정치적 내적 효능감 : 정치참여와 관련한 청소년들의 자아개념을 반영하며, 내용영역 3(시민 참여)과 관련되어 있다.
- 시민적 자기 효능감 : 적극적 시민행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자기확신을 반영하며, 주로 내용영역 3(시민 참여)과 관련되어 있다.
-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점에 대한 지각 : 사회성원으로서의 자신의 특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6) Schulz, et al.(2008)의 pp. 22-23을 요약 정리한 것임

7) Schulz, et al.(2008)의 pp. 23-25를 요약 정리한 것임

자아인식을 반영하며, 주로 내용영역 4(시민정체성)에 관련되어 있다.

- 정체성의 소재(locus of identity) : 다양한 수준의 공동체에 대한 청소년들의 소속감을 반영하며 내용영역 4(시민 정체성)에 관련되어 있다.

타인에 대한 태도 : 다음 내용들이 타인(사회집단, 소수집단, 동료시민)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를 구성하며, 시민·시민성 영역과 관련되어 있다.

- 여성 권익에 대한 태도 : 사회 안에서 여성들의 권리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을 반영하며, 내용영역 2(시민공동체 원리)와 관련되어 있다.
-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태도 :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을 반영하며, 주로 내용영역 2(시민사회 원리)와 관련되어 있다.
- 이민자의 권리에 대한 태도 : 이민자의 권리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을 반영하며, 내용영역 2(시민사회 원리)와 관련되어 있다.
- 타인과의 상호작용(상호의존성)에 대한 태도 : 타인과 상호작용에 대한 청소년들의 성향을 반영하며, 주로 내용영역 4(시민 정체성)와 관련되어 있다.

제도에 대한 태도 : 다음 내용들이 제도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를 구성하며, 시민·시민 교육의 측면에서 중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 정치적 외적 효능감 : 정치체계에 대한 시민들의 영향력과 시민요구에 대한 정치체계의 대응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을 반영한다. 내용영역 1(시민사회와 시스템)과 관련되어 있으나 일부 조사항목은 내용영역 3(시민참여)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 제도에 대한 믿음 : 사회 내의 다양한 국가적·시민적 제도에 대한 신뢰감을 반영하며, 내용영역 1(시민사회와 시스템)과 관련되어 있다.
- 국가에 대한 태도 : 추상적인 국가 개념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를 반영하며, 주로 내용영역 4(시민 정체성)와 관련되어 있다.
- 국가의 성취에 대한 자부심 : 국가의 특정 측면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민주주의, 경제,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자부심)를 반영하며 주로 내용영역 4(시민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다.

특정 정책과 실행에 대한 태도 : 다음 내용들이 특정한 정책과 그 실행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를 구성하며, 시민교육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 학교에서의 참여에 대한 확신감 :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유용한가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을 반영하며, 내용영역 3(시민참여)과 관련되어 있다.

-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태도 : 자원봉사활동의 유용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을 반영하며, 내용영역 3(시민참여)과 관련되어 있다.
- 시민참여의 효과에 대한 믿음 : 특정한 시민참여 활동의 효과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을 반영하며, 내용영역 3(시민 참여)과 관련되어 있다
-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태도 : 민주주의 사회를 위협하는 집단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을 반영하며, 주로 내용영역 2(시민사회 원리)와 관련되어 있다.

#### • 정의·행동 영역 3 : 행동 의사<sup>8)</sup>

행동 의사(behavioral intentions)는 실제 행동이 아닌, 미래의 행위에 대한 청소년들의 기대를 말하며 가까운 미래에 또는 성인으로서 하게 될 시민 행동에 대한 의도를 청소년들에게 묻는 항목들이다. 모두 내용영역 3(시민 참여)과 관련된다.

다음 내용들이 시민·시민성 영역과 관련하여 주된 관심사가 되는 행동의사들이다.

- 시민 항의행동 참여의사 : 장래의 시민 항의활동 참여(청원 서명, 항의행진/도로점거 참여 등)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을 반영한다.
- 장래의 참여에 대한 행동의사 : 장래의 시민행동 참여(자원봉사활동, 여론 조성, 신문 기고 등)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을 반영한다.
- 성인으로서의 참여에 대한 행동의사 : 성인이 되어 정치활동에 참여(선거 투표 참여, 캠페인 활동, 정당 가입, 선거 출마 등)하는 것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을 반영하며, 주로 내용영역 3(시민참여)와 관련되어 있다.

#### • 정의·행동 영역 4 : 행동

대부분의 시민행동은 청소년들에게 제한되어 있으나 일부 행동은 허용되기도 한다. 청소년들에게 허용되고 있는 행동들에 대한 조사를 위해 다음 항목들을 포함하였다.

- 학생 활동의 빈도 : 미디어 이용, 대인 커뮤니케이션, 스포츠/음악/지역 모임 참여 등. 이중 미디어, 토론, 참여는 주로 내용영역 3(시민참여)와 관련되어 있다.
- 지역사회내 시민 관련 활동 참여 : 인권운동 그룹, 종교 모임, 청소년단체 참여 등. 시민 관련

8) Schulz, et al.(2008)의 pp. 25-26을 요약 정리한 것임

활동, 지역사회 배경 등의 측면은 주로 내용영역 3(시민참여)와 관련되어 있다.

- 학교 내 시민 관련 활동 참여 : 학교 내에서의 시민 관련 활동 참여에 대한 학생들의 보고로 구성(학생회, 학교신문반, 학생토론 등)되며, 주로 내용영역 3과 관련되어 있다.

### 3) 인지영역<sup>9)</sup>

ICCS 인지영역 조사문항에 정확하게 응답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은 시민사회 영역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시민 관련 지식에 복잡한 인지과정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지식과 이해한 내용을 현실세계의 시민행동과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

#### • 인지영역 1: 지식

지식은 청소년들이 그들이 속한 시민사회에서 복잡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사용하는 시민·시민성 관련 정보를 의미한다. 인지영역 검사에서 청소년들은 시민사회의 개념과 내용에 대한 정의, 기술, 주요 속성을 기억하여 인식하거나 예증하게 될 것이다.

#### • 인지영역 2: 추론과 분석

청소년들이 포괄적인 수준의 결론을 내리기 위해 시민사회 관련 정보를 사용하는 방식과 관련된 개념이다. 지식(knowing)이 청소년들의 시민 관련 정보 능력에 관한 것인 반면, 추론과 분석(reasoning and analyzing)은 시민행동에 영향을 주는 복합적인 요인들의 이해와 함께 전략적인 해법과 결과의 계획 및 평가과정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수준의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청소년들에게 요구되는 인지능력이다.

9) Schulz, et al.(2008)의 pp. 27-29를 요약 정리한 것임.

## 제 3 장

---

# 조사의 개요

1. 조사개요
2. 조사내용과 도구
3. 분석방법



## 제 3 장 조사의 개요

### 1. 조사 개요

#### 1) 표집설계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2012년 조사 시점 현재 전국 16개 시·도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청소년들이다. 표본은 6,000명을 목표표본으로 설정한 뒤 2011년 교육통계연보를 표집틀로 하여 층화집락표집 방식으로 추출하였다. 표본의 하위집단별 모집단과 목표표본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III-1 모집단 구성 및 목표표본

| 구분   |          | 모집단       |         | 목표표본                 |                  |
|------|----------|-----------|---------|----------------------|------------------|
| 중학교  |          | 1학년       | 611,819 | 1,898,669<br>(49.5%) | 2,972<br>(49.5%) |
|      |          | 2학년       | 639,553 |                      |                  |
|      |          | 3학년       | 647,297 |                      |                  |
| 고등학교 | 일반계 고등학교 | 1학년       | 505,770 | 1,486,941<br>(38.8%) | 2,328<br>(38.8%) |
|      |          | 2학년       | 493,174 |                      |                  |
|      |          | 3학년       | 487,997 |                      |                  |
|      | 전문계 고등학교 | 1학년       | 154,512 | 447,070<br>(11.7%)   | 700<br>(11.7%)   |
|      |          | 2학년       | 145,860 |                      |                  |
|      |          | 3학년       | 146,698 |                      |                  |
| 계    |          | 3,832,680 |         | 6,000                |                  |

지역(16개 시·도)과 교급<sup>10)</sup>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을 기준으로 모집단을

층화한 뒤 층화단위(16 x 3 = 64)별로 모집단 인구비례에 의거하여 표집인원을 배정하였다.<sup>11)</sup>

학급당 예상 조사인원(중학교·일반고 30명, 전문고 25명)에 따라 표집단위별 조사 학교수를 결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전국 학교명부에 의거하여 난수를 활용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조사대상 학교를 2~3배수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 학교에 대한 사전 섭외과정에서 학년별 학급수가 3개 미만인 경우, 또한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이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학교로 대체하였다. 최종 조사대상으로 결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한 학교당 1개 학년, 1개 학급 조사를 원칙으로 하여 무작위로 조사대상 학급을 결정하였는데, 이 경우 우열반, 특수반 등 특별편성되어 있는 학급은 제외하였다. 이와 같은 표집과정을 통해 조사를 완료한 학교는 181개교이며, 조사인원은 5,568명(최종 분석대상)이었다.

표 III-2 지역·교급·학년별 조사학교

| 구 분 | 계   | 중학교 |     |     | 일반계고등학교 |     |     | 전문계고등학교 |     |     |
|-----|-----|-----|-----|-----|---------|-----|-----|---------|-----|-----|
|     |     | 1학년 | 2학년 | 3학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 계   | 181 | 31  | 31  | 31  | 21      | 22  | 21  | 8       | 8   | 8   |
| 서울  | 30  | 5   | 5   | 5   | 4       | 4   | 4   | 1       | 1   | 1   |
| 광역시 | 부산  | 12  | 2   | 2   | 1       | 1   | 2   | 0       | 1   | 1   |
|     | 대구  | 9   | 1   | 1   | 1       | 1   | 2   | 0       | 1   | 0   |
|     | 인천  | 10  | 2   | 1   | 1       | 1   | 2   | 1       | 0   | 0   |
|     | 광주  | 6   | 1   | 1   | 1       | 1   | 0   | 0       | 1   | 0   |
|     | 대전  | 6   | 1   | 1   | 1       | 1   | 0   | 0       | 1   | 0   |
|     | 울산  | 5   | 1   | 1   | 0       | 1   | 0   | 1       | 0   | 0   |
| 시군부 | 경기  | 39  | 7   | 6   | 5       | 4   | 5   | 2       | 1   | 2   |
|     | 강원  | 7   | 1   | 2   | 1       | 1   | 0   | 0       | 1   | 0   |
|     | 충북  | 6   | 1   | 1   | 0       | 1   | 1   | 0       | 0   | 1   |
|     | 충남  | 8   | 1   | 2   | 1       | 1   | 1   | 0       | 1   | 0   |
|     | 전북  | 8   | 2   | 2   | 0       | 1   | 1   | 0       | 0   | 1   |
|     | 전남  | 8   | 2   | 1   | 1       | 1   | 0   | 1       | 0   | 0   |
|     | 경북  | 11  | 2   | 2   | 1       | 1   | 1   | 1       | 0   | 1   |
|     | 경남  | 13  | 2   | 2   | 2       | 1   | 2   | 0       | 0   | 1   |
|     | 제주  | 3   | 0   | 1   | 0       | 1   | 0   | 1       | 0   | 0   |

10) 2011년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2010. 6. 29, 제76조의2)으로 고등학교의 유형구분이 "일반고/특목고/특성화고/자율교"의 4가지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표집 및 분석의 편의성·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이전의 유형구분(일반고/전문고)을 사용하였다. 표집에 있어서는 "일반고"는 현행 "일반고"와 "특목고"를, "전문고"는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하였다.

11) 조사가 학급을 단위로 실시되기 때문에 배정인원이 학급당 예상 조사인원(중학교·일반고 30명, 전문고 25명)에 크게 못 미치는 표집단위는 인근 시·도와 통합하여 표집인원을 할당하였다

표 III-3 지역·교급·학년별 조사인원

| 구 분 |    | 계     | 중학교 |     |       | 일반계고등학교 |     |     | 전문계고등학교 |     |     |
|-----|----|-------|-----|-----|-------|---------|-----|-----|---------|-----|-----|
|     |    |       | 1학년 | 2학년 | 3학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 계   |    | 5,568 | 986 | 978 | 1,047 | 636     | 672 | 667 | 216     | 176 | 190 |
| 서울  |    | 879   | 155 | 136 | 151   | 110     | 123 | 131 | 21      | 28  | 24  |
| 광역시 | 부산 | 381   | 61  | 68  | 63    | 40      | 33  | 72  | 0       | 18  | 26  |
|     | 대구 | 296   | 31  | 39  | 80    | 23      | 35  | 67  | 0       | 21  | 0   |
|     | 인천 | 316   | 73  | 29  | 65    | 31      | 30  | 57  | 31      | 0   | 0   |
|     | 광주 | 200   | 32  | 32  | 33    | 38      | 45  | 0   | 0       | 20  | 0   |
|     | 대전 | 161   | 31  | 30  | 27    | 25      | 22  | 0   | 0       | 26  | 0   |
|     | 울산 | 142   | 33  | 28  | 0     | 37      | 20  | 0   | 24      | 0   | 0   |
| 시군부 | 경기 | 1,276 | 231 | 202 | 258   | 159     | 128 | 159 | 55      | 31  | 53  |
|     | 강원 | 197   | 35  | 57  | 31    | 35      | 29  | 0   | 0       | 10  | 0   |
|     | 충북 | 194   | 28  | 31  | 30    | 0       | 37  | 44  | 0       | 0   | 24  |
|     | 충남 | 228   | 23  | 68  | 33    | 28      | 19  | 35  | 0       | 22  | 0   |
|     | 전북 | 229   | 53  | 60  | 35    | 0       | 41  | 21  | 0       | 0   | 19  |
|     | 전남 | 244   | 64  | 35  | 69    | 33      | 20  | 0   | 23      | 0   | 0   |
|     | 경북 | 345   | 68  | 64  | 65    | 22      | 28  | 37  | 30      | 0   | 31  |
|     | 경남 | 395   | 68  | 71  | 107   | 55      | 37  | 44  | 0       | 0   | 13  |
|     | 제주 | 85    | 0   | 28  | 0     | 0       | 25  | 0   | 32      | 0   | 0   |

## 2) 조사실사

조사는 2012년 6월에서 7월까지 두 달간 전문조사업체에 위탁하여 진행하였다. 조사대상 학교에 대하여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는 협조요청 공문을 조사표와 함께 발송하여 조사내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게 하였다.

학교 조사에 앞서 조사 유경험자를 중심으로 조사원을 선발하여 지역(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별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조사원 교육에는 연구진이 직접 참여하여 조사문항의 세부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조사내용과 조사요령을 숙지할 수 있게 하였다.

조사는 1~2명의 조사원이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정규 수업시간을 할애하여 교사 참관하에 실시하였다. 시간은 대략 30~40분이 소요되었으며, 조사표 회수 후 응답내용을 점검하여 착오로 잘 못 응답한 경우 등은 현장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 데이터의 검증은 두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먼저 조사표와 데이터를 대조하여 입력상의 오류, 과도하게 무응답이 많은 경우, 대부분의 문항에 동일한 번호로 응답한 경우 등을 점검하였다. 1차 점검을 완료한 뒤에는 논리적 오류사항 등에 대한 데이터 클리닝을 거쳐 최종 분석대상 사례를 확정하였다.

### 3) 표본의 특성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표본은 다음과 같다.

남자가 여자보다 많았으며(52.0%, 48.0%), 교급은 중학교가 다소 과다표집되었고(54.1%, 49.5%), 일반고 학생 비율이 실제(38.8%) 적게 나타났다. 지역은 시군부(중소도시, 읍면지역)가 57.4%로서 과반을 상회하였다.

가정 배경별로는 대다수가 양친가정이었으며(91.4%), 부친의 학력은 대졸 이상(53.5%), 모친은 고졸 이상(51.8%)이 가장 많았다. 가정의 주관적 경제수준은 중간층이 43.8%로서 가장 많았고, 상층의 비율이 하층보다 1할 이상 높았다.

지난 학기(2012년 1학기)를 기준으로 한 주관적인 학업성적은 4할 이상이 중간 수준으로 응답하였고, 상위권보다는 하위권의 비율이 다소 높은 편이었다.

표 III-4      표본의 특성

| 구 분       |          | 사례수(명) | 비율(%) |
|-----------|----------|--------|-------|
| 전체        |          | 5,568  | 100.0 |
| 성별        | 남자       | 2,897  | 52.0  |
|           | 여자       | 2,671  | 48.0  |
| 교급        | 중학교      | 3,011  | 54.1  |
|           | 일반고      | 1,975  | 35.5  |
|           | 전문고      | 582    | 10.5  |
| 지역        | 서울       | 879    | 15.8  |
|           | 광역시      | 1,496  | 26.9  |
|           | 중소도시     | 1,601  | 28.8  |
|           | 읍면지역     | 1,592  | 28.6  |
| 부모님 생존여부  | 양친 가정    | 5,084  | 91.4  |
|           | 편부 가정    | 184    | 3.3   |
|           | 편모 가정    | 267    | 4.8   |
|           | 부모님 안 계심 | 25     | 0.4   |
| 부친 학력*    | 중졸 이하    | 284    | 5.5   |
|           | 고졸       | 2,104  | 41.0  |
|           | 대졸 이상    | 2,743  | 53.5  |
| 모친 학력*    | 중졸 이하    | 276    | 5.3   |
|           | 고졸       | 2,698  | 51.8  |
|           | 대졸 이상    | 2,233  | 42.9  |
| 가정의 경제수준* | 하        | 1,221  | 22.0  |
|           | 중        | 2,437  | 43.8  |
|           | 상        | 1,900  | 34.2  |
| 학업성적*     | 하        | 1,816  | 32.7  |
|           | 중        | 2,334  | 42.0  |
|           | 상        | 1,409  | 25.3  |

\* 표시된 항목은 리코드한 결과임

## 2. 조사내용과 도구

### 1) 조사내용

조사의 내용은 ICCS의 분류에 따라 인지영역과 정의·행동영역으로 구분한 뒤 정의·행동영역을 다시 가치신념, 태도, 행동, 행동의사의 소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시민적 자아인식 등 다음 단계의 하위분류는 세부 조사문항의 내용 검토를 통해 연구진이 정리한 것이다. 각 영역별 조사항목(척도)는 <표 III-5>와 같다.

표 III-5 조사의 내용

| 조사영역    |      |          | 조사항목              |
|---------|------|----------|-------------------|
| 인지영역    |      |          | 시민적 지식            |
| 정의·행동영역 | 가치신념 | 시민적 자아인식 | 정치·사회문제 관심도       |
|         |      |          | 내적인 정치적 효능감       |
|         |      |          | 시민적 자아효능감         |
|         |      |          | 민주적 가치 지지도        |
|         |      | 시민적 가치인식 | 전통적 시민역할의 중요성     |
|         |      |          | 사회운동 관련 시민역할의 중요성 |
|         |      |          | 양성 평등관            |
|         |      | 사회적 평등관  | 민족간 평등관           |
|         |      |          | 이주민 평등관           |
|         | 태도   | 시민적 태도   | 사회제도 신뢰도          |
|         |      |          | 자국에 대한 태도         |
|         |      |          | 정당 지지도            |
|         | 행동   | 시민적 참여행동 | 정치·사회문제 대화        |
|         |      |          | 공동체 참여활동 경험       |
|         |      |          | 교내 참여활동 경험        |
|         |      | 참여행동 여건  | 교내 참여활동의 가치       |
|         |      |          | 교내 의사결정 영향력       |
|         |      |          | 학생-교사관계 인식        |
|         | 행동의사 | 항의행동 의사  | 합법적 항의행동 참여의사     |
|         |      |          | 비합법적 항의행동 참여의사    |
|         |      | 정치행동 의사  | 투표 참여의사           |
|         |      |          | 공식적 정치활동 참여의사     |
|         |      |          | 비공식적 정치활동 참여의사    |

##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조사결과 분석에 활용한 조사도구(척도)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CCS 2009년 조사의 척도구성 방식(Brese, Jung, Mirazchiyski, Schulz, & Zuehlke, 2011)을 그대로 따랐지만 일부 척도는 구조방정식 모형에 투입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수정한 척도를 함께 사용하였다.

### • 배경변인

인구학적 변인으로 연령과 성, 지역을 활용하였다. 연령은 직접 나이를 묻지 않고 학년을 해당 학령(만 나이 기준)으로 환산한 값을 적용하였다. 엄밀한 의미에서 학년과 학령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사대상인 중·고등학교 시기에는 생물학적인 연령보다는 학년(학령)이 심리·행동 특성을 설명하는 데 보다 유효한 변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지역은 조사원이 기재한 학교 소재지의 행정구역을 "서울/광역시/시군부"로 구분한 값을 활용하였다.

학교 관련 배경변인으로는 교급과 학업성적을 사용하였다. 교급은 중학교/고등학교의 구분과 고등학교의 계열구분 - 인문계, 전문계 - 을 통합하여 "중학교/인문고/전문고"로 유형화하였다.

학업성적은 지난 학기(2012년 1학기) 자신의 성적이 학급 내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해당하는지를 5점 Likert척도("1. 매우 못하는 편 ~ 5. 매우 잘하는 편")로 측정하였다.

가정 관련 배경변인은 부모의 학력과 가정의 주관적 경제수준의 두가지이다. 부모의 학력은 7단계("1. 학교 안다님 ~ 7. 대학원 졸업")로 측정한 아버지, 어머니의 최종학력을 토대로 하여 분석방법에 따라 다른 척도를 구성하였다. 평균값 차이분석(t-test)에서는 양친 중 한 사람이라도 대졸 이상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2점 척도("대졸 이상/고졸 이하")를 활용하였고,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에서는 변량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양친의 학력 점수를 합산한 평균값을 관측변인으로 활용하였다.

### • 인지영역 변인: 시민적 지식

시민적 지식 변인은 ICCS 2009년 조사의 인지영역(cognitive domain) 조사문항을 활용하여 구성하였다. 인지영역은 가치신념과 태도, 행동, 행동의사를 측정하는 정의·행동영역 (affective-behavioral domain)과는 달리 시민사회와 관련한 청소년들의 사고과정과 이해수준을 측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민사회와 시스템, 시민사회 원리, 시민 참여, 시민 정체성의 네가지 내용영역에 대한 지식(knowing)과 추론/분석(reasoning and analyzing) 능력을 평가하는 총

79개의 문항으로<sup>12)</sup>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마다 하나의 정답을 갖고 있다. 문항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ICCS 2009년 조사에서는 모두 7개의 Booklet으로 나누어 조사대상 학생이 전체 문항 중 31~38개의 문항에 대해서만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조사 소요시간을 45분으로 규정하였다(Schulz, et al., 2011, p. 17).

본 연구에서는 학교측의 협조 문제 등으로 조사시간의 단축이 필요했기 때문에, 문항을 선별하여 간이척도를 개발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문항 선별의 기준은 ① 변량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10개 이상의 문항으로 구성, ② ICCS 2009년 조사의 문항분류체계를 고려 각 영역별 조사문항 안배, ③ ICCS 2009년 조사의 척도점수와 높은 상관관계 유지, ④ ICCS 2009년 조사문항이 중2를 대상으로 개발되었음을 고려(본 조사는 중·고교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함)하여 가급적 난이도가 높은 항목(정답률 80% 이하)으로 구성 등이었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선별된 조사문항은 모두 13개로서 영역별 문항수는 다음의 <표 III-6>과 같다. 13개 문항의 정답응답 갯수를 합산한 시민적 지식의 척도점수 평균값은 7.56이었고, 왜도(-.190), 첨도(-.804)를 검토한 결과 정상분포 곡선에 근접한 수준이었다. ICCS 2009년 조사의 척도점수와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907( $p < .001$ , Pearson's  $r$ )로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표 III-6 인지영역의 조사문항 구성

| 영역    |           | 문항수 | ICCS 2009년 조사문항수 |
|-------|-----------|-----|------------------|
| 내용영역  | 시민사회와 시스템 | 6   | 31               |
|       | 시민사회 원리   | 3   | 25               |
|       | 시민 참여     | 3   | 18               |
|       | 시민 정체성    | 1   | 5                |
| 인지 영역 | 지식        | 6   | 19               |
|       | 추론과 분석    | 7   | 60               |
| 계     |           | 13  | 79               |

12) ICCS 2009년 조사의 인지영역 조사항목은 총 80개였으나, 한 문항이 최종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 정의·행동영역 변인

– 가치신념 관련 변인

정치·사회문제 관심도(students' interest in politics and social issues)는 국내·외의 다양한 수준의 정치적·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변인이다. "지역사회(시/군)의 정치와 관련된 문제" 등 5가지 유형의 정치·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관심 정도를 단계별 4점 척도("1. 매우 관심 있다" ~ "4. 전혀 관심 없다")로 응답하게 하고 항목별 응답결과를 역순으로 리코드한 평균값을 척도점수( $M = 2.35$ ,  $SD = .70$ )로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다양한 수준의 정치·사회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계수(Chronbach's  $\alpha$ )는 .90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내적인 정치적 효능감(students' sense of internal political efficacy)은 자신이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으로서, 자신의 행위를 통해 정치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외적인 효능감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나는 또래 친구들에 비해 정치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 등 6가지의 조사항목에 대하여 단계별 4점 척도("1. 매우 그렇다" ~ "4 전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하게 하였다. 항목별 응답결과를 역순으로 리코드한 뒤 그 평균값을 척도점수( $M = 2.14$ ,  $SD = .61$ )로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정치적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척도의 신뢰도계수(Chronbach's  $\alpha$ )는 .89로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적 자아효능감(students' citizenship self-efficacy)은 자신이 좋은 시민으로서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믿음을 측정하는 변인이다. "국가간 분쟁에 대한 신문기사 토론하기" 등 7가지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단계별 4점 척도("1. 매우 바람직하다" ~ "4.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로 응답하게 하였다. 척도점수는 항목별 응답결과를 역순으로 리코드한 평균값( $M = 3.00$ ,  $SD = .55$ )으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시민적 자아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척도의 신뢰도계수(Chronbach's  $\alpha$ )는 .92로서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주적 가치 지지도(students' support for democratic values)는 청소년들이 민주사회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어느 정도 찬성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등 민주사회의 기본원칙을 설명하는 5가지 조사항목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단계별 4점 척도("1. 매우 그렇다" ~ "4. 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하였다. 항목별 응답결과를 역순으로 리코드한 평균값을 척도점수( $M = 3.53$ ,  $SD = .53$ )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민주적 가치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척도의 신뢰도계수

(Chronbach's  $\alpha$ )는 .86로서 높게 나타났다.

전통적 시민역할의 중요성 인식(students' perceptions of the importance of conventional citizenship)은 시민사회 구성원이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온 역할(행동)에 대하여 청소년들의 인식을 측정하는 변인이다. "모든 선거에서 투표하기" 등 6가지의 행동유형을 제시하고 그 중요도를 단계별 4점 척도("1. 매우 중요하다" ~ "4. 전혀 중요하지 않다")로 응답하게 하였다. 항목별 응답결과를 역순으로 리코드한 평균값을 척도점수( $M = 2.91$ ,  $SD = .55$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인 시민역할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척도의 신뢰도계수(Chronbach's  $\alpha$ )는 .80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사회운동 관련 시민역할의 중요성 인식(students' perceptions of the importance of social movement related citizenship)은 투표나 정당활동과 같은 전통적인 정치참여와는 구분되는, 인권·환경 운동 등 다양한 유형의 사회운동 참여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변인이다. "불공정한 법에 대한 평화적인 항의에 참여하기" 등 4가지 형태의 사회운동 참여에 대하여 그 중요도를 단계별 4점 척도("1. 매우 중요하다" ~ "4. 전혀 중요하지 않다")로 응답하게 하였다. 항목별 응답결과를 역순으로 리코드한 평균값을 척도점수( $M = 3.16$ ,  $SD = .65$ )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시민으로서 사회운동 참여의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척도의 신뢰도계수(Chronbach's  $\alpha$ )는 .87로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양성 평등관(students' attitudes towards gender equality)은 성별 구분 없이 평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인식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변인이다. "남자와 여자는 정부의 일에 참여하는 데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등 6가지 설명을 제시하고 동의 여부를 단계별 4점 척도("1. 매우 그렇다" ~ "4. 전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하게 하였다. 항목별 응답결과와 평균값을 척도점수( $M = 3.35$ ,  $SD = .57$ )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양성평등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척도의 신뢰도계수(Chronbach's  $\alpha$ )는 .80으로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민족간 평등관(students' attitudes towards equal rights for all ethnic/racial groups)은 동일 사회내에 거주하는 다양한 민족집단간의 평등한 권리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변인이다.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한국인과 동등한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 등 다른 민족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5가지 설명에 대하여 단계별 4점 척도("1. 그렇다" ~ "4. 전혀 그렇지 않다")로 조사하였다. 항목별 응답결과를 역순으로 리코드한 뒤 그 평균값을 척도점수( $M = 3.16$ ,  $SD = .62$ )로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민족간의 평등한 권리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척도의 신뢰도계수(Chronbach's  $\alpha$ )는 .87로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이주민 평등관"(students' attitudes towards equal rights for immigrants)은 취업, 결혼 등을 통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에게도 한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변인이다. "이주민들이 자기 모국의 언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등 5가지의 설명을 제시하고 단계별 4점 척도("1. 매우 그렇다" ~ "4. 전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하게 하였다. 척도점수는 항목별 응답결과를 역순으로 리코드한 평균값( $M=3.06$ ,  $SD=.58$ )으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이주민의 평등한 권리를 찬성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척도의 신뢰도계수(Chronbach's  $\alpha$ )는 .84로서 높은 수준이었다.

#### - 태도관련 변인

사회제도 신뢰도(students' trust in civic institutions)는 국가의 정치·행정·사법 기관 등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변인이다. "중앙 정부와 행정부처 (대통령, 장관 등)" 등 6가지 형태의 사회제도에 대한 신뢰 수준을 단계별 4점 척도("1. 매우 신뢰한다" ~ "4.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로 응답하게 하였다. 척도점수는 항목별 응답결과를 역순으로 리코드한 값( $M=2.23$ ,  $SD=.68$ )으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제도에 대하여 신뢰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척도의 신뢰도계수(Chronbach's  $\alpha$ )는 .91로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자국에 대한 태도(students' attitudes towards their country)는 자기 나라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애착심과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변인이다. "태극기는 나에게 소중하다" 등 7가지 조사항목에 대하여 단계별 4점 척도("1. 매우 그렇다" ~ "4. 전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하게 하였다. 척도점수는 항목별 응답결과를 역순으로 리코드한 평균값( $M=2.77$ ,  $SD=.57$ )을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국가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척도의 신뢰도계수(Chronbach's  $\alpha$ )는 .84로서 높은 수준이었다.

정당 지지도(students' support for political parties)는 여러 정당 중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지의 여부와 있는 경우 지지하는 정도를 묻는 두 문항을 조합하여 척도를 구성하였다. 척도점수는 지지 정당이 없는 경우를 1로, 있는 경우 지지 정도를 3단계로 코딩("2. 약간 지지한다" ~ "4. 많이 지지한다")한 값을 사용하였다.

#### - 행동관련 변인

정치·사회문제 대화(students' discussion of political and social issues outside of school)는 청소년들이 학교밖에서 주위 사람들과 정치·사회적인 문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자주 대화하는지를

측정하는 변인이다. "정치·사회 문제에 관해 부모님과 이야기한다" 등 4개의 조사항목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에 대하여 단계별 4점 척도("1. 전혀/거의 하지 않음" ~ 4. 매일/거의 매일 한다")로 측정하였다. 문항별 응답결과의 평균값을 척도점수( $M = 1.72$ ,  $S.D. = .65$ )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평소에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대화빈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Chronbach's  $\alpha$ )는 .77로서 적절한 수준이었다.

공동체 참여활동 경험(students' civic participation in the wider community)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내 각종 단체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측정하는 변인이다. "환경운동 단체" 등 6가지 조사항목으로 구성되며 단체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 참여했는지를 3점 척도("1. 최근 1년동안 참여한 적이 있다" ~ "3. 참여한 적이 없다")로 응답하게 하였다. 문항별 응답값을 역순으로 리코드한 평균값( $M = 1.38$ ,  $SD = .46$ )을 척도점수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최근의 참여경험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척도의 신뢰도계수(Chronbach's  $\alpha$ )는 .76으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교내 참여활동 경험(students' civic participation at school)은 청소년들이 학교 내에서 어느 정도 시민적 참여활동을 경험했는지를 측정하는 변인이다. "학급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 등 6가지 활동에 대하여 참여경험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 참여했는지를 3점 척도("1. 최근 1년 동안 참여한 적이 있다" ~ "3. 참여한 적이 없다")로 측정하였다. 문항별 응답결과를 역순으로 리코드한 평균값을 척도점수( $M = 1.83$ ,  $SD = .55$ )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내에서의 시민적 참여활동 경험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척도의 신뢰도계수(Chronbach's  $\alpha$ )는 .80으로서 높은 수준이었다.

교내 참여활동의 가치 인식(students' perceptions of the value of participation at school)은 청소년들이 개별적으로서가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 학교운영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변인이다. "학교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는 학교를 더 좋게 만든다" 등 5가지 설명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를 단계별 4점 척도("1. 매우 그렇다" ~ "4. 전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하게 하였다. 항목별 응답결과를 역순으로 리코드한 평균값을 척도점수( $M = 3.02$ ,  $SD = .64$ )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들의 교내 참여활동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척도의 신뢰도계수(Chronbach's  $\alpha$ )는 .88로서 높은 수준이었다.

학급토론 개방성 인식(students' perceptions of openness in classroom discussions)은 청소년들이 정치·사회문제와 관련한 대화와 토론의 장으로서의 학교(학급)의 분위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변인이다.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결정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격려한다" 등 6가지 조사항목에 대하여 청소년들의 생각을 단계별 4점 척도("1. 전혀 없다" ~ "4. 매우 자주

있다")로 측정하였다. 문항별 응답결과의 평균값을 척도점수( $M=1.99$ ,  $SD=.58$ )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들이 학급의 토론 분위기를 개방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척도의 신뢰도계수(Chronbach's  $\alpha$ )는 .80으로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교내 의사결정 영향력 인식(students' perceptions of influence on decisions about school)은 청소년들이 학교 내의 여러가지 의사결정 과정에 자신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측정하는 변인이다.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 등 6가지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를 단계별 4점 척도("1. 매우 많이 반영된다" ~ "4.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로 측정하였다. 항목별 응답결과를 역순으로 리코드한 평균값을 척도점수( $M=2.18$ ,  $SD=.70$ )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교내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학생들의 영향력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척도의 신뢰도계수(Chronbach's  $\alpha$ )는 .87로서 높은 수준이었다.

학생-교사관계 인식(students' perception of student-teacher relations at school)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의 학생과 교사간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변인이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나를 공정하게 대해 주신다" 등 4가지 설명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단계별 4점 척도("1. 매우 그렇다" ~ "4. 전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하게 하였다. 항목별 응답결과를 역순으로 리코드한 평균값을 척도점수( $M=2.74$ ,  $SD=.56$ )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들이 교사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척도의 신뢰도계수(Chronbach's  $\alpha$ )는 .84로서 높은 수준이었다.

#### - 행동의사 관련 변인

합법적 항의행동 참여의사(students' expected participation in future legal protest)는 부당한 일에 대한 의사표현을 위하여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앞으로 항의행동을 할 의지가 있는지를 측정하는 변인이다. "자기 주장을 담은 배지를 달거나 T셔츠 입기" 등 6가지 유형의 항의행동에 대하여 참여의사를 단계별 4점 척도("1. 확실히 할 것이다" ~ "4. 확실히 하지 않을 것이다")로 응답하게 하였다. 척도점수는 항목별 응답결과를 역순으로 리코드한 평균값( $M=2.27$ ,  $SD=.62$ )으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앞으로 항의행동에 참여할 의지가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척도의 신뢰도계수(Chronbach's  $\alpha$ )는 .85로서 높은 수준이었다.

비합법적 항의행동 참여의사(students' expected participation in future illegal protest)는 자신의 사회·정치적 의사표현을 위하여 앞으로 법률로 허용되지 않는 행동이라도 할 의지가 있는지를 측정하는 변인이다. "스프레이로 벽에 항의표어 쓰기" 등 3가지 불법적인 행동유형에 대하여 참여의지

를 단계별 4점 척도("1. 확실히 할 것이다" ~ "4. 확실히 하지 않을 것이다")로 조사하였다. 항목별 응답결과를 역순으로 리코드한 평균값( $M=1.83$ ,  $SD=.72$ )을 척도점수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장래에 비합법적 항의행동을 할 의지가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척도의 신뢰도계수(Chronbach's  $\alpha$ )는 .90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투표 참여의사(students' expected adult electoral participation)는 성인이 되었을 때 선거에서 투표할 의지가 있는지를 측정하는 변인이다. "지역 단위 선거(시장/도지사/군수, 지방의회 의원 선거 등)에 투표하기" 등 3가지의 투표 관련 행동에 대한 참여 의지를 단계별 4점 척도("1. 확실히 할 것이다" ~ "2. 확실히 하지 않을 것이다")로 조사하였다. 척도점수는 항목별 응답결과를 리코드한 평균값( $M=3.13$ ,  $SD=.74$ )으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장래에 투표에 참여할 의지가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척도의 신뢰도계수(Chronbach's  $\alpha$ )는 .84로서 높은 수준이었다.

공식적 정치활동 참여의사(students' expected adult participation in political activities)는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정당 가입, 후보자 출마 등 제도적·공식적 수준의 정치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측정하는 변인이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후보자나 정당을 지원하는 활동하기" 등 4가지 유형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참여의지를 단계별 4점 척도("1. 확실히 할 것이다" ~ "2. 확실히 하지 않을 것이다")로 응답하게 하였다. 척도점수는 항목별 응답결과를 리코드한 평균값( $M=1.93$ ,  $SD=.66$ )으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참여의지가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척도의 신뢰도계수(Chronbach's  $\alpha$ )는 .85로서 높은 수준이었다.

비공식적 정치활동 참여의지(students' expected future informal political participation)는 청소년의 신분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비공식적 정치활동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지를 측정하는 변인이다. "정치·사회적 문제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등 4가지 유형의 비공식적 정치활동에 대한 참여의지를 단계별 4점 척도("1. 확실히 할 것이다" ~ "2. 확실히 하지 않을 것이다")로 응답하게 하였다. 척도점수는 항목별 응답결과를 역순으로 리코드한 평균값( $M=2.22$ ,  $SD=.66$ )으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참여의지가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척도의 신뢰도계수(Chronbach's  $\alpha$ )는 .86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 3. 분석방법

조사결과의 통계분석은 SPSS 프로그램(v.15) 을 활용하여 조사문항별 단순빈도를 검토한 뒤, 척도점수를 활용한 Pearson 상관관계 분석과 집단간 평균값 차이분석(t-test, ANOVA)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이 3개 이상인 평균값 차이분석에는 Duncan의 사후검정을 통하여 집단간 차이의 유의도를 파악하였다. 변인간 인과관계의 검증은 AMOS 프로그램(v. 7)으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진행하였으며 모형의 관측변인 구성은 요인분석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의 방식과 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분석에 사용되는 변인의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를 통제할 수 있고, 매개변인(mediator)의 사용이 용이하며, 이론모형에 대한 통계적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홍세희, 2007, p. 275).

구조방정식 모형의 평가는 하나의 연구가설에 대한 복수의 경쟁모형을 설정한 뒤 각 모델의 적합도를 비교하여 최종모형을 결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모형의 평가에는 이밖에도 하나의 모형만을 평가하여 적합도가 좋으면 최종모형으로 선택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와 같은 단일모형 방식은 연구가설과 관련한 더 나은 대안모형(alternative model)의 선택이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홍세희, 2007, p. 287).

모형내의 자유미지수의 추정은 완전정보 최대우도법(FIML)으로 하였고, 모형의 적합도 평가는 적합도 지수를 기준으로 하되<sup>13)</sup> 내포모형(nested model)의 경우 보완적으로  $\chi^2$ 차이검정을 실시하였다. 적합도 지수는 표본크기에 덜 민감하고, 모형의 간명성(parsimonious)을 고려하는 TLI(Tucker-Lewis fit index)와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활용하였고, CFI(comparative fit index) 값도 참고하였다.

적합도의 평가기준은 지수마다 상이한데, 일반적으로 TLI와 CFI는 .9 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한다. RMSEA는 다른 지수와는 달리 적합도의 단계별 평가가 가능하여 ① .05 미만이면 좋은 적합도, ② .08 미만은 괜찮은 적합도, ③ .10 미만은 보통의 적합도, ④ .10 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로 간주한다(Browne & Cudeck, 1993). 한 이론모형의 인과경로가 비교대상이 되는 다른 모형에 포함되는 경우, 즉 내포모형인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적합도 지수를 비교하고, 다음으로  $\chi^2$ 값을 활용하여 평가하였다. 즉, 자유도가 더 낮은 모형이 높은 모형과 비교하여 RMSEA와 TLI값이 같거나 좋을 경우 전자를 최종모형으로 결정하였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유의수준 .001에서 자유도와  $\chi^2$ 값의 차이를 기준으로 한  $\chi^2$ 차이검증을 실시하여 최종모형을 선택하였다.

13) 적합도 지수 비교방법 이외에 카이자승 검정방식이 있는데, 카이자승값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여 대규모 표본의 경우 (일반적으로 200명 이상)에는 적용하지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Hair, Anderson, Tatham, & Black, 1998)



## 제 4 장



# 시민적 지식과 자아인식

1. 시민적 지식
2. 시민적 자아인식
3. 종합분석



## 제 4 장

# 시민적 지식과 자아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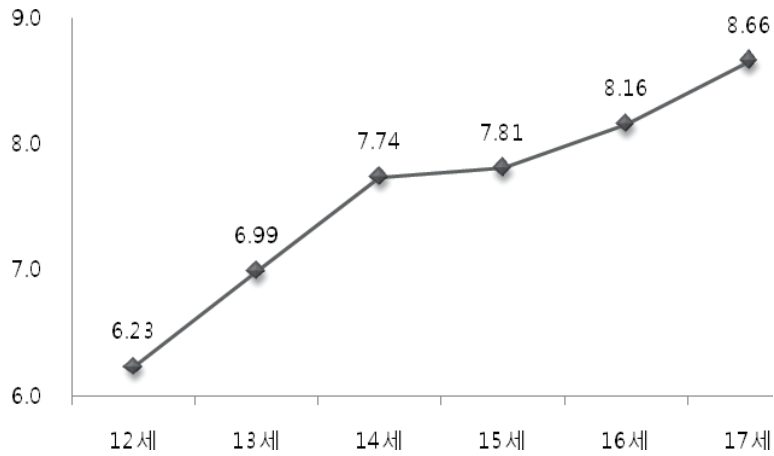
### 1. 시민적 지식

시민적 지식 변인은 시민사회와 관련한 청소년들의 사고과정과 이해수준을 측정하는 총 1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점수는 전체 문항 중 정답응답 개수를 합산한 값( $M = 7.56$ ,  $SD = 2.95$ )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시민사회와 관련한 지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시민적 지식 점수의 배경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표 IV-1>과 같다. 인구학적 변인에서는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7.95, 7.88),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광역시 대도시 청소년(7.88, 7.84)에 비해 시군부 청소년(7.34)의 시민적 지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연령과 시민적 지식의 상관관계([그림 IV-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 $r = .26$ ,  $p < .001$ )으로서 나이가 들수록 시민적 지식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학교관련 변인에서는 교급별, 학업성적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일반고 학생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8.70), 다음으로 중학교(7.00), 전문고(6.56)의 순이었다. 전문고 학생의 점수가 매우 낮게 나타난 것은 취업 중심의 학교 교과과정 특성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학업성적별로는 상위집단일수록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세 집단간 차이가 매우 뚜렷하였다(8.79, 7.67, 6.46).

가족관련 변인에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부모학력이 대졸 이상인 집단이 고졸 이상인 경우보다 점수가 높았으며,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상위집단(7.81)이 중간·하위집단(7.40, 7.50)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그림 IV-1] 시민적 지식- 연령별

표 IV-1 시민적 지식- 배경변인별

|         |                  | 사례수  | 평균   | 표준편차 | 통계치                           |
|---------|------------------|------|------|------|-------------------------------|
| 전체      |                  | 5568 | 7.56 | 2.96 |                               |
| 성별      | 남자               | 2897 | 7.19 | 3.09 | t= -9.70***                   |
|         | 여자               | 2671 | 7.95 | 2.76 |                               |
| 지역      | 서울 <sup>a</sup>  | 879  | 7.88 | 2.88 | F= 20.60***<br>( c   b-a )    |
|         | 광역시 <sup>b</sup> | 1496 | 7.84 | 3.00 |                               |
|         | 시군부 <sup>c</sup> | 3193 | 7.34 | 2.94 |                               |
| 교급      | 중학교 <sup>a</sup> | 3011 | 7.00 | 2.79 | F= 252.79***<br>( c   a   b ) |
|         | 일반고 <sup>b</sup> | 1975 | 8.70 | 2.91 |                               |
|         | 전문고 <sup>c</sup> | 582  | 6.56 | 2.82 |                               |
| 학업성적    | 상 <sup>a</sup>   | 1409 | 8.79 | 2.91 | F= 273.49***<br>( c   b   a ) |
|         | 중 <sup>b</sup>   | 2334 | 7.67 | 2.79 |                               |
|         | 하 <sup>c</sup>   | 1816 | 6.46 | 2.79 |                               |
| 부모 학력   | 고졸 이하            | 2305 | 7.25 | 2.85 | t= -7.70***                   |
|         | 대졸 이상            | 3110 | 7.86 | 3.00 |                               |
| 가정 경제수준 | 상 <sup>a</sup>   | 1900 | 7.81 | 3.05 | F= 10.41***<br>( b-c   a )    |
|         | 중 <sup>b</sup>   | 2437 | 7.40 | 2.91 |                               |
|         | 하 <sup>c</sup>   | 1221 | 7.50 | 2.88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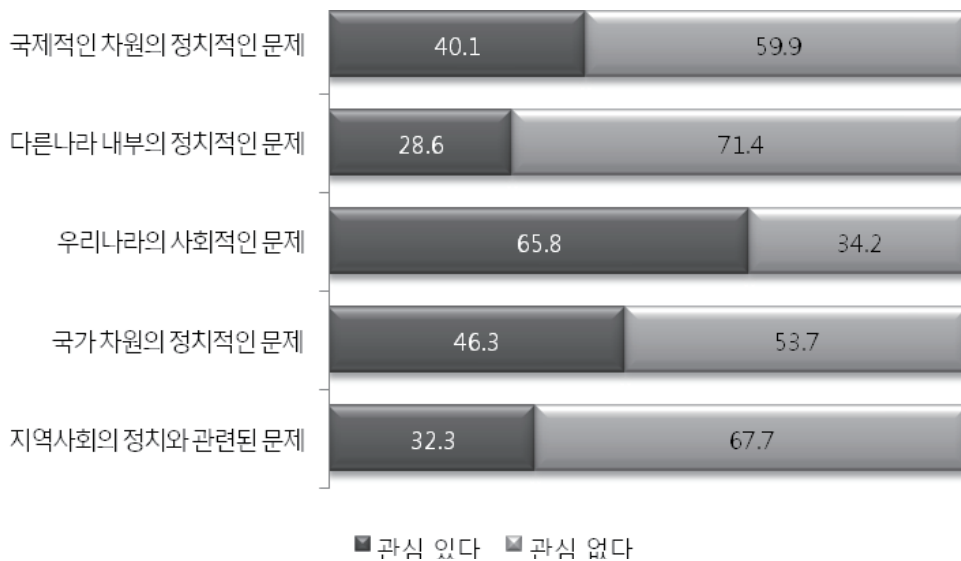
\* p< .05, \*\*p<.01,\*\*\*p<.001; ( )는 Duncan 사후검정 결과임

## 2. 시민적 자아인식

### •정치·사회문제 관심도

관심과 효능감(feelings of efficacy)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 요인은 앞으로의 정치적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Verba, Schlozman, & Brady, 1995)이며, 특히 정치적 관심은 정치적 행동으로 연결되는 선행조건(van Deth, Maraffi, Newton, & Whiteley, 1999)으로 간주되고 있다.

국내·외의 정치·사회문제에 대하여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모두 5가지의 조사항목을 제시하고, 관심 정도에 따라 4점 Likert척도 - "매우 관심 있다"(1), "관심 있다"(2), "관심 없다"(3), "전혀 관심 없다"(4) - 로 응답하게 하였다. 조사항목별 응답결과를 관심 유무를 기준으로 리코드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그림 IV-2]와 같다.



[그림 IV-2] 정치·사회문제 관심도 - 단순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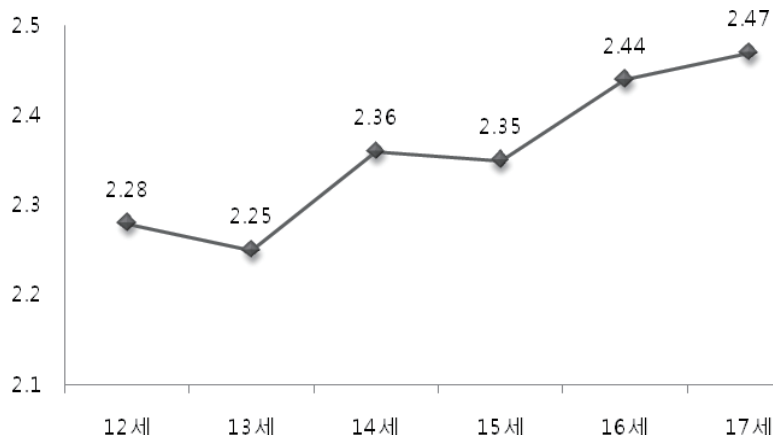
청소년들은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고(65.8%), 다음으로 "국가 차원의 정치적인 문제"(46.3%), "국제적인 차원의 정치적인 문제"(40.1%), "지역사회의 정치와 관련된 문제"(32.3%)의 순이었으며, "다른나라 내부의 정치적인 문제"(28.6%)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청소년들이 정치적인 문제보다는 사회적인 문제에, 또한 일상적인 생활공간인 지역사회 문제보다는 국가·국제적 차원의 거시적인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조사항목에 대한 성별 응답결과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4항목에 대해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사회문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남자의 관심도가 높지만, 국내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68.9%, 63.0%). 교급별로는 모든 항목에 대하여 고교생의 관심도가 높은 수준이었고, 특히 "국가 차원의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교급별 차이(고교생 52.0%, 중학생 41.4%)가 현저하였다

정치·사회문제 관심도의 척도점수는 항목별 응답값을 역순으로 리코드한 평균값( $M = 2.35$ ,  $SD = .70$ )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다양한 수준의 정치·사회문제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Chronbachs' $\alpha$ )는 .90으로 ICCS 2009년 조사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정치·사회문제 관심도의 배경변인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구학적 변인에는 성별·지역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남자의 정치·사회문제 관심도(2.38)가 여자(2.33)보다 높았고, 서울 지역(2.43) 청소년의 정치·사회문제 관심도가 다른 두 지역과 뚜렷한 차이를 두고 높은 수준이었다. 광역시와 시군부간에는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은 정치·사회문제 관심도와 약한 정적인 상관관계( $r = .10$ ,  $p < .001$ )를 나타내어 대체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정치·사회문제 관심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sup>14)</sup>



[그림 IV-3] 정치·사회문제 관심도-연령별

14) 한국사회에서 연령 증가에 따른 정치·사회문제 관심도의 증가현상은 청소년 시기에 국한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10대에서 60대까지를 대상으로 한 조사(이종원, 김영인, 2009)에 따르면, 중·고교생 시기에는 나이가 들수록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지만, 성인들은 40대를 정점으로 하여 점차 관심도가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관련 변인에서는 교급, 학업성적 세 변인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교급별로는 일반고 학생들의 정치·사회문제 관심도(2.45)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었고, 전문고(2.32)와 중학교(2.30) 학생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학업성적이 높은 집단일수록 정치·사회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위-중간-하위 세 집단간의 차이가 뚜렷하였다(2.49, 2.38, 2.21).

가정관련 변인 두 변인에서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부모 학력이 높은 집단(대졸 이상; 2.39)이 낮은 집단(고졸 이하; 2.31)보다, 주관적 경제수준이 상층인 집단(2.42)이 하층·중간층(2.34, 2.31)보다 높은 정치·사회문제 관심도를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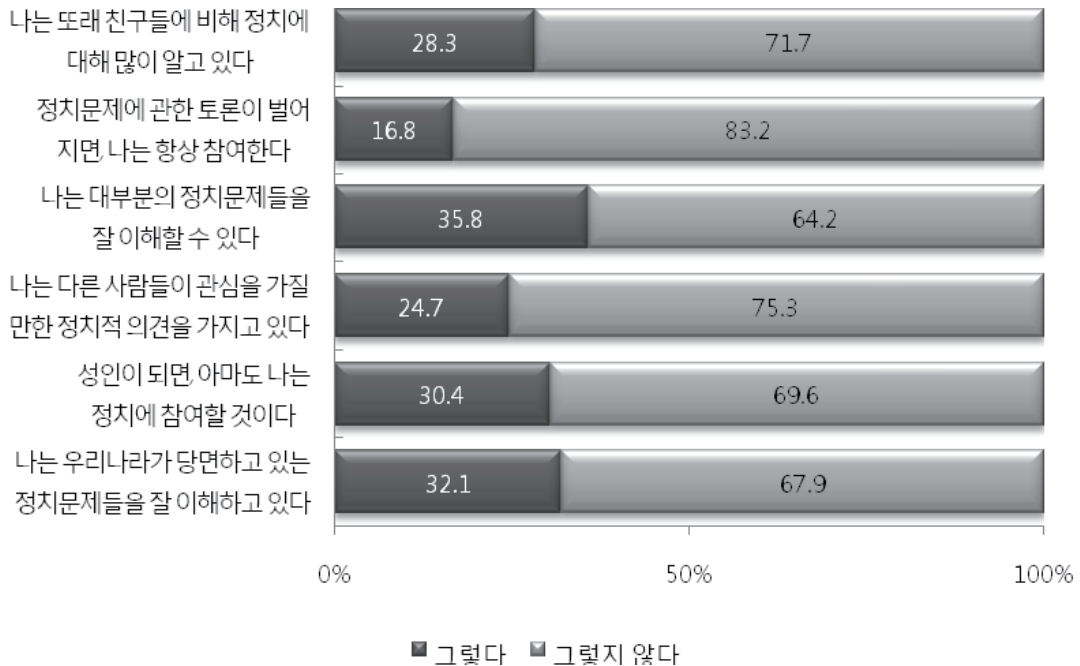
표 IV-2 정치·사회문제 관심도 - 배경변인별

|         |                  | 사례수  | 평균   | 표준편차 | 통계치                          |
|---------|------------------|------|------|------|------------------------------|
| 전체      |                  | 5553 | 2.35 | .70  |                              |
| 성별      | 남자               | 2887 | 2.38 | .74  | t= 2.63**                    |
|         | 여자               | 2666 | 2.33 | .66  |                              |
| 지역      | 서울 <sup>a</sup>  | 877  | 2.43 | .73  | F= 7.39**<br>( c-b   a )     |
|         | 광역시 <sup>b</sup> | 1495 | 2.36 | .69  |                              |
|         | 시군부 <sup>c</sup> | 3181 | 2.33 | .70  |                              |
| 교급      | 중학교 <sup>a</sup> | 3000 | 2.30 | .72  | F= 29.39***<br>( a-c   b )   |
|         | 일반고 <sup>b</sup> | 1974 | 2.45 | .66  |                              |
|         | 전문고 <sup>c</sup> | 579  | 2.32 | .73  |                              |
| 학업성적    | 상 <sup>a</sup>   | 1406 | 2.49 | .70  | F= 70.40***<br>( c   b   a ) |
|         | 중 <sup>b</sup>   | 2327 | 2.38 | .69  |                              |
|         | 하 <sup>c</sup>   | 1811 | 2.21 | .70  |                              |
| 부모 학력   | 고졸 이하            | 2299 | 2.31 | .68  | t= -4.31***                  |
|         | 대졸 이상            | 3101 | 2.39 | .72  |                              |
| 가정 경제수준 | 상 <sup>a</sup>   | 1893 | 2.42 | .73  | F= 15.53***<br>( b-c   a )   |
|         | 중 <sup>b</sup>   | 2433 | 2.31 | .68  |                              |
|         | 하 <sup>c</sup>   | 1217 | 2.34 | .71  |                              |

\* p< .05, \*\*p<.01,\*\*\*p<.001; ( )는 Duncan 사후검정 결과임

• 내적인 정치적 효능감

청소년들의 내적인 정치적 효능감은 자신의 정치적 이해수준과 능력을 평가하는 모두 6가지 항목으로 조사하였다. 4점 Likert척도 - "매우 그렇다"(1), "그렇다"(2), "그렇지 않다"(3), "전혀 그렇지 않다"(4) - 로 측정하였으며, 각 항목별 응답결과를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리코드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그림 IV-4]와 같다.



[그림 IV-4] 내적인 정치적 효능감- 단순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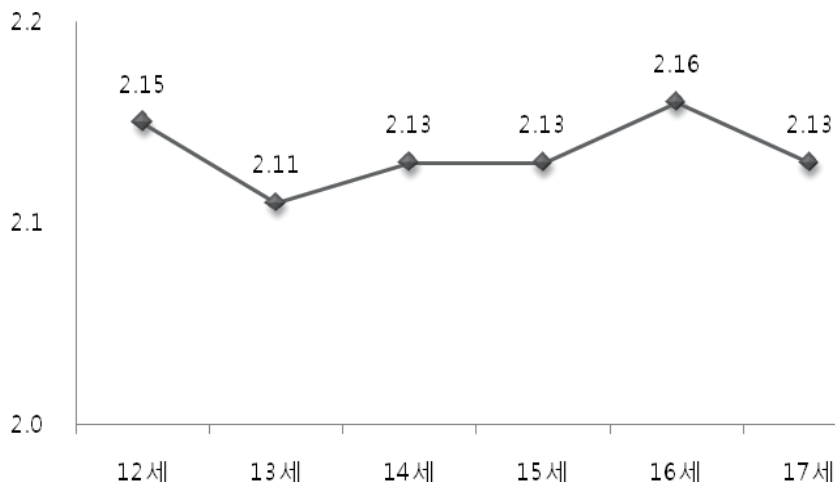
모든 항목의 긍정응답 비율이 4할 미만의 낮은 수준이었는데, "나는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의 긍정응답률이 가장 높았고(32.1%), "정치문제에 관한 토론이 벌어지면 나는 항상 참여한다"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16.8%).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은 자신이 정치문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름대로의 정치적 의견을 가지고 (24.7%), 토론에 참여하는 청소년(16.8%)은 상대적으로 소수였다.

각 항목에 대한 성별 응답결과는 모든 항목에 걸쳐 남자가 여자보다 긍정응답률이 높았다. 특히 "나는 또래 친구들에 비해 정치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남 32.2%, 여 24.1%), "나는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정치적 의견을 가지고 있다"(28.1%, 21.1%)의 남녀간 차이가 현저하였다. 교급별로

는 중학생과 고교생간의 긍정응답률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다.

내적인 정치적 효능감의 척도점수는 문항별 응답결과를 역순으로 리코드한 평균값( $M = 2.14$ ,  $SD = .61$ )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내적인 정치적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척도의 신뢰도계수(Chronbach's  $\alpha$ )는 .89로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ICCS 2009년 조사에서는 .84).

내적인 정치적 효능감의 배경변인별 응답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학적 변인에서는 성별, 지역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남자의 내적인 정치적 효능감(2.19)이 여자(2.07)보다 높았고,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2.19)이 광역시(2.13), 시군부 청소년보다 높은 수준의 내적인 정치적 효능감을 나타내었다. 연령은 내적인 정치적 효능감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r = .004$ ,  $p > .05$ ).



[그림 IV-5] 내적인 정치적 효능감- 연령별

학교관련 변인에는 교급, 학업성적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일반고·중학교 학생(2.16, 2.13)이 전문고 학생(2.08)보다 정치적 효능감이 높았고, 학업성적이 상위권에 속할수록 정치적 효능감도 높은 수준으로서 세 집단간 차이가 뚜렷하였다(2.33, 2.14, 1.98)

가정관련 두 변인에서도 하위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부모학력이 대졸 이상인 집단(2.19)이 고졸 이하인 집단(2.07)보다 내적인 정치적 효능감이 높았으며, 경제수준 상위집단(2.26) 청소년의 내적인 정치적 효능감이 중간, 하위집단(2.08, 2.06)과 큰 격차를 두고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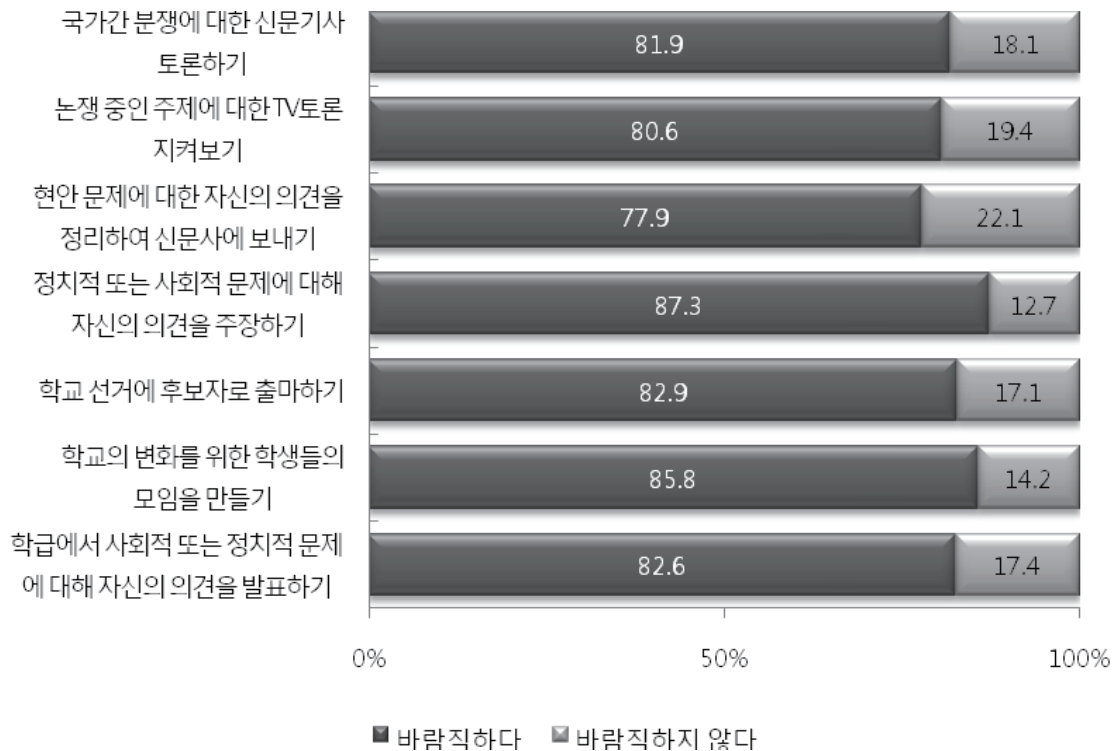
표 IV-3 내적인 정치적 효능감- 배경변인별

|         |                  | 사례수  | 평균   | 표준편차 | 통계치                                   |
|---------|------------------|------|------|------|---------------------------------------|
| 전체      |                  | 5549 | 2.14 | .61  |                                       |
| 성별      | 남자               | 2885 | 2.19 | .64  | t= 7.43 <sup>***</sup>                |
|         | 여자               | 2664 | 2.07 | .57  |                                       |
| 지역      | 서울 <sup>a</sup>  | 875  | 2.19 | .64  | F= 4.59 <sup>*</sup><br>c-b   a       |
|         | 광역시 <sup>b</sup> | 1495 | 2.13 | .61  |                                       |
|         | 시군부 <sup>c</sup> | 3179 | 2.12 | .60  |                                       |
| 교급      | 중학교 <sup>a</sup> | 3004 | 2.13 | .63  | F= 4.10 <sup>*</sup><br>c   a-b       |
|         | 일반고 <sup>b</sup> | 1969 | 2.16 | .57  |                                       |
|         | 전문고 <sup>c</sup> | 576  | 2.08 | .64  |                                       |
| 학업성적    | 상 <sup>a</sup>   | 1403 | 2.33 | .64  | F= 137.14 <sup>***</sup><br>c   b   a |
|         | 중 <sup>b</sup>   | 2329 | 2.14 | .58  |                                       |
|         | 하 <sup>c</sup>   | 1808 | 1.98 | .58  |                                       |
| 부모 학력   | 고졸 이하            | 2295 | 2.07 | .57  | t= -7.52 <sup>***</sup>               |
|         | 대졸 이상            | 3102 | 2.19 | .63  |                                       |
| 가정 경제수준 | 상 <sup>a</sup>   | 1894 | 2.26 | .63  | F= 56.77 <sup>***</sup><br>c-b   a    |
|         | 중 <sup>b</sup>   | 2427 | 2.08 | .58  |                                       |
|         | 하 <sup>c</sup>   | 1218 | 2.06 | .62  |                                       |

\* p<.05, \*\*p<.01, \*\*\*p<.001; ( )는 Duncan 사후검정 결과임

• 시민적 자아효능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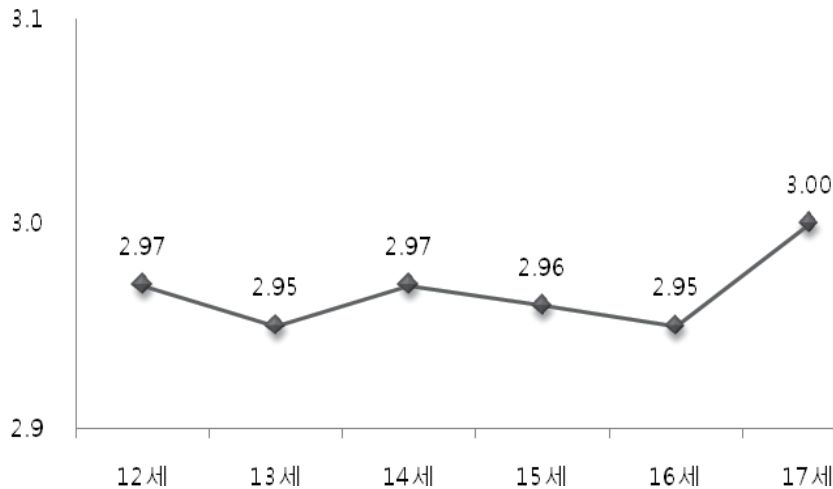
시민적 자아효능감의 측정을 위해 학교·사회 영역에서의 7가지 시민적 행동에 관한 항목을 제시하고 자신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매우 바람직하다"(1)에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4)에 이르는 4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항목별 응답결과(2점 척도로 리코드)는 다음의 [그림 IV-6]과 같다.



[그림 IV-6] 시민적 자아효능감- 단순빈도

시민적 자아효능감의 척도점수는 항목별 응답결과를 역순으로 리코드한 평균값( $M=3.00$ ,  $SD=.55$ )을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점수가 높을수록 시민적 자아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척도의 신뢰도계수(Chronbach's  $\alpha$ )는 .92로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배경변인의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학적 변인에서는 성별, 지역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여자의 시민적 자아효능감(3.04)이 남자(2.9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내적인 정치적 효능감과 상반되는 결과로서 주목된다. 연령은 시민적 자아효능감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r = .01, p > .05$ ).



[그림 IV-7] 시민적 자아효능감-연령별

학교관련 두 변인에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일반고 학생들의 시민적 자아효능감(3.01)이 중학교(2.96), 전문고(2.82)보다 높았고, 학업성적이 상층(3.08)인 청소년들이 중간층(2.99), 하층(2.85)보다 높은 수준이었고 세 집단간 차이도 뚜렷하였다.

가정관련 변인에서도 하위집단간 차이가 뚜렷하였다. 부모 학력이 대졸 이상인 집단이 고졸 이하 집단보다,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상층(3.01)이 중간층·하층(2.96, 2.92)보다 높은 수준의 시민적 자아효능감을 나타내었다.

표 IV-4 시민적 자아효능감- 배경변인별

|         |                  | 사례수  | 평균   | 표준편차 | 통계치                      |
|---------|------------------|------|------|------|--------------------------|
| 전체      |                  | 5505 | 2.97 | .55  |                          |
| 성별      | 남자               | 2854 | 2.90 | .61  | t= -9.15***              |
|         | 여자               | 2651 | 3.04 | .48  |                          |
| 지역      | 서울 <sup>a</sup>  | 869  | 3.01 | .55  | F= 7.66***<br>c   b-a    |
|         | 광역시 <sup>b</sup> | 1476 | 3.00 | .54  |                          |
|         | 시군부 <sup>c</sup> | 3160 | 2.94 | .56  |                          |
| 교급      | 중학교 <sup>a</sup> | 2970 | 2.96 | .55  | F= 26.58***<br>c   a   b |
|         | 일반고 <sup>b</sup> | 1960 | 3.01 | .53  |                          |
|         | 전문고 <sup>c</sup> | 575  | 2.82 | .62  |                          |
| 학업성적    | 상 <sup>a</sup>   | 1388 | 3.08 | .54  | F= 71.84***<br>c   b   a |
|         | 중 <sup>b</sup>   | 2310 | 2.99 | .52  |                          |
|         | 하 <sup>c</sup>   | 1798 | 2.85 | .59  |                          |
| 부모 학력   | 고졸 이하            | 2286 | 2.93 | .55  | t= -4.35***              |
|         | 대졸 이상            | 3067 | 3.00 | .55  |                          |
| 가정 경제수준 | 상 <sup>a</sup>   | 1872 | 3.01 | .55  | F= 9.34***<br>c-b   a    |
|         | 중 <sup>b</sup>   | 2416 | 2.96 | .54  |                          |
|         | 하 <sup>c</sup>   | 1207 | 2.92 | .58  |                          |

\* p<.05, \*\*p<.01, \*\*\*p<.001; ( )는 Duncan 사후검정 결과임

### 3. 종합분석

#### 1) 시민적지식, 내적인 정치적 효능감, 시민적 자아효능감의 상호관계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의 학습과 체험 등을 통해 시민적 지식, 즉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권리, 시민사회의 원리 등에 대한 이해가 높아갈수록 자신이 공동체와 정치체계내에서의 역할과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확신이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시민적 지식은 내적인 정치적 효능감과 시민적 자아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시민적 효능감이 높은 청소년들일수록 시민사회의 운영과 구성원리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학습의욕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시민적 지식과 내적인 정치적 효능감, 시민적 자아효능감은 일방적 영향관계가 아닌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세 변인간 관계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 청소년의 시민적 지식과 내적인 정치적 효능감, 시민적 자아효능감은 상호 영향관계에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1의 검증을 위해 [그림 IV-8]과 같이 구조방정식 모형(연구모형 1)을 설정하였다. 모형에 투입된 변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외생변인은 세 변인간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배경변인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연령과 부모학력 변인을 투입하였다. 연령은 단일항목 척도이므로 하나의 관측변인으로, 부모학력 잠재변인은 아버지의 학력과 어머니의 학력을 관측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내생변인은 시민적 지식과 내적인 정치적 효능감, 시민적 자아효능감의 세가지이다. 시민적 지식은 조사표의 관련 13문항 중 정답응답 문항의 개수를 합산한 값으로서 단일항목이기 때문에 하나의 관측변인으로 구성된다. 내적인 정치적 효능감과 시민적 자아효능의 잠재변인은 해당 조사항목들의 요인구조를 검토하여 각각 2개의 관측변인(정치효능1, 2; 시민효능1, 2)으로 문항묶음(item parceling)<sup>15)</sup>하여 구성하였다.<sup>16)</sup>

15) 구조방정식의 관측변인 구성에서 문항묶음을 사용하면 추정오차를 줄일 수 있고 자료의 연속성과 정상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일 관측변인을 구성하는 항목들간에는 일치원성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문항묶음의 방식으로 요인분석이 활용된다(홍세희, 2007, p. 32).

16) 내적인 정치적 효능감의 관측변인 구성항목은 다음과 같다. 정치효능 1: "나는 또래 친구들에 비해 정치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 "나는 대부분의 정치문제들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나는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정치문제들을 잘 이해하고

모형에 투입될 변인(관측변인)들의 기술통계치는 다음의 <표 IV-5>와 같다. 모든 변인들이 구조방정식 모형에서의 정상분포 조건<sup>17)</sup>(Hong, S., Malik, M., & Lee M. K., 2003)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 연구모형 1- 변인별 기술치 통계

|              |       | 평균   | 표준편차 | 왜도    | 첨도     |
|--------------|-------|------|------|-------|--------|
| 연령           |       | 3.39 | 1.69 | .104  | -1.236 |
| 부모학력         | 부친학력  | 5.01 | 1.22 | -.047 | -.853  |
|              | 모친학력  | 4.77 | 1.13 | .327  | -.692  |
| 시민적 지식       |       | 7.56 | 2.95 | -.190 | -.804  |
| 내적인 정치적      | 정치효능1 | 2.13 | .62  | .225  | .401   |
| 효능감          | 정치효능2 | 2.14 | .84  | .400  | -.423  |
| 시민적<br>자아효능감 | 시민효능1 | 2.96 | .57  | -.829 | 2.114  |
|              | 시민효능2 | 2.97 | .59  | -.832 | 2.227  |

연구모형 1의 변인간 상관관계(Pearson's r)는 다음의 <표 IV-6>과 같다. 시민적 자아효능감의 두 관측변인간 상관관계가 .76으로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sup>18)</sup> 의심할 수준은 아니었다.

있다" "정치문제에 관한 토론이 벌어지면, 나는 항상 참여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정치적 의견을 가지고 있다", 정치효능2: "성인이 되면, 아마도 나는 정치에 참여할 것이다".

시민적 효능감의 관측변인 구성항목은 다음과 같다. 시민효능 1: "학교의 변화를 위한 학생들의 모임을 만들기" "학교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기" "학급에서 사회적 또는 정치적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기" "현안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여 신문에 보내기" "논쟁 중인 주제에 대한 tv토론 지켜보기", 시민효능 2: "국가간 분쟁에 대한 신문기사 토론하기" "정치적 또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

17) 정상분포 곡선의 요건을 충족하는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의 기준은 학자들마다 상이하다. 본 연구에서는 왜도(절대값) 2 이하, 첨도(절대값) 4 이하(Hong, Malik, & Lee, 2003)의 기준을 따르기로 한다.

18) 본 연구에서는 다중공선성이 의심되는 상관계수의 허용치를 .085로 설정하였다.

표 IV-6 연구모형 1- 변인간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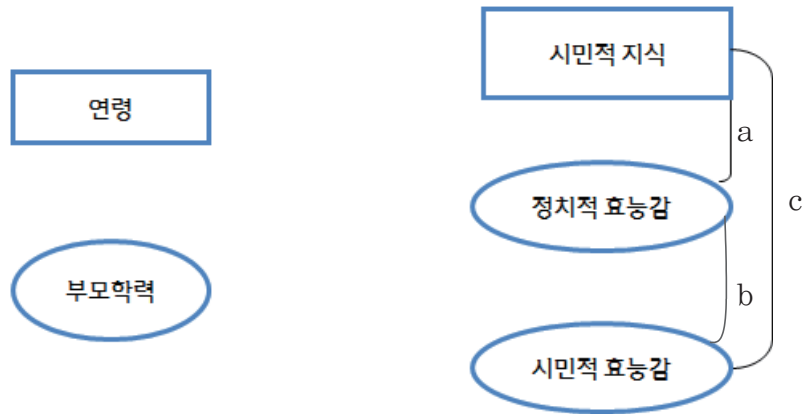
|          | 2        | 3        | 4       | 5       | 6       | 7       | 8       |
|----------|----------|----------|---------|---------|---------|---------|---------|
| 1 연령     | -.093*** | -.128*** | .259*** | .015    | -.038** | .007    | .024    |
| 2 부친학력   | 1        | .657***  | .117*** | .113*** | .046**  | .058*** | .068*** |
| 3 모친학력   |          | 1        | .079*** | .107*** | .053*** | .040**  | .043**  |
| 4 시민적 지식 |          |          | 1       | .137*** | .008    | .236*** | .241*** |
| 5 정치효능1  |          |          |         | 1       | .530*** | .262*** | .274*** |
| 6 정치효능2  |          |          |         |         | 1       | .204*** | .186*** |
| 7 시민효능1  |          |          |         |         |         | 1       | .764*** |
| 8 시민효능2  |          |          |         |         |         |         | 1       |

\*  $p < .05$ , \*\* $p < .01$ , \*\*\* $p < .001$

연구가설 1을 보다 구체화하면 다음의 세가지 작업가설로 정리할 수 있다.

- H1 : 시민적 지식은 내적인 정치적 효능감과 정적인 상호 영향관계에 있을 것이다.  
H2 : 내적인 정치적 효능감은 시민적 자아효능감과 정적인 상호 영향관계에 있을 것이다.  
H3 : 시민적 자아효능감은 시민적 지식과 정적인 상호 영향관계에 있을 것이다.

위의 세가지 작업가설의 검증을 위해 [그림 IV-8]과 같이 구조방정식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경로는 가설검증과 직접 관련된 경로만을 표시하였고, 외생변인(연령, 부모학력)과 내생변인(시민적 지식, 내적인 정치적 효능감, 시민적 자아효능감)간의 인과경로는 그림에서 생략하였다. 경로 a, b, c는 각각 작업가설 H1, H2, H3와 관련되어 있다.



[그림 IV-8] 연구모형 1- 경로도

모형의 검증은 가설과 관련된 복수의 경쟁모형을 설정하고 이중에서 변인간의 관계를 가장 간명한 형태로 잘 설명하는, 즉 적합도와 간명성이 높은 모형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검증 대상이 되는 경쟁모형들은 다음과 같다.

- 모형 1 : a, b, c의 경로를 모두 설정한 모형으로서 위의 세가지 가설을 모두 지지한다.
- 모형 2 : 경로 a를 제거한 모형으로서 가설 2와 가설 3을 지지한다.
- 모형 3 : 경로 b를 제거한 모형으로서 가설1과 가설 3을 지지한다.
- 모형 4 : 경로 c를 제거한 모형으로서 가설1과 가설2를 지지한다.
- 모형 5 : 경로 a, b를 제거한 모형으로 가설 3을 지지한다.
- 모형 6 : 경로 b, c를 제거한 모형으로서 가설 1을 지지한다.
- 모형 7 : 경로 a, c를 제거한 모형으로서 가설 2를 지지한다.
- 모형 8 : a, b, c의 세 경로를 모두 제거한 모형으로서 세가지 가설을 모두 기각한다.

모형의 비교는 자유도가 같은 모형은 적합도 지수 비교를 통해, 자유도가 다른 내포모델들은  $\chi^2$ 차이검증의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각 모형의  $\chi^2$ 값과 적합도 지수는 <표 IV-7>과 같다.

표 IV-7 연구모형 1-  $\chi^2$ 값과 적합도 지수

|                      | $\chi^2$ | df | RMSEA | TLI  | CFI  |
|----------------------|----------|----|-------|------|------|
| 모형 1 : 경로 a, b, c 설정 | 108.686  | 12 | .038  | .974 | .991 |
| 모형 2 : 경로 a 제거       | 167.644  | 13 | .046  | .961 | .986 |
| 모형 3 : 경로 b 제거       | 538.531  | 13 | .085  | .868 | .952 |
| 모형 4 : 경로 c 제거       | 461.473  | 13 | .079  | .887 | .959 |
| 모형 5 : 경로 a, b 제거    | 570.744  | 14 | .085  | .870 | .950 |
| 모형 6 : 경로 b, c 제거    | 824.942  | 14 | .102  | .811 | .927 |
| 모형 7 : 경로 a, c 제거    | 469.097  | 14 | .076  | .894 | .959 |
| 모형 8 : 경로 a, b, c 제거 | 914.854  | 15 | .104  | .804 | .918 |

모형 2, 3, 4와 모형 5, 6, 7은 자유도가 같기 때문에 적합도 지수를 비교하였다. 모형 2, 3, 4(df= 13) 중에서는 경로 a를 제거한 모형 2가 RMSEA가 가장 작고, TLI와 CFI가 크기 때문에 가장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모형 5, 6, 7(df= 14) 중에서는 경로 a와 c를 제거한 모형 7이 가장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남아 있는 모형 8과 적합도 지수 비교를 통해 선택된 모형 7, 모형 2는 모두 순차적으로 포화모델인 모형 1과 내포관계에 있기 때문에  $\chi^2$ 차이검증을 통해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모형 8과 7의  $\chi^2$ 값 차이는 유의수준 .001, 자유도 1에서의  $\chi^2$ 값보다 크기 때문에 ( $\Delta\chi^2 = 445.757 > \chi^2_{.001}(1) = 10.827, \Delta df = 1$ ) 자유도가 낮은 모형 7이 선택되었다. 같은 방식으로 모형 7과 2의  $\chi^2$ 차이검증( $\Delta\chi^2 = 301.453 > \chi^2_{.001}(1) = 10.827, \Delta df = 1$ )에서는 모형 2가 선택되었고, 마지막으로 모형 2와 1의  $\chi^2$ 차이검증 결과( $\Delta\chi^2 = 58.958 > \chi^2_{.001}(1) = 10.827, \Delta df = 1$ ), 모형 1이 최종모형으로 결정되었다.

모형 1은 세 변인간의 상호영향 관계의 존재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상관관계의 방향과 통계적 유의도를 알아보기 위해 모수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의 <표 IV-8>과 같다. 시민적 지식과 내적인 정치적 효능감, 시민적 자아효능감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었고, 두가지의 효능감 변인간의 상관계수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작업가설 1, 2, 3이 모두 채택되었다.

표 IV-8 연구모형 1- 최종모형의 모수추정치

|                         | 모형1                 |       | 수정모형                |       |
|-------------------------|---------------------|-------|---------------------|-------|
|                         | 비표준화계수              | 표준화계수 | 비표준화계수              | 표준화계수 |
| 연령 → 시민적 지식             | .489 <sup>***</sup> | .280  | .476 <sup>***</sup> | .273  |
| 연령 → 내적인 정치적 효능감        | .008                | .028  | —                   | —     |
| 연령 → 시민적 자아효능감          | .009 <sup>*</sup>   | .030  | —                   | —     |
| 부모학력 → 시민적 지식           | .510 <sup>***</sup> | .158  | .506 <sup>***</sup> | .157  |
| 부모학력 → 내적인 정치적 효능감      | .080 <sup>***</sup> | .147  | .078 <sup>***</sup> | .143  |
| 부모학력 → 시민적 자아효능감        | .044 <sup>***</sup> | .082  | .042 <sup>***</sup> | .076  |
|                         | 공분산계수               | 상관계수  | 공분산계수               | 상관계수  |
| 시민적 지식 - 내적인 정치적 효능감    | .164 <sup>***</sup> | .118  | .166 <sup>***</sup> | .118  |
| 내적인 정치적 효능감 - 시민적 자아효능감 | .083 <sup>***</sup> | .338  | .085 <sup>***</sup> | .341  |
| 시민적 효능감 - 시민적 지식        | .377 <sup>***</sup> | .269  | .378 <sup>***</sup> | .269  |

수정모형의 적합도 :  $\chi^2 = 114.727(df = 14)$ , CFI = .991, TLI = .977, RMSEA = .036

\*  $p < .05$ , \*\* $p < .01$ , \*\*\* $p < .001$ ; ( )는 Duncan 사후검정 결과임

다음으로 모형 1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를 제거한 수정모형을 통해 배경변인이 시민적 지식과 내적인 정치적 효능감, 시민적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연령은 시민적 지식에만 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나머지 두 변인에 대해서는 인과적 효과를 갖지 않는 것을 나타냈다. 반면에 부모의 학력은 세 변인 모두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인과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시민사회와 관련한 청소년의 효능감 수준은 가정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정치·사회문제 관심과 시민적 지식, 정치적·시민적 효능감

특정한 문제에 대한 개인의 높은 관심은 그 문제를 이해하고 대처하는 능력, 나아가서는 행동으로 연결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정치적 관심은 효능감의 증진과 더불어 장래의 정치적 행동을 예견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van Deth, et al., 1999).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정치·사회적 관심이 시민적 지식과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2 : 정치·사회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진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시민적 지식과 내적인 정치적 효능감, 시민적 자아효능감의 수준이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2의 검증을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은 [그림 IV-9](연구모형 2)와 같다. 모형에 투입된 외생변인은 연령과 부모의 학력 두가지로서, 연령은 단일 관측변인이며 부모의 학력은 아버지의 학력과 어머니의 학력을 관측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내생변인은 정치·사회문제 관심과 시민적 지식, 내적인 정치적 효능감, 시민적 자아효능감의 네가지이다. 정치·사회문제 관심은 배경변인이 나머지 세 변인에 미치는 효과를 연결하는 매개변인으로서 요인구조에 대한 검토를 통해 두 개의 관측변인(정치·사회 관심1, 2)<sup>19)</sup>으로 문항묶음을하였다. 시민적 지식은 단일항목이므로 관측변인을 그대로 모형에 투입하였고, 내적인 정치적 효능감과 시민적 자아효능감의 잠재변인은 연구모형 1에서와 동일하게 두개의 관측변인(정치효능 1, 2; 시민효능 1, 2)으로 구성하였다.

연구모형에 투입될 변인의 기술통계치는 다음의 <표 IV-9>와 같다. 왜도와 첨도가 모두 정상분포에 가까운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IV-9 연구모형 2- 변인의 기술통계치

|            |          | 평균   | 표준편차 | 왜도    | 첨도    |
|------------|----------|------|------|-------|-------|
| 정치·사회문제 관심 | 정치·사회관심1 | 2.43 | .74  | -.197 | -.270 |
|            | 정치·사회관심2 | 2.22 | .76  | .198  | -.235 |

\* 모형에 투입된 다른 변인들의 기술통계치는 <표 IV-5> 참조

연구모형 2의 변인간 상관관계(Pearson's r)는 다음의 <표 IV-10>과 같다. 정치·사회문제 관심과 시민적 자아효능감의 관측변인들간의 상관계수가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으나 모두 .8 이하로서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19) 정치·사회문제 관심의 관측변인은 다음과 같다. 정치·사회관심1: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문제" "국가 차원의 정치적인 문제" "지역사회(시/군)의 정치와 관련된 문제", 정치·사회관심2: "다른나라 내부의 정치적인 문제" "국제적인 차원의 정치적인 문제"

표 IV-10 연구모형 2- 변인간 상관관계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1 연령       | -.093*** | -.128*** | .259*** | .119*** | .067*** | .015    | -.038** | .007    | .024    |
| 2 부친학력     | 1        | .657***  | .117*** | .066*** | .067*** | .113*** | .046**  | .058*** | .068*** |
| 3 모친학력     |          | 1        | .079*** | .047**  | .066*** | .107*** | .053*** | .040**  | .043**  |
| 4 시민적지식    |          |          | 1       | .247*** | .163*** | .137*** | .008    | .236*** | .241*** |
| 5 정치·사회관심1 |          |          |         | 1       | .756*** | .589*** | .335*** | .319*** | .334*** |
| 6 정치·사회관심2 |          |          |         |         | 1       | .550*** | .311*** | .266*** | .282*** |
| 7 정치효능1    |          |          |         |         |         | 1       | .530*** | .262*** | .274*** |
| 8 정치효능2    |          |          |         |         |         |         | 1       | .204**  | .186**  |
| 9 시민효능1    |          |          |         |         |         |         |         | 1       | .764*** |
| 10 시민효능2   |          |          |         |         |         |         |         |         | 1       |

\*  $p < .05$ , \*\* $p < .01$ ,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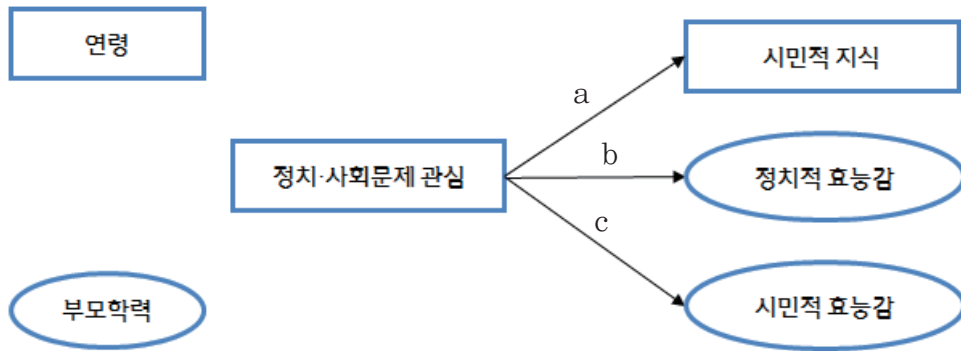
연구가설 2의 검증을 위한 작업가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H1 : 정치·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은 시민적 지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 정치·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은 내적인 정치적 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 정치·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은 시민적 자아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작업가설 H1~3의 검증을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경로도는 다음의 [그림 IV-9]와 같다. 연령과 부모학력은 외생변인으로서 내생변인 모두에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였고, 내생변인 중 정치·사회문제 관심은 외생변인과 나머지 내생변인들의 인과적 관계를 연결하는 매개변인이 된다. 인과경로 a, b, c는 각각 작업가설 H1, H2, H3와 관련되어 있다



[그림 IV-9] 연구모형 2- 경로도

모형의 검증은 가설과 관련된 복수의 경쟁모형을 설정하여 그중에서 가장 적합도가 높은 경쟁모형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작업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한 경쟁모형은 다음과 같다.

- 모형 1 : a, b, c의 경로를 모두 설정한 모형으로서, H1, H2, H3를 모두 지지한다.
- 모형 2 : 경로 a를 제거한 모형으로서, H 2와 H3를 지지한다.
- 모형 3 : 경로 b를 제거한 모형으로서, H1과 H3를 지지한다.
- 모형 4 : 경로 c를 제거한 모형으로서, H1과 H2를 지지한다.
- 모형 5 : 경로 a와 b를 제거한 모형으로, H3를 지지한다.
- 모형 6 : 경로 b와 c를 제거한 모형으로서, H1을 지지한다.
- 모형 7 : 경로 a와 c를 제거한 모형으로서, H2를 지지한다.
- 모형 8 : a, b, c의 세 경로를 모두 제거한 모형으로서, H1, H2, H3를 모두 기각한다.

경쟁모형간의 비교를 위하여 각 모형의  $\chi^2$ 값과 적합도 지수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의 <표 IV-11>과 같다. 경쟁모형의 비교는 적합도 지수와  $\chi^2$ 차이검증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자유도가 같은 모형은 적합도 지수만으로 비교가 가능하다. 모형 2, 3, 4(df= 23) 중에서는 RMSEA가 가장 작은 한편 TLI, CFI의 수치가 1에 가까운 모형 2가 선택되었다. 모형 5, 6, 7(df= 24) 중에서는 모형 7의 RMSEA가 가장 작고 TLI와 CFI가 크기 때문에 모형 7이 선택되었다. 모형 8과 7, 2는 모두 순차적으로 포화모델인 모형1과 내포관계에 있기 때문에  $\chi^2$ 차이검정의 방식으로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할 수 있다. 모형8과 7의  $\chi^2$ 값 차이는 유의수준 .001, 자유도 1에서의  $\chi^2$ 값보다 크기 때문에( $\Delta\chi^2= 2118.18 > \chi^2_{.001}(1)= 10.827$ ,  $\Delta df=1$ ), 자유도가 낮은 모형 7이 선택되었다. 같은 방식으로 모형 7과

모형 2의  $\chi^2$  차이검증 결과( $\Delta\chi^2 = 557.479 > \chi^2_{.001}(1) = 10.827, \Delta df = 1$ ), 모형 2가 선택되었고, 마지막으로 모형 2와 1의  $\chi^2$  차이검증( $\Delta\chi^2 = 227.980 > \chi^2_{.001}(1) = 10.827, \Delta df = 1$ )을 통해 모형 1이 최종모형으로 결정되었다.

표 IV-11 연구모형 2- 경쟁모형의  $\chi^2$  값과 적합도

|                      | $\chi^2$ | df | RMSEA | TLI  | CFI  |
|----------------------|----------|----|-------|------|------|
| 모형 1 : 경로 a, b, c 설정 | 185.680  | 22 | .037  | .978 | .991 |
| 모형 2 : 경로 a 제거       | 413.660  | 23 | .055  | .950 | .979 |
| 모형 3 : 경로 b 제거       | 2677.630 | 23 | .144  | .663 | .859 |
| 모형 4 : 경로 c 제거       | 885.256  | 23 | .082  | .891 | .954 |
| 모형 5 : 경로 a, b 제거    | 2867.338 | 24 | .146  | .654 | .849 |
| 모형 6 : 경로 b, c 제거    | 2972.495 | 24 | .149  | .642 | .844 |
| 모형 7 : 경로 a, c 제거    | 971.139  | 24 | .084  | .885 | .950 |
| 모형 8 : 경로 a, b, c 제거 | 3089.319 | 25 | .148  | .642 | .837 |

모형1은 a, b, c의 모든 인과경로를 설정하고 있는데, 각 경로의 인과성의 방향을 알기 위해서는 모수 추정이 필요하다. 모형 1의 모수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의 <표 IV-12>와 같다. 정치·사회문제 관심은 시민적 지식과 내적인 정치적 효능감, 시민적 자아효능감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내적인 정치적 효능감에 대한 인과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치·사회문제 관심의 인과적 효과에 관한 작업가설 H1, H2, H3가 모두 채택되었다. 정치·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시민적 지식과 내적인 정치적 효능감, 시민적 자아효능감의 수준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표 IV-12 연구모형 2- 최종모형의 모수추정치

|                          | 모형1                  |       | 수정모형                 |       |
|--------------------------|----------------------|-------|----------------------|-------|
|                          | 비표준화계수               | 표준화계수 | 비표준화계수               | 표준화계수 |
| 연령 → 정치·사회문제 관심          | .052 <sup>***</sup>  | .129  | .051 <sup>***</sup>  | .128  |
| 연령 → 시민적 지식              | .442 <sup>***</sup>  | .253  | .449 <sup>***</sup>  | .257  |
| 연령 → 내적인 정치적 효능감         | -.016 <sup>***</sup> | -.057 | -.015 <sup>***</sup> | -.055 |
| 연령 → 시민적 자아효능감           | -.006                | -.022 | -                    | -     |
| 부모학력 → 정치·사회문제 관심        | .073 <sup>***</sup>  | .099  | .073 <sup>***</sup>  | .099  |
| 부모학력 → 시민적 지식            | .443 <sup>***</sup>  | .138  | .446 <sup>***</sup>  | .138  |
| 부모학력 → 내적인 정치적 효능감       | .039 <sup>***</sup>  | .076  | .039 <sup>***</sup>  | .076  |
| 부모학력 → 시민적 자아효능감         | .023 <sup>***</sup>  | .042  | .025 <sup>**</sup>   | .046  |
| 정치·사회문제 관심 → 시민적 지식      | .905 <sup>***</sup>  | .208  | .903 <sup>***</sup>  | .207  |
| 정치·사회문제 관심 → 내적인 정치적 효능감 | .473 <sup>***</sup>  | .681  | .472 <sup>***</sup>  | .680  |
| 정치·사회문제 관심 → 시민적 자아효능감   | .292 <sup>***</sup>  | .400  | .289 <sup>***</sup>  | .396  |

수정모형 :  $\chi^2 = 188.099(df = 23)$ , CFI = .991, TLI = .979, RMSEA = .036

\*  $p < .05$ , \*\* $p < .01$ , \*\*\* $p < .001$ ; ( )는 Duncan 사후검정 결과임

모형 1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를 제거한 수정모형을 통해 배경변인이 시민적 지식과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은 시민적 지식에 대해서는 정적인 영향을, 내적 정치적 효능감에 대해서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시민적 자아효능감에 대해서는 정치·사회문제 관심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부모의 학력은 시민적 지식과 효능감 모두에 대하여 직접적인 인과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시민적 지식과 내적인 정치적 효능감, 시민적 자아효능감의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제 5 장

# 시민적 가치 인식과 태도

1. 민주주의와 시민역할
2. 사회적 평등관
3. 국가와 사회제도
4. 종합분석



# 제 5 장

## 시민적 가치 인식과 태도

### 1. 민주주의와 시민역할

#### • 민주적 가치 지지도

민주적 가치에 대하여 청소년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5가지 설명을 제시하고 그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4점 Likert척도 - "매우 그렇다"(1), "그렇다"(2), "그렇지 않다"(3), "전혀 그렇지 않다"(4) - 로 응답하게 하였다. 각 항목별 응답빈도를 동의 여부를 기준(그렇다/아니다)으로 리코드한 값은 다음의 [그림 V-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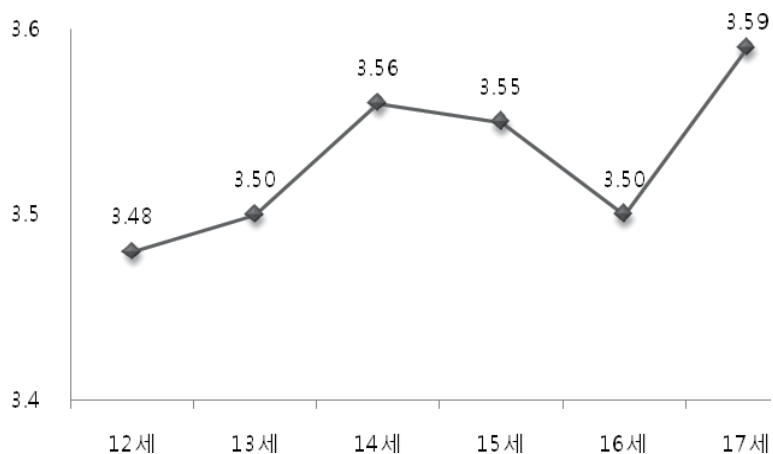
[그림 V-1] 민주적 가치 지지도 - 단순빈도

청소년들은 조사대상이 된 모든 항목에 대하여 절대 다수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민주적 가치에 대한 높은 지지도를 보여 주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의 긍정응답률이 가장 높았고(95.7%), 긍정응답률이 가장 낮은 "국민들은 언제나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자유를 누려야 한다"도 9할 수준(89.3%)에 달하였다.

조사항목별 남녀간의 응답결과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대체로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지지도를 보여주었다. 교급별로는 "국민들은 언제나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자유를 누려야 한다"의 한 항목을 제외하고는 중학생의 긍정응답률이 고교생보다 다소 높은 편이었다.

민주적 가치 지지도(students' support for democratic values)의 척도점수는 항목별 응답결과를 역순으로 리코드한 평균값( $M = 3.53$ ,  $SD = .53$ )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민주적 가치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척도의 신뢰도계수(Chronbach's  $\alpha$ )는 .86로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민주적 가치 지지도의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학적 변인에서는 성별, 지역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여자가 남자보다 민주적 가치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고(3.57, 3.49), 지역별로는 광역시와 서울 청소년(3.58, 3.55)의 민주적 가치 지지도가 시군부(3.5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한편 연령은 민주적 가치 지지도와 매우 약한 수준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r = .05$ ,  $p < .001$ ). 중학교 시기(12~14세)에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민주적 가치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가다가 고등학교 학령기에는 감소 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그림 V-2] 민주적 가치 지지도-연령별

학교관련 두 변인에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일반고 학생의 지지도가 가장 높았고(3.59), 다음으로 중학교(3.52), 전문고(3.40)의 순이었고, 세 집단간 차이는 매우 뚜렷하였다. 학업성적별로는 하위집단의 민주적 가치 지지도(3.41)가 중간·상위집단(3.56, 3.63)과 큰 격차를 두고 낮은 수준이었다.

가족관련 변인에서는 부모학력 변인에서만 하위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부모학력이 높은 집단(대졸 이상; 3.55)이 낮은 집단(고졸 이하; 3.51)보다 민주적 가치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하위집단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 민주적 가치 지지도- 배경변인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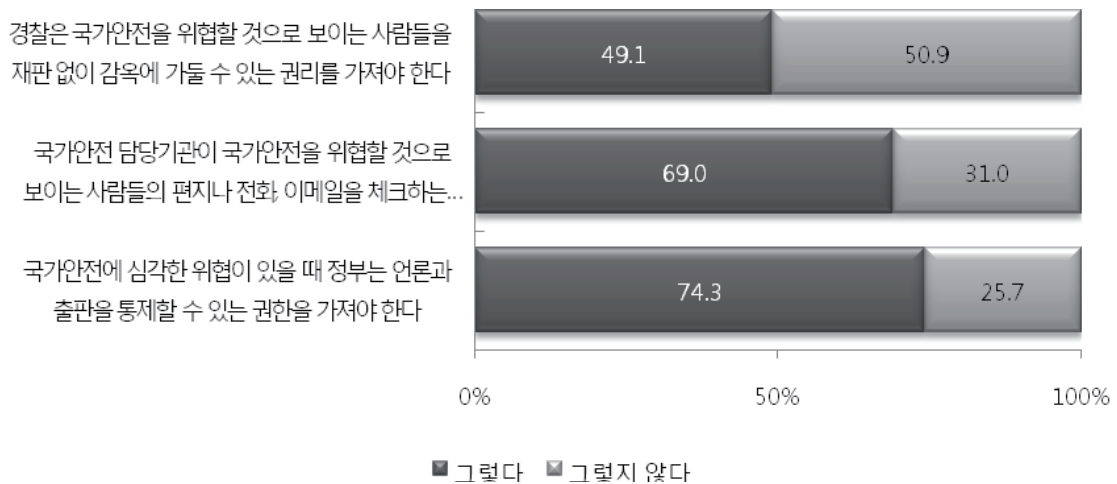
|         |                  | 사례수  | 평균   | 표준편차 | 통계치                          |
|---------|------------------|------|------|------|------------------------------|
| 전체      |                  | 5538 | 3.53 | .53  |                              |
| 성별      | 남자               | 2879 | 3.49 | .57  | t= -5.46***                  |
|         | 여자               | 2659 | 3.57 | .47  |                              |
| 지역      | 서울 <sup>a</sup>  | 874  | 3.55 | .49  | F= 12.10***<br>( c   a-b )   |
|         | 광역시 <sup>b</sup> | 1491 | 3.58 | .49  |                              |
|         | 시군부 <sup>c</sup> | 3173 | 3.50 | .55  |                              |
| 교급      | 중학교 <sup>a</sup> | 2994 | 3.52 | .52  | F= 33.94***<br>( c   a   b ) |
|         | 일반고 <sup>b</sup> | 1966 | 3.59 | .49  |                              |
|         | 전문고 <sup>c</sup> | 578  | 3.40 | .65  |                              |
| 학업성적    | 상 <sup>a</sup>   | 1407 | 3.63 | .47  | F= 75.93***<br>( c   a-b )   |
|         | 중 <sup>b</sup>   | 2318 | 3.56 | .50  |                              |
|         | 하 <sup>c</sup>   | 1804 | 3.41 | .58  |                              |
| 부모 학력   | 고졸 이하            | 2295 | 3.51 | .54  | t= -3.11**                   |
|         | 대졸 이상            | 3092 | 3.55 | .52  |                              |
| 가정 경제수준 | 상 <sup>a</sup>   | 1886 | 3.54 | .53  | F= .47<br>( c-b-a )          |
|         | 중 <sup>b</sup>   | 2425 | 3.53 | .52  |                              |
|         | 하 <sup>c</sup>   | 1218 | 3.53 | .54  |                              |

\* p< .05, \*\*p<.01,\*\*\*p<.001; ( )는 Duncan 사후검정 결과임

### • 시민적 기본권 유보에 대한 태도

2001년 세계무역센터 테러사건을 기점으로 국제사회에서는 민주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Schulz, et al., 2010). 특히 테러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시민적 권리를 유보할 수 있을 것인가는 모든 민주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과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ICCS는 이와 같은 국제상황을 고려하여 국가 안전이 위기에 처했을 때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문제를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위기상황에서의 시민권 제한에 대한 3가지 조사항목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4점 Likert척도 - "매우 그렇다"(1), "그렇다"(2), "그렇지 않다"(3), "전혀 그렇지 않다"(4) - 로 응답하게 하였다. 각 항목별 응답결과를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리코드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그림 V-3]과 같다.



[그림 V-3] 시민권 유보에 대한 태도 - 단순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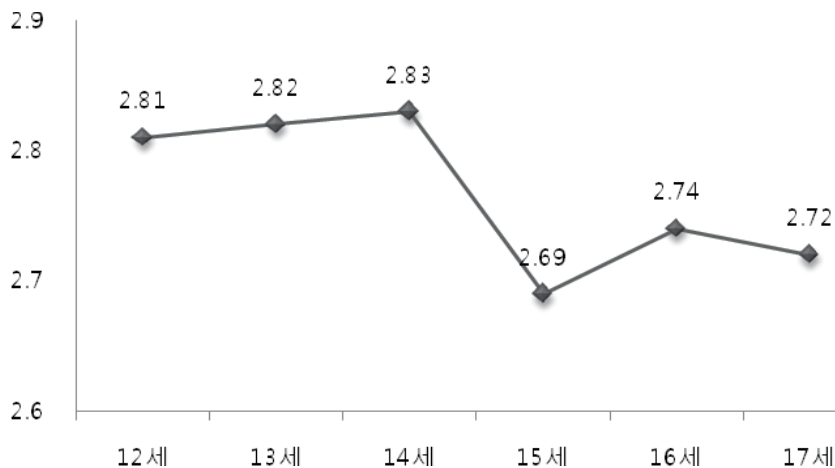
위기상황에 놓였을 때 정부에 언론·출판 통제권을 부여하고 위험인물의 편지/전화/이메일 체크 권한을 부여하는 데 대해서는 7할 안팎의 청소년이 찬성한 반면, 재판 없이 위험인물을 수감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찬성응답률은 5할 수준에 머물렀다. 청소년들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박탈을 가장 심각한 기본권의 침해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20)</sup>

20) 중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ICCS 2009년 조사에서도 정부에 재판 없이 수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한국 청소년들의 긍정응답률은 조사대상 38개국 중 벨기에, 그리스, 태국과 더불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Schulz, et al., 2010, p. 91).

각 조사항목에 대한 성별·교급별 응답결과의 차이는 한 항목을 제외하고는 그리 크지 않았다. 위기상황에서의 언론·출판 통제에 대하여 중학생은 80.0%가 찬성한 반면, 고교생의 찬성응답률은 67.5%에 머물러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고교생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부록 기초통계표 참조).

시민권 유보에 대한 태도 변인은 항목별 응답결과를 역순으로 리코드한 평균값을 척도점수( $M=2.77$ ,  $SD=.70$ )로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위기상황에서의 시민권 유보·제한에 찬성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척도의 내적 신뢰도계수(Chronbach's  $\alpha$ )는 .64로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배경변인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학적 변인에서 성별·지역별 하위집단간의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은 반면, 연령은 민주적 가치 유보에 대한 태도와 매우 약한 수준의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r=-.06$ ,  $p<.001$ ). 대체로 14세까지의 낮은 연령층이 15세 이상 높은 연령층보다 위기상황에서의 민주적 가치 유보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V-4] 민주적 가치 유보에 대한 태도-연령별

학교관련 두 변인에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문고와 중학교(2.86, 2.82) 학생들이 일반고(2.68)보다, 학업성적 하위·중간 집단(2.81, 2.79)이 상위집단(2.70)보다 위기상황에서의 민주적 가치 유보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가족관련 변인에서는 부모학력별 하위집단간 차이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부모학력이 고졸 이하인 청소년들이 대졸 이상인 경우보다 민주적 가치 유보에 대해 보다 긍정적이었으며, 거주지역별 하위집단간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V-2 민주적 가치 유보에 대한 태도- 배경변인별

|         |                  | 사례수  | 평균   | 표준편차 | 통계치                                    |
|---------|------------------|------|------|------|----------------------------------------|
| 전체      |                  | 5538 | 2.77 | .72  |                                        |
| 성별      | 남자               | 2879 | 2.78 | .67  | t= -.56                                |
|         | 여자               | 2659 | 2.79 | .68  |                                        |
| 지역      | 서울 <sup>a</sup>  | 874  | 2.77 | .70  | F= .19                                 |
|         | 광역시 <sup>b</sup> | 1491 | 2.77 | .71  |                                        |
|         | 시군부 <sup>c</sup> | 3173 | 2.82 | .68  |                                        |
| 교급      | 중학교 <sup>a</sup> | 2994 | 2.68 | .72  | F= 31.21 <sup>**</sup><br>( b   a-c )  |
|         | 일반고 <sup>b</sup> | 1966 | 2.86 | .70  |                                        |
|         | 전문고 <sup>c</sup> | 578  | 2.70 | .73  |                                        |
| 학업성적    | 상 <sup>a</sup>   | 1407 | 2.79 | .70  | F= 11.10 <sup>***</sup><br>( a   b-c ) |
|         | 중 <sup>b</sup>   | 2318 | 2.81 | .67  |                                        |
|         | 하 <sup>c</sup>   | 1804 | 2.81 | .67  |                                        |
| 부모 학력   | 고졸 이하            | 2295 | 2.74 | .72  | t= 3.35 <sup>**</sup>                  |
|         | 대졸 이상            | 3092 | 2.76 | .72  |                                        |
| 가정 경제수준 | 상 <sup>a</sup>   | 1886 | 2.79 | .70  | F= 1.11                                |
|         | 중 <sup>b</sup>   | 2425 | 2.76 | .67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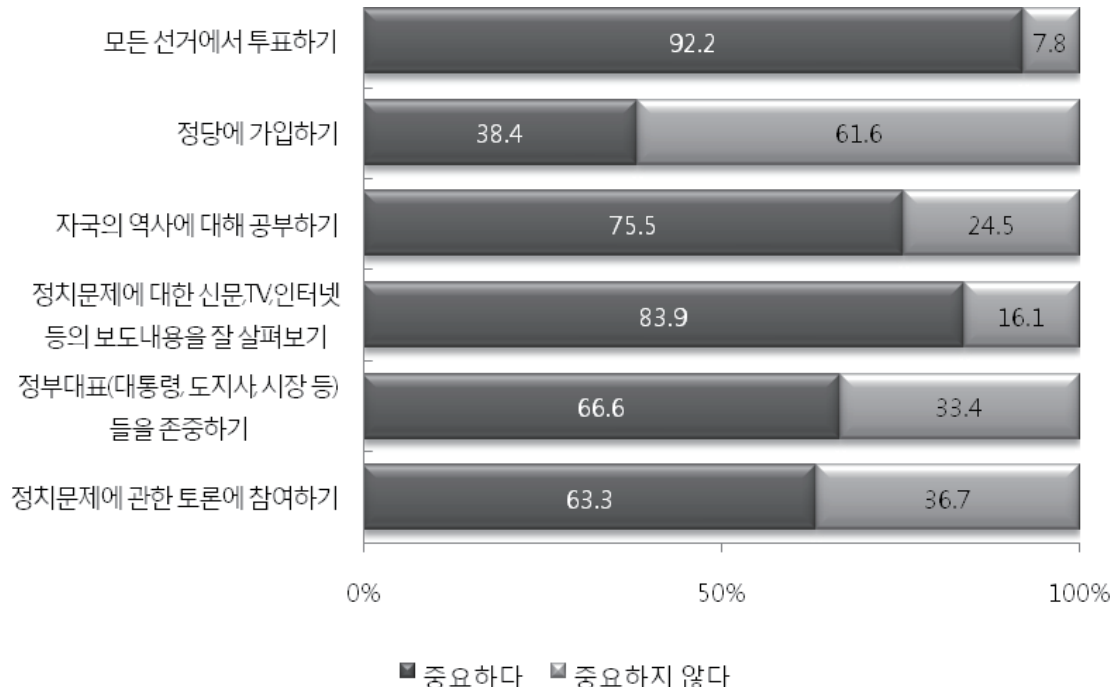
\* p< .05, \*\*p<.01, \*\*\*p<.001; ( )는 Duncan 사후검정 결과임

#### ● 전통적 시민역할의 중요성

바람직한 시민성(citizenship)/시민역할에 대한 관점은 국가와 사회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Nelson & Kerr(2006)는 시민성을 적극적 시민성과 소극적 시민성(국가적 정체성, 애국심, 충성심)로 구분하고, 적극적 시민성을 다시 전통적 시민행동(conventional citizenship behavior)과 사회운동 관련 시민행동(social-movement-related citizenship behavior)으로 분류하였다. 전자가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와 관련된 기본적인 시민행동이라 한다면 후자는 사회운동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보완적 시민행동이라 할 수 있다.

ICCS에서는 이와 같은 분류에 따라서 전통적 시민역할과 사회운동 관련 시민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를 조사문항에 포함하고 있다. 먼저 전통적 시민역할의 조사항목은 모두 6가지로

구성되며 각 항목에 대하여 그 중요도를 4점 Likert척도 - "매우 중요하다"(1), "대체로 중요하다"(2), "별로 중요하지 않다"(3), "전혀 중요하지 않다(4) - 로 평가하게 하였다. 각 문항별 응답내용을 중요 여부를 기준으로 리코드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그림 V-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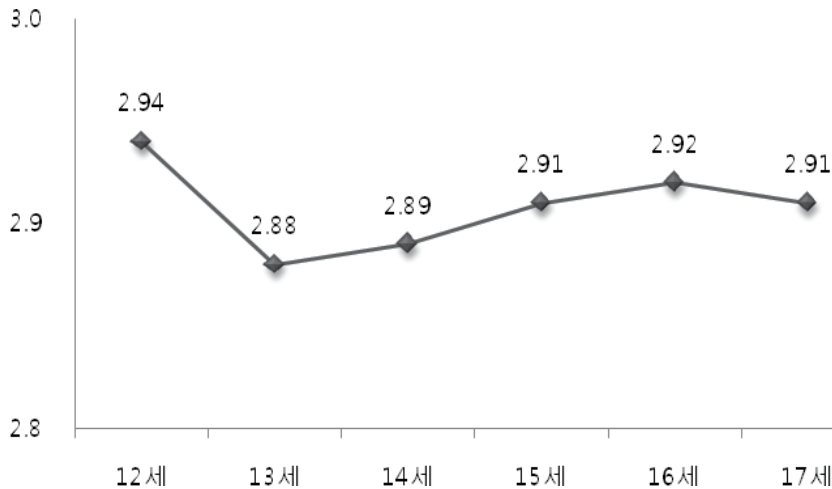


[그림 V-5] 전통적 시민역할의 중요성- 단순빈도

청소년들은 "모든 선거에서 투표하기"(92.2%)를 가장 중요한 시민행동을 간주하였고, 이어서 "정치문제에 대한 신문, TV, 인터넷 등의 보도내용을 잘 살펴보기"(83.9%), "자국의 역사에 대해 공부하기"(75.5%), "정부대표(대통령, 도지사, 시장/군수 등)들을 존중하기"(66.6%), "정치문제에 관한 토론에 참여하기"(63.3%)의 순이었으며, "정당에 가입하기"(38.4%)가 중요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투표와 정당 가입은 모두 가장 직접적인 형태의 정치행동이라 할 수 있는데 중요도 인식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한국사회에서 일반 국민들의 정당 가입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이고, 기존 정당에 대한 낮은 신뢰도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 정당 가입에 대한 평가에서 교급별 차이가 매우 현저하였는데, 중학생 중 42.0%가 중요하다고 평가한 반면, 고교생은 34.2%에 머물러 조사항목 중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부록 기초통계표 참조).

전통적 시민역할의 중요성 인식 변인은 항목별 응답결과를 역순으로 리코드한 평균값을 척도점수 ( $M = 2.91$ ,  $SD = .55$ )로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인 시민역할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척도의 신뢰도계수(Chronbach's  $\alpha$ )는 .80으로서 ICCS 2009년 조사(.79)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배경변인별 하위집단의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학적 변인에서는 성별, 지역별 하위집단간 차이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전통적 시민역할의 중요성에 대하여 여자가 남자보다(2.94, 2.88), 서울 청소년이 광역시, 시군부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였다(2.99, 2.93, 2.88). 한편 연령별로는 12세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층의 척도점수가 모두 유사한 수준으로서 두 변인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r = -.001$ ,  $p > .05$ ).



[그림 V-6] 전통적 시민역할의 중요성- 연령별

학교관련 변인에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일반고 학생과 중학생 (2.94, 2.91)이 전문고 학생(2.83)보다 전통적 시민역할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였고, 학업성적별로는 상위집단에 속할수록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았고 세 집단간 차이가 매우 뚜렷하였다(2.99, 2.92, 2.83).

가족관련 변인에서는 부모학력이 높은 집단(대졸 이상, 2.94)이 낮은 집단(고졸 이하, 2.87)보다, 경제수준이 상위에 속하는 청소년들이 중간·하위집단(각각 2.88)보다 상대적으로 전통적 시민역할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였고, 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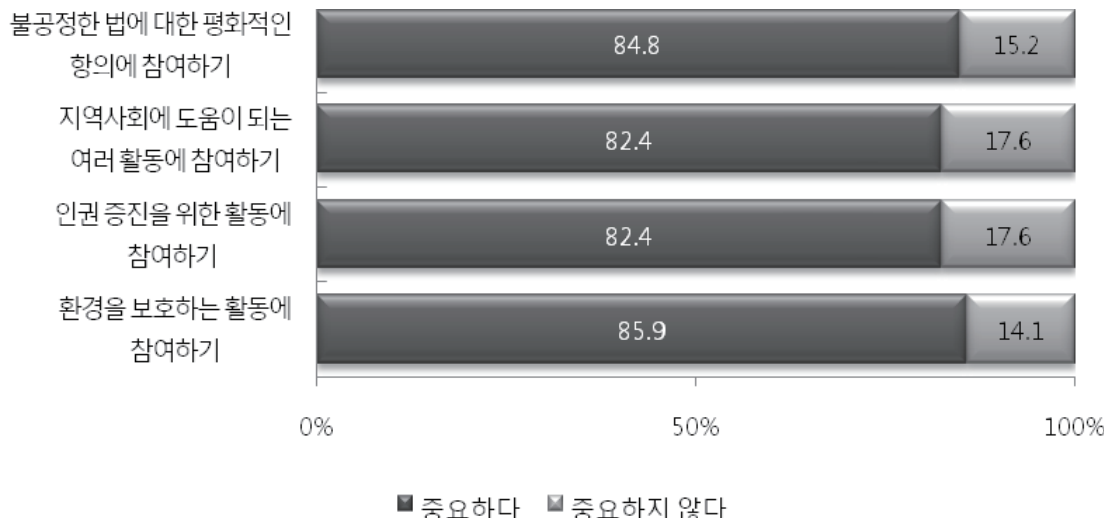
표 V-3 전통적 시민역할의 중요성- 배경변인별

|         |                  | 사례수  | 평균   | 표준편차 | 통계치                          |
|---------|------------------|------|------|------|------------------------------|
| 전체      |                  | 5537 | 2.91 | .55  |                              |
| 성별      | 남자               | 2876 | 2.88 | .57  | t= -3.77***                  |
|         | 여자               | 2661 | 2.94 | .51  |                              |
| 지역      | 서울 <sup>a</sup>  | 873  | 2.99 | .52  | F= 14.07***<br>( c   b   a ) |
|         | 광역시 <sup>b</sup> | 1490 | 2.93 | .51  |                              |
|         | 시군부 <sup>c</sup> | 3174 | 2.88 | .57  |                              |
| 교급      | 중학교 <sup>a</sup> | 2987 | 2.91 | .57  | F= 9.75***<br>( c   a-b )    |
|         | 일반고 <sup>b</sup> | 1969 | 2.94 | .50  |                              |
|         | 전문고 <sup>c</sup> | 581  | 2.83 | .57  |                              |
| 학업성적    | 상 <sup>a</sup>   | 1405 | 2.99 | .52  | F= 39.22***<br>( c   b   a ) |
|         | 중 <sup>b</sup>   | 2316 | 2.92 | .52  |                              |
|         | 하 <sup>c</sup>   | 1807 | 2.83 | .58  |                              |
| 부모 학력   | 고졸 이하            | 2294 | 2.87 | .55  | t= -4.71***                  |
|         | 대졸 이상            | 3090 | 2.94 | .54  |                              |
| 가정 경제수준 | 상 <sup>a</sup>   | 1889 | 2.97 | .54  | F= 17.58***<br>( b-c   a )   |
|         | 중 <sup>b</sup>   | 2421 | 2.88 | .55  |                              |
|         | 하 <sup>c</sup>   | 1217 | 2.88 | .54  |                              |

\* p< .05, \*\*p<.01,\*\*\*p<.001; ( )는 Duncan 사후검정 결과임

#### • 사회운동 관련 시민역할의 중요성

사회운동 관련 시민역할(social-movement-related citizenship behavior)은 NGO, 시민운동 등에 참여하여 자신의 정치·사회적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로서 투표, 정당가입 등 고전적인 형태의 시민행동과는 구분되는, 현대사회에서 점차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민행동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사회운동 관련 시민적 참여의 중요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모두 6가지의 참여유형을 제시하고 그 중요도를 4점 Likert척도로 평가하게 하였다. 각 항목별 응답내용을 2점 척도로 리코드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그림 V-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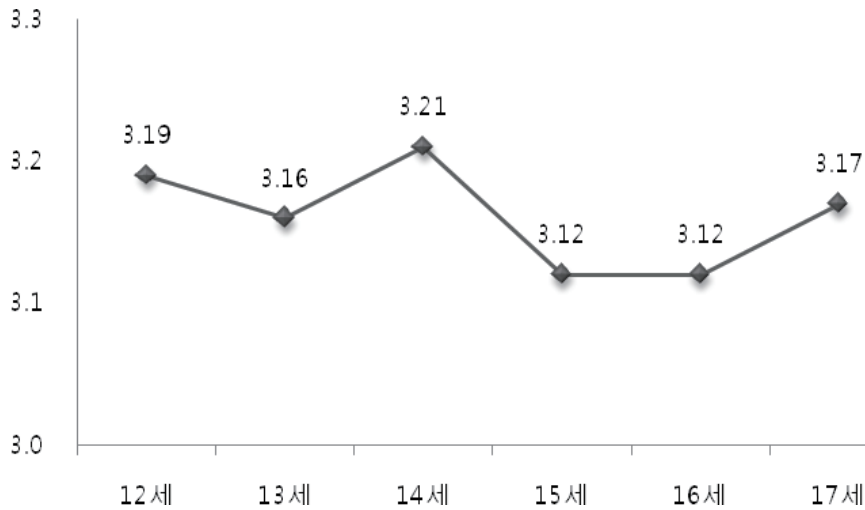


[그림 V-7] 사회운동 관련 시민역할의 중요성- 단순빈도

모든 조사항목에 대하여 긍정응답률이 8할을 상회하여 청소년들이 시민·사회운동 참여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환경 보호활동 참여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인권 증진활동이나 평화적 시위 참여 등과 대등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 환경문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높은 관심도를 엿볼 수 있다.

사회운동 관련 시민역할 인식의 척도점수는 항목별 응답결과를 역순으로 리코드한 평균값( $M=3.16$ ,  $SD=.65$ )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시민으로서 사회운동 참여의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척도의 신뢰도계수(Chronbach's  $\alpha$ )는 .87로서 ICCS 2009년 조사(.74)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배경변인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학적 변인에서는 성별, 지역별 하위집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3.21, 3.13), 지역별로는 서울, 광역시 청소년(3.21, 3.19)이 시군부 청소년보다 사회운동 참여 관련 시민역할의 중요도를 높이 평가하였다. 연령별로는 대체로 14세 이하 낮은 연령층이 15세 이상 연령층에 비해 사회운동 참여 관련 시민역할의 중요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였으나 두 변인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r = -.02$ ,  $p > .05$ ).



[그림 V-8] 사회운동 관련 시민역할의 중요성- 연령별

학교관련 두 변인에서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중학교와 일반고 학생(3.19, 3.17)들이 전문고 학생(3.04)보다, 학업성적별로는 상위집단에 속할수록 사회운동 관련 시민역할의 중요도를 높이 평가하였고 세 집단간의 차이는 매우 뚜렷하였다(3.26, 3.18, 3.07).

가족관련 변인에서는 부모학력별 차이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부모학력이 대졸 이상인 집단이 고졸 이하인 집단보다 사회운동 관련 시민역할의 중요도를 높이 평가하였고(3.19, 3.14), 가정 경제수준별로는 세 하위집단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 사회운동 관련 시민역할의 중요성 - 배경변인별

|         |                  | 사례수  | 평균   | 표준편차 | 통계치                          |
|---------|------------------|------|------|------|------------------------------|
| 전체      |                  | 5543 | 3.16 | .65  |                              |
| 성별      | 남자               | 2879 | 3.13 | .68  | t= -4.66***                  |
|         | 여자               | 2664 | 3.21 | .61  |                              |
| 지역      | 서울 <sup>a</sup>  | 878  | 3.21 | .61  | F= 5.84**<br>( c   b-a )     |
|         | 광역시 <sup>b</sup> | 1488 | 3.19 | .62  |                              |
|         | 시군부 <sup>c</sup> | 3177 | 3.14 | .67  |                              |
| 교급      | 중학교 <sup>a</sup> | 2993 | 3.19 | .65  | F= 12.30***<br>( c   b-a )   |
|         | 일반고 <sup>b</sup> | 1969 | 3.17 | .64  |                              |
|         | 전문고 <sup>c</sup> | 581  | 3.04 | .69  |                              |
| 학업성적    | 상 <sup>a</sup>   | 1406 | 3.26 | .62  | F= 37.37***<br>( c   b   a ) |
|         | 중 <sup>b</sup>   | 2324 | 3.18 | .63  |                              |
|         | 하 <sup>c</sup>   | 1804 | 3.07 | .68  |                              |
| 부모 학력   | 고졸 이하            | 2293 | 3.14 | .66  | t= -3.13**                   |
|         | 대졸 이상            | 3098 | 3.19 | .63  |                              |
| 가정 경제수준 | 상 <sup>a</sup>   | 1894 | 3.19 | .64  | F= 2.07<br>( b-c-a )         |
|         | 중 <sup>b</sup>   | 2425 | 3.15 | .65  |                              |
|         | 하 <sup>c</sup>   | 1214 | 3.17 | .66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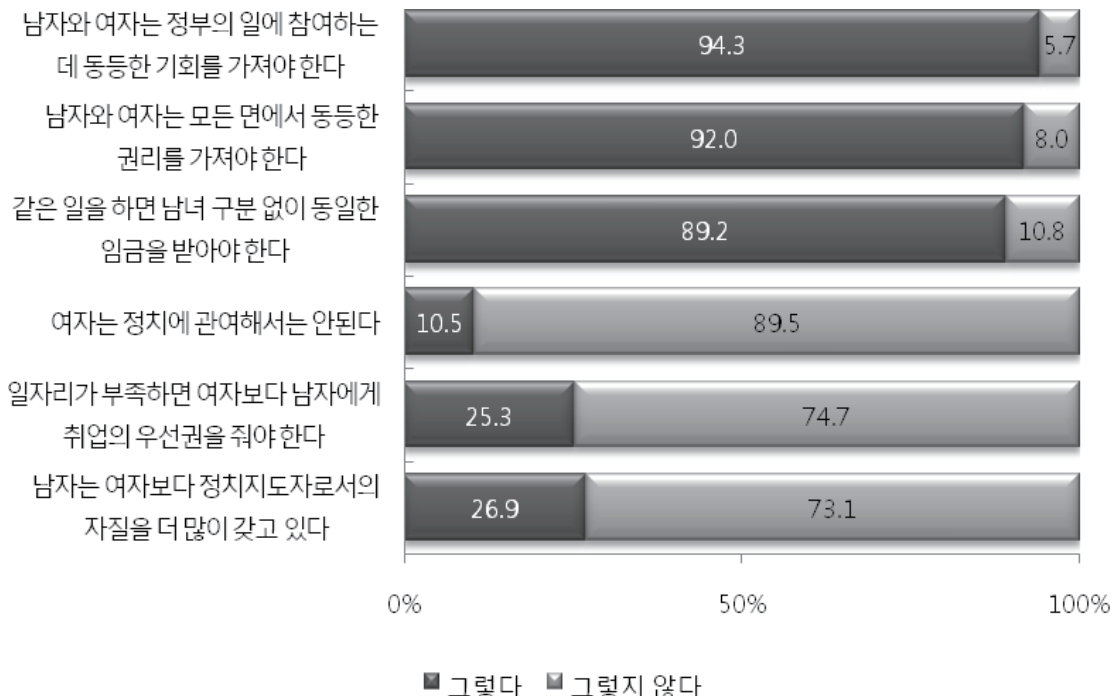
\* p< .05, \*\*p<.01,\*\*\*p<.001; ( )는 Duncan 사후검정 결과임

## 2. 사회적 평등관

### • 양성 평등관

양성평등 문제는 IEA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조사해 온 주제이다. 1971년의 시민교육 연구(civic education study)와 1999년의 CIVED에서 양성평등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일관되게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지지도를 나타내었고(Torney-Purta, et al., 2001),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대부분의 국내·외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Angvik & von Borries, 1997; Hahn, 1998; Schulz, et al., 2010; 이종원, 오승근, 김은정, 2010; 장근영, 이종원, 2009).

이번 조사에서는 양성평등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 역할과 권리에 관한 6가지 설명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동의 여부를 4점 Likert척도 - "매우 그렇다"(1), "그렇다"(2), "그렇지 않다"(3), "전혀 그렇지 않다"(4) - 로 응답하게 하였다. 문항별 응답내용을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리코드하여 정리한 결과는 다음의 [그림 V-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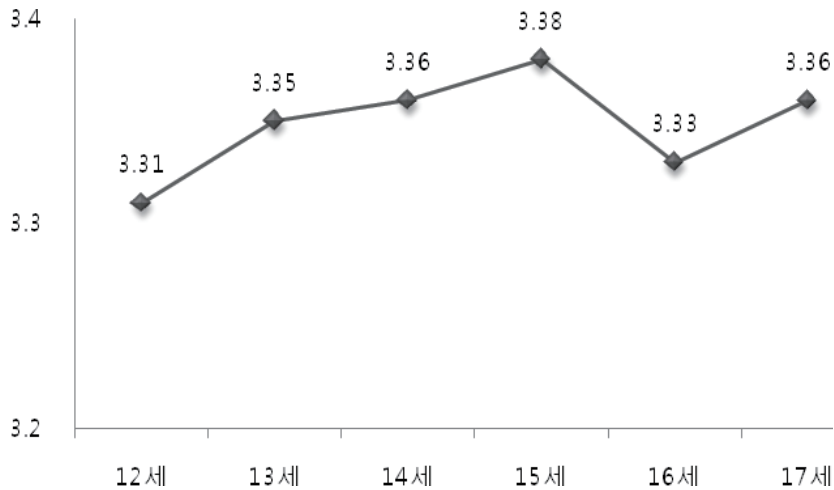
[그림 V-9] 양성평등관- 단순빈도

양성평등에 긍정적인 진술항목은 그렇다는 응답률이 9할 수준으로 매우 높았고, 부정적인 진술항목은 2할대 또는 그 이하에 머물러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양성평등을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업 우선권과 정치적 자질에 관한 두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의 남녀간 응답률의 차이는 1할 안팎의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일자리가 부족하면 여자보다 남자에게 취업의 우선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남자의 찬성율이 여자의 세 배 이상에 달하여(37.7%, 11.9%) 가장 큰 격차를 나타냈는데, 이것은 청년실업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최근의 경제적 상황과도 관련이 있는 듯하다. IEA의 CIVED(1999)에서도 실업률이 높은 국가의 청소년들이 여성의 평등권에 대하여 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어(Torney-Purta, et al., 2001, p. 107) 경제적 상황에 양성평등의 인식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자는 여자보다 정치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더 많이 갖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남자의 1/3 이상(35.7%)이 찬성하여(여자는 17.3%) 상당수의 남학생들이 생물학적인 차이를 근거로 남녀차별을 합리화하는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부록 기초통계표 참조).

양성평등관의 척도 점수는 항목별 응답결과의 평균값<sup>21)</sup>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양성평등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척도의 신뢰도계수(Chronbach's  $\alpha$ )는 .80으로서 높은 수준이었다.

배경변인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학적 변인에서는 성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여자가 남자에 비해 양성평등에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고 두 집단간 차이는 매우 현저하여(3.59, 3.12), 대부분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서울, 광역시)가 시군부에 비해 양성평등에 대한 지지도가 다소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연령별로는 12세에서 15세까지는 양성평등에 대한 지지도가 점진적으로 상승했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어 전체적으로 두 변인간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r = .02$ ,  $p > .05$ )

21) 양성평등에 긍정적인 진술문항("남자와 여자는 정부의 일에 참여하는 데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같은 일을 하면 남녀 구분 없이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은 역순으로 리코드하여 평균값을 산출함.



[그림 V-10] 양성평등관- 연령별

학교관련 두 변인에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일반고 학생이 양성평등에 대해 가장 높은 지지도(3.41)를 보인 반면 같은 고교생인 전문고 학생들은 중학생보다도 낮은 지지도(3.19, 3.34)를 나타내었다. 학업성적별로는 상위집단에 속할수록 양성평등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고 세 하위집단간의 차이가 매우 뚜렷하였다(3.43, 3.38, 3.24).

가족관련 변인에서는 부모학력에 따른 차이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부모학력이 대졸 이상인 청소년이 고졸 이하 청소년보다 양성평등 지지도가 높았으며(3.37, 3.32),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V-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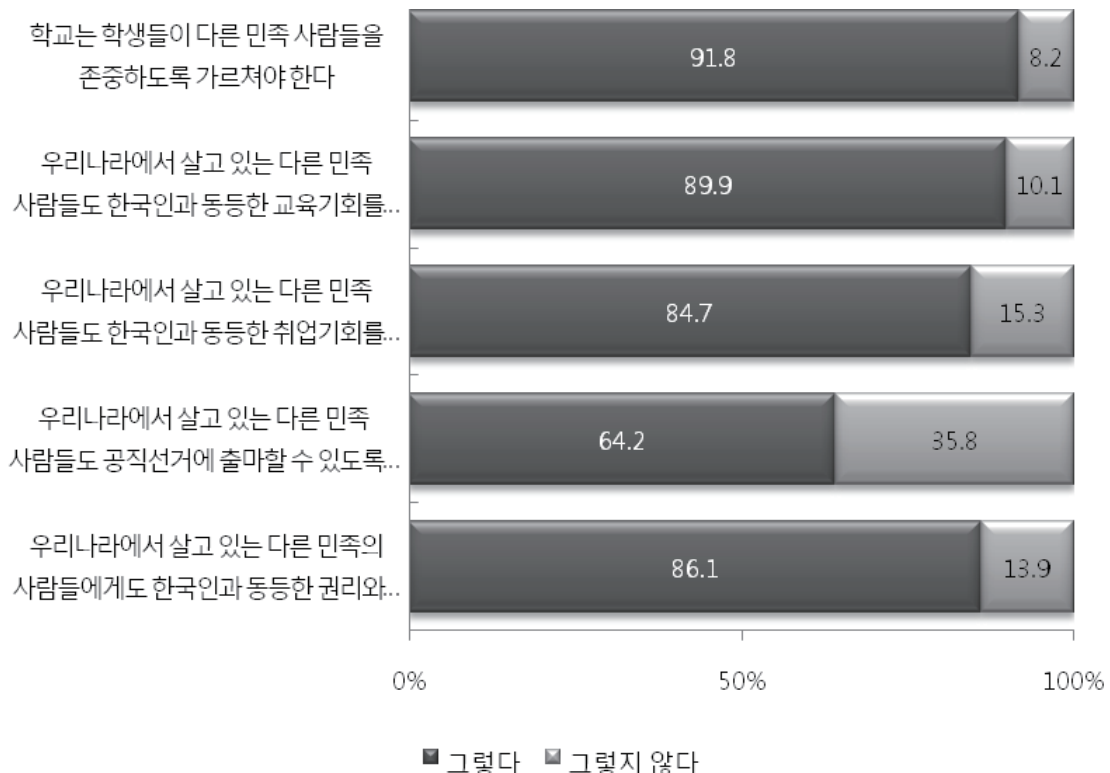
양성평등관- 배경변인별

|         |                  | 사례수  | 평균   | 표준편차 | 통계치                          |
|---------|------------------|------|------|------|------------------------------|
| 전체      |                  | 5534 | 3.35 | .57  |                              |
| 성별      | 남자               | 2875 | 3.12 | .57  | t= -33.35***                 |
|         | 여자               | 2659 | 3.59 | .46  |                              |
| 지역      | 서울 <sup>a</sup>  | 872  | 3.36 | .58  | F= 3.23                      |
|         | 광역시 <sup>b</sup> | 1490 | 3.37 | .56  |                              |
|         | 시군부 <sup>c</sup> | 3172 | 3.33 | .57  |                              |
| 교급      | 중학교 <sup>a</sup> | 2998 | 3.34 | .57  | F= 34.31***<br>( c   a   b ) |
|         | 일반고 <sup>b</sup> | 1961 | 3.41 | .56  |                              |
|         | 전문고 <sup>c</sup> | 575  | 3.19 | .57  |                              |
| 학업성적    | 상 <sup>a</sup>   | 1396 | 3.43 | .55  | F= 50.67***<br>( c   b   a ) |
|         | 중 <sup>b</sup>   | 2322 | 3.38 | .57  |                              |
|         | 하 <sup>c</sup>   | 1807 | 3.24 | .57  |                              |
| 부모 학력   | 고졸 이하            | 2288 | 3.32 | .57  | t= -2.88**                   |
|         | 대졸 이상            | 3093 | 3.37 | .57  |                              |
| 가정 경제수준 | 상 <sup>a</sup>   | 1888 | 3.33 | .58  | F= 1.29                      |
|         | 중 <sup>b</sup>   | 2422 | 3.36 | .56  |                              |
|         | 하 <sup>c</sup>   | 1214 | 3.34 | .58  |                              |

\* p&lt; .05, \*\*p&lt;.01,\*\*\*p&lt;.001; ( )는 Duncan 사후검정 결과임

### • 민족간 평등관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는 복수의 민족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종과 국적에 관계 없이 한 사회내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의 평등한 권리는 해방과 관용이라는 민주주의적 이상의 지표로 간주되기도 한다(Angvik & von Borries, 1997; Hahn, 1998).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민족간 평등권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모두 5가지의 조사항목을 제시하고 4점 Likert척도 - "매우 그렇다"(1), "그렇다"(2), "그렇지 않다"(3), "전혀 그렇지 않다"(4) - 로 응답하게 하였다. 각 조사항목별 응답내용을 찬성 여부를 기준으로 리코드하여 정리한 결과는 다음의 [그림 V-1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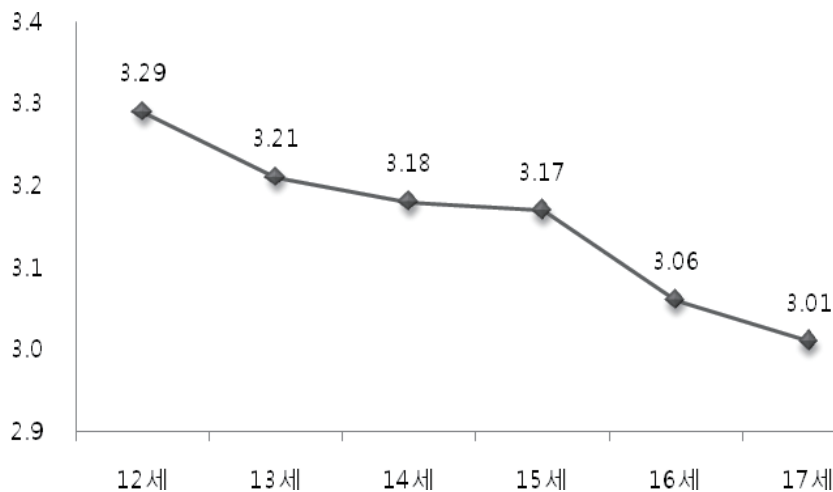
[그림 V-11] 민족간 평등관- 단순빈도

청소년들은 전체 5개 조사항목 중 4개 항목에 대하여 8할 이상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특히 "학교는 학생들이 다른 민족 사람들을 존중하도록 가르쳐야 한다"에 대해서는 9할 이상이 찬성하여 가장 높은 긍정응답률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다른 민족 사람들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장려되어야 한다"에 대해서는 긍정응답률이 6할 수준에 머물러 정치적 영역에서의 평등권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청소년이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알수 있다. 조사항목별 응답결과는 성별보다는 교급별 차이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모든 항목에 대하여 고교생이 중학생보다 긍정응답률이 낮았고, 공직선거에 출마할 권리에 대해서는 중학생의 69.6%가 찬성한 반면 고교생은 57.8%에 머물러 두 집단간 차이가 가장 컸다.

민족간 평등권의 척도점수는 항목별 응답결과를 역순으로 리코드한 평균값( $M = 3.16$ ,  $SD = .62$ )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민족간의 평등한 권리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척도의 신뢰도계수(Chronbach's  $\alpha$ )는 .87로서 ICCS 2009년 조사(.83)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배경변인별 하위집단의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학적 변인에서는 성별, 지역별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여자가 남자보다(3.18, 3.14), 광역시가 서울·시군부보다(3.20, 3.15, 3.14) 민족간 평등에 대한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한편 연령이 증가할수록 민족간 평등의식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두 변인은 약한 부적인 상관관계( $r = -.14$ ,  $p < .011$ )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V-12] 민족간 평등관-연령별

학교관련 변인에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중학생의 민족간 평등권 지지도가 가장 높았고(3.23), 다음으로 일반고, 전문고 학생(3.10, 3.01)의 순이었다. 학업성적별로는 상위집단에 속할수록 민족간 평등권 지지도가 높았고, 세 하위집단간 차이가 뚜렷하였다.

가족관련 변인에서는 부모학력 변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부모학력이 대졸 이상인 청소년이 고졸 이하인 청소년보다 민족간 평등권에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3.19, 3.12).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상위집단에 속할수록 민족간 평등권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지만 하위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표 V-6 민족간 평등관- 배경변인별

|         |                  | 사례수  | 평균   | 표준편차 | 통계치                          |
|---------|------------------|------|------|------|------------------------------|
| 전체      |                  | 5550 | 3.16 | .62  |                              |
| 성별      | 남자               | 2885 | 3.14 | .65  | t= -2.59*                    |
|         | 여자               | 2665 | 3.18 | .59  |                              |
| 지역      | 서울 <sup>a</sup>  | 877  | 3.15 | .64  | F= 4.16*<br>( c-a   b )      |
|         | 광역시 <sup>b</sup> | 1488 | 3.20 | .60  |                              |
|         | 시군부 <sup>c</sup> | 3185 | 3.14 | .63  |                              |
| 교급      | 중학교 <sup>a</sup> | 2999 | 3.23 | .61  | F= 43.23***<br>( c   b   a ) |
|         | 일반고 <sup>b</sup> | 1972 | 3.10 | .62  |                              |
|         | 전문고 <sup>c</sup> | 579  | 3.01 | .67  |                              |
| 학업성적    | 상 <sup>a</sup>   | 1403 | 3.24 | .62  | F= 22.30***<br>( c   b   a ) |
|         | 중 <sup>b</sup>   | 2328 | 3.17 | .62  |                              |
|         | 하 <sup>c</sup>   | 1810 | 3.09 | .63  |                              |
| 부모 학력   | 고졸 이하            | 2296 | 3.12 | .62  | t= -4.28***                  |
|         | 대졸 이상            | 3101 | 3.19 | .63  |                              |
| 가정 경제수준 | 상 <sup>a</sup>   | 1892 | 3.18 | .62  | F= 2.17<br>( c-b   b-a )     |
|         | 중 <sup>b</sup>   | 2431 | 3.16 | .61  |                              |
|         | 하 <sup>c</sup>   | 1217 | 3.13 | .65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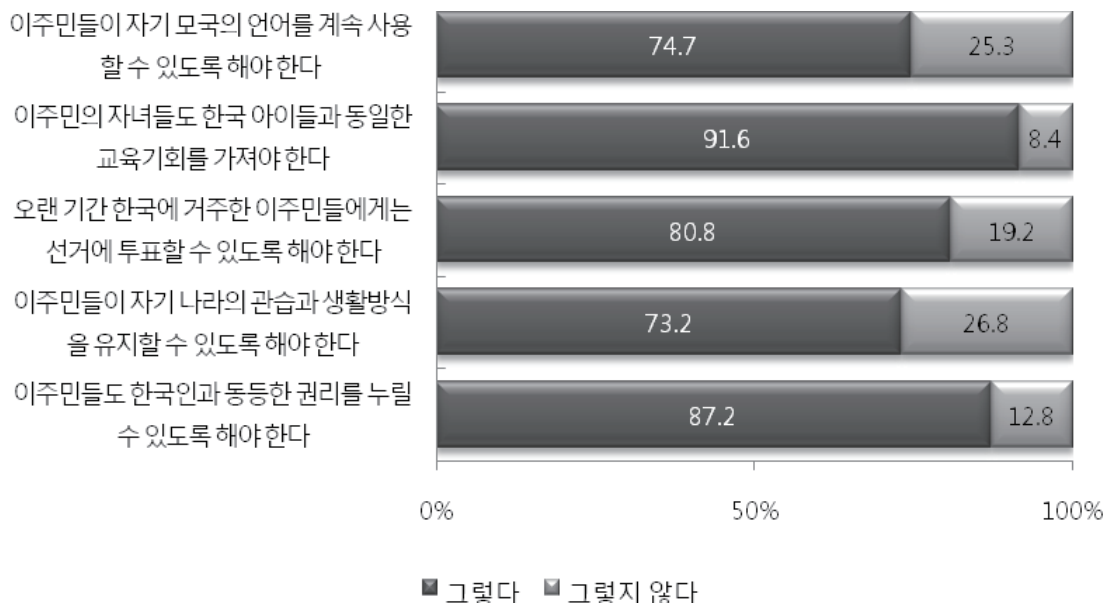
\* p< .05, \*\*p<.01, \*\*\*p<.001; ( )는 Duncan 사후검정 결과임

#### • 이주민 평등관

취업·결혼 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출신 이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사회도 점차 본격적인 다문화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주민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낙후된 국가 출신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기 쉽다. 이주민 관련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경제적인 요인과 성인로부터 영향받은 민족감정(O'Rourke & Sinnott, 2006), 국가적 정체감(Medrano & Koenig, 2005) 등과 관련이 있다.

본 조사에서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의 권리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하여 모두 5가지의 조사항목을 제시하고 4점 Likert척도 - "매우 그렇다"(1), "그렇다"(2), "그렇지 않다"(3), "전혀 그렇지 않다"(4) - 로 응답하게 하였다. 각 항목별 응답결과를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리코드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 V-1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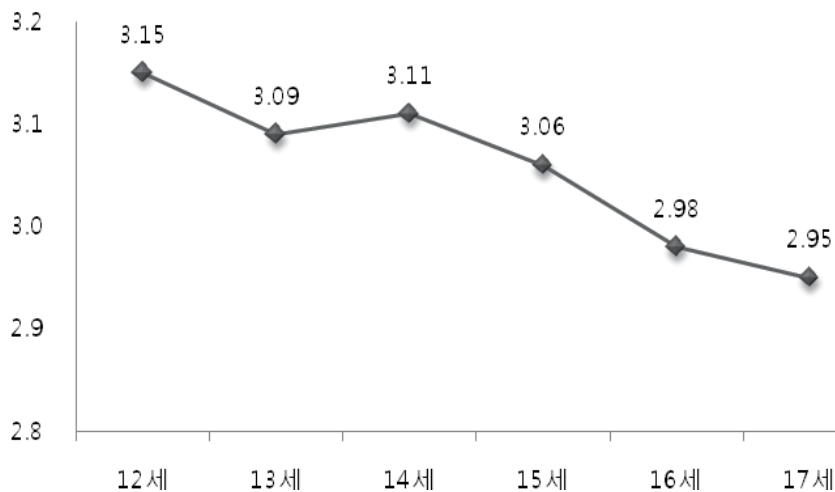


[그림 V-13] 이주민 평등권- 단순빈도

모든 조사항목에 대하여 긍정응답률이 높게 나타나 청소년들이 이주민에 대해 비교적 관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권리의 내용별로 응답률의 차이가 발견되는데, 동등한 교육기회에 대해서는 9할 이상이 찬성했지만, 투표권 부여에 대해서는 2할 정도가 반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응답결과는 27개국 청소년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Angvik & von Borries(1997)의 조사결과와 일치한다. 즉, 청소년들은 투표권보다는 교육기회에 있어서의 이주민의 평등권에 보다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이주민이 모국의 언어와 관습, 생활방식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3할 정도가 반대하고 있다. 적지 않은 청소년이 이주민들이 모국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보다는 한국인으로 동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주민 평등권의 척도점수는 항목별 응답결과를 역순으로 리코드한 평균값( $M=3.06$ ,  $SD=.58$ )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이주민의 평등한 권리를 찬성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척도의 신뢰도계수(Chronbach's  $\alpha$ )는 .84로서 ICCS 2009년 조사(.90)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배경변인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학적 변인에서 성별로는 남녀간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이주민의 권리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외국 청소년 대상 조사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Amadeo et al., 2002; Torney-Purta, et al., 2001). 지역별로는 광역시 청소년의 이주민 평등권 지지도(3.10)가 서울과 시군부 청소년(3.06, 3.05)보다 다소 높은 편이었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연령과 이주민 평등권에 대한 지지도는 약한 부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r=-.12$ ,  $p<.001$ ). 12세 청소년의 이주민 평등권 지지도가 가장 높은 수준이고 이후 연령이 올라갈수록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앞서의 민족간 평등권의 응답결과와 종합하면, 청소년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이민족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시민교육의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그림 V-14] 이주민 평등권- 연령별

학교관련 변인에서도 민족간 평등권과 동일한 응답경향이 나타났다. 즉, 교급별로는 중학생이 일반고, 전문고 학생보다(3.12, 3.02, 2.91), 학업성적별로는 상위집단에 속할수록 이주민 평등권에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고 하위집단간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가족관련 변인에서는 부모학력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대졸 이상 부모를 둔 청소년이 고졸 이하 부모를 둔 청소년보다 이주민 평등권에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3.08, 3.03).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상위집단일수록 이주민 평등권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표 V-7 이주민 평등관

|         |                  | 사례수  | 평균   | 표준편차 | 통계치                                      |
|---------|------------------|------|------|------|------------------------------------------|
| 전체      |                  | 5550 | 3.06 | .58  |                                          |
| 성별      | 남자               | 2888 | 3.05 | .61  | t= -1.75                                 |
|         | 여자               | 2662 | 3.08 | .54  |                                          |
| 지역      | 서울 <sup>a</sup>  | 872  | 3.06 | .61  | F= 3.74 <sup>*</sup><br>( c-a   b )      |
|         | 광역시 <sup>b</sup> | 1492 | 3.10 | .55  |                                          |
|         | 시군부 <sup>c</sup> | 3186 | 3.05 | .58  |                                          |
| 교급      | 중학교 <sup>a</sup> | 3001 | 3.12 | .57  | F= 38.84 <sup>***</sup><br>( c   b   a ) |
|         | 일반고 <sup>b</sup> | 1968 | 3.02 | .57  |                                          |
|         | 전문고 <sup>c</sup> | 581  | 2.91 | .61  |                                          |
| 학업성적    | 상 <sup>a</sup>   | 1406 | 3.12 | .57  | F= 14.48 <sup>***</sup><br>( c   b   a ) |
|         | 중 <sup>b</sup>   | 2328 | 3.07 | .57  |                                          |
|         | 하 <sup>c</sup>   | 1807 | 3.01 | .59  |                                          |
| 부모 학력   | 고졸 이하            | 2295 | 3.03 | .57  | t= -3.20 <sup>**</sup>                   |
|         | 대졸 이상            | 3102 | 3.08 | .58  |                                          |
| 가정 경제수준 | 상 <sup>a</sup>   | 1892 | 3.08 | .58  | F= 1.23                                  |
|         | 중 <sup>b</sup>   | 2433 | 3.06 | .56  |                                          |
|         | 하 <sup>c</sup>   | 1215 | 3.05 | .6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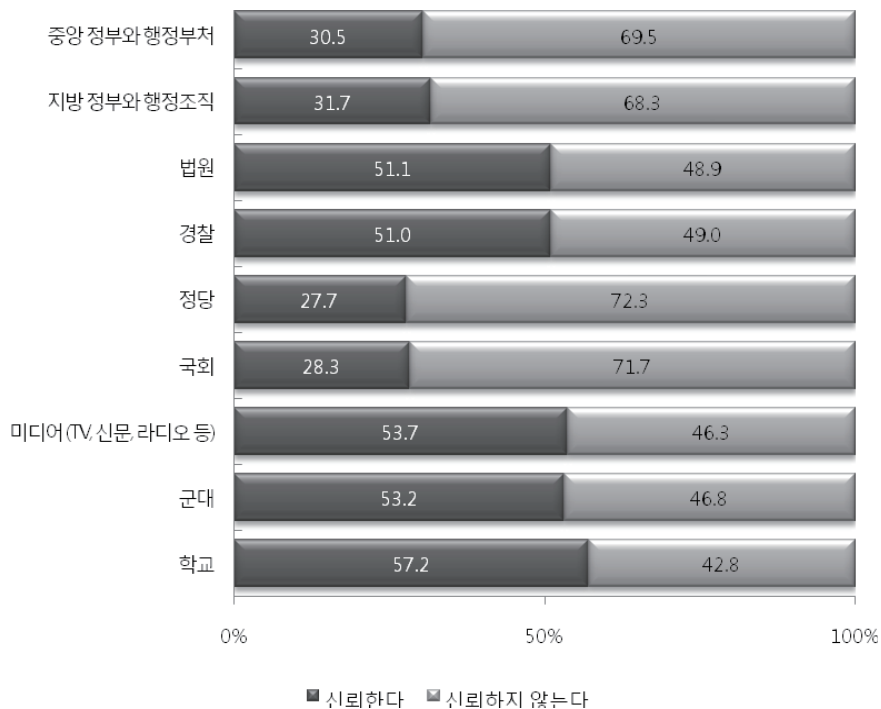
\* p< .05, \*\*p<.01, \*\*\*p<.001;( )는 Duncan 사후검정 결과임

### 3. 국가와 사회제도

#### • 사회제도 신뢰도

사회제도(social institutions)에 대한 신뢰도는 오랜 동안 사회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다. 주기적으로 반복조사된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의 분석에 따르면 성인들의 사회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20세기 후반의 수십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Newton & Norris, 2000). IEA에서도 1971년과 1999년 두차례의 조사를 통해 청소년들의 사회제도 신뢰도를 조사했는데(Torney-Purta, et al., 2001; Torney, Oppenheim, & Farnen, 1975), 두 차례 모두 나이가 많은 청소년집단의 사회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수준이었다(Amadeo, et al., 2002).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사회제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신뢰감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양한 수준의 사회제도 유형들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신뢰 정도를 4점 Likert척도 - "매우 신뢰한다"(1), "대체로 신뢰한다"(2),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3),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4) - 로 응답하게 하였다. 각 항목별 응답결과를 신뢰 유무를 기준으로 리코드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그림 V-15]와 같다.



[그림 V-15] 사회제도 신뢰도- 단순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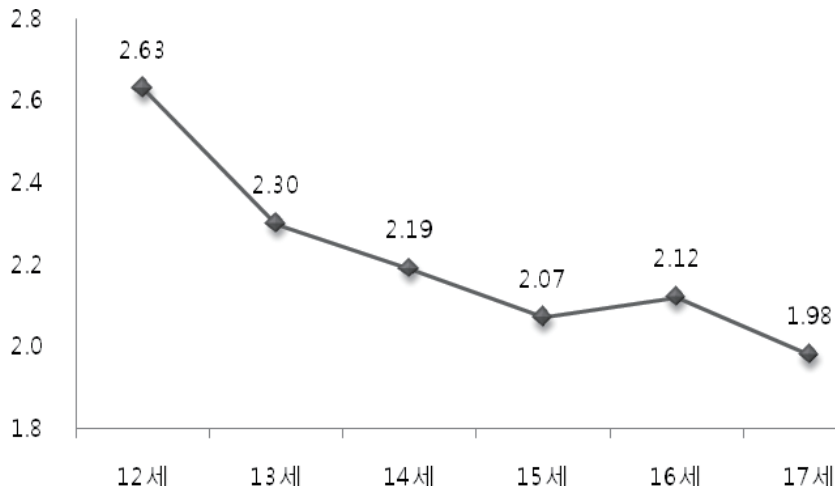
청소년들의 사회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낮은 수준이었다. 가장 신뢰도가 높은 학교의 긍정응답률이 6할에 못 미쳤고(57.2%), 이어서 미디어(53.7%), 군대(53.2%), 법원(51.1%), 경찰(51.0%)에 대하여 절반 정도가 신뢰한다고 응답하였다. 지방정부와 행정조직(31.7%), 중앙정부와 행정부처(30.5%), 국회(28.3%)와 정당(27.7%)의 긍정응답률은 3할 수준으로서 신뢰하지 않는 청소년이 다수를 차지하여 행정·정치 조직에 대한 신뢰도가 특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하위집단별 응답결과에서는 중·고교생간의 차이가 매우 현저하였는데, 모든 항목에 걸쳐 고교생이 낮은 신뢰도를 나타내었고 특히 정당과 국회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고교생은 모두 중학생의 절반 수준(정당 17.3%:37.7%, 국회 18.1%:35.8%)에 머물렀다.

ICCS 2009년 조사에서도 한국 청소년(중 2)의 사회제도 신뢰도는 조사대상 38개국 중 최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2)</sup>(Schulz, et al., 2010, p. 105). 사회제도에 대한 낮은 신뢰감의 영향요인으로 문화경제적 요인(Inglehart, 1997), 급격한 정치적 변동(Klingemann, 1999) 등이 지적되는데, 한국 청소년의 경우 과도한 학업부담 등 청소년들을 둘러싼 열악한 사회환경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사회제도 신뢰도 척도는 ICCS 2009년 조사와 동일하게 "미디어"와 "군대"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조사항목으로 척도를 구성(Brese, et al., 2011)하였다. 척도점수는 항목별 응답결과를 역순으로 리코드한 값( $M = 2.23$ ,  $SD = .68$ )으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제도에 대하여 신뢰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척도의 신뢰도계수(Chronbach's  $\alpha$ )는 .91로서 ICCS 2009년 조사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사회제도 신뢰도에 대한 배경변인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학적 변인에서는 성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었다(2.28, 2.17). 지역별 하위집단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15~16세 시기를 제외하고는 나이가 들수록 신뢰도가 점차 감소하여, 12세의 사회제도 신뢰도가 가장 높고 17세가 가장 낮았다. 이에 따라 연령과 사회제도 신뢰도는 약한 부적인 상관관계( $r = -.28$ ,  $p < .001$ )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IEA의 1977년, 1999년의 조사와 일치되는 결과(Amadeo, et al., 2002)를 보여주었다

22)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는 한국과 더불어, 키프로스, 그리스, 과테말라, 라트비아, 폴란드였고, 핀란드, 도미니카, 인도네시아, 리히텐슈타인, 태국은 신뢰도가 높은 국가로 분류되었다.



[그림 V-16] 사회제도 신뢰도 - 연령별

학교관련 변인에서는 교급별 차이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중학생의 사회제도 신뢰도가 가장 높았고(2.37), 이어서 전문고, 일반고 학생(2.12, 2.04)의 순이었으며 세 집단간 차이는 매우 뚜렷하였다. 학업성적별로는 하위집단일수록 사회제도에 대한 낮은 신뢰도를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가족관련 변인에서는 부모학력별로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고 가정 경제수준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가정 경제수준이 하위에 속하는 청소년(2.14)은 중간층 및 상위집단 청소년(2.24, 2.26)과 큰 차이를 두고 사회제도에 대하여 낮은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표 V-8 사회제도 신뢰도 - 배경변인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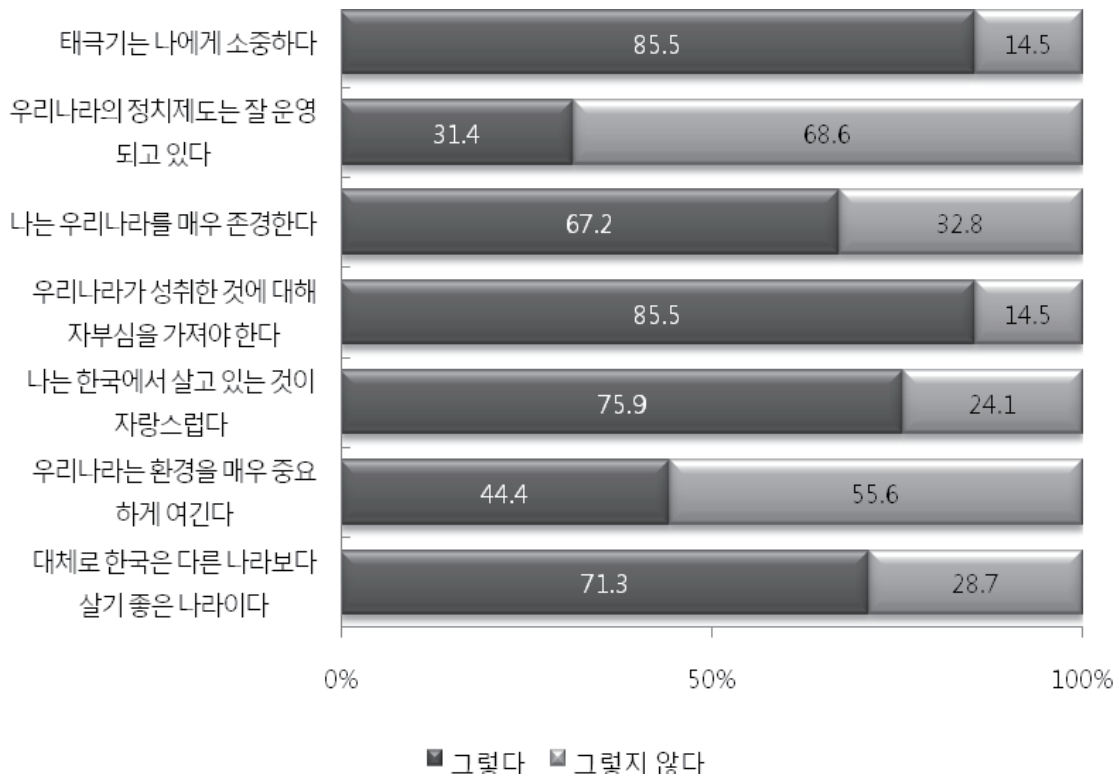
|         |                  | 사례수  | 평균   | 표준편차 | 통계치                           |
|---------|------------------|------|------|------|-------------------------------|
| 전체      |                  | 5531 | 2.23 | .68  |                               |
| 성별      | 남자               | 2873 | 2.28 | .73  | t= 6.37***                    |
|         | 여자               | 2658 | 2.17 | .62  |                               |
| 지역      | 서울 <sup>a</sup>  | 873  | 2.23 | .68  | F= .42<br>( c-a-b )           |
|         | 광역시 <sup>b</sup> | 1491 | 2.24 | .67  |                               |
|         | 시군부 <sup>c</sup> | 3167 | 2.22 | .69  |                               |
| 교급      | 중학교 <sup>a</sup> | 2989 | 2.37 | .70  | F= 151.41***<br>( b   c   a ) |
|         | 일반고 <sup>b</sup> | 1965 | 2.04 | .61  |                               |
|         | 전문고 <sup>c</sup> | 577  | 2.12 | .67  |                               |
| 학업성적    | 상 <sup>a</sup>   | 1401 | 2.21 | .66  | F= 1.45<br>( a-b-c )          |
|         | 중 <sup>b</sup>   | 2316 | 2.22 | .67  |                               |
|         | 하 <sup>c</sup>   | 1805 | 2.25 | .71  |                               |
| 부모 학력   | 고졸 이하            | 2291 | 2.21 | .67  | t= -1.21                      |
|         | 대졸 이상            | 3088 | 2.23 | .68  |                               |
| 가정 경제수준 | 상 <sup>a</sup>   | 1884 | 2.26 | .70  | F= 12.08***<br>( c   b-a )    |
|         | 중 <sup>b</sup>   | 2420 | 2.24 | .67  |                               |
|         | 하 <sup>c</sup>   | 1217 | 2.14 | .66  |                               |

\* p< .05, \*\*p<.01,\*\*\*p<.001; ( )는 Duncan 사후검정 결과임

#### • 자국에 대한 태도

자국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건강한 민주사회의 형성에 불가결한 요인으로 간주된다(Dalton, 1999; Norris, 1999). 국가에 대한 존중감과 애착은 바람직한 시민행동으로 연결되어 국가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sup>23)</sup>. 본 조사에서는 청소년들이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모두 7가지의 조사문항을 제시하고 4점 Likert척도 - "매우 그렇다"(1), "그렇다"(2), "그렇지 않다"(3), "전혀 그렇지 않다"(4) - 로 응답하게 하였다. 각 조사항목에 대한 응답내용을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리코드하여 정리하면 다음 [그림 V-17]과 같다.

23) 그러나 자국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반드시 바람직한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Anderson (1992) 은 국가에 대한애착을 "국가주의(nationalism; 다른 나라가 아닌 어떤 특별한 한 나라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와 "애국심"(patriotism; 다른 나라와의 비교의 관점이 아닌 자국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으로 구분하는데, 국가주의는 다른 민족에 대한 배타적인 감정으로 연결되어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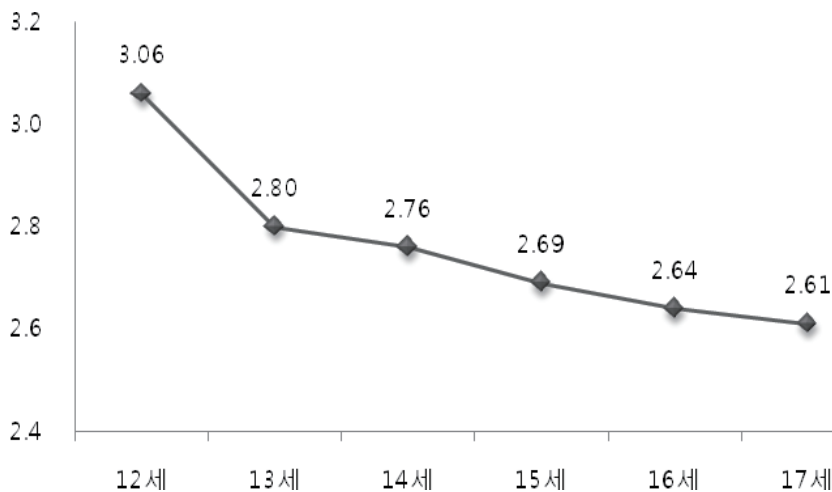
[그림 V-17] 자국에 대한 태도 - 단순빈도

"우리나라가 성취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와 "태극기는 나에게 소중하다"의 긍정응답률이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각각 85.5%), 이어서 "나는 한국에서 살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다"(75.9%), "대체로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살기 좋은 나라이다"(71.3%), "나는 우리나라를 매우 존경한다"(67.2%)의 순이었으며 "우리나라는 환경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44.4%)와 "우리나라의 정치제도는 잘 운영되고 있다"(31.4%)에 동의한 청소년은 절반에도 못미쳤다. 많은 청소년들이 전반적으로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지만, 환경문제와 정치제도와 같은 한정된 영역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진 청소년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정치제도는 잘 운영되고 있다"는 항목은 긍정응답률이 가장 낮을 뿐 아니라 하위집단간 차이도 매우 현저하였다. 고교생의 긍정응답률이 중학생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여(20.8%, 40.4%), 고교생들이 우리나라의 정치제도 운영에 대하여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CCS 2009년 조사결과를 보면 한국은 벨기에, 대만, 체코, 그리스와 더불어 청소년들의 자국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군에 속하였다<sup>24)</sup>(Schulz, et al., 2010, p. 103). 이처럼 한국 청소년들의 국가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자국에 대한 태도의 척도점수는 항목별 응답결과를 역순으로 리코드한 평균값( $M = 2.77$ ,  $SD = .57$ )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한국인으로서의 애착과 자부심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척도의 신뢰도계수(Chronbach's  $\alpha$ )는 .84로서 ICCS 2009년 조사(.82)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배경변인별 하위집단의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구학적 변인에서는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으며(2.79, 2.74),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지역별 응답결과에서는 세 집단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과 자국에 대한 태도는 약한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r = -.24$ ,  $p < .001$ ). 가장 어린 12세 청소년의 자국에 대한 태도가 가장 긍정적이었고 이후 연령이 올라갈수록 점진적으로 긍정적인 태도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그림 V-18] 자국에 대한 태도- 연령별

24) 자국에 대한 긍정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는 콜롬비아, 도미니카,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러시아이고 대부분의 선진국은 중간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관련 변인에서는 교급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중학생(2.87)이 고교생보다, 고교생 중에서는 전문고 학생(2.69)이 일반고 학생(2.63)보다 자국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학업성적별 하위집단의 태도에서는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정관련 변인에서는 가정의 경제수준별 응답결과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상위집단일 수록 국가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으며(2.82, 2.78, 2.67) 세집단간 차이는 매우 뚜렷하였다. 부모학력 변인에서는 대졸 이상 집단과 고졸 이하 집단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9 자국에 대한 태도 - 배경변인별

|         |                  | 사례수  | 평균   | 표준편차 | 통계치                           |
|---------|------------------|------|------|------|-------------------------------|
| 전체      |                  | 5536 | 2.77 | .57  |                               |
| 성별      | 남자               | 2878 | 2.79 | .62  | t= 3.66***                    |
|         | 여자               | 2658 | 2.74 | .51  |                               |
| 지역      | 서울 <sup>a</sup>  | 877  | 2.78 | .58  | F= .54                        |
|         | 광역시 <sup>b</sup> | 1484 | 2.77 | .56  |                               |
|         | 시군부 <sup>c</sup> | 3175 | 2.76 | .58  |                               |
| 교급      | 중학교 <sup>a</sup> | 2991 | 2.87 | .57  | F= 110.22***<br>( b   c   a ) |
|         | 일반고 <sup>b</sup> | 1967 | 2.63 | .54  |                               |
|         | 전문고 <sup>c</sup> | 578  | 2.69 | .58  |                               |
| 학업성적    | 상 <sup>a</sup>   | 1404 | 2.78 | .56  | F= 1.35                       |
|         | 중 <sup>b</sup>   | 2319 | 2.77 | .55  |                               |
|         | 하 <sup>c</sup>   | 1804 | 2.75 | .61  |                               |
| 부모 학력   | 고졸 이하            | 2292 | 2.76 | .57  | t= -.62                       |
|         | 대졸 이상            | 3091 | 2.77 | .57  |                               |
| 가정 경제수준 | 상 <sup>a</sup>   | 1890 | 2.82 | .58  | F= 25.72***<br>( c   b   a )  |
|         | 중 <sup>b</sup>   | 2421 | 2.78 | .55  |                               |
|         | 하 <sup>c</sup>   | 1215 | 2.67 | .59  |                               |

#### • 정당지지도

일반적으로 정당에 대한 지지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강화되어 가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Schulz, et al., 2010, p. 105). 그러나 근년의 연구에 따르면 청년층은 연령의 증가와는 무관하게 과거에 비해 정당(활동)에 대한 관심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Dalton, 2002).

본 조사에서는 청소년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지, 있다면 그 정당에 대하여 어느 정도 지지하고 있는지를 두가지 문항에 걸쳐 파악하였다. 먼저 기존 정당 중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2.1%에 불과하여 대다수의 청소년이 정당활동에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2009년 ICCS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대상 38개국 중 대만, 체코, 영국, 핀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등과 더불어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전체의 2/3 이상) 국가군에 속한다<sup>25)</sup>(Schulz, et al., 2010, p. 105).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 경우, 그 정당을 얼마나 지지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중간 정도("어느 정도 지지한다")가 과반수(52.4%)를 차지하였다.

표 V-10 지지정당 유무와 정당 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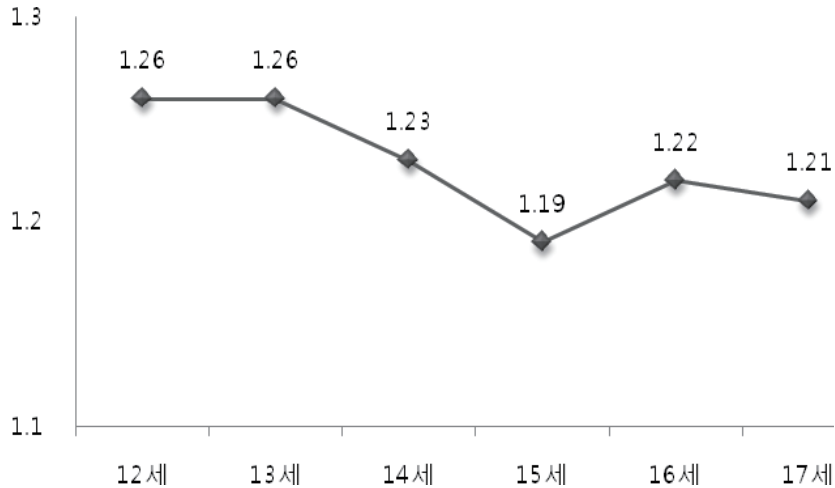
|          |            | 사례수(명) | 백분율(%) |
|----------|------------|--------|--------|
| 지지정당 유무  | 있다         | 663    | 12.1   |
|          | 없다         | 4836   | 87.9   |
| 정당 지지 정도 | 약간 지지한다    | 182    | 27.6   |
|          | 어느 정도 지지한다 | 345    | 52.4   |
|          | 많이 지지한다    | 132    | 20.0   |

정당 지지도의 척도는 ICCS 2009년 조사의 방식(Brese, et al., 2011)에 따라 지지 정당 유무와 정당 지지 정도의 문항을 조합하여 4단계의 점수 - "지지 정당이 없다"(1), "약간 지지한다"(2), "어느 정도 지지한다"(3), "많이 지지한다"(4) - 를 부여하였다.

정당 지지도에 대한 배경변인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학적 변인에서는 성별, 지역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남자가 여자보다(1.28, 1.18), 서울 지역(1.29)이 시군부·광역시(1.23, 1.20)보다 높은 수준의 정당 지지도를 나타내었다. 연령별로는 14세 이하의 중학교 학령층과 15세 이상의 고등학교 학령층간의 차이가 뚜렷하여 후자의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연령과 정당 지지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지만 상관계수는 매우 작게 나타나( $r = -.03$ ,  $p < .05$ ) 연령의 증감보다는 학령집단간의 차이가 정당 지지도를 설명하는 보다

25)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전체의 1/3 미만) 국가는 도미니카, 인도네시아, 말타, 멕시코의 4개국이었다.

유효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그림 V-19] 정당 지지도- 연령별

학교관련 변인에서는 학교유형, 학업성적의 두 변인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중학생과 일반고 학생(1.25, 1.22)이 전문고 학생(1.16)보다, 학업성적별로는 상위집단(1.29)이 중간·하위집단(1.23, 1.19)보다 정당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관련 두 변인에서도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부모 학력이 대졸 이상인 집단이 고졸 이하 집단보다(1.28, 1.16), 가정 경제수준이 상위권에 속하는 청소년(1.28), 하위·중간집단(1.23, 1.19)보다 높은 수준의 정당 지지도를 보여주었다.

표 V-11 정당 지지도 - 배경변인별

|         |                  | 사례수  | 평균   | 표준편차 | 통계치                       |
|---------|------------------|------|------|------|---------------------------|
| 전체      |                  | 5495 | 1.23 | .67  |                           |
| 성별      | 남자               | 2867 | 1.28 | .74  | t= 5.46***                |
|         | 여자               | 2628 | 1.18 | .58  |                           |
| 지역      | 서울 <sup>a</sup>  | 873  | 1.29 | .75  | F= 4.39*<br>( b-c   a )   |
|         | 광역시 <sup>b</sup> | 1488 | 1.20 | .63  |                           |
|         | 시군부 <sup>c</sup> | 3134 | 1.23 | .67  |                           |
| 교급      | 중학교 <sup>a</sup> | 2979 | 1.25 | .70  | F= 4.46*<br>( c   b-a )   |
|         | 일반고 <sup>b</sup> | 1953 | 1.22 | .65  |                           |
|         | 전문고 <sup>c</sup> | 563  | 1.16 | .59  |                           |
| 학업성적    | 상 <sup>a</sup>   | 1394 | 1.29 | .74  | F= 8.72***<br>( c-b   a ) |
|         | 중 <sup>b</sup>   | 2310 | 1.23 | .65  |                           |
|         | 하 <sup>c</sup>   | 1782 | 1.19 | .63  |                           |
| 부모 학력   | 고졸 이하            | 2274 | 1.16 | .57  | t= -6.68***               |
|         | 대졸 이상            | 3070 | 1.28 | .73  |                           |
| 가정 경제수준 | 상 <sup>a</sup>   | 1880 | 1.28 | .73  | F= 9.87***<br>( b-c   a ) |
|         | 중 <sup>b</sup>   | 2403 | 1.19 | .62  |                           |
|         | 하 <sup>c</sup>   | 1202 | 1.23 | .67  |                           |

\* p< .05, \*\*p<.01,\*\*\*p<.001; ( )는 Duncan 사후검정 결과임

## 4. 종합분석

### 1) 시민적 지식, 내적인 정치적 효능감과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

민주적 가치에 대한 학습은 시민적 지식을 구성하는 중요한 일부분이다. 청소년들은 학습을 통해 민주주의 장점을 배우게 되고 따라서 민주적 가치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시민적 지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의 인과적 관계를 설명하는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내적인 정치적 효능감은 시민적 지식과 높은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가설에 포함하였다.

연구가설 3 : 시민사회의 원리에 대한 지식과 정치적 효능감의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낼 것이다.

연구가설 3의 검증을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은 [그림 V-20](연구모형 3)과 같다. 모형에 포함된 외생변인은 연령과 부모의 학력이며, 단일항목인 연령은 관측변인의 형태로, 부모학력 잠재변인은 부친의 학력과 모친의 학력을 관측변인으로 모형에 투입하였다. 시민적 지식과 내적인 정치적 효능감은 매개변인 역할을 담당하는 내생변인으로 설정하였는데, 시민적 지식은 단일 관측변인으로, 내적인 정치적 효능감은 두 개의 관측변인<sup>26)</sup>(정치효능 1, 2)으로 구성하였다.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 관련 내생변인은 민주적 가치 지지도와 시민권 유보에 대한 태도의 두가지를 투입하였다. 민주적 가치 지지도 잠재변인은 조사항목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구조를 파악하여 2개의 관측변인(민주가치 1, 2)<sup>27)</sup>으로 문항묶음을하였고, 시민권 유보에 대한 태도는 3개의 조사항목을 각각 관측변인(시민권유보 1, 2, 3)<sup>28)</sup>으로 사용하였다.

26) 내적인 정치적 효능감의 관측변인은 주 16 참조.

27) 민주적 가치 지지도의 관측변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민주가치1 : "모든 국민들의 사회적, 정치적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국민들은 언제나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자유를 누려야 한다", 민주가치2 : "모든 시민들은 정치지도자를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국민들은 불공정한 법에 대하여 항의할 수 있어야 한다".

28) 시민권 유보에 대한 태도의 관측변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시민권 유보1: "경찰은 국가안전을 위협할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재판 없이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시민권 유보2: "국가안전 담당기관이 국가안전을 위협할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편지나 전화, 이메일을 체크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시민권 유보3: "국가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있을 때 정부는 언론과 출판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모두 역순으로 리코드한 값을 사용함)

모형에 투입된 관측변인들의 기술통계치는 [표 V-12]와 같다. 모든 변인이 구조방정식 모형에서의 정상분포 조건인 왜도 절대값 2 이하, 첨도 절대값 4 이하(Hong, et al., 2003)를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2 연구모형 3- 변인의 기술통계치

|               |         | 평균   | 표준편차 | 왜도     | 첨도     |
|---------------|---------|------|------|--------|--------|
| 연령            |         | 3.39 | 1.69 | .104   | -1.236 |
| 부모학력          | 부친학력    | 5.01 | 1.22 | -.047  | -.853  |
|               | 모친학력    | 4.77 | 1.13 | .327   | -.692  |
| 시민적 지식        |         | 7.56 | 2.95 | -.190  | -.804  |
| 내적인 정치적 효능감   | 정치효능1   | 2.13 | .62  | .225   | .401   |
|               | 정치효능2   | 2.14 | .84  | .400   | -.423  |
| 민주적 가치 지지도    | 민주가치1   | 3.50 | .54  | -1.313 | 2.562  |
|               | 민주가치2   | 3.55 | .59  | -1.476 | 2.528  |
| 시민권 유보에 대한 태도 | 시민권 유보1 | 2.48 | .96  | -.042  | -.959  |
|               | 시민권 유보2 | 2.15 | .89  | .436   | -.534  |
|               | 시민권 유보3 | 2.06 | .89  | .611   | -.308  |

연구모형 3에 투입된 변인간 상관관계(Pearson's r)는 [표 V-13]과 같다. 민주적 가치 지지도의 두 관측변인간 상관관계가 높은 수준이었지만, .8 미만으로서 다중공선성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V-13 연구모형 3- 변인의 상관관계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
| 1 연령      | -.093*** | -.128*** | .259*** | .015    | -.038** | .045**  | .050*** | -.019    | .012     | .148***  |
| 2 부친학력    | 1        | .657***  | .117*** | .113*** | .046**  | .038**  | .058*** | .034*    | .045**   | .067***  |
| 3 모친학력    |          | 1        | .079*** | .107*** | .053*** | .018    | .034*   | .038**   | .045**   | .043**   |
| 4 시민적지식   |          |          | 1       | .137*** | .008    | .281*** | .343*** | .084***  | .091***  | .173***  |
| 5 정치효능1   |          |          |         | 1       | .530*** | .109*** | .114*** | -.023    | -.018    | .058***  |
| 6 정치효능2   |          |          |         |         | 1       | .062*** | .050*** | -.036**  | -.051*** | -.042**  |
| 7 민주가치1   |          |          |         |         |         | 1       | .739*** | -.138*** | -.237*** | -.206*** |
| 8 민주가치2   |          |          |         |         |         |         | 1       | -.092*** | -.223*** | -.208*** |
| 9 시민권 유보1 |          |          |         |         |         |         |         | 1        | .434***  | .295***  |
| 10 시민권유보2 |          |          |         |         |         |         |         |          | 1        | .399***  |
| 11 시민권유보3 |          |          |         |         |         |         |         |          |          |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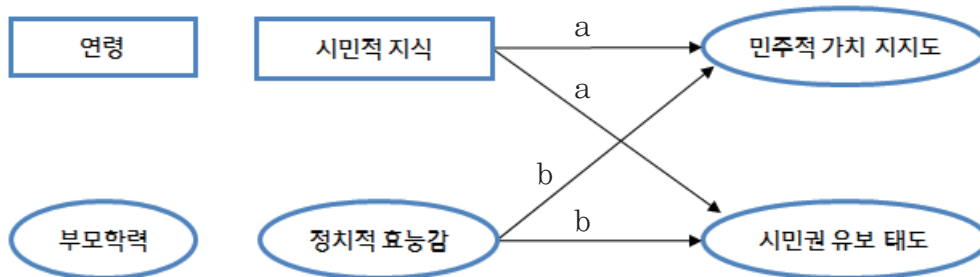
\*  $p < .05$ , \*\* $p < .01$ , \*\*\* $p < .001$

연구가설 3를 보다 구체화한 작업가설은 다음과 같다. 민주적 가치에 대한 지지와 시민권 유보에 대한 태도는 대립되는 관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인과성의 방향을 다르게 설정하였다.

H1: 시민적 지식은 민주적 가치 지지도에 대하여 정적인 영향을, 시민권 유보 태도에 대하여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내적인 정치적 효능감은 민주적 가치 지지도에 대하여 정적인 영향을, 시민권 유보 태도에 대하여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작업가설1, 2의 검증을 위한 구조방정식의 연구모형은 [그림 V-20]과 같다. 인과경로 중 a는 H1과, 인과경로 b는 H2와 각각 관련되어 있다.



[그림 V-20] 연구모형 3- 경로도

모형의 검증은 작업가설을 지지 또는 기각하는 경쟁모형을 설정하고 그 적합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비교 대상이 된 경쟁모형들은 다음과 같다.

모형 1 : a, b의 경로를 모두 설정한 모형으로서, H1과 H2를 모두 지지한다.

모형 2 : a 경로를 제거한 모형으로서, H2를 지지한다.

모형 3 : b 경로를 제거한 모형으로서, H1을 지지한다.

모형 4 : a, b의 경로를 모두 제거한 모형으로서, H1과 H2를 모두 기각한다

위의 네가지 경쟁모형의  $\chi^2$ 값과 적합도 지수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의 [표 V-14]와 같다.

표 V-14 연구모형 3- 경쟁모형의  $\chi^2$ 값과 적합도 지수

|                | $\chi^2$ | df | RMSEA | TLI  | CFI  |
|----------------|----------|----|-------|------|------|
| 모형 1 : 모든 경로   | 445.680  | 31 | .049  | .936 | .970 |
| 모형 2 : a 제외    | 1380.305 | 33 | .086  | .805 | .903 |
| 모형 3 : b 제외    | 471.221  | 33 | .049  | .937 | .968 |
| 모형 4 : a, b 제외 | 1426.858 | 35 | .085  | .810 | .900 |

자유도가 같은 모형 2와 3은 적합도 지수를 비교한 결과 모형 3의 RMSEA값이 작은 한편 TLI와 CFI값은 크기 때문에 모형 3이 적합도가 더 좋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모형 4와 모형 3은 포화모형인 모형 1에 대하여 순차적인 내포관계에 있기 때문에  $\chi^2$ 차이검정을 통해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모형 4와 3의  $\chi^2$ 값 차이는 유의수준 .001, 자유도 2에서의  $\chi^2$ 값보다 크기 때문에( $\Delta\chi^2=955.637 > \chi^2_{.001}(1)=13.827, \Delta df=2$ ), 자유도가 낮은 모형 3의 적합도가 더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모형 3과 1을 비교하면, 모형 3이 자유도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RMSEA는 동일하고 TLI는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RMSEA와 TLI가 간명성과 적합도를 동시에 고려하는 지수(홍세희, 2007)임을 고려할 때 모형 3은 보다 간명한 형태(높은 자유도)이면서도 모형1과 동일한 또는 더 나은 적합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FI값은 모형 1이 더 크지만, 이는 CFI는 간명성을 고려하지 않는 지수로서 모형 3보다 많은 인과경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모형 3이 최종모형으로 결정됨에 따라 작업가설 H2는 기각되었다. 즉, 내적인 정치적 효능감은 청소년의

민주적 가치 지지도와 시민권 유보에 대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 3은 작업가설 H1을 뒷받침하는 인과경로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H1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모수 추정치를 통해 인과성의 방향, 즉 정적인 관계인지 부적인 관계인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모형 3의 모수추정치들을 보면, 시민적 지식은 민주적 가치 지지도와 시민권 유보에 대한 태도의 두 변인 모두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정적인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적 지식의 민주적 가치 지지도에 대한 인과성의 방향은 작업가설 H1을 지지하지만, 시민권 유보 태도에 대한 인과성 방향은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시민적 지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시민권 유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 원리를 학습하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기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인지, 아니면 남북분단으로 인한 한국의 특수한 정치적 상황에서 기인하는 것인지는 앞으로의 연구과제라고 할 수 있다.

표 V-15 연구모형 3- 최종모형의 모수추정치

|                        | 모형3     |       | 수정모형    |       |
|------------------------|---------|-------|---------|-------|
|                        | 비표준화계수  | 표준화계수 | 비표준화계수  | 표준화계수 |
| 연령 → 시민적 지식            | .489*** | .280  | .489*** | .280  |
| 연령 → 정치적 효능감           | .005*   | .030  | .005*   | .030  |
| 연령 → 민주적 가치 지지도        | -.011** | -.041 | -.009*  | -.034 |
| 연령 → 시민권 유보에 대한 태도     | .010    | .033  | -       | -     |
| 부모학력 → 시민적 지식          | .513*** | .158  | .511*** | .158  |
| 부모학력 → 정치적 효능감         | .023*   | .077  | .023*   | .077  |
| 부모학력 → 민주적 가치 지지도      | .005    | .009  | -       | -     |
| 부모학력 → 시민권 유보에 대한 태도   | .040*** | .071  | .038*** | .068  |
| 시민적 지식 → 민주적 가치 지지도    | .057*** | .379  | .057*** | .378  |
| 시민적 지식 → 시민권 유보에 대한 태도 | .027*** | .157  | .029*** | .165  |

수정모형 :  $\chi^2 = 475.442(df = 35)$ , CFI = .968, TLI = .940, RMSEA = .048

\*  $p < .05$ , \*\* $p < .01$ , \*\*\* $p < .001$ ; ( )는 Duncan 사후검정 결과임

모형 3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경로를 제거한 수정모형을 통해 배경변인의 인과적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은 민주적 가치 지지도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편, 시민권 유보에 대한 태도에는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의 학력은 시민권 유보에 대한 태도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민주적 가치 지지도에는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두 종속변인에 대한 연령과 부모학력의 인과적 효과는 매우 작은 것으로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배경변인의 효과는 시민적 지식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이 확인되었다.

## 2) 시민적 지식과 사회평등의식

사회평등의식은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시민사회의 구성원리에 대한 학습과 체험을 통하여 사회평등의식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시민적 지식의 사회평등의식에 대한 인과적 효과를 가정한 다음의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4 : 시민적 지식의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높은 사회평등의식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3의 검증을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연구모형 3)은 [그림 V-22]와 같다. 모형에는 배경변인인 연령과 부모학력을 왜생변인으로 투입하여 두 변인이 시민적 지식과 사회평등의식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였다. 연령은 관측변인의 형태로, 부모학력은 아버지의 학력과 어머니의 학력을 관측변인으로 하는 잠재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내생변인 중 시민적 지식은 연령, 부모의 학력이 사회평등의식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연결하는 매개변인의 역할을 담당한다. 인과모형의 종속변인(내생변인)이 되는 사회평등 의식은 양성평등관, 민족평등관, 이주민평등관의 세 잠재변인을 투입하였다. 이들 세 잠재변인은 조사항목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해 문항묶음을 하여 각각 두 개의 관측변인(양성평등<sup>29)</sup> 1, 2; 민족평등<sup>30)</sup> 1,2; 이주민평등<sup>31)</sup> 1,2)으로 구성하였다.

29) 양성평등관의 관측변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양성평등 1: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남자와 여자는 정부의 일에 참여하는 데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같은 일을 하면 남녀 구분 없이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 양성평등 2: "일자리가 부족하면 여자보다 남자에게 취업의 우선권을 줘야 한다" "남자는 여자보다 정치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더 많이 갖고 있다" "여자는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된다"(양성평등 2의 항목들은 모두 역순으로 리코르트한 값을 적용)

연구모형 3에 투입된 변인들의 기술통계치는 다음과 같다. 모든 변인의 왜도가 절대값 2 이하, 첨도가 절대값 4 이하로서 구조방정식 모형의 정규분포 조건(Hong, et al., 2003)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6 연구모형 4- 변인의 기술통계치

|        |         | 평균   | 표준편차 | 왜도     | 첨도     |
|--------|---------|------|------|--------|--------|
| 연령     |         | 3.39 | 1.69 | .104   | -1.236 |
| 부모학력   | 부친학력    | 5.01 | 1.22 | -.047  | -.853  |
|        | 모친학력    | 4.77 | 1.13 | .327   | -.692  |
| 시민적 지식 |         | 7.56 | 2.95 | -.190  | -.804  |
| 양성평등관  | 양성평등 1  | 3.48 | .61  | -1.294 | 1.904  |
|        | 양성평등 2  | 3.20 | .74  | -.790  | .066   |
| 민족평등관  | 민족평등 1  | 3.27 | .64  | -.749  | .874   |
|        | 민족평등 2  | 2.98 | .74  | -.414  | -.027  |
| 이주민평등관 | 이주민평등 1 | 3.17 | .63  | -.648  | .946   |
|        | 이주민평등 2 | 2.89 | .67  | -.376  | .357   |

연구모형 4에 투입된 변인들의 상관관계(Pearson's r)는 다음의 [표 V-16]과 같다. 민족평등관과 이주민평등관 관측변인들의 상관계수가 비교적 높은 편이었지만, 모두 .8 이하로서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30) 민족평등관의 관측변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민족평등 1: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한국인과 동등한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이 다른 민족 사람들을 존중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한국인과 동등한 취업기회를 가져야 한다", 민족평등 2: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다른 민족의 사람들에게도 한국인과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다른 민족 사람들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 31) 이주민평등관의 관측변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이주민평등 1: "오랜 기간 한국에 거주한 이주민들에게는 선거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주민들도 한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주민의 자녀들도 한국 아이들과 동일한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주민평등 2: "이주민들이 자기 모국의 언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주민들이 자기 나라의 관습과 생활방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 V-17 연구모형 4- 변인간 상관관계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1 연령      | -.093*** | -.128*** | .259*** | .005    | .030*   | -.111*** | -.158*** | -.102*** | -.106*** |
| 2 부친학력    | 1        | .657***  | .117*** | .030*   | .043**  | .049***  | .043**   | .032*    | .029*    |
| 3 모친학력    |          | 1        | .079*** | .003    | .014    | .042**   | .048**   | .031*    | .025     |
| 4 시민적 지식  |          |          | 1       | .269*** | .299*** | .162***  | .052***  | .171***  | .009     |
| 5 양성평등1   |          |          |         | 1       | .402*** | .464***  | .302***  | .432***  | .258***  |
| 6 양성평등2   |          |          |         |         | 1       | .181***  | .062***  | .148***  | .019     |
| 7 민족평등1   |          |          |         |         |         | 1        | .680***  | .676***  | .437***  |
| 8 민족평등2   |          |          |         |         |         |          | 1        | .614***  | .420***  |
| 9 이주민평등1  |          |          |         |         |         |          |          | 1        | .579***  |
| 10 이주민평등2 |          |          |         |         |         |          |          |          | 1        |

\*  $p < .05$ , \*\* $p < .01$ ,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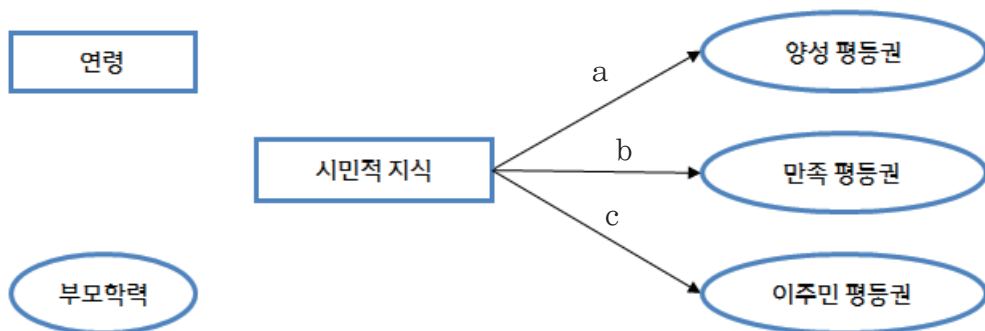
연구가설 3은 구체적으로 다음 세가지의 작업가설로 구분할 수 있다.

H1 : 시민적 지식은 양성 평등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 시민적 지식은 민족 평등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 시민적 지식은 이주민 평등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작업가설의 검증을 위하여 다음의 [그림 V-22]와 같이 구조방정식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경로는 작업가설과 관련된 것만 표시하였는데, 경로 a는 H1과, 경로 b는 H2와, 경로 c는 H3과 관련되어 있다.



[그림 V-21] 연구모형 4- 경로도

연구모형의 검증은 위의 세가지 작업가설과 관련된 복수의 경쟁모형을 설정한 뒤 모형간 비교를 통해 가장 적합도가 높은 최종모형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경쟁모형은 다음과 같다.

- 모형 1 : a, b, c의 경로를 모두 설정한 모형으로서, 위의 세가지 작업가설을 모두 지지한다.
- 모형 2 : 경로 a를 제거한 모형으로서, H 2와 H3를 지지한다.
- 모형 3 : 경로 b를 제거한 모형으로서, H1과 H3를 지지한다.
- 모형 4 : 경로 c를 제거한 모형으로서, H 1과 H2를 지지한다.
- 모형 5 : 경로 a와 b를 제거한 모형으로, H 3를 지지한다.
- 모형 6 : 경로 b와 c를 제거한 모형으로서, H1을 지지한다.
- 모형 7 : 경로 a와 c를 제거한 모형으로서, H 2를 지지한다.
- 모형 8 : a, b, c의 세 경로를 모두 제거한 모형으로서 세가지 작업가설을 모두 기각한다.

경쟁모형들의 비교를 위해  $\chi^2$ 값과 적합도 지수를 산출한 결과 다음의 [표 V-17]과 같다.

표 V-18 연구모형 4- 경쟁모형의  $\chi^2$ 값과 적합도 지수

|                      | $\chi^2$ | df | RMSEA | TLI  | CFI  |
|----------------------|----------|----|-------|------|------|
| 모형 1 : 경로 a, b, c 설정 | 649.418  | 22 | .072  | .906 | .962 |
| 모형 2 : 경로 a 제거       | 1102.174 | 23 | .092  | .845 | .935 |
| 모형 3 : 경로 b 제거       | 817.702  | 23 | .079  | .886 | .952 |
| 모형 4 : 경로 c 제거       | 861.334  | 23 | .081  | .879 | .950 |
| 모형 5 : 경로 a, b 제거    | 1126.882 | 24 | .091  | .848 | .934 |
| 모형 6 : 경로 b, c 제거    | 877.300  | 24 | .080  | .882 | .949 |
| 모형 7 : 경로 a, c 제거    | 1150.516 | 24 | .092  | .845 | .932 |
| 모형 8 : 경로 a, b, c 제거 | 1150.938 | 25 | .090  | .851 | .932 |

자유도가 같은 모형은 적합도 지수를 활용하여 모형을 선택할 수 있다. 모형 2, 3, 4(df= 23) 중에서는 모형 3의 RMSEA가 가장 작은 한편, TLI와 CFI가 크게 나타나 모형 3을 선택하였다. 모형 5, 6, 7(df= 24) 중에서는 모형 6의 RMSEA가 가장 작고, TLI와 CFI의 값이 커서 모형

6을 선택하였다. 모형 8과 6, 3은 모두 순차적으로 모형 1에 포함되는 내포관계에 있기 때문에  $\chi^2$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모형 8과 6을 비교하면 두 모형간  $\chi^2$ 값의 차이가 유의도수준 .001, 자유도 1에서의  $\chi^2$ 값보다 크기 때문에( $\Delta\chi^2 = 273.638 > \chi^2_{.001}(1)=10.827, \Delta df=1$ ) 자유도가 더 낮은 모형 6을 선택하였다. 모형 6과 3의 비교( $\Delta\chi^2 = 59.598 > \chi^2_{.001}(1)=10.827, \Delta df=1$ )에서는 모형 3이 선택되었고, 마지막으로 모형 3과 1의 비교( $\Delta\chi^2 = 168.284 > \chi^2_{.001}(1)=10.827, \Delta df=1$ )를 통해 모형 1이 최종모형으로 결정되었다.

모형 1은 시민적 지식이 양성평등관, 민족평등관, 이주민평등관 모두에 인과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전제로 하지만, 인과성의 방향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시민적 지식이 세 변인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의 방향을 알아 보기 위해 모형 1 내의 모수를 추정한 결과는 [표 V-19]와 같다. 추정된 모수를 보면, 시민적 지식은 양성평등관, 민족평등관, 이주민평등관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세가지 작업가설이 모두 채택되었다. 시민사회의 원리에 대한 이해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사회평등의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19 연구모형 4- 최종모형의 모수추정치

|                 | 모형1      |       | 수정모형     |       |
|-----------------|----------|-------|----------|-------|
|                 | 비표준화계수   | 표준화계수 | 비표준화계수   | 표준화계수 |
| 연령 → 양성평등관      | -.027*** | -.085 | -.026*** | -.081 |
| 연령 → 민족간평등관     | -.066*** | -.199 | -.067*** | -.202 |
| 연령 → 이주민평등관     | -.059*** | -.168 | -.059*** | -.167 |
| 연령 → 시민적 지식     | .489***  | .280  | .489***  | .280  |
| 부모학력 → 양성평등관    | -.014    | -.023 | -        | -     |
| 부모학력 → 민족간평등관   | .011     | .017  | -        | -     |
| 부모학력 → 이주민평등관   | -.004    | -.007 | -        | -     |
| 부모학력 → 시민적 지식   | .509***  | .158  | .514***  | .159  |
| 시민적 지식 → 양성평등관  | .065***  | .353  | .065***  | .350  |
| 시민적 지식 → 민족간평등관 | .038***  | .199  | .038***  | .201  |
| 시민적 지식 → 이주민평등관 | .043***  | .214  | .043***  | .213  |

수정모형 :  $\chi^2 = 655.862(df = 23)$ , CFI = .962, TLI = .916, RMSEA = .067

\*  $p < .05$ , \*\* $p < .01$ , \*\*\* $p < .001$ ; ( )는 Duncan 사후검정 결과임

모형내의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를 제거한 수정모형을 통해 배경변인이 사회평등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연령은 양성평등관, 민족평등관, 이주민평등관 모두에 대하여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들수록 청소년들의 사회평등의식이 약화되어 가는 것은 매우 주목할만한 점이라 할 수 있다. 연령의 부적인 인과적 효과는 양성평등관보다는 민족간평등관과 이주민평등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청소년들의 배타적인 민족의식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부모의 학력은 사회평등의식에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시민적 지식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 3) 사회제도 신뢰도와 국가에 대한 태도

2009년 ICCS 조사에서 한국 청소년들의 사회제도 신뢰도가 비교대상 국가 중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chulz, et al., 2010). ICCS 조사문항에 포함된 행정부처, 정당, 국회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제도는 국가 운영과 관련된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이들 조직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은 국가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사회제도 신뢰도와 국가에 대한 태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5 : 사회제도에 대한 낮은 신뢰도는 청소년들의 국가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해 사용할 구조방정식 모형은 [그림 V-23](연구모형 5)과 같다. 모형에는 외생변인으로 연령과 부모의 학력 외에, 계층적 배경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가정의 경제수준을 투입하였다. 연령과 가정의 경제수준은 단일 관측변인을 투입하였고, 부모의 학력은 아버지의 학력과 어머니의 학력을 관측변인으로 하였다. 내생변인은 사회제도 신뢰도와 국가에 대한 태도의 두가지이다. 두 변인 모두 조사항목들에 대한 요인구조 탐색을 통해 각각 두 개의 관측변인(사회제도1, 2; 국가태도 1, 2)<sup>32)</sup> 을 구성하였다.

32) 사회제도 신뢰도의 관측변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사회제도 1: "중앙 정부와 행정부처 (대통령, 장관 등)" "지방 정부와 행정조직 (시장, 군수 등)" "국회" "정당", 사회제도 2: "경찰" "법원"(모두 역순으로 리코드한 값을 적용). 국가에 대한 태도의 관측변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국가태도 1: "우리나라가 성취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태극기는 나에게 소중한다" "나는 우리나라를 매우 존경한다" "나는 한국에서 살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다", 국가태도 2: "우리나라는 환경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우리나라의 정치제도는 잘 운영되고 있다" "대체로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살기 좋은 나라이다" (모두 역순으로 리코드한 값을 적용)

모형에 투입될 변인들의 기술통계치는 다음의 표와 같다. 모든 변인의 왜도와 첨도가 모두 절대값 2 미만으로서 구조방정식 모형의 정규분포 조건(Hong, et al., 2003)에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0 연구모형 5- 변인의 기술통계치

|           |        | 평균   | 표준편차 | 왜도    | 첨도     |
|-----------|--------|------|------|-------|--------|
| 연령        |        | 3.39 | 1.69 | .104  | -1.236 |
| 가정의 경제수준  |        | 4.16 | 1.10 | -.046 | .667   |
| 부모의 학력    | 부친학력   | 5.01 | 1.22 | -.047 | -.853  |
|           | 모친학력   | 4.77 | 1.13 | .327  | -.692  |
| 사회제도 신뢰도  | 사회제도 1 | 2.10 | .70  | .278  | -.214  |
|           | 사회제도 2 | 2.46 | .79  | -.131 | -.439  |
| 국가에 대한 태도 | 국가태도 1 | 2.99 | .62  | -.532 | .630   |
|           | 국가태도 2 | 2.45 | .65  | .023  | -.073  |

모형에 사용되는 관측변인들간의 상관관계는 다음의 <표 V-21>과 같다. 변인간 상관계수가 모두 .8 이하로서 다중공선성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V-21 연구모형 5- 변인간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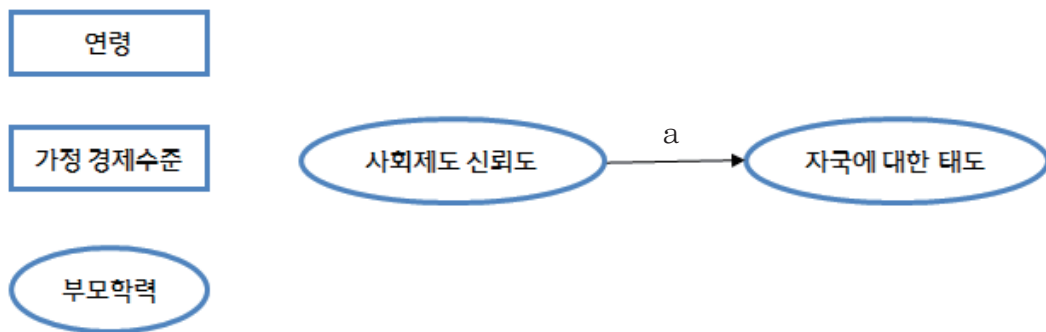
|            | 2        | 3        | 4        | 5        | 6        | 7        | 8        |
|------------|----------|----------|----------|----------|----------|----------|----------|
| 1 연령       | -.142*** | -.093*** | -.128*** | -.270*** | -.242*** | -.158*** | -.283*** |
| 2 가정의 경제수준 | 1        | .281***  | .268***  | .054***  | .048***  | .071***  | .084***  |
| 3 부친학력     |          | 1        | .657***  | .004     | .015     | .018     | -.015    |
| 4 모친학력     |          |          | 1        | .025     | .037**   | .020     | .017     |
| 5 사회제도1    |          |          |          | 1        | .707***  | .319***  | .497***  |
| 6 사회제도2    |          |          |          |          | 1        | .339***  | .415***  |
| 7 국가태도1    |          |          |          |          |          | 1        | .581***  |
| 8 국가태도2    |          |          |          |          |          |          | 1        |

\*  $p < .05$ , \*\* $p < .01$ , \*\*\* $p < .001$

연구가설 5는 다음과 같은 작업가설로 표현할 수 있다.

H1 : 사회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국가에 대한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해 다음의 [그림 V-23]과 같이 구조방정식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에서 인과경로는 연구가설과 직접 관련된 경로 a 하나만 표시하였다. a의 인과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모수가 양수일 경우 연구가설이 채택된다.



[그림 V-22] 연구모형 5- 경로도

모형의 검증은 경로 a를 지지 또는 기각하는 두가지 경쟁모형을 설정하여 적합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두가지 경쟁모형의  $\chi^2$ 값과 적합도 지수는 다음의 <표 V-21>과 같다. 모형 1과 2는 내포관계에 있기 때문에  $\chi^2$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두 모형의  $\chi^2$ 값의 차이가 유의수준 .001, 자유도 1에서의  $\chi^2$ 값보다 크기 때문에( $\Delta\chi^2=1350.819 > \chi^2_{.001}(1)=10.827, \Delta df=1$ ), 자유도가 더 낮은 모형 1이 선택되었다. 사회제도 신뢰도와 국가에 대한 태도 사이에는 인과적 관계가 성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22 연구모형 5- 경쟁모형의  $\chi^2$ 값과 적합도 지수

|                | $\chi^2$ | df | CFI  | TLI  | RMSEA |
|----------------|----------|----|------|------|-------|
| 모형 1 : 경로 a 설정 | 126.983  | 12 | .990 | .971 | .041  |
| 모형 2 : 경로 a 제외 | 1477.802 | 13 | .877 | .660 | .142  |

다음으로 인과성의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모형1 내의 모수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의 <표 V-23>와 같다. 사회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국가에 대한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작업가설 H1이 채택되었다. 두 변인간 회귀계수는 상당히 높은 수준(.54)으로서 사회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국가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23 연구모형 5- 최종모형의 모수추정치

|                      | 모형1                  |       | 수정모형                 |       |
|----------------------|----------------------|-------|----------------------|-------|
|                      | 비표준화계수               | 표준화계수 | 비표준화계수               | 표준화계수 |
| 연령 → 국가에 대한 태도       | -.031 <sup>***</sup> | -.135 | -.031 <sup>***</sup> | -.135 |
| 가정의 경제수준 → 국가에 대한 태도 | -.030 <sup>***</sup> | -.056 | -.031 <sup>***</sup> | -.059 |
| 부모학력 → 국가에 대한 태도     | -.021 <sup>**</sup>  | -.049 | -.022 <sup>***</sup> | -.051 |
| 연령 → 사회제도 신뢰도        | -.109 <sup>***</sup> | -.300 | -.109 <sup>***</sup> | -.301 |
| 가정의 경제수준 → 사회제도 신뢰도  | -.029 <sup>*</sup>   | -.035 | -                    | -     |
| 부모학력 → 사회제도 신뢰도      | -.018                | -.027 | -                    | -     |
| 사회제도 신뢰도 → 국가에 대한 태도 | .344 <sup>***</sup>  | .541  | .344 <sup>***</sup>  | .542  |

수정모형 :  $\chi^2 = 132.833(df = 14)$ , CFI = .990, TLI = .974, RMSEA = .039

\*  $p < .05$ , \*\* $p < .01$ , \*\*\* $p < .001$ ; ( )는 Duncan 사후검정 결과임

모형 1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를 제거한 뒤 다시 모수를 추정한 결과, 가정의 경제수준→사회제도 신뢰도의 경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두 경로를 제외한 수정모형을 통해 변인간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과 가정의 경제수준, 부모의 학력은 모두 국가에 대한 태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나이가 들수록, 부유한 가정일수록, 부모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국가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됨을 알 수 있다. 사회제도 신뢰도에 대한 배경변인의 인과적 효과는 연령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낮아지는 반면, 가정의 경제수준과 부모의 학력은 사회제도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제 6 장

# 시민적 참여와 행동의사

1. 정치·사회문제 소통
2. 시민적 참여활동
3. 장래의 행동의사
4. 종합분석



## 제 6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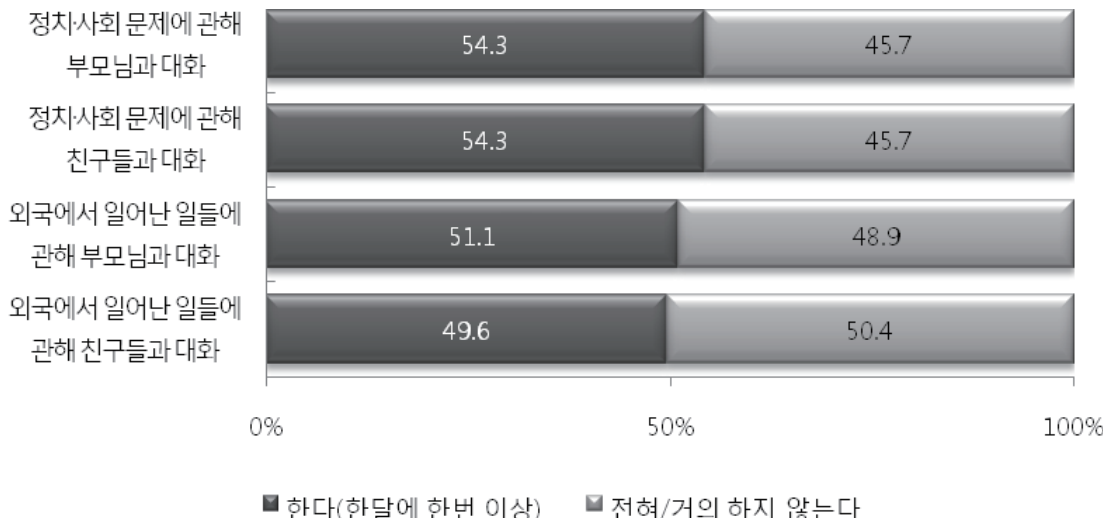
# 시민적 참여와 행동의사

### 1. 정치·사회문제 소통

#### ● 정치·사회문제 대화

정치·사회적 주제에 대한 대화와 토론은 민주사회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Schulz, et al., 2010, p. 122). Richardson(2003)은 IEA의 CIVED 자료 분석을 통해 정치적 토론과 대화가 정치적 효능감과 장래의 참여행동을 설명하는 변인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

본 조사에서는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정치·사회문제에 관하여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누는지 알아보기 위해 4가지 조사항목을 제시하고 대화 빈도에 따라 단계별 4점 척도 - "전혀/거의 하지 않음"(1), "한달에 한번 이상"(2), "일주일에 한번 이상"(3), "매일/거의 매일(4) - 로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결과를 "(전혀/거의) 대화하지 않는다"와 "(한달에 한번 이상) 대화한다"로 리코드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 VI-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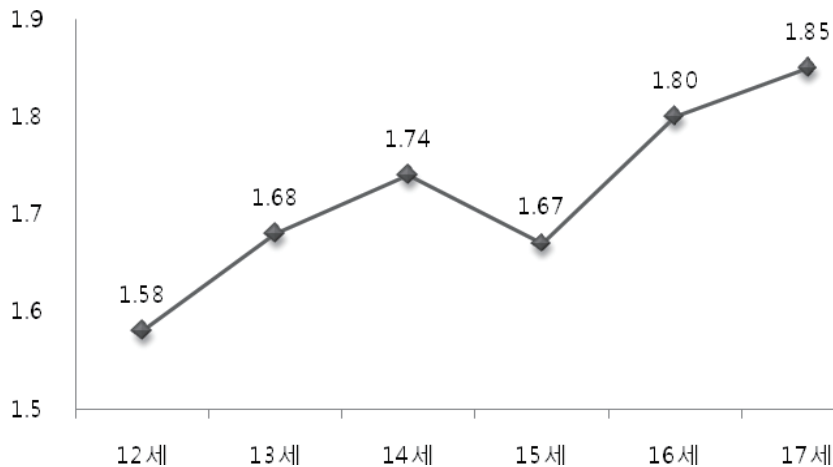


[그림 VI-1] 정치·사회문제 대화- 단순빈도

모든 조사항목에 걸쳐 5할 안팎의 청소년들이 부모나 친구들과 한달에 한번 이상 정치·사회문제에 관해 대화를 나눈다고 응답하였다. 대화 상대가 누구인가(부모님/친구)에 따른 응답빈도의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대화 주제에 있어서는 친구들과 국내의 정치·사회 문제보다는 외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대화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는데, 이것은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ICCS 2009년 조사결과와 일치한다(Schulz, et al., 2010, p. 122).

정치·사회문제 대화의 척도점수는 항목별 응답결과의 평균값( $M = 1.72$ ,  $S.D. = .65$ )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평소에 정치·사회 문제에 대하여 주위사람과 자주 대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Chronbach's  $\alpha$ )는 .77로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정치·사회문제 대화의 배경변인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학적 변인 중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남자가 여자보다 정치·사회문제에 관심도가 높은 것을 고려하면 이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청소년의 정치·사회문제 대화빈도(1.82)가 시군부·광역시(1.70, 1.69)와 큰 격차를 두고 높은 수준이었다. 연령별로는 고1 시기(15세)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정치·사회문제 대화빈도가 증가하여 두 변인은 약한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 = .12$ ,  $p < .001$ ).



[그림 VI-2] 정치·사회문제 대화- 연령별

학교관련 두 변인에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일반고 학생의 정치·사회문제 대화빈도(1.80)가 전문고, 중학생(1.68, 1.67)보다 높은 수준이었고, 학업성적에 따른 차이도 현저하여 상위집단의 대화빈도가 가장 높고 이어서 중간, 하위집단의 순이었다(1.84, 1.73, 1.60).

가족관련 변인에서는 부모학력이 대졸 이상인 집단이 고졸 이하인 집단보다(1.77, 166), 경제수준이 상위에 속하는 청소년(1.81)이 중간·하위집단(각각 1.67)보다 정치·사회문제와 관련된 대화를 자주 나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I-1 정치·사회문제 대화- 배경변인별

|         |                  | 사례수  | 평균   | 표준편차 | 통계치                          |
|---------|------------------|------|------|------|------------------------------|
| 전체      |                  | 5508 | 1.72 | .65  |                              |
| 성별      | 남자               | 2861 | 1.73 | .67  | t= 1.75                      |
|         | 여자               | 2647 | 1.70 | .63  |                              |
| 지역      | 서울 <sup>a</sup>  | 875  | 1.82 | .69  | F= 12.00***<br>( b-c   a )   |
|         | 광역시 <sup>b</sup> | 1483 | 1.69 | .62  |                              |
|         | 시군부 <sup>c</sup> | 3150 | 1.70 | .65  |                              |
| 교급      | 중학교 <sup>a</sup> | 2976 | 1.67 | .64  | F= 27.48***<br>( a-c   b )   |
|         | 일반고 <sup>b</sup> | 1961 | 1.80 | .66  |                              |
|         | 전문고 <sup>c</sup> | 571  | 1.68 | .65  |                              |
| 학업성적    | 상 <sup>a</sup>   | 1401 | 1.84 | .69  | F= 56.83***<br>( c   b   a ) |
|         | 중 <sup>b</sup>   | 2312 | 1.73 | .65  |                              |
|         | 하 <sup>c</sup>   | 1791 | 1.60 | .61  |                              |
| 부모 학력   | 고졸 이하            | 2294 | 1.66 | .61  | t= -5.95***                  |
|         | 대졸 이상            | 3094 | 1.77 | .68  |                              |
| 가정 경제수준 | 상 <sup>a</sup>   | 1887 | 1.81 | .67  | F= 29.73***<br>( c-b   a )   |
|         | 중 <sup>b</sup>   | 2420 | 1.67 | .63  |                              |
|         | 하 <sup>c</sup>   | 1196 | 1.67 | .64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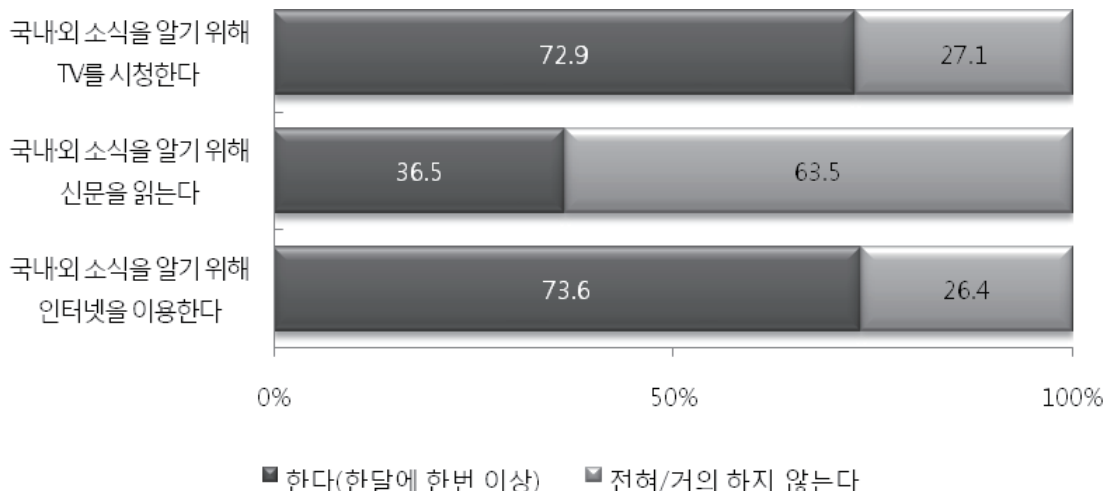
\* p< .05, \*\*p<.01,\*\*\*p<.001; ( )는 Duncan 사후검정 결과임

#### ● 정보매체 활용도

미디어가 시민적 참여행동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연구결과들이 존재한다. Putnam (2001)은 TV시청이 정치·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효능감의 저하, 참여행동의 감소로 연결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에 상반되는 연구결과들도 다수 존재한다. 예컨대 Norris (2000)는 관련 연구의 메타분석을 통해 미디어 사용이 정치적 참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고 보았고, 1999년의 CIVED 조사에서는 TV 뉴스 시청을 통한 정보 수집은 시민적 지식과 장래의 투표 참여를 설명하는 변인으로 분석되었다(Torney-Purta, et al., 2001).

본 조사에서는 청소년들이 국내·외의 정보 입수를 위해 어느 정도 매체를 활용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V, 신문, 인터넷의 세가지 매체를 제시하고 그 이용빈도를 4점 척도 - "전혀/거의 하지 않음"(1), "한달에 한번 이상"(2), "일주일에 한번 이상"(3), "매일/거의 매일"(4) - 로 응답하게 하였다. 이용 여부를 기준으로 응답결과를 리코드한 결과는 다음의 [그림 VI-3]과 같다.



[그림 VI-3] 정보매체 활용도- 단순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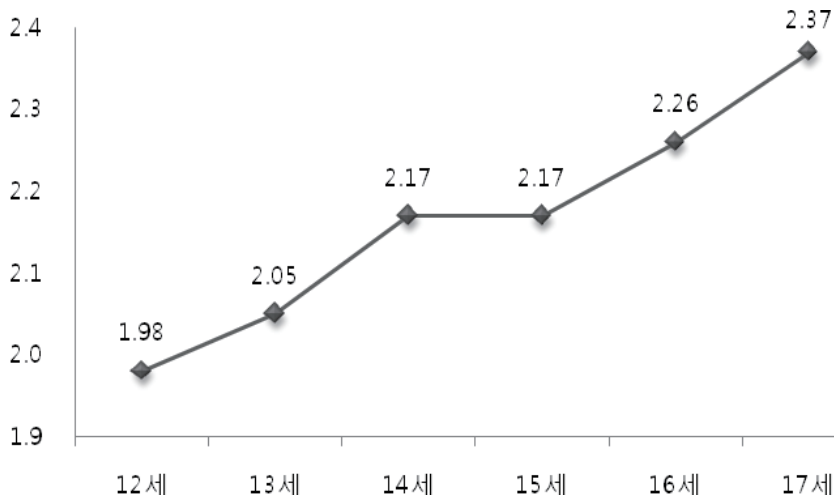
세가지 매체에 대하여 한달에 한번 이상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을 비교하면, 인터넷과 TV가 7할 이상으로 매우 높은 이용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과거에는 TV가 청소년들의 활용도가 가장 높은 매체였지만, 정보화의 진전과 더불어 인터넷의 활용도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V와 인터넷의 활용빈도는 "매일/거의 매일" "일주일에 한번 이상" 이용한다는 응답률에서도 거의 동일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한편, 신문은 청소년의 활용도가 가장 낮은 매체였다. 2009년 ICCS 조사에서도 한국은 청소년의 신문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로 분류<sup>33)</sup>되었는데(Schulz, et al., 2010), 이것은 한국 청소년들의 높은 인터넷 이용률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정보매체 활용도의 척도점수는 항목별 응답결과와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새로운 정보의 입수를 위해 TV, 신문, 인터넷 등의 매체를 자주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척도의 내적

33) 청소년(중2)의 신문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는 대만, 과테말라, 파라과이, 스위스였고, 한국은 키프로스, 덴마크, 그리스와 더불어 가장 활용도가 낮은 국가에 속하였다.

신뢰도 계수(Chronbach's  $\alpha$ )는 .64로서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정보매체 활용도의 배경변인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학적 변인에서는 성별, 지역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남자가 여자보다 정보매체의 활용도가 높았고 (2.22, 2.10),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의 정보매체 활용도가 가장 높고 이어서 광역시, 시군부의 순이었으며(2.28, 2.19, 2.11) 지역간 차이가 뚜렷하였다. 연령은 정보매체 활용도와 약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r = .16$ ,  $p < .001$ ), 나이가 들수록 국내·외 소식을 알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VI-4] 정보매체 활용도 - 연령별

학교관련 변인에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일반고 학생(2.31)이 전문고, 중학생(2.13, 2.07)보다 정보매체 활용도가 높았고, 학업성적별로는 상위집단에 속할수록 정보매체 활용도가 증가하여 상위집단이 가장 높고, 이어서 중간, 하위집단(2.32, 2.19, 2.01)의 순이었다.

가족관련 두 변인에서도 하위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부모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청소년이 고졸 이하인 청소년보다, 가정의 경제수준이 상위에 속하는 청소년이 중간·하위집단의 청소년보다 높은 수준의 정보매체 활용도를 나타내었다.

표 VI-2 정보매체 활용도- 배경변인별

|         |                  | 사례수  | 평균   | 표준편차 | 통계치                          |
|---------|------------------|------|------|------|------------------------------|
| 전체      |                  | 5508 | 2.16 |      |                              |
| 성별      | 남자               | 2861 | 2.22 | .80  | t= 5.74***                   |
|         | 여자               | 2647 | 2.10 | .77  |                              |
| 지역      | 서울 <sup>a</sup>  | 875  | 2.28 | .81  | F= 16.28***<br>( c   b   a ) |
|         | 광역시 <sup>b</sup> | 1483 | 2.19 | .77  |                              |
|         | 시군부 <sup>c</sup> | 3150 | 2.11 | .78  |                              |
| 교급      | 중학교 <sup>a</sup> | 2976 | 2.07 | .78  | F= 56.44***<br>( a-c   b )   |
|         | 일반고 <sup>b</sup> | 1961 | 2.31 | .78  |                              |
|         | 전문고 <sup>c</sup> | 571  | 2.13 | .79  |                              |
| 학업성적    | 상 <sup>a</sup>   | 1401 | 2.32 | .79  | F= 64.96***<br>( c   b   a ) |
|         | 중 <sup>b</sup>   | 2312 | 2.19 | .79  |                              |
|         | 하 <sup>c</sup>   | 1791 | 2.01 | .76  |                              |
| 부모 학력   | 고졸 이하            | 2294 | 2.10 | .77  | t= -5.66***                  |
|         | 대졸 이상            | 3094 | 2.22 | .79  |                              |
| 가정 경제수준 | 상 <sup>a</sup>   | 1887 | 2.26 | .81  | F= 24.82***<br>( c-b   a )   |
|         | 중 <sup>b</sup>   | 2420 | 2.11 | .77  |                              |
|         | 하 <sup>c</sup>   | 1196 | 2.10 | .78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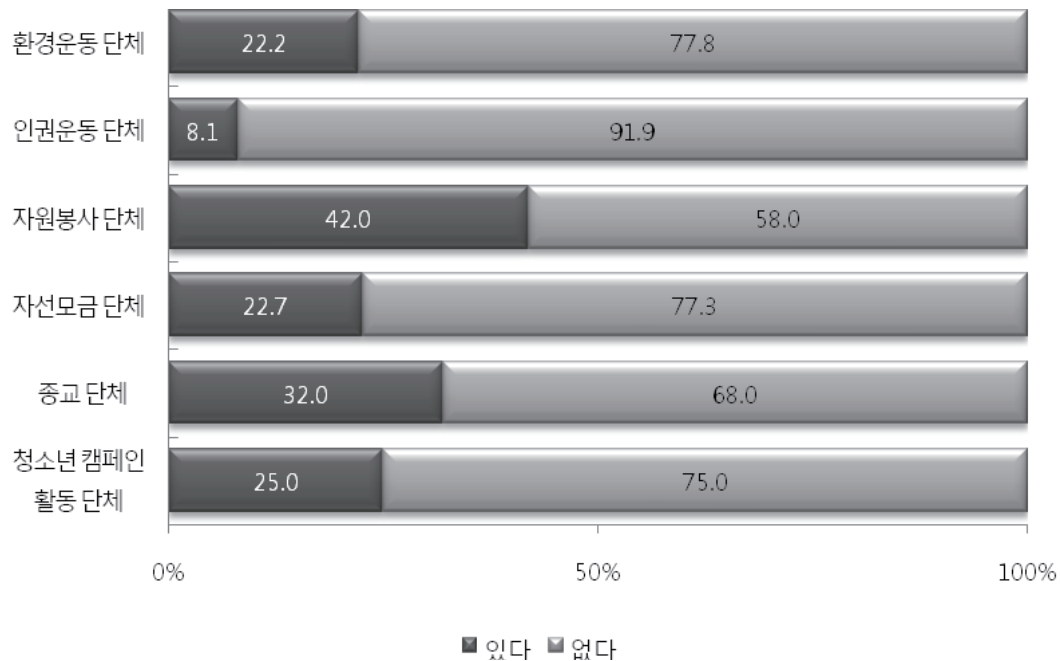
\* p< .05, \*\*p<.01,\*\*\*p<.001; ( )는 Duncan 사후검정 결과임

## 2. 시민적 참여활동

### • 공동체 참여활동 경험

사회자본과 시민참여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공동체의 조직·단체 또는 집단 가입을 참여행동의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Putnam, 2001; van Deth, et al., 1999). 이러한 조직·단체의 가입은 현재의 참여뿐만 아니라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장래의 참여를 위한 자원이 되기도 한다. 청소년들은 신분상의 한계로 학교를 벗어난 지역사회 단위의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지만, 청소년 시기의 공동체활동 참여는 성인이 된 이후의 사회참여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청소년들의 공동체 참여활동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모두 5가지의 단체 유형을 제시<sup>34)</sup>하고 참여경험 여부를 3점 척도 - "최근 1년 동안 참여"(1), "1년보다 더 이전에 참여"(2), "참여한 적이 없다"(3) - 로 응답하게 하였다. 각 항목별 응답결과를 참여경험 여부를 기준으로 리코드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그림 VI-5]와 같다.



[그림 VI-5] 공동체 참여활동 경험- 단순빈도

34) ICCS 2009년 조사에서는 "정당 또는 노동조합과 연계된 청소년 조직"도 포함되었으나, 한국에서는 해당 조직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조사항목에서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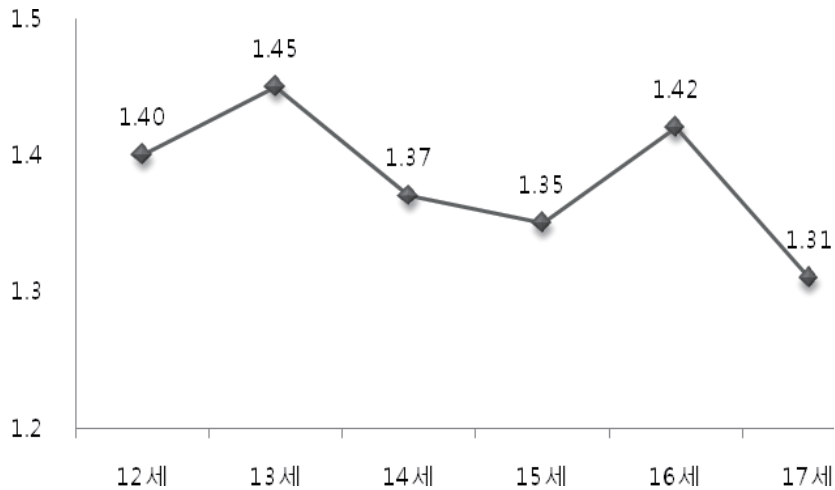
모든 단체활동에 걸쳐서 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이 과반수에 못미쳐서 청소년들의 공동체 참여활동 경험은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단체별 경험자의 비율은 "자원봉사 단체"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종교 단체"(32.0%), "청소년 캠페인활동 단체"(25.0%), "자선모금 단체"(22.7%), "환경운동 단체"(22.2%)의 순이었으며 "인권운동 단체"의 활동참여 경험자가 가장 적었다(8.1%).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자원봉사활동 단체의 참여율이 높은 것은 내신반영과 일정 부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ICCS 2009년 조사에서 한국은 공동체 참여활동 경험이 전혀 없는 청소년(중2)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분류되었다<sup>35)</sup>(Schulz, et al., 2010, p. 134). 과도한 학업부담으로 인한 여가시간 부족, 청소년들의 사회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등이 그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공동체 참여활동 경험의 척도점수는 항목별 응답결과를 역순으로 리코드한 평균값( $M = 1.38$ ,  $SD = .46$ )을 활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지역사회내에서의 시민적 참여활동의 경험이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척도의 내적 신뢰도계수(Chronbach's  $\alpha$ )는 .76으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공동체 참여활동 경험의 배경변인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학적 변인에서 성별로는 남녀간에 차이가 없었고, 지역별로는 서울 청소년의 참여경험(1.42)이 광역시·시군부(1.37)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연령별로는 13세, 16세의 두 시기를 제외하고는 나이가 들수록 공동체 참여활동 경험이 감소하는 추세로서 두 변인은 약한 부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 = -.06$ ,  $p < .001$ ). 13세와 16세의 경험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각각 중2, 고2의 시기로서 3학년보다는 상대적으로 상급학교 진학 준비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35) 공동체 참여활동 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비율이 낮은(25% 미만) 국가는 콜롬비아, 도미니카,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멕시코, 파라과이, 러시아, 태국 등이었으며, 높은(50% 이상) 국가는 대만, 덴마크, 핀란드, 한국, 스웨덴이었는데 그중에서도 한국의 비경험자 비율이 74%로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I-6] 공동체 참여활동 경험- 연령별

학교관련 변인에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중학생과 일반고 학생(1.40, 1.37)이 전문고 학생(1.32)보다 공동체 참여활동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고 학생은 교내 참여활동 경험도 가장 낮아서 전체적인 시민적 참여활동 경험이 인문고 학생뿐만 아니라 나이가 어린 중학생보다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가족관련 두 변인에서도 하위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부모의 학력수준이 높은 집단(대졸 이상)이 낮은 집단(고졸 이하)보다(1.42, 1.33), 가정의 경제수준이 상위에 속하는 청소년(중간·하위집단 청소년(1.35, 1.33)보다 공동체 참여활동 경험자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표 VI-3 공동체 참여활동 경험- 배경변인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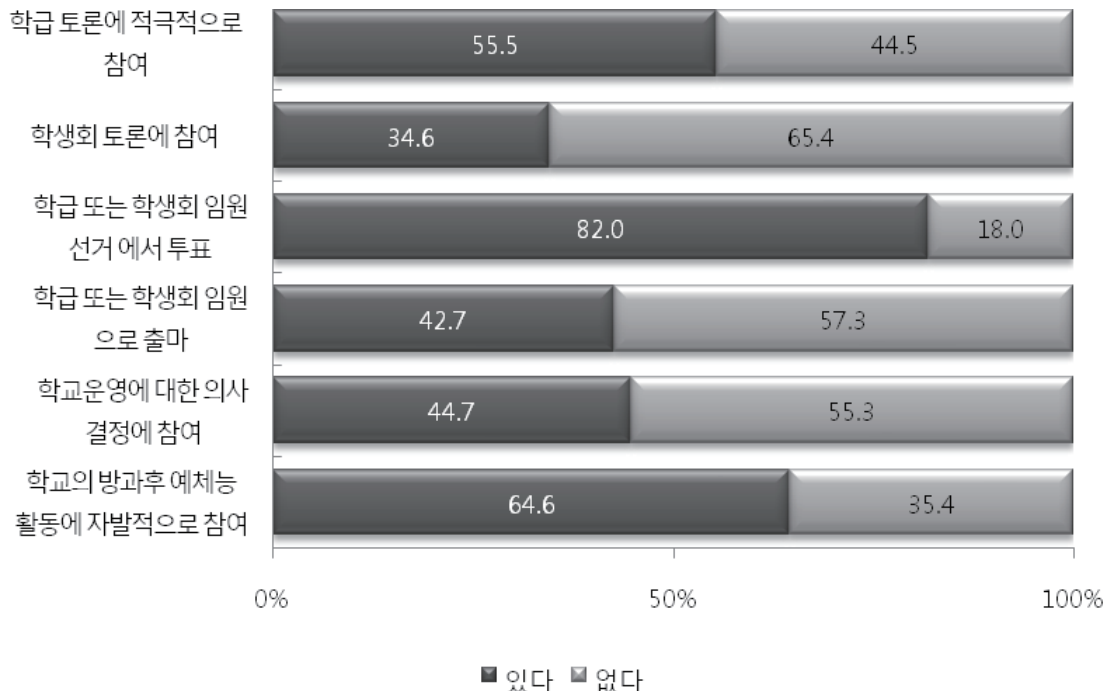
|         |                  | 사례수  | 평균   | 표준편차 | 통계치                          |
|---------|------------------|------|------|------|------------------------------|
| 전체      |                  | 5524 | 1.38 | .46  |                              |
| 성별      | 남자               | 2882 | 1.38 | .47  | t= -.23                      |
|         | 여자               | 2642 | 1.38 | .45  |                              |
| 지역      | 서울 <sup>a</sup>  | 875  | 1.42 | .48  | F= 3.42*<br>( c-b   a )      |
|         | 광역시 <sup>b</sup> | 1486 | 1.38 | .44  |                              |
|         | 시군부 <sup>c</sup> | 3163 | 1.37 | .46  |                              |
| 교급      | 중학교 <sup>a</sup> | 2989 | 1.40 | .47  | F= 9.80***<br>( c   b-a )    |
|         | 일반고 <sup>b</sup> | 1961 | 1.37 | .44  |                              |
|         | 전문고 <sup>c</sup> | 574  | 1.32 | .44  |                              |
| 학업성적    | 상 <sup>a</sup>   | 1397 | 1.45 | .48  | F= 27.97***<br>( c   b   a ) |
|         | 중 <sup>b</sup>   | 2315 | 1.39 | .47  |                              |
|         | 하 <sup>c</sup>   | 1803 | 1.32 | .42  |                              |
| 부모 학력   | 고졸 이하            | 2284 | 1.33 | .44  | t= -6.79***                  |
|         | 대졸 이상            | 3089 | 1.42 | .47  |                              |
| 가정 경제수준 | 상 <sup>a</sup>   | 1886 | 1.46 | .50  | F= 38.34***<br>( c-b   a )   |
|         | 중 <sup>b</sup>   | 2420 | 1.35 | .44  |                              |
|         | 하 <sup>c</sup>   | 1208 | 1.33 | .42  |                              |

\* p< .05, \*\*p<.01,\*\*\*p<.001; ( )는 Duncan 사후검정 결과임

#### • 교내 참여활동 경험

청소년들은 학생이라는 신분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투표, 선거 출마와 같은 성인들과 동일한 형태의 정치·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다양한 수준의 학교운영 참여를 통해 자신의 권리가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지 배우고, 이를 통하여 일종의 정치적 효능감을 발전시킬 수 있다(Bandura, 1997). 이는 민주적인 형태의 학교운영이 학생들의 정치적 효능감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선행연구(Mosher & Kenny, 1994; Pasek, Romer, & Jamieson, 2008)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청소년들이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시민적 참여활동을 어느 정도 경험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6가지 활동유형을 제시하고 3점 척도 - "최근 1년 동안 참여"(1), "1년보다 더 이전에 참여"(2), "참여한 적이 없다"(3) - 로 응답하게 하였다. 각 항목별 응답내용을 참여 여부를 기준으로 리코드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그림 VI-7]과 같다.



[그림 VI-7] 교내 참여활동 경험- 단순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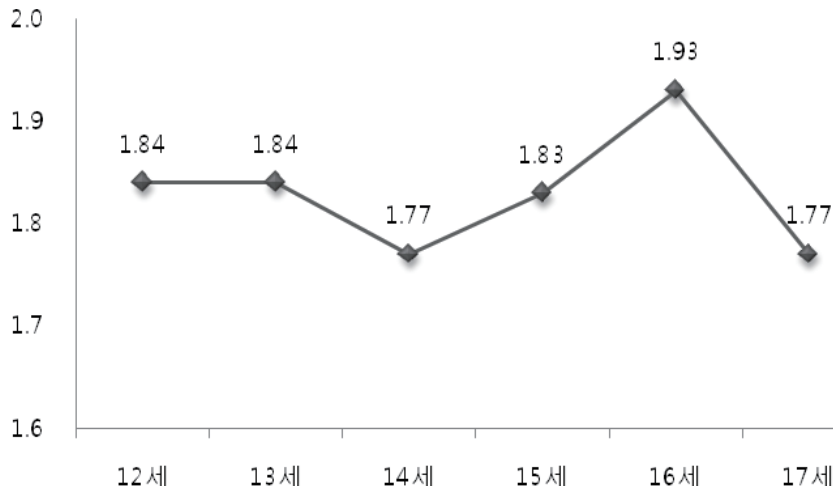
"학급 또는 학생회 임원 선거에서 투표"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가장 많았고(82.0%), 이어서 "학교의 방과후 예체능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64.6%), "학급 토론에 적극적 참여"(55.5%)의 순이었으며, "학교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44.7%), "학급 또는 학생회 임원으로 출마"(42.7%), "학생회 토론에 참여"(34.6%)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과반수에 못미쳤다. 조사문항이 초등학교 이후의 경험 유무를 묻는 것이었음을 고려할 때, 청소년들의 참여 경험률을 높은 수준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ICCS 2009년 조사결과(중2 대상)를 보면, 교내 참여활동 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비율이 한국은 룩셈부르크와 더불어 가장 높은 수준<sup>36)</sup>인 것으로 나타났다(Schulz, et al., 2010, p. 135).

교내 참여활동 경험의 척도점수는 항목별 응답결과를역순으로 리코드한 평균값( $M = 1.83$ ,  $SD = .55$ )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내에서의 시민적 참여활동 경험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척도의 내적 신뢰도계수(Chronbach's  $\alpha$ )는 .80으로서 높은 수준이었다.

교내 참여활동 경험에 대한 배경변인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학적 변인에서는 성별, 지역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1.86, 1.80), 지역별로는

36) 6가지의 조사항목 모두에 대하여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을 기준으로 한 것임.

서울·광역시 청소년(각각 1.87)이 시군부 청소년(1.80)보다 교내 참여활동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별로는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14세(중3)와 17세(고3) 시기에 교내 참여활동 경험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서 연령의 증가가 교내 참여활동 경험에 일관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r = .001$ ,  $p > .05$ ).



[그림 VI-8] 교내 참여활동 경험-연령별

학교관련 두 변인에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일반고 학생의 교내활동 참여경험이 가장 많았고(1.89), 다음이 중학생(1.82)이었으며 전문고 학생들은 두 집단에 비해 참여경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1.69)이었다. 학업성적별로는 상위집단이 중간집단보다 (2.05, 1.83), 중간집단이 하위집단(1.66)보다 참여경험이 많았고 세 집단간 차이는 매우 뚜렷하였다.

가족관련 변인에서도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확인되었다. 부모학력이 대졸 이상인 청소년이 고졸 이하인 청소년보다(1.89, 1.76), 가정 경제수준이 상위에 속하는 청소년(1.95)이 중간·하위집단 청소년(1.77, 1.76)보다 높은 교내 참여활동 경험률을 나타내었다.

표 VI-4 교내 참여활동 경험- 배경변인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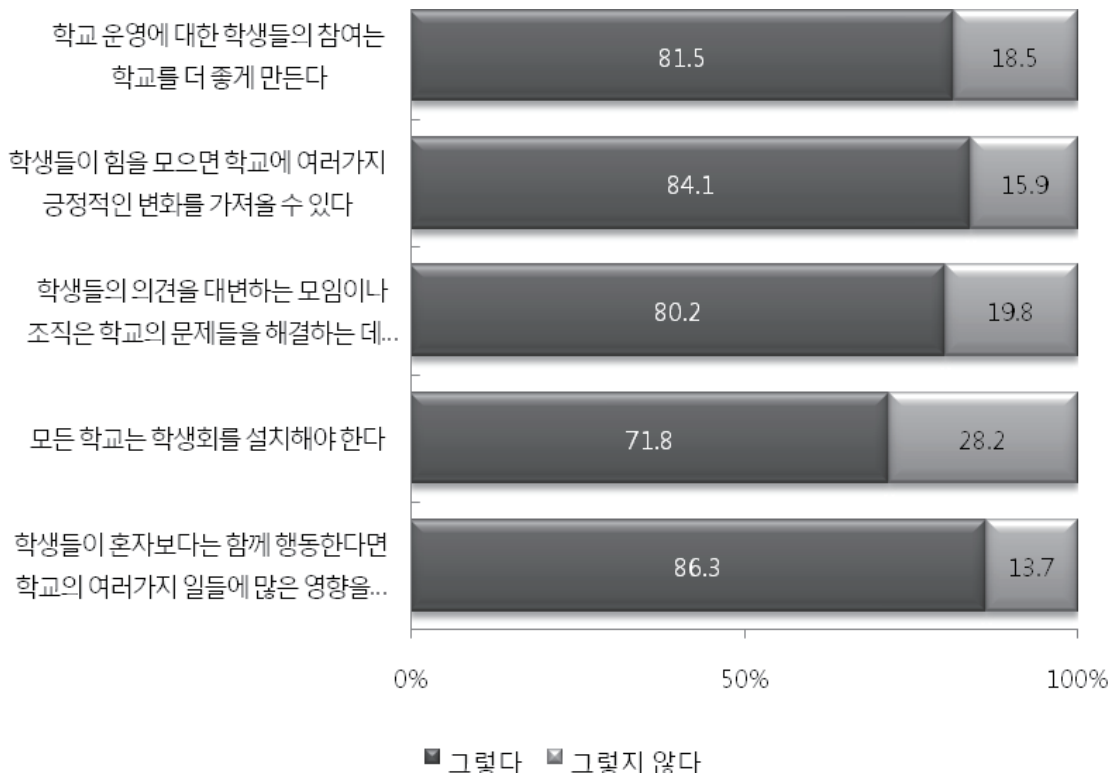
|         |                  | 사례수  | 평균   | 표준편차 | 통계치                           |
|---------|------------------|------|------|------|-------------------------------|
| 전체      |                  | 5534 | 1.83 | .55  |                               |
| 성별      | 남자               | 2883 | 1.80 | .57  | t= -4.33***                   |
|         | 여자               | 2651 | 1.86 | .54  |                               |
| 지역      | 서울 <sup>a</sup>  | 877  | 1.87 | .55  | F= 12.41***<br>( c   b-a )    |
|         | 광역시 <sup>b</sup> | 1484 | 1.87 | .55  |                               |
|         | 시군부 <sup>c</sup> | 3173 | 1.80 | .56  |                               |
| 교급      | 중학교 <sup>a</sup> | 2994 | 1.82 | .55  | F= 32.67***<br>( c   a   b )  |
|         | 일반고 <sup>b</sup> | 1962 | 1.89 | .55  |                               |
|         | 전문고 <sup>c</sup> | 578  | 1.69 | .55  |                               |
| 학업성적    | 상 <sup>a</sup>   | 1401 | 2.05 | .56  | F= 208.84***<br>( c   b   a ) |
|         | 중 <sup>b</sup>   | 2321 | 1.83 | .53  |                               |
|         | 하 <sup>c</sup>   | 1803 | 1.66 | .52  |                               |
| 부모 학력   | 고졸 이하            | 2289 | 1.76 | .53  | t= -8.54***                   |
|         | 대졸 이상            | 3093 | 1.89 | .56  |                               |
| 가정 경제수준 | 상 <sup>a</sup>   | 1890 | 1.95 | .56  | F= 65.51***<br>( c-b   a )    |
|         | 중 <sup>b</sup>   | 2424 | 1.77 | .54  |                               |
|         | 하 <sup>c</sup>   | 1210 | 1.76 | .54  |                               |

\* p< .05, \*\*p<.01,\*\*\*p<.001; ( )는 Duncan 사후검정 결과임

#### • 교내 참여활동의 가치 인식

학생들이 개인보다는 함께 힘을 모아 일을 할 때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은 일종의 (외적인) 정치적 효능감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학교에서의 공동 활동 참여를 통해 청소년들은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정치적 행동의 유용성과 시민적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Schulz, et al., 2010, p. 134).

본 조사에서는 청소년들이 함께 힘을 모아 학교운영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모두 5가지 조사항목을 제시하고 4점 Likert척도 - "매우 그렇다"(1), "그렇다"(2), "그렇지 않다"(3), "전혀 그렇지 않다"(4) - 로 응답하게 하였다. 문항별 응답결과를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리코드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 VI-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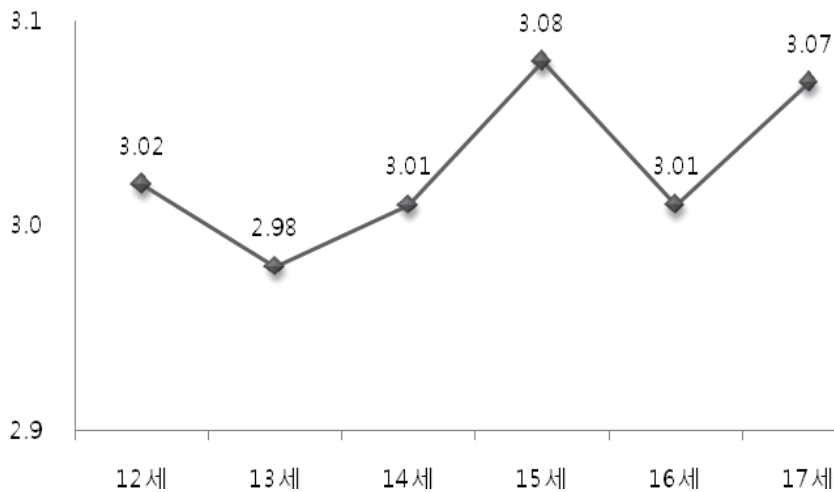
[그림 VI-9] 학교내 참여활동의 가치 인식- 단순빈도

조사대상이 된 모든 항목에 대하여 긍정응답률이 7할을 상회하여 청소년들이 교내 참여활동의 가치를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공식 조직인 학생회에 대하여 적지 않은 청소년이 부정적으로 응답한 점이 주목된다. 이것은 학생회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현행 학생회의 형식적인 운영에 비한 비판적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추측된다. ICCS 2009년의 조사결과를 보면, 한국은 학생(중2)들의 교내 참여활동 가치 평가가 가장 낮은 국가로 분류되었다<sup>37)</sup>(Schulz, et al., 2010, p. 135).

교내 참여활동의 가치 인식의 척도점수는 항목별 응답결과를 역순으로 리코드한 평균값( $M=3.02$ ,  $SD=.64$ )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들이 힘을 모아 직·간접적으로 학교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척도의 신뢰도계수(Chronbach's  $\alpha$ )는 .88로서 ICCS 2009년 조사(.72)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37) 교내 참여활동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한 국가는 칠레, 콜롬비아, 도미니카, 과테말라, 파라과이의 5개국이었으며, 한국은 오스트리아, 체코,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와 더불어 평가가 낮은 국가로 분류되었다.

교내 참여활동의 가치에 대한 배경변인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학적 변인에서는 성별, 지역별 차이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여자가 남자보다 교내 참여활동의 가치를 높게 인식하여(3.06, 2.99), CIVED의 조사결과와 일치하였다(Torney-Purta, et al., 2001). 지역별로는 세 지역간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으나 대체로 서울·광역시의 대도시 청소년(각각 3.05)들이 시군부 청소년(3.00)에 비해 교내 참여활동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3세, 16세 시기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교내 참여활동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두 변인은 매우 약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r = .03$ ,  $p < .05$ ).



[그림 VI-10] 교내 참여활동의 가치- 연령별

학교관련 두 변인에서는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일반고 학생이 중학생, 전문고 학생에 비해 교내 참여활동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였고(3.11, 3.00, 2.86), 학업성적별로는 상위집단에 속할수록 교내 참여활동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였으며, 세 하위집단간 차이가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3.13, 3.05, 2.90).

가족관련 변인에서는 부모학력이 높은 집단(대졸 이상)이 낮은 집단(고졸 이하)보다(3.05, 2.99), 경제수준이 상위에 속하는 청소년(3.06)이 중간·하위집단 청소년(3.01, 2.99)보다 교내 참여활동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였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VI-5 교내 참여활동의 가치- 배경변인별

|         |                  | 사례수  | 평균   | 표준편차 | 통계치                                |
|---------|------------------|------|------|------|------------------------------------|
| 전체      |                  | 5563 | 3.02 | .64  |                                    |
| 성별      | 남자               | 2894 | 2.99 | .69  | $t = -4.42^{***}$                  |
|         | 여자               | 2669 | 3.06 | .59  |                                    |
| 지역      | 서울 <sup>a</sup>  | 878  | 3.05 | .63  | $F = 3.21^*$<br>( c-a-b )          |
|         | 광역시 <sup>b</sup> | 1496 | 3.05 | .64  |                                    |
|         | 시군부 <sup>c</sup> | 3189 | 3.00 | .65  |                                    |
| 교급      | 중학교 <sup>a</sup> | 3007 | 3.00 | .62  | $F = 38.48^{***}$<br>( c   a   b ) |
|         | 일반고 <sup>b</sup> | 1974 | 3.11 | .64  |                                    |
|         | 전문고 <sup>c</sup> | 582  | 2.86 | .71  |                                    |
| 학업성적    | 상 <sup>a</sup>   | 1408 | 3.13 | .63  | $F = 55.36^{***}$<br>( c   b   a ) |
|         | 중 <sup>b</sup>   | 2331 | 3.05 | .62  |                                    |
|         | 하 <sup>c</sup>   | 1815 | 2.90 | .67  |                                    |
| 부모 학력   | 고졸 이하            | 2301 | 2.99 | .63  | $t = -3.63^{***}$                  |
|         | 대졸 이상            | 3109 | 3.05 | .65  |                                    |
| 가정 경제수준 | 상 <sup>a</sup>   | 1900 | 3.06 | .67  | $F = 4.81^{**}$<br>( c-b   a )     |
|         | 중 <sup>b</sup>   | 2432 | 3.01 | .63  |                                    |
|         | 하 <sup>c</sup>   | 1221 | 2.99 | .65  |                                    |

\*  $p < .05$ , \*\* $p < .01$ , \*\*\* $p < .001$

#### • 학급 토론개방성 인식

학교에서의 정규수업 이외에 정치·사회적 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토론과 의견의 교환은 청소년들의 시민성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999년 CIVED 조사결과에 따르면 토론에 개방적인 학급의 분위기가 학생의 시민적 지식과 장래의 투표 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Amadeo, et al., 2002).

본 조사에서는 정치·사회문제 토론과 관련하여 학급의 분위기를 청소년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 보기 위하여 모두 7가지의 조사항목을 제시하고 그와 같은 일이 어느 정도 자주 일어나는지를 단계별 4점 척도 - "전혀 없다"(1), "가끔 있다"(2), "종종 있다"(3), "매우 자주 있다"(4) - 로 응답하게 하였다. 항목별 응답결과를 "있다"와 "없다"로 리코드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 VI-1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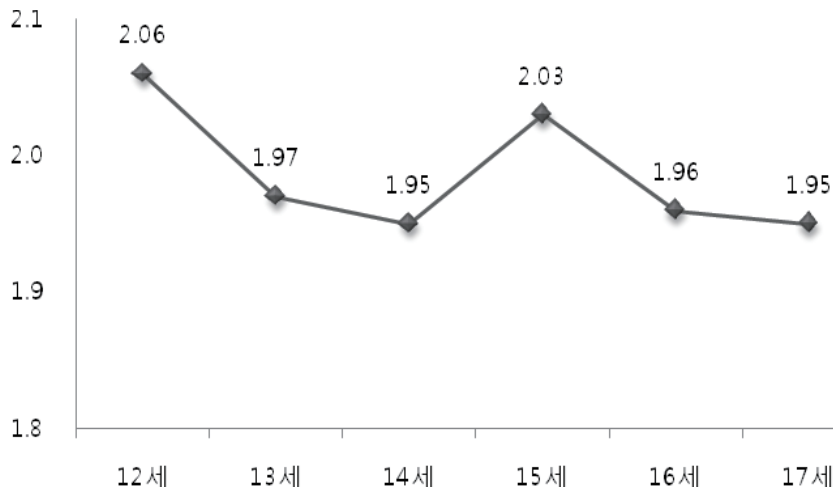
[그림 VI-II] 학급 토론 개방성 인식- 단순빈도

"학생들은 다른 대부분의 친구들과 의견이 다를지라도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의 긍정응답률(82.4%)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결정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격려한다"(79.5%),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격려한다"(79.0%), "선생님들은 정치·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 준다"(62.4%), "선생님들은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토론해 보도록 학생들에게 권장한다"(58.9%)에 대해서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과반수를 상회하였다. 교사들이 학급에서의 토론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일정 부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공개적으로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2할에 못미치는 것으로 주목할만한 점이다. 이것은 학급내 토론이 학생들간에는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지만, 학생-교사간의 토론으로까지는 연결되지는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음을 의미한다. 2009년

ICCS 조사에서 한국은 학급내 토론 개방성이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sup>38)</sup>(Schulz, et al., 2010, p. 174), 이것은 한국 학교에서의 교사의 높은 권위의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학급토론 개방성 인식의 척도점수는 ICCS 2009년의 방식과 동일하게 하나의 항목을 제외<sup>39)</sup>한 응답결과의 평균값을 척도점수( $M = 1.99$ ,  $SD = .58$ )로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급의 토론 분위기를 개방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척도의 내적 신뢰도계수(Chronbach's  $\alpha$ )는 .80으로서 ICCS 2009년 조사(.76)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학급토론 개방성에 대한 배경변인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학적 변인 중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학급 토론 개방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였고(2.01, 1.97), 지역별로는 서울, 광역시, 시군부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연령별로는 15세 시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나이가 들수록 학급토론 개방성에 대한 평가가 낮아지거나 정체하는 추세로서 두 변인은 약한 부적인 상관관계( $r = -.04$ ,  $p < .01$ )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VI-12] 학급 토론 개방성 인식- 연령별

학교관련 두 변인에서는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일반고와 중학교 학생(2.02, 1.99)이 전문고 학생(1.86)보다, 학업성적별로는 상위집단(2.06)이 중간(1.99), 하위집단(1.93)보다 학급의 토론 개방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38) 학급내 토론 개방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는 덴마크, 영국,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뉴질랜드였고 한국은 말타와 더불어 토론 개방성이 가장 낮은 국가군으로 분류되었다.

39) 척도구성에서 제외된 항목은 "학생들이 공개적으로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이다.

가정관련 변인에서는 부모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청소년이 고졸 이하인 청소년보다(2.00, 1.19), 가정의 경제수준이 상위에 속하는 청소년(2.05)이 중간, 하위집단의 청소년(1.96, 1.94)보다 상대적으로 학급 토론 개방성을 높게 평가하였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VI-6 학급 토론 개방성 인식-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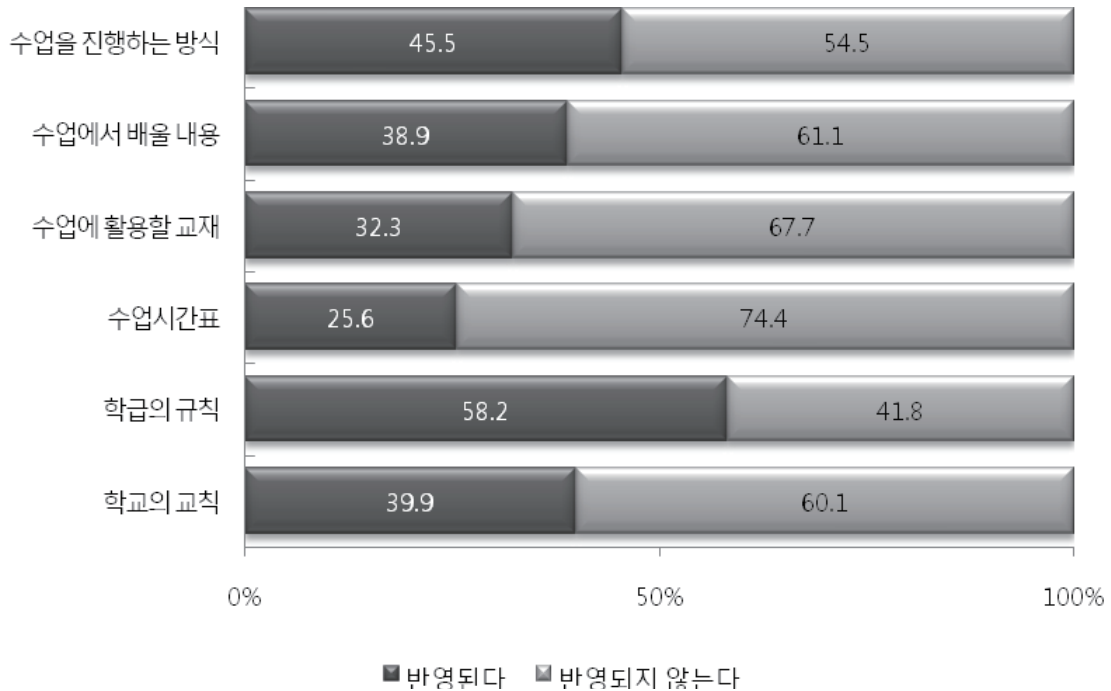
|         |                  | 사례수  | 평균   | 표준편차 | 통계치                          |
|---------|------------------|------|------|------|------------------------------|
| 전체      |                  | 5520 | 1.99 | .58  |                              |
| 성별      | 남자               | 2878 | 1.97 | .60  | t= -2.52*                    |
|         | 여자               | 2642 | 2.01 | .57  |                              |
| 지역      | 서울 <sup>a</sup>  | 876  | 1.97 | .57  | F= .33                       |
|         | 광역시 <sup>b</sup> | 1477 | 1.99 | .59  |                              |
|         | 시군부 <sup>c</sup> | 3167 | 1.99 | .59  |                              |
| 교급      | 중학교 <sup>a</sup> | 2978 | 1.99 | .58  | F= 16.75***<br>( c   a-b )   |
|         | 일반고 <sup>b</sup> | 1965 | 2.02 | .58  |                              |
|         | 전문고 <sup>c</sup> | 577  | 1.86 | .59  |                              |
| 학업성적    | 상 <sup>a</sup>   | 1401 | 2.06 | .57  | F= 17.58***<br>( c   b   a ) |
|         | 중 <sup>b</sup>   | 2315 | 1.99 | .58  |                              |
|         | 하 <sup>c</sup>   | 1796 | 1.93 | .59  |                              |
| 부모 학력   | 고졸 이하            | 2284 | 1.97 | .58  | t= -2.14*                    |
|         | 대졸 이상            | 3085 | 2.00 | .59  |                              |
| 가정 경제수준 | 상 <sup>a</sup>   | 1886 | 2.05 | .61  | F= 17.11***<br>( c-b   a )   |
|         | 중 <sup>b</sup>   | 2414 | 1.96 | .56  |                              |
|         | 하 <sup>c</sup>   | 1210 | 1.94 | .60  |                              |

\* p< .05, \*\*p<.01,\*\*\*p<.001; ( )는 Duncan 사후검정 결과임

#### • 교내 의사결정 영향력 인식

학교운영 관련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시민지식의 수준이 높고 다른 분야의 시민적 활동에 참여한 경험도 풍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Torney-Purta, et al., 2001). 이것은 학교내에서의 참여 경험이 청소년들에게 시민성과 관련된 기술과 태도를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Schulz, et al., 2010, p. 164).

학교내에서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모두 6가지의 조사항목을 제시하고 4점 Likert척도 - "매우 많이 반영된다"(1), "어느 정도 반영된다"(2), "별로 반영되지 않는다"(3),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4) - 로 응답하게 하였다. 항목별 응답결과를 반영 여부를 기준으로 리코드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 VI-13]과 같다.



[그림 VI-13] 교내 의사결정 영향력 인식- 단순빈도

학생들의 의사 반영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학급의 규칙"(58.2%)이었으며,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45.5%), "학교의 규칙"(39.9%), "수업에서 배울 내용"(38.9%), "수업에 활용할 교재"(32.3%)의 순이었고, "수업시간표"의 반영율(25.6%)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 단위의 규칙 제정에는 학생들의 의견이 일정 수준 반영되고 있지만, 학교 전체 차원의 규칙 제정에 학생들의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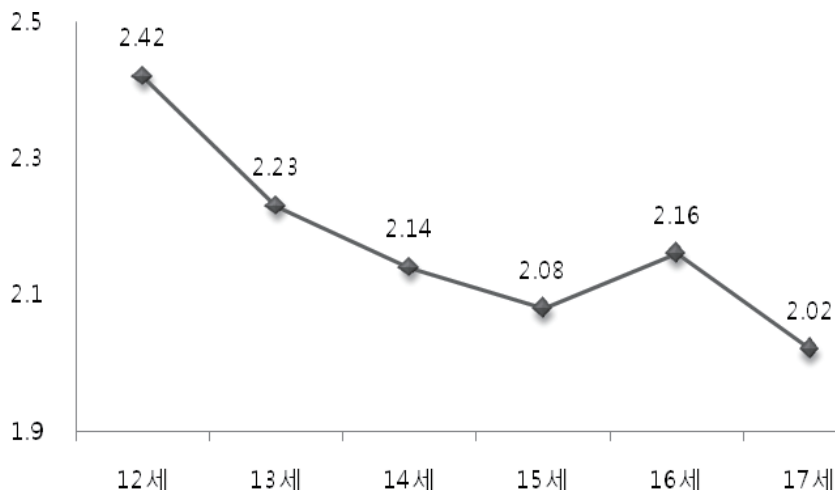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2009년 ICCS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교내 의사결정과정에서의 학생 의견 반영율이 가장 낮은 국가<sup>40)</sup>에 속한다. (Schulz, et al., 2010, p. 166). 학교가 단순한

40) 학생의견 반영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는 칠레, 콜롬비아, 도미니카,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멕시코, 파라과이, 러시아, 태국의 9개국이었으며, 한국은 체코, 덴마크, 영국, 핀란드, 아일랜드와 더불어 학생의견 반영율에서 하위권으로 분류되었다.

지식 전달의 공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시민성 함양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적 차원에서 학사운영에 학생들의 참여를 증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교내 의사결정 영향력의 척도점수는 항목별 응답결과를 역순으로 리코드한 평균값( $M = 2.18$ ,  $SD = .70$ )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척도의 내적 신뢰도계수(Chronbach's  $\alpha$ )는 .87로서 ICCS 2009년 조사(.86)과 유사하였다.

교내 의사결정 영향력에 대한 배경변인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학적 변인에서는 성별, 지역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교내 의사결정과정에서의 학생들의 영향력을 높게 평가하였다(2.23, 2.12). 지역별로는 시군부 청소년(2.21)이 서울, 광역시 청소년(2.17, 2.13)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대도시보다는 지방의 학교에서 학생들의 의사반영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16세 시기(고2)를 제외하고는 나이가 들수록 학생들의 교내 의사결정 영향력을 낮게 평가하여 두 변인은 약한 부적인 상관관계( $r = -.16$ ,  $p < .001$ )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I-14] 교내 의사결정 영향력 인식- 연령별

학교관련 변인에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중학생이 교내 의사결정 영향력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고(2.26), 이어서 전문고, 일반고 학생(2.19, 2.06)의 순이었으며 세 집단간 차이는 매우 뚜렷하였다. 학업성적별로는 하위집단(2.16)이 중간(2.18), 상위집단(2.07)

보다 학생들의 영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 특이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가정관련 변인에서는 부모학력에 따른 차이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부모학력이 고졸 이하인 집단이 대졸 이상인 집단보다 학생들의 영향력을 높게 평가하였다(2.21, 2.15).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세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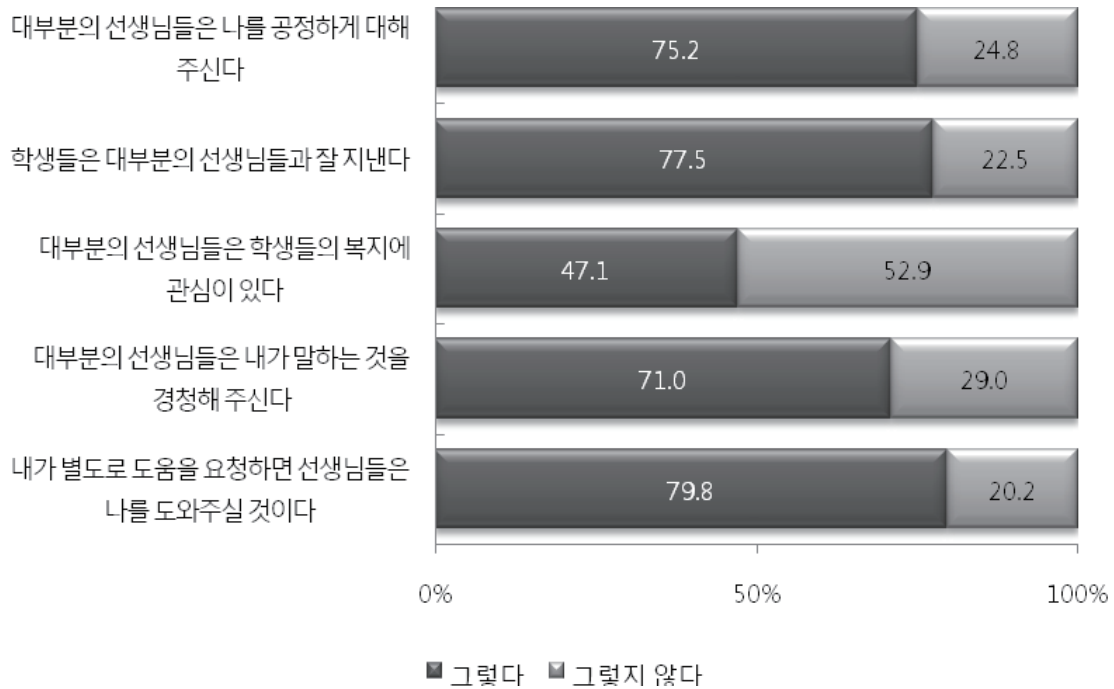
표 VI-7 교내 의사결정 영향력 인식- 배경변인별

|         |                  | 사례수  | 평균   | 표준편차 | 통계치                           |
|---------|------------------|------|------|------|-------------------------------|
| 전체      |                  | 5536 | 2.18 | .70  |                               |
| 성별      | 남자               | 2881 | 2.23 | .72  | t= 5.92 ***                   |
|         | 여자               | 2655 | 2.12 | .67  |                               |
| 지역      | 서울 <sup>a</sup>  | 874  | 2.17 | .69  | F= 7.00 **<br>( b-a   a-c )   |
|         | 광역시 <sup>b</sup> | 1490 | 2.13 | .68  |                               |
|         | 시군부 <sup>c</sup> | 3172 | 2.21 | .71  |                               |
| 교급      | 중학교 <sup>a</sup> | 2992 | 2.26 | .72  | F= 51.60 ***<br>( c   b   a ) |
|         | 일반고 <sup>b</sup> | 1966 | 2.06 | .64  |                               |
|         | 전문고 <sup>c</sup> | 578  | 2.19 | .73  |                               |
| 학업성적    | 상 <sup>a</sup>   | 1405 | 2.07 | .65  | F= 28.03 ***<br>( a   b   c ) |
|         | 중 <sup>b</sup>   | 2320 | 2.18 | .69  |                               |
|         | 하 <sup>c</sup>   | 1802 | 2.26 | .73  |                               |
| 부모 학력   | 고졸 이하            | 2288 | 2.21 | .69  | t= 3.45 **                    |
|         | 대졸 이상            | 3095 | 2.15 | .70  |                               |
| 가정 경제수준 | 상 <sup>a</sup>   | 1890 | 2.18 | .72  | F= .87                        |
|         | 중 <sup>b</sup>   | 2423 | 2.19 | .69  |                               |
|         | 하 <sup>c</sup>   | 1213 | 2.16 | .68  |                               |

\* p< .05, \*\*p<.01, \*\*\*p<.001; ( )는 Duncan 사후검정 결과임

#### ● 학생-교사관계 인식

청소년들이 학교내에서의 교사와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학생-교사 관계에 관한 모두 5가지의 조사항목을 제시하고 4점 Likert척도 - "매우 그렇다"(1), "그렇다"(2), "그렇지 않다"(3), "전혀 그렇지 않다"(4) - 로 응답하게 하였다. 문항별 응답결과를 "그렇다"와 "아니다"의 2점 척도로 리코드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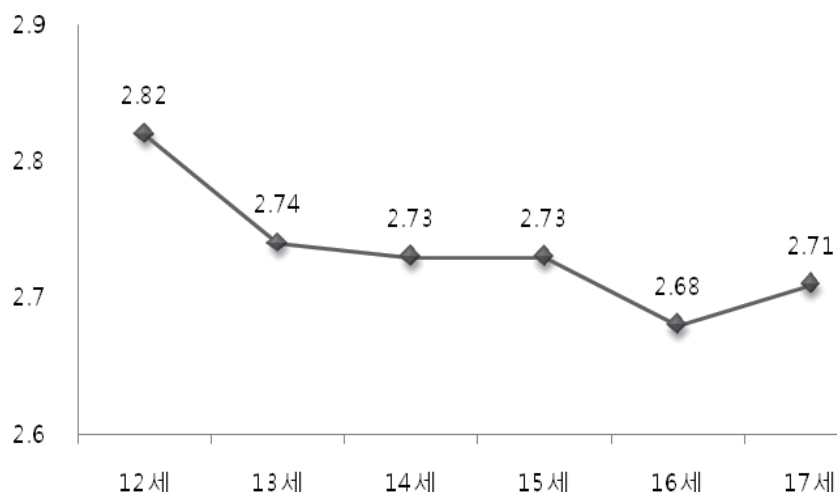


[그림 VI-15] 학생-교사관계 인식- 단순빈도

학생들의 복지와 관련한 한 항목을 제외하는 모든 항목에 걸쳐 7할 이상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청소년들은 대체로 교사와의 관계를 원만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교사관계 인식의 척도점수는 항목별 응답결과를 역순으로 리코드한 평균값( $M = 2.74$ ,  $SD = .56$ )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들이 교사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척도의 내적 신뢰도계수(Chronbach's  $\alpha$ )는 .84로서 높은 수준이었다.

학교-교사관계에 대한 배경변인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학적 변인에서는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지역별로는 서울·광역시의 대도시 청소년(각각 2.77)이 시군부 청소년(2.71)보다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연령 변인에서는 16세 시기(고2)를 제외하고는 나이가 들수록 점진적으로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두 변인은 약한 부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 = -.07$ ,  $p < .001$ ).



[그림 VI-16] 학생-교사 관계- 연령별

학교관련 변인에서는 교급, 학업성적 두 변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중학교와 일반고 학생(2.76, 2.73)이 전문고 학생(2.61)보다, 학업성적이 상위에 속하는 청소년(2.84)이 중간(2.75), 하위집단 청소년(2.64)보다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가정관련 변인에서도 두 변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부모학력이 높은 집단(대졸 이상)이 낮은 집단(고졸 이하)보다(2.75, 2.72), 가정 경제수준이 상위에 속하는 청소년(2.80)이 중간(2.72), 하위집단 청소년(2.68)보다 교사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8 학생-교사관계 인식- 배경변인별

|         |                  | 사례수  | 평균   | 표준편차 | 통계치                                      |
|---------|------------------|------|------|------|------------------------------------------|
| 전체      |                  | 5521 | 2.74 | .56  |                                          |
| 성별      | 남자               | 2868 | 2.73 | .60  | t= -.85                                  |
|         | 여자               | 2653 | 2.74 | .52  |                                          |
| 지역      | 서울 <sup>a</sup>  | 876  | 2.77 | .54  | F= 6.09 <sup>**</sup><br>( c   b-a )     |
|         | 광역시 <sup>b</sup> | 1478 | 2.77 | .56  |                                          |
|         | 시군부 <sup>c</sup> | 3167 | 2.71 | .57  |                                          |
| 교급      | 중학교 <sup>a</sup> | 2980 | 2.76 | .56  | F= 18.74 <sup>***</sup><br>( c   b-a )   |
|         | 일반고 <sup>b</sup> | 1964 | 2.73 | .55  |                                          |
|         | 전문고 <sup>c</sup> | 577  | 2.61 | .60  |                                          |
| 학업성적    | 상 <sup>a</sup>   | 1397 | 2.84 | .53  | F= 53.94 <sup>***</sup><br>( c   b   a ) |
|         | 중 <sup>b</sup>   | 2312 | 2.75 | .54  |                                          |
|         | 하 <sup>c</sup>   | 1803 | 2.64 | .60  |                                          |
| 부모 학력   | 고졸 이하            | 2285 | 2.72 | .55  | t= -2.25 <sup>*</sup>                    |
|         | 대졸 이상            | 3088 | 2.75 | .57  |                                          |
| 가정 경제수준 | 상 <sup>a</sup>   | 1882 | 2.80 | .58  | F= 18.26 <sup>***</sup><br>( c   b   a ) |
|         | 중 <sup>b</sup>   | 2413 | 2.72 | .54  |                                          |
|         | 하 <sup>c</sup>   | 1216 | 2.68 | .57  |                                          |

\* p< .05, \*\*p<.01,\*\*\*p<.001; ( )는 Duncan 사후검정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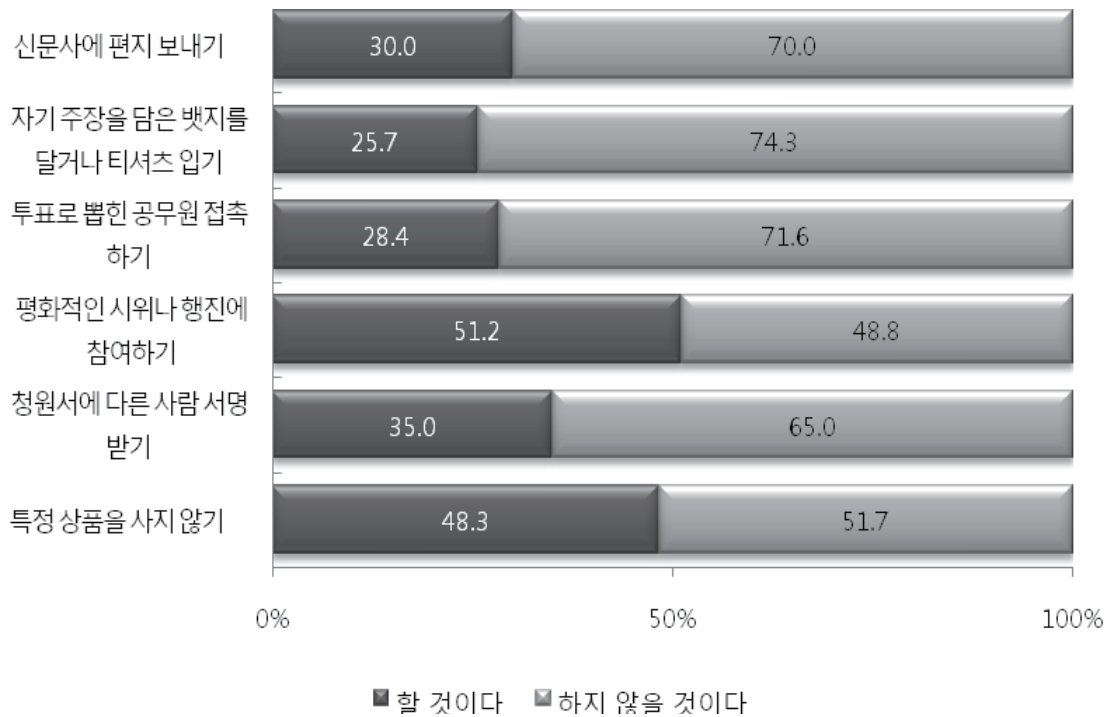
### 3. 장래의 행동의사

#### • 합법적 항의행동 의사

청소년들은 정치·사회적 행동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기 청소년의 시민행동 연구에서는 장래의 행동의사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ICCS는 청소년들의 현재의 시민적 참여행동과 더불어 가까운 장래 또는 성인이 되었을 때의 행동의사를 조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Schulz, et al., 2010, p. 137). 시민적 참여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정치적 영역에서의 참여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는 투표, 정당 또는 정치조직 가입, 선거운동, 캠페인 활동, 정치적 항의행동 등이 포함된다.

서구에서는 1970년대와 80년대의 신사회운동(new social movement)의 대두와 더불어 정치 참여의 대안적 수단인 항의행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Barnes & Kaase, 1979). 이에 따라 학자들은 정치적 행동을 투표, 선거운동과 같은 "전통적"(conventional) 행동과 민중의 캠페인 활동, 항의행동과 같은 "비전통적"(unconventional) 또는 "사회운동 관련"(social-movement-related) 행동으로 구분하기 시작하였다(Schulz, et al., 2010, p. 137). 후자의 사회운동 관련 정치적 행동은 다시 적법성을 기준으로 합법적 행동과 비합법적 행동으로 구분된다. 1999년 CIVED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장래에 자신이 하고자 하는 항의행동의 유형으로서 합법적 항의행동을 선택하였고, 비합법적 행동을 택한 청소년은 소수였다(Torney-Purta, et al., 2001). 본 조사에서도 항의행동의 두가지 유형을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청소년들에게 질문하였다.

먼저 청소년들에게 6가지의 합법적 형태의 항의행동을 제시하고, 자신이 장래에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4점 Likert척도 - "확실히 할 것이다"(1), "아마도 할 것이다"(2), "아마도 하지 않을 것이다"(3), "확실히 하지 않을 것이다"(4) - 로 응답하게 하였다. 조사항목별 응답결과를 행동의사 유무를 기준으로 리코드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그림 VI-17]과 같다.



[그림 VI-17] 합법적 항의행동 의사- 단순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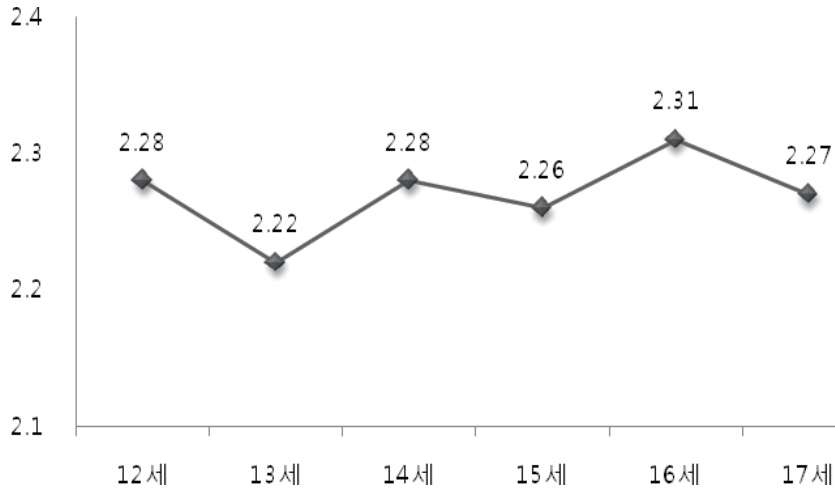
"평화적인 시위나 행진에 참여하기"의 행동의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특정 상품을 사지 않기"(48.3%), "청원서에 다른 사람 서명받기"(35.0%), "신문사에 편지 보내기"(30.0%), "투표로 뽑힌 공무원 접촉하기"(28.4%), "자기 주장을 담은 배지를 달거나 티셔츠 입기"(25.7%)의 순이었다. 평화적 시위·행진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모두 절반에 못미치는 청소년들만이 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2009년 ICCS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들(중2)의 합법적 항의행동 의사는 조사대상 38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sup>41)</sup>(Schulz, et al., 2010, p. 140).

합법적 항의행동 의사의 척도점수는 항목별 응답결과를 역순으로 리코드한 평균값( $M = 2.27$ ,  $SD = .62$ )으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장래에 합법적인 항의행동을 할 의지가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척도의 내적 신뢰도계수(Chronbach's  $\alpha$ )는 .85로서 ICCS 2009년 조사(.79)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합법적 항의행동 의사에 대한 배경변인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학적 변인에서 성별, 지역별 하위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합법적 항의행동 의사에

41) 청소년들의 합법적 항의행동 의사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는 칠레, 콜롬비아, 도미니카, 과테말라, 멕시코였으며, 한국은 벨기에, 폴란드와 더불어 낮은 국가에 속했는데, 이중에서도 한낮은 국가로(

대한 연령별 응답결과에서도 어떤 일관된 흐름이 나타나지 않아서 두 변인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상관관계에 있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r = .02, p > .05$ ).



[그림 VI-18] 합법적 항의행동 의사- 연령별

학교관련 변인에서는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일반고 학생의 합법적 항의행동 의사(2.30)가 중학생·전문고 학생(2.26, 2.22)보다 높은 수준이었고, 학업성적별로는 상위집단(2.36)이 중간(2.27), 하위집단(2.20)보다 높은 행동의지를 나타내었고 세 집단간 차이가 뚜렷하였다.

가족관련 변인에서도 두 변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부모학력 수준이 높은 집단(대졸 이상)이 낮은 집단(고졸 이하)보다(2.31, 2.23), 가정 경제수준이 상위에 속하는 청소년(2.31)이 하위·중간집단에 속하는 청소년(2.26, 2.24)보다 장래에 합법적 항의행동을 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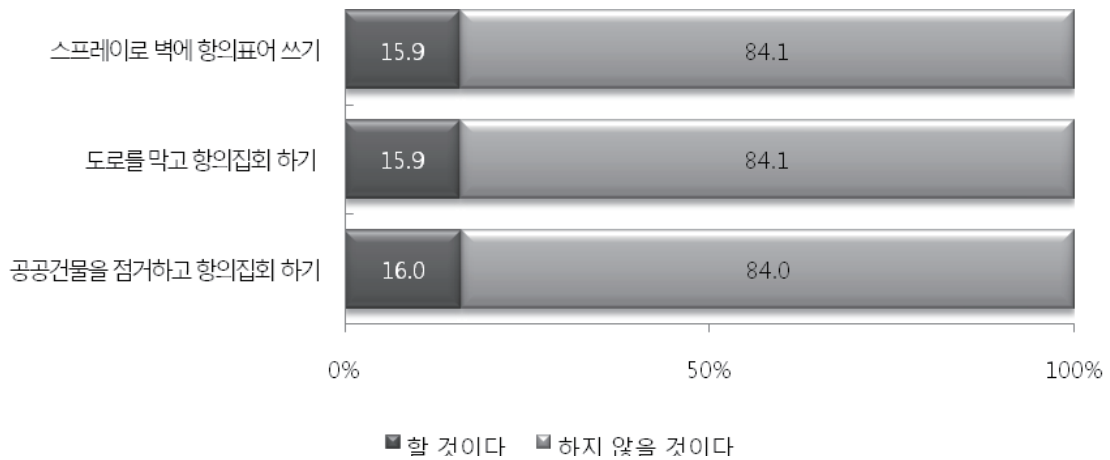
표 VI-9 합법적 항의행동 의사- 배경변인별

|         |                  | 사례수  | 평균   | 표준편차 | 통계치                                      |
|---------|------------------|------|------|------|------------------------------------------|
| 전체      |                  | 5541 | 2.27 | .62  |                                          |
| 성별      | 남자               | 2880 | 2.28 | .65  | t= 1.44                                  |
|         | 여자               | 2661 | 2.26 | .58  |                                          |
| 지역      | 서울 <sup>a</sup>  | 877  | 2.28 | .61  | F= .41                                   |
|         | 광역시 <sup>b</sup> | 1487 | 2.28 | .60  |                                          |
|         | 시군부 <sup>c</sup> | 3177 | 2.26 | .63  |                                          |
| 교급      | 중학교 <sup>a</sup> | 2996 | 2.26 | .64  | F= 4.86 <sup>**</sup><br>( c-a   b )     |
|         | 일반고 <sup>b</sup> | 1964 | 2.30 | .58  |                                          |
|         | 전문고 <sup>c</sup> | 581  | 2.22 | .61  |                                          |
| 학업성적    | 상 <sup>a</sup>   | 1406 | 2.36 | .60  | F= 26.85 <sup>***</sup><br>( c   b   a ) |
|         | 중 <sup>b</sup>   | 2320 | 2.27 | .61  |                                          |
|         | 하 <sup>c</sup>   | 1806 | 2.20 | .64  |                                          |
| 부모 학력   | 고졸 이하            | 2291 | 2.23 | .61  | t= -4.66 <sup>***</sup>                  |
|         | 대졸 이상            | 3097 | 2.31 | .62  |                                          |
| 가정 경제수준 | 상 <sup>a</sup>   | 1888 | 2.31 | .63  | F= 7.38 <sup>**</sup><br>( b-c   a )     |
|         | 중 <sup>b</sup>   | 2429 | 2.24 | .61  |                                          |
|         | 하 <sup>c</sup>   | 1214 | 2.26 | .61  |                                          |

\* p< .05, \*\*p<.01, \*\*\*p<.001; ( )는 Duncan 사후검정 결과임

#### ● 비합법적 항의행동 의지

비합법적 형태의 항의행동 의사는 앞서의 합법적 행의행동 의사와 동일한 응답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조사항목은 모두 3가지였는데, 각 항목별 응답내용을 행동의사 유무를 기준으로 리코드한 결과는 다음의 [그림 VI-1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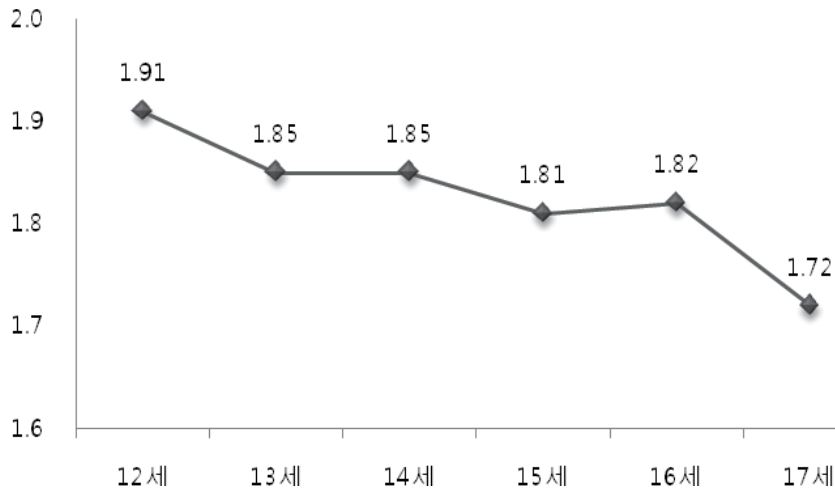


[그림 VI-19] 비합법적 항의행동 의사- 단순빈도

세 항목 모두 2할 미만의 청소년들만이 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여 합법적 항의행동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청소년들이 비합법적 항의행동보다는 합법적인 형태의 항의행동을 선호하는 것은 CIVED의 1999년 조사결과와 일치하는데(Torney-Purta, et al., 2001), 이것은 과격한 행동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과 위험부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합법적 항의행동 의사의 척도점수는 항목별 응답결과를 역순으로 리코드한 평균값( $M = 1.83$ ,  $SD = .72$ )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장래에 비합법적인 행태의 항의행동을 할 의지가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척도의 내적 신뢰도계수(Chronbach's  $\alpha$ )는 .90으로 ICCS의 2009년 조사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비합법적 항의행동 의사에 대한 배경변인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학적 변인에서는 성별, 지역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남자가 여자보다 장래의 비합법적 항의행동을 할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1.92, 1.73) 성별 차이가 거의 없었던 합법적 항의행동의 조사결과와 대비되었다. 지역별로는 시군부 청소년의 비합법적 항의행동 의사가 서울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난 점(1.85, 1.80)이 주목되는데, 이는 지방청소년이 대도시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에 대한 불만이 높은 수준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령별로는 16세 시기를 제외하고는 나이가 들수록 비합법적 항의행동 의사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전체적으로 두 변인은 약한 부적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r = -.07$ ,  $p < .001$ ). 큰 차이는 아니지만 중학교 학령기(12~14세)의 청소년들이 고교생 연령층(15~17세)보다 비합법적 항의행동 의사가 높게 나타난 것은 주목할만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림 VI-20] 비합법적 항의행동 의사- 연령별

학교관련 두 변인에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전문고 학생의 비합법적 항의행동 의사가 가장 높았고(1.89) 이어서 중학생(1.87), 일반고 학생(1.75)의 순이었다. 학업성적별로는 성적이 낮은 집단일수록 높은 비합법적 항의행동 의사를 나타내었고 세 집단간 차이는 뚜렷하였다 (1.89, 1.83, 1.75). 전문고 학생과 성적이 낮은 집단 청소년들의 합법적 항의행동 의사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음을 고려할 때 청소년들의 비합법적 항의행동 의사는 그들이 처해있는 상황에 대한 불만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가족관련 변인에서는 부모학력별, 가정의 경제수준별 하위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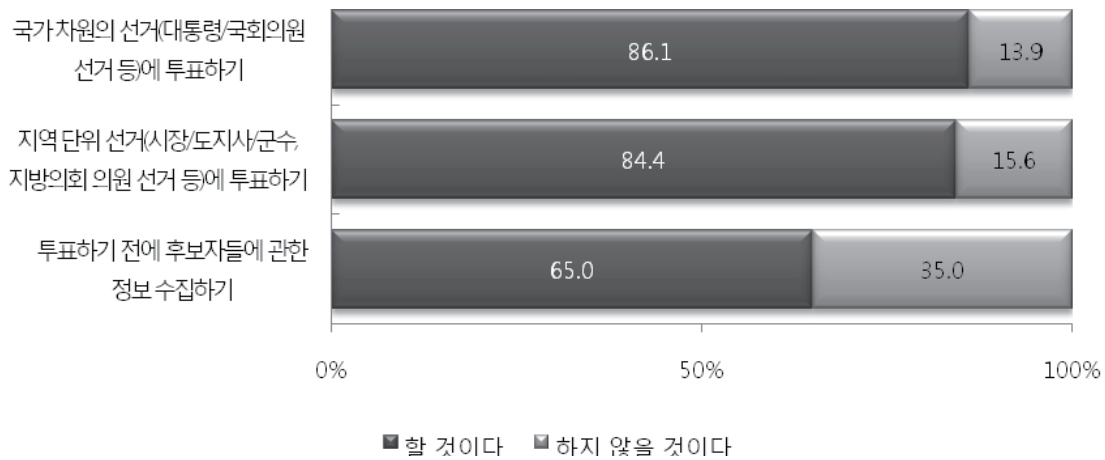
표 VI-10 비합법적 항의행동 의사- 배경변인별

|         |                  | 사례수  | 평균   | 표준편차 | 통계치                          |
|---------|------------------|------|------|------|------------------------------|
| 전체      |                  | 5551 | 1.83 | .72  |                              |
| 성별      | 남자               | 2885 | 1.92 | .77  | t= 9.87***                   |
|         | 여자               | 2666 | 1.73 | .64  |                              |
| 지역      | 서울 <sup>a</sup>  | 876  | 1.80 | .70  | F= 3.64*<br>( a-b   b-c )    |
|         | 광역시 <sup>b</sup> | 1493 | 1.80 | .71  |                              |
|         | 시군부 <sup>c</sup> | 3182 | 1.85 | .72  |                              |
| 교급      | 중학교 <sup>a</sup> | 2999 | 1.87 | .74  | F= 17.72***<br>( b   a-c )   |
|         | 일반고 <sup>b</sup> | 1973 | 1.75 | .67  |                              |
|         | 전문고 <sup>c</sup> | 579  | 1.89 | .71  |                              |
| 학업성적    | 상 <sup>a</sup>   | 1408 | 1.75 | .71  | F= 14.48***<br>( a   b   c ) |
|         | 중 <sup>b</sup>   | 2327 | 1.83 | .71  |                              |
|         | 하 <sup>c</sup>   | 1807 | 1.89 | .73  |                              |
| 부모 학력   | 고졸 이하            | 2296 | 1.84 | .70  | t= .57                       |
|         | 대졸 이상            | 3102 | 1.82 | .73  |                              |
| 가정 경제수준 | 상 <sup>a</sup>   | 1897 | 1.83 | .75  | F= .46                       |
|         | 중 <sup>b</sup>   | 2429 | 1.84 | .68  |                              |
|         | 하 <sup>c</sup>   | 1215 | 1.81 | .72  |                              |

\* p< .05, \*\*p<.01,\*\*\*p<.001; ( )는 Duncan 사후검정 결과임

#### ● 투표 참여 의사

투표는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치행동이라 할 수 있다. 근년에 접어들어 성인들의 투표율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청소년들은 앞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 투표를 할 의사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투표 관련 3가지 조사항목에 대하여 4점 Likert척도 - "확실히 할 것이다"(1), "아마도 할 것이다"(2), "아마도 하지 않을 것이다"(3), "확실히 하지 않을 것이다"(4) - 로 응답하게 하였다. 문항별 응답결과를 행동의사 유무를 기준으로 리코드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 VI-2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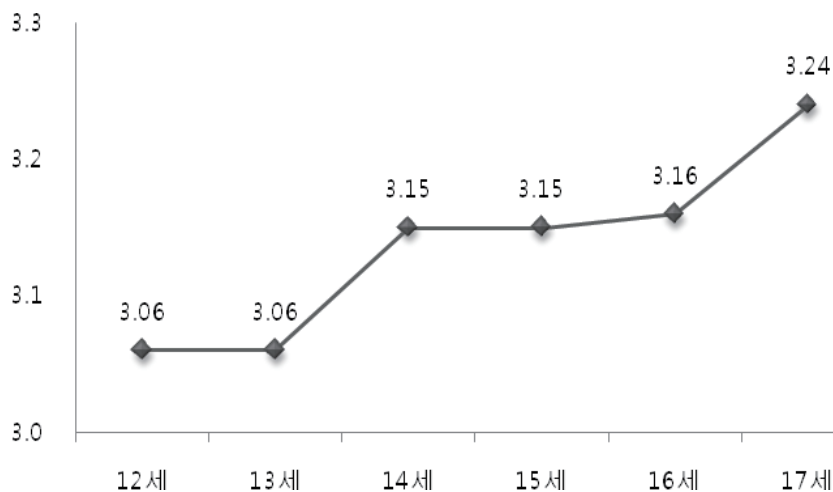
[그림 VI-21] 투표 참여 의사- 단순빈도

청소년이 투표를 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국가 차원의 선거와 지역 단위의 선거 모두 8할을 상회하였다. 투표에 앞서 후보자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65.0%에 머물렀다.

투표 참여의사는 항목별 응답결과를 역순으로 리코드한 평균값( $M = 3.13$ ,  $SD = .74$ )을 척도점수로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장래에 선거에서 투표를 할 의지가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척도의 내적 신뢰도계수(Chronbach's  $\alpha$ )는 .84로서 ICCS 2009년 조사(.82)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투표 참여의사에 대한 배경변인별 응답결과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인구학적 변인에서는 성별, 지역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여자의 투표 참여의사가 남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고(3.23, 3.04), 광역시 청소년이 시군부 청소년보다 높은 투표참여 의사를 나타내었다(3.17, 3.11). 이와 같은 응답결과는 우리나라 성인들의 투표율 통계와 상반되는 결과<sup>42)</sup>로서 주목되지만, 청소년들의 투표 참여의사가 성인이 되었을 때 실제 투표행위로 이어질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연령은 투표 의사와 약한 수준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r = .08$ ,  $p < .001$ ). 나이가 들수록 장래의 투표 참여의사가 점진적으로 높아가는 경향을 나타냈는데, 이것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정치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2) 2002년 이후 모든 선거에서 남자의 투표율이 여자보다 높았으며, 대도시(서울·광역시)보다는 지방(시군부)의 투표율이 일관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I-22] 투표 참여 의사- 연령별

학교관련 두 변인에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일반고 학생들의 투표 참여의사가 가장 높았고(3.26), 다음이 중학생(3.09)이었으며 전문고 학생(2.93)이 가장 낮았다. 학업성적별로는 상위집단일수록 높은 투표 참여의사를 나타내었고, 세 하위집단간에는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확인되었다.

가족관련 변인의 하위집단간 차이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부모학력이 대졸 이상인 집단이 고졸 이상 집단보다(3.18, 3.08), 가정의 경제수준이 상위에 속하는 청소년(3.18), 하위·중간집단 청소년(3.12, 3.10)보다 높은 투표 참여의사를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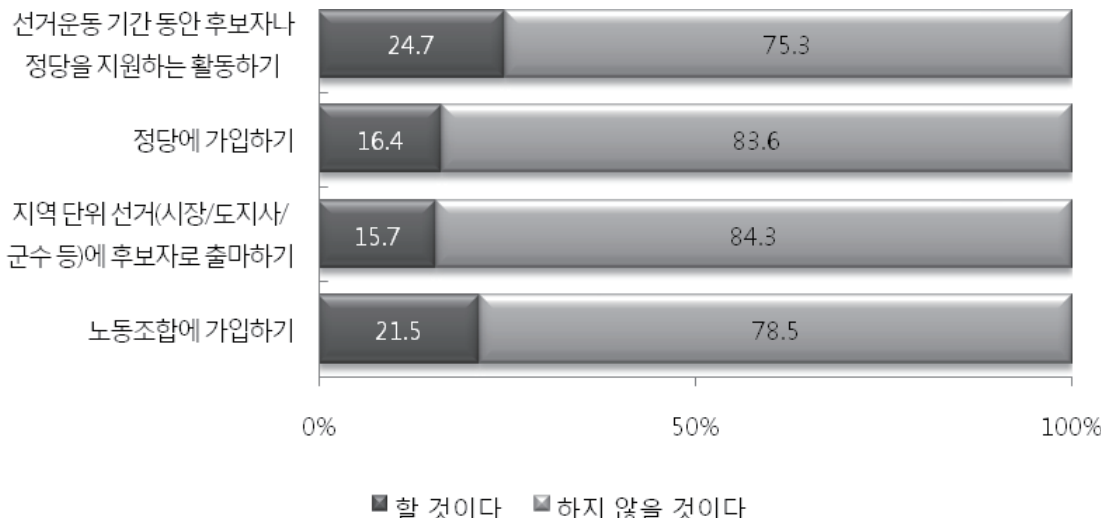
표 VI-11 투표 참여의사- 배경변인별

|         |                  | 사례수  | 평균   | 표준편차 | 통계치                           |
|---------|------------------|------|------|------|-------------------------------|
| 전체      |                  | 5557 | 3.13 | .74  |                               |
| 성별      | 남자               | 2890 | 3.04 | .78  | t= -9.62***                   |
|         | 여자               | 2667 | 3.23 | .68  |                               |
| 지역      | 서울 <sup>a</sup>  | 878  | 3.16 | .74  | F= 4.21*<br>( c-a   a-b )     |
|         | 광역시 <sup>b</sup> | 1494 | 3.17 | .73  |                               |
|         | 시군부 <sup>c</sup> | 3185 | 3.11 | .74  |                               |
| 교급      | 중학교 <sup>a</sup> | 3004 | 3.09 | .74  | F= 56.80***<br>( c   a   b )  |
|         | 일반고 <sup>b</sup> | 1973 | 3.26 | .70  |                               |
|         | 전문고 <sup>c</sup> | 580  | 2.93 | .80  |                               |
| 학업성적    | 상 <sup>a</sup>   | 1407 | 3.33 | .68  | F= 118.87***<br>( c   b   a ) |
|         | 중 <sup>b</sup>   | 2330 | 3.16 | .71  |                               |
|         | 하 <sup>c</sup>   | 1811 | 2.94 | .77  |                               |
| 부모 학력   | 고졸 이하            | 2299 | 3.08 | .75  | t= -4.97***                   |
|         | 대졸 이상            | 3105 | 3.18 | .72  |                               |
| 가정 경제수준 | 상 <sup>a</sup>   | 1897 | 3.18 | .73  | F= 5.28**<br>( b-c   a )      |
|         | 중 <sup>b</sup>   | 2430 | 3.10 | .73  |                               |
|         | 하 <sup>c</sup>   | 1220 | 3.12 | .76  |                               |

\* p< .05, \*\*p<.01,\*\*\*p<.001; ( )는 Duncan 사후검정 결과임

#### ● 공식적 정치활동 참여의사

청소년들이 앞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 투표 이외의 공식적인 정치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모두 4가지의 행동유형을 제시하고 4점 Likert척도 - "확실히 할 것이다"(1), "아마도 할 것이다"(2), "아마도 하지 않을 것이다"(3), "확실히 하지 않을 것이다"(4) - 로 응답하게 하였다. 문항별 응답결과를 행동의사 유무를 기준으로 리코드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 VI-2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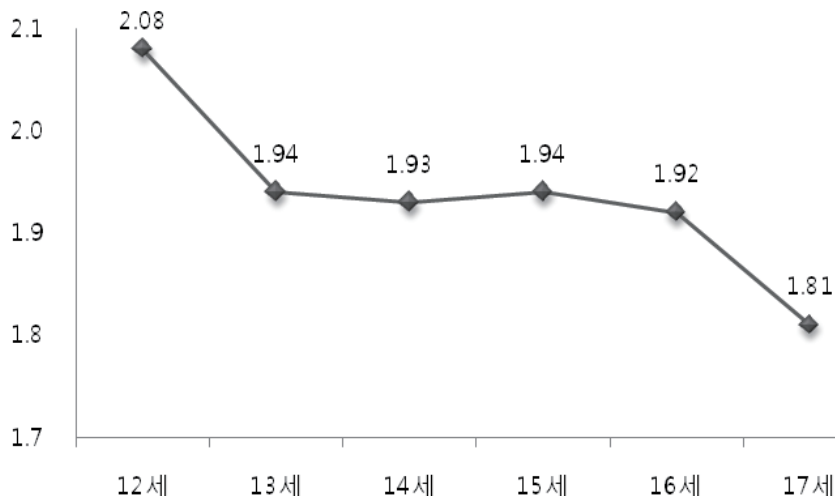
[그림 VI-23] 공식적 정치활동 참여 의시- 단순빈도

조사대상이 된 4가지 항목 모두에 걸쳐서 긍정적인 응답률은 2할 안팎으로서 청소년들의 정치활동 참여의사가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정당 가입이나 선거 출마와 같은 정치적 참여의 수준이 높은 행동보다는 정당 지원활동이나 노조가입과 같은 간접적인 형태의 정치활동 참여의사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같은 조사문항을 사용한 2009년 ICCS 조사결과를 보면, 한국 청소년들(중2)의 정치활동 참여의사는 조사대상 38개국 중 벨기에, 체코와 함께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하였다<sup>43)</sup>(Schulz, et al., 2010, p. 143)

정치활동 참여의사의 척도점수는 항목별 응답결과를 역순으로 리코드한 평균값( $M = 1.93$ ,  $SD = .66$ )으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장래에 노조·정당 가입, 출마 등 공식적 정치활동을 할 의지가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척도의 내적 신뢰도계수(Chronbach's  $\alpha$ )는 .85로서 ICCS 2009년 조사(.81)보다 다소 높은 편이었다.

정치활동 참여의사에 대한 배경변인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학적 변인에서는 성별, 지역별 하위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남자가 여자보다(2.02, 1.85), 시군부 청소년이 광역시 청소년보다(1.96, 1.90) 높은 정치활동 참여의사를 나타내었다. 연령별로는 12세의 정치 참여의사가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정체 또는 감소추세를 나타내어 17세가 가장 낮았다. 그 결과 연령과 정치 참여의사는 약한 부적인 상관관계( $r = -.11$ ,  $p < .001$ )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3) 청소년(중2)들의 정치활동 참여의사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는 콜롬비아, 도미니카, 인도네시아, 멕시코, 파라과이, 태국의 6개국이었다.



[그림 VI-24] 공식적 정치활동 의사- 연령별

교급과 학업성적에 따른 하위집단간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중학생과 전문고 학생(각각 1.98)이 일반고 학생(1.86)보다, 학업성적이 가장 낮은 집단이 중간집단보다(1.97, 1.92)보다 높은 수준의 정치활동 참여의사를 나타내었다.

가족관련 두 변인 - 부모학력, 가정의 경제수준 - 에서는 정치활동 참여의사에 대한 하위집단간의 의미 있는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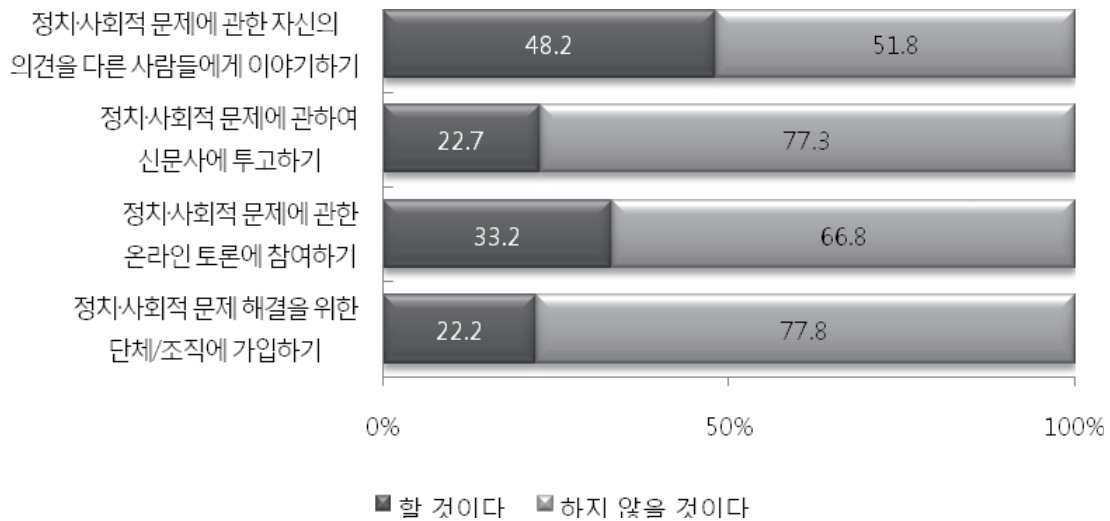
표 VI-12 공식적 정치활동 참여의사- 배경변인별

|         |                  | 사례수  | 평균   | 표준편차 | 통계치                        |
|---------|------------------|------|------|------|----------------------------|
| 전체      |                  | 5553 | 1.94 | .66  |                            |
| 성별      | 남자               | 2889 | 2.02 | .70  | t= 9.76***                 |
|         | 여자               | 2664 | 1.85 | .61  |                            |
| 지역      | 서울 <sup>a</sup>  | 875  | 1.94 | .70  | F= 3.63*<br>( b-a   a-c )  |
|         | 광역시 <sup>b</sup> | 1494 | 1.90 | .63  |                            |
|         | 시군부 <sup>c</sup> | 3184 | 1.96 | .66  |                            |
| 교급      | 중학교 <sup>a</sup> | 3004 | 1.98 | .69  | F= 22.03***<br>( b   c-a ) |
|         | 일반고 <sup>b</sup> | 1971 | 1.86 | .61  |                            |
|         | 전문고 <sup>c</sup> | 578  | 1.98 | .68  |                            |
| 학업성적    | 상 <sup>a</sup>   | 1404 | 1.93 | .66  | F= 3.15*<br>( b-a   a-c )  |
|         | 중 <sup>b</sup>   | 2327 | 1.92 | .65  |                            |
|         | 하 <sup>c</sup>   | 1813 | 1.97 | .67  |                            |
| 부모 학력   | 고졸 이하            | 2300 | 1.93 | .66  | t= -1.03                   |
|         | 대졸 이상            | 3100 | 1.95 | .67  |                            |
| 가정 경제수준 | 상 <sup>a</sup>   | 1894 | 1.95 | .69  | F= .79                     |
|         | 중 <sup>b</sup>   | 2430 | 1.94 | .64  |                            |
|         | 하 <sup>c</sup>   | 1219 | 1.93 | .66  |                            |

\* p< .05, \*\*p<.01,\*\*\*p<.001; ( )는 Duncan 사후검정 결과임

#### ● 비공식적 정치활동 참여의사

앞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 공식적인 정치활동 이외에 간접적 또는 비공식적인 형태의 정치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모두 4가지의 참여행동을 제시하고 4점 Likert척도 - "확실히 할 것이다"(1), "아마도 할 것이다"(2), "아마도 하지 않을 것이다"(3), "확실히 하지 않을 것이다" (4) - 로 응답하게 하였다. 항목별 응답결과를 행동의사 유무를 기준으로 리코드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 VI-25]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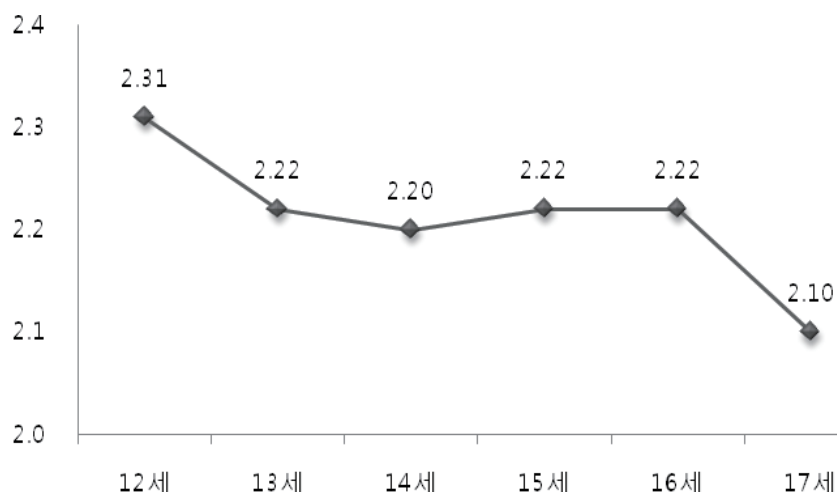


[그림 VI-25] 비공식적 정치활동 참여의사- 단순빈도

청소년들의 비공식적인 형태의 정치활동 참여의사는 공식적 정치활동 참여의사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었지만, 조사대상이 된 4항목 모두 긍정응답률이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사회적 문제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의 긍정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48.2%), 이어서 "정치·사회적 문제에 관한 온라인 토론에 참여하기"(33.2%), "정치·사회적 문제에 관하여 신문에 투고하기"(22.7%)의 순이었으며, "정치·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단체/조직에 가입하기"의 긍정응답률(22.2%)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비공식적 정치활동 참여의사의 척도점수는 항목별 응답결과를 역순으로 리코드한 평균값( $M=2.22$ ,  $SD=.66$ )으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참여의지가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척도의 내적인 신뢰도계수 (Chronbach's  $\alpha$ )는 .86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비공식적 정치활동 참여의사에 대한 배경변인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학적 변인 중 성별로는 남자의 참여의사가 여자보다 높은 수준이었고(2.26, 2.17). 지역별로는 서울 청소년의 참여의사가 가장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연령별로는 12세의 정치참여의사가 가장 높은 한편 17세가 가장 낮았으며 그 중간 연령층은 모두 유사한 수준으로서 두 변인간에는 약한 부적인 상관관계( $r=-.07$ ,  $p<.001$ )가 확인되었다.



[그림 VI-26] 비공식적 정치활동 의사- 연령별

학교관련 변인의 하위집단간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중학생의 비공식적 정치활동 참여의사(2.24)가 일반고·전문고 학생(2.19, 2.16)보다 높았으며, 학업성적 상위집단(2.28)이 중간·하위집단(2.21, 2.1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의사를 나타내었다.

가족관련 변인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부모학력이 대졸 이상인 집단이 고졸 이하 집단보다(2.25, 2.17), 가정의 경제수준이 상위집단에 속하는 청소년(2.27)이 중간·하위집단(2.19, 2.18) 청소년보다 높은 수준의 비공식적 정치참여 의사를 나타내었다.

표 VI-13 비공식적 정치활동 참여의사- 배경변인별

|         |                  | 사례수  | 평균   | 표준편차 | 통계치                        |
|---------|------------------|------|------|------|----------------------------|
| 전체      |                  | 5556 | 2.22 | .66  |                            |
| 성별      | 남자               | 2892 | 2.26 | .70  | t= 4.86***                 |
|         | 여자               | 2664 | 2.17 | .61  |                            |
| 지역      | 서울 <sup>a</sup>  | 877  | 2.24 | .67  | F= 2.18                    |
|         | 광역시 <sup>b</sup> | 1494 | 2.19 | .64  |                            |
|         | 시군부 <sup>c</sup> | 3185 | 2.22 | .67  |                            |
| 교급      | 중학교 <sup>a</sup> | 3001 | 2.24 | .69  | F= 6.46**<br>( c-b   a )   |
|         | 일반고 <sup>b</sup> | 1974 | 2.19 | .61  |                            |
|         | 전문고 <sup>c</sup> | 581  | 2.16 | .67  |                            |
| 학업성적    | 상 <sup>a</sup>   | 1406 | 2.28 | .68  | F= 11.34***<br>( c-b   a ) |
|         | 중 <sup>b</sup>   | 2326 | 2.21 | .64  |                            |
|         | 하 <sup>c</sup>   | 1815 | 2.17 | .66  |                            |
| 부모 학력   | 고졸 이하            | 2300 | 2.17 | .64  | t= -4.47***                |
|         | 대졸 이상            | 3104 | 2.25 | .67  |                            |
| 가정 경제수준 | 상 <sup>a</sup>   | 1897 | 2.27 | .69  | F= 9.30***<br>( c-b   a )  |
|         | 중 <sup>b</sup>   | 2430 | 2.19 | .65  |                            |
|         | 하 <sup>c</sup>   | 1219 | 2.18 | .64  |                            |

\* p< .05, \*\*p<.01,\*\*\*p<.001; ( )는 Duncan 사후검정 결과임

## 4. 종합분석

### 1) 정보매체 활용과 시민적 지식/정치적 효능감

미디어의 이용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TV 뉴스 시청을 통한 정보 수집이 시민적 지식과 장래의 투표 참여에 대하여 인과적 효과를 갖고 있다는 CIVED 조사결과(Torney-Purta, et al., 2001)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6 : 일상생활에서 국내·외 정보를 얻기 위해 다양한 정보매체를 많이 활용하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시민적 지식과 내적인 정치적 효능감의 수준이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은 [그림 VI-27]과 같다. 시민적 지식과 정치적 효능감의 관계에 미치는 배경변인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외생변인으로 연령과 부모학력 변인을 투입하였다. 연령은 단일 관측변인으로, 부모학력은 아버지의 학력과 어머니의 학력을 관측변인으로 한 잠재변인으로 구성하였다. 내생변인은 정보매체 활용도와 시민적 지식, 내적인 정치적 효능감의 세가지이다. 정보매체 활용도는 배경변인이 시민적 지식과 내적인 정치적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결하는 매개변인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3가지 조사항목을 각각 하나의 관측변인(TV시청, 신문 열람, 인터넷 이용)으로 하여 잠재변인<sup>44)</sup>을 구성하였다. 시민적 지식은 단일 관측변인으로, 내적인 정치적 효능감의 잠재변인은 두 개의 관측변인(정치효능1, 2)으로 구성하였다<sup>45)</sup>.

모형에 투입될 변인들의 기술통계치는 <표 VI-14>와 같다. 왜도와 첨도가 모두 절대값 2 미만으로서 구조방정식 모형의 정규분포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Hong, et al., 2003).

44) 정보매체 활용도의 관측변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TV시청: "국내·외 소식을 알기 위해 TV를 시청한다", 신문 열람: "국내·외 소식을 알기 위해 신문을 읽는다", 인터넷 이용: "국내·외 소식을 알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다"(모두 역순으로 리코드한 값을 적용).

45) 내적인 정치적 효능감의 관측변인은 주 16 참조.

표 VI-14 연구모형 6- 변인의 기술통계치

|          |        | 평균   | 표준편차 | 왜도    | 첨도     |
|----------|--------|------|------|-------|--------|
| 연령       |        | 3.39 | 1.69 | .104  | -1.236 |
| 부모학력     | 부친학력   | 5.01 | 1.22 | -.047 | -.853  |
|          | 모친학력   | 4.77 | 1.13 | .327  | -.692  |
| 시민적 지식   |        | 7.56 | 2.95 | -.190 | -.804  |
| 정보매체 활용도 | TV 시청  | 2.45 | 1.09 | -.023 | -1.313 |
|          | 신문 열람  | 1.60 | .90  | 1.362 | .711   |
|          | 인터넷 이용 | 2.44 | 1.08 | .000  | -1.288 |

모형에 투입된 변인간의 상관관계(Pearson's r)는 다음의 <표 VI-15>와 같다. 모든 변인간 상관계수가 .08 미만으로서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VI-15 연구모형 6- 변인간 상관관계

|          | 2        | 3        | 4       | 5       | 6       | 7       | 8       | 9       |
|----------|----------|----------|---------|---------|---------|---------|---------|---------|
| 1 연령     | -.093*** | -.128*** | .259*** | .015    | -.038** | .047*** | .094*** | .220*** |
| 2 부친학력   | 1        | .657***  | .117*** | .113*** | .046**  | .017    | .154*** | .041**  |
| 3 모친학력   |          | 1        | .079*** | .107*** | .053*** | .018    | .125*** | .011    |
| 4 시민적지식  |          |          | 1       | .137*** | .008    | .081*** | .152*** | .219*** |
| 5 정치효능1  |          |          |         | 1       | .530*** | .298*** | .336*** | .287*** |
| 6 정치효능2  |          |          |         |         | 1       | .130*** | .153*** | .130*** |
| 7 TV 시청  |          |          |         |         |         | 1       | .314*** | .474*** |
| 8 신문 열람  |          |          |         |         |         |         | 1       | .322*** |
| 9 인터넷 이용 |          |          |         |         |         |         |         |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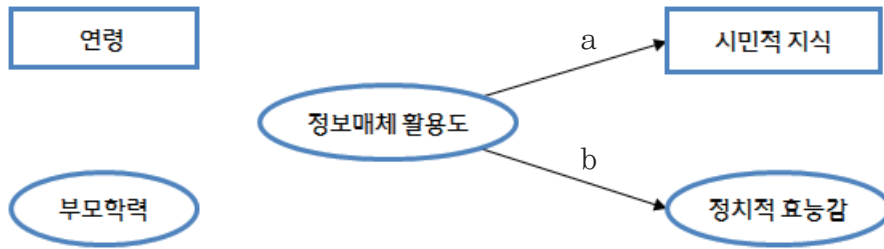
\*  $p < .05$ , \*\*  $p < .01$ , \*\*\*  $p < .001$

연구가설을 구체화한 작업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H1 : 정보매체의 활용도는 시민적 지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 정보매체의 활용도는 내적인 정치적 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작업가설의 검증은 [그림 VI-27]의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였다. a는 H1의 인과경로를, b는 H2의 인과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VI-27] 연구모형 6- 경로도

연구모형의 검증은 작업가설을 지지 또는 기각하는 복수의 경쟁모형을 설정하고 그 적합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경쟁모형들은 다음과 같다.

모형 1 : a, b의 경로를 모두 설정한 모형으로서 H1과 H2를 모두 지지한다.

모형 2 : a의 경로를 제거한 모형으로서 H2를 지지한다.

모형 3 : b의 경로를 제거한 모형으로서 H1을 지지한다.

모형 4 : a, b 경로를 모두 제거한 모형으로서 H1과 H2를 모두 기각한다.

경쟁모형들의  $\chi^2$ 값과 적합도 지수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의 <표 VI-16>에 제시되어 있다. 모형 2와 3은 자유도가 같기 때문에 적합도 지수를 비교하여 모형을 선택할 수 있다. 모형 2가 모형 3에 비해 RMSEA가 작은 한편 TLI와 CFI가 크기 때문에 더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모형 4와 모형 2는 모두 모형 1에 대하여 순차적인 내포관계에 있기 때문에  $\chi^2$ 차이검증을 통해 적합도를 비교할 수 있다. 모형 4와 2의  $\chi^2$ 값 차이는 유의수준 .001, 자유도 1에서의  $\chi^2$ 값보다 크기 때문에( $\Delta\chi^2=779.332 > \chi^2_{.001}(1)=10.827, \Delta df=1$ ), 모형 2가 선택되었다. 같은 방식으로 모형2와 모형1간의  $\chi^2$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Delta\chi^2=126.608 > \chi^2_{.001}(1)=10.827, \Delta df=1$ ), 모형 1이 선택되었다. 최종모형인 모형 1은 TLI는 기준(.90)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RMSEA와 CFI는 괜찮은 적합도를 보여주었다.

표 VI-16 연구모형 6- 경쟁모형의  $\chi^2$ 값과 적합도 지수

|              | $\chi^2$ | df | RMSEA | TLI  | CFI  |
|--------------|----------|----|-------|------|------|
| 모형 1 : 모든 경로 | 483.419  | 19 | .066  | .880 | .949 |
| 모형 2 : a 제외  | 610.027  | 20 | .073  | .855 | .936 |
| 모형 3 : b 제외  | 1312.557 | 20 | .108  | .683 | .859 |
| 모형 4 : ab 제외 | 1389.359 | 21 | .108  | .681 | .851 |

모형 1은 정보매체 활용도가 시민적 지식과 내적인 정치적 효능감 모두에 대하여 인과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작업가설 H1과 H2를 모두 뒷받침한다. 그러나 작업가설의 완전한 검증을 위해서는 인과성의 방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모형 1 내의 모수를 추정한 결과 인과성의 방향은 모두 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작업가설 H1과 H2가 모두 채택되었다. 즉, 국내·외 소식을 알기 위해 정보매체를 많이 활용하는 청소년들일수록 시민적 지식과 내적인 정치적 효능감의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정보매체 활용도의 인과적 효과의 크기는 시민적 지식보다는 내적인 정치적 효능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표 VI-17 연구모형 6- 최종모형의 모수추정치

|                        | 모형1      |       |
|------------------------|----------|-------|
|                        | 비표준화계수   | 표준화계수 |
| 연령 → 정보매체 활용도          | .102***  | .227  |
| 부모학력 → 정보매체 활용도        | .105***  | .127  |
| 연령 → 시민적 지식            | .416***  | .238  |
| 연령 → 내적인 정치적 효능감       | -.025*** | -.063 |
| 부모학력 → 시민적 지식          | .438***  | .135  |
| 부모학력 → 내적인 정치적 효능감     | .053***  | .071  |
| 정보매체 활용도 → 시민적 지식      | .719***  | .185  |
| 정보매체 활용도 → 내적인 정치적 효능감 | .397***  | .438  |

\*  $p < .05$ , \*\* $p < .01$ , \*\*\* $p < .001$

모형 1에서의 다른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보면, 연령과 부모의 학력은 시민적 지식과 내적 정치적 효능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또한 정보매체 활용도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의 학력이 두 변인에 대하여 모두 정적인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연령의 내적인 정치적 효능감에 대한 인과적 효과는 부적이었다. 즉,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적 지식도 증가하지만 내적인 정치적 효능감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교육환경과 교내 참여활동

학교의 교육적 환경은 청소년들의 시민적 참여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교육환경에서 청소년들의 교내 활동참여는 위축될 가능성이 높고 반면에 학생들의 참여를 장려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학교환경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시민성과 관련된 교육환경의 변인은 학급 토론 개방성 인식, 교내 참여활동의 가치인식, 학생-교사관계의 세가지이다. 이들 변인이 청소년의 교내 참여활동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7 : 시민성과 관련된 학교의 교육적 환경은 청소년들의 학교내 시민적 참여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7의 검증을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은 [그림 VII-28](연구모형 7)과 같다. 모형에 투입된 외생변인은 연령과 더불어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 주관적 학업성적을 설정하였다. 두 변인 모두 단일항목 변인이기 때문에 관측변인의 형태로 모형에 포함하였다. 내생변인 중 교육환경 관련 변인으로서는 학급 토론 개방성과 교내 참여활동의 가치 인식, 학생-교사 관계를 설정하였다. 각 변인별 조사항목의 요인구조를 검토한 뒤 학급토론 개방성 잠재변인은 세가지의 관측변인<sup>46)</sup>(학급토론1, 2, 3)으로, 교내 참여활동의 가치 인식<sup>47)</sup>과 학생-교사관계<sup>48)</sup>의 잠재변인은

46) 학급 토론 개방성의 관측변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학급토론 1: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격려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결정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격려한다", 학급토론 2: "선생님들은 정치·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 준다" "선생님들은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토론해 보도록 학생들에게 권장한다", 학급토론 3: "학생들이 최근의 정치문제에 관해 같은 반 친구들과 토론한다" "학생들은 다른 대부분의 친구들과 의견이 다를지라도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모두 역순으로 리코드한 값을 적용).

47) 교내 참여활동 가치 인식의 관측변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참여활동 가치 1: "학생들이 힘을 모으면 학교에 여러가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학교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는 학교를 더 좋게 만든다"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두가지의 관측변인(참여가치1, 2; 교사관계1, 2)으로 구성하였다. 내생변인 중 종속변인에 해당하는 교내 참여활동 경험의 잠재변인은 요인분석을 통해 두가지의 관측변인<sup>49)</sup>으로 항목묶음하여 모형에 투입하였다.

연구모형에 투입되는 변인의 기술통계치는 다음 <표 VI-18>과 같다. 모든 변인의 왜도가 절대값 1 미만, 첨도는 2 미만으로서 정규분포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VI-18 연구모형 7- 변인의 기술통계치

|                  |        | 평균   | 표준편차 | 왜도    | 첨도     |
|------------------|--------|------|------|-------|--------|
| 연령               |        | 3.39 | 1.69 | .104  | -1.236 |
| 학업성적             |        | 2.92 | .99  | .137  | -.279  |
| 학급 토론<br>개방성     | 학급토론 1 | 2.22 | .80  | .199  | -.530  |
|                  | 학급토론 2 | 1.84 | .73  | .644  | -.062  |
|                  | 학급토론 3 | 1.88 | .62  | .577  | .194   |
| 교내 참여활동의<br>가치인식 | 참여가치 1 | 3.02 | .69  | -.743 | .953   |
|                  | 참여가치 2 | 3.02 | .70  | -.578 | .546   |
| 학생-교사관계          | 교사관계 1 | 2.81 | .65  | -.762 | 1.005  |
|                  | 교사관계 2 | 2.68 | .58  | -.575 | .945   |
| 교내 참여활동<br>경험    | 교내활동 1 | 1.58 | .65  | .857  | -.429  |
|                  | 교내활동 2 | 2.07 | .59  | -.158 | -.887  |

연구모형에 투입된 변인(관측변인)간의 상관관계(Pearson's r)는 다음의 <표 VI-19>와 같다. 교내 참여활동 가치인식의 관측변인간 상관관계가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지만(.690),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모임이나 조직은 학교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참여활동 가치 2: "모든 학교는 학생회를 설치해야 한다" "학생들이 혼자보다는 함께 행동한다면 학교의 여러가지 일들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모두 역순으로 리코드한 값을 적용).

48) 학생-교사관계의 관측변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교사관계 1: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내가 말하는 것을 경청해 주신다" "내가 별도로 도움을 요청하면 선생님들은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교사관계 2: "학생들은 대부분의 선생님들과 잘 지낸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복지에 관심이 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나를 공정하게 대해 주신다"(모두 역순으로 리코드한 값을 적용).

49) 교내 참여활동 경험의 관측변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교내활동 1: "학생회 토론에 참여" "학급 또는 학생회 임원으로 출마" "학교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 교내활동 2: "학급 토론에 적극적 참여" "학급 또는 학생회 임원 선거에서 투표" "학교의 방과후 예체능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모두 역순으로 리코드한 값을 적용).

표 VI-19 연구모형 7- 변인간 상관관계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
| 1 연령     | -.051*** | -.070*** | -.061*** | .055*** | -.009   | .082*** | -.024   | -.087*** | .010    | -.011   |
| 2 학업성적   | 1        | .077***  | .029*    | .091*** | .119*** | .142*** | .170*** | .111***  | .254*** | .224*** |
| 3 학급토론1  |          | 1        | .531***  | .384*** | .194*** | .134*** | .366*** | .364***  | .138*** | .180*** |
| 4 학급토론2  |          |          | 1        | .509*** | .139*** | .084*** | .241*** | .273***  | .169*** | .157*** |
| 5 학급토론3  |          |          |          | 1       | .123*** | .111*** | .142*** | .140***  | .225*** | .218*** |
| 6 참여가치1  |          |          |          |         | 1       | .690*** | .352*** | .330***  | .178*** | .193*** |
| 7 참여가치2  |          |          |          |         |         | 1       | .287*** | .249***  | .185*** | .207*** |
| 8 교사관계1  |          |          |          |         |         |         | 1       | .674***  | .143*** | .187*** |
| 9 교사관계2  |          |          |          |         |         |         |         | 1        | .110*** | .137*** |
| 10 교내활동1 |          |          |          |         |         |         |         |          | 1       | .571*** |
| 11교내활동2  |          |          |          |         |         |         |         |          |         | 1       |

\*  $p < .05$ , \*\* $p < .01$ ,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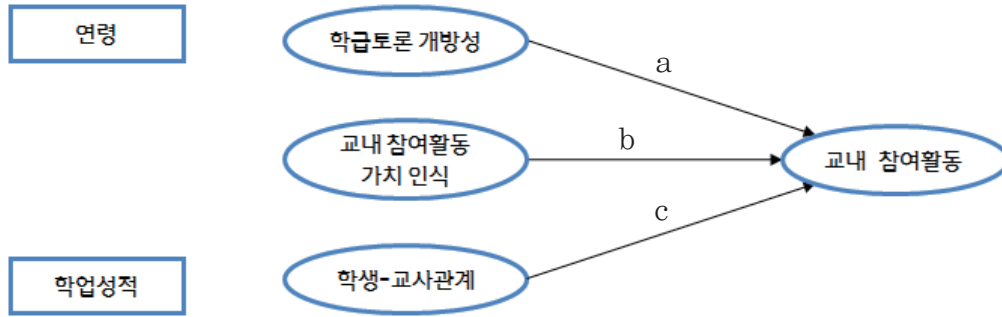
연구가설 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작업가설을 통해 검증할 수 있다.

H1: 학급의 토론분위기를 개방적이라고 느끼는 청소년들일수록 학교내의 시민적 활동에 보다 많이 참가할 것이다.

H2: 교내 참여활동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청소년들일수록 학교내의 시민적 활동에 보다 많이 참가할 것이다.

H3 : 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하다고 느끼는 청소년들일수록 학교내의 시민적 활동에 보다 많이 참여할 것이다.

작업가설의 검증을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은 다음의 [그림 VI-28]과 같다. 작업가설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로는 a, b, c의 세가지인데, 각각 작업가설 H1, H2, H3의 인과경로를 의미한다.



[그림 VI-28] 연구모형 7- 경로도

모형의 검증은 가설과 관련된 복수의 경쟁모형을 설정하여 적합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비교 대상이 되는 경쟁모형들은 다음과 같다.

- 모형 1 : a, b, c의 모든 경로를 설정한 모형으로서, H1, H2, H3를 모두 지지한다.
- 모형 2 : 경로 a를 제거한 모형으로서, H2와 H3를 지지한다.
- 모형 3 : 경로 b를 제거한 모형으로서, H1과 H3를 지지한다.
- 모형 4 : 경로 c를 제거한 모형으로서, H 1과 H2를 지지한다.
- 모형 5 : 경로 a, b를 제거한 모형으로서, H 3를 지지한다.
- 모형 6 : 경로 b, c를 제거한 모형으로서, H 1을 지지한다.
- 모형 7 : 경로 a, c를 제거한 모형으로서, H 2를 지지한다.
- 모형 8 : a, b, c의 경로를 모두 제거한 모형으로서, H1, H2, H3를 모두 기각한다.

모형의 비교는 경쟁모형들의 적합도 지수와  $\chi^2$ 차이검증을 활용하였다. 각 경쟁모형들의  $\chi^2$ 값과 적합도 지수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의 <표 VI-20>과 같다.

표 VI-20 연구모형 7- 경쟁모형의  $\chi^2$ 값과 적합도 지수

|                      | $\chi^2$ | df | RMSEA | TLI  | CFI  |
|----------------------|----------|----|-------|------|------|
| 모형 1 : 경로 a, b, c 설정 | 798.902  | 31 | .067  | .899 | .952 |
| 모형 2 : 경로 a 제거       | 978.415  | 32 | .073  | .879 | .941 |
| 모형 3 : 경로 b 제거       | 911.135  | 32 | .070  | .888 | .946 |
| 모형 4 : 경로 c 제거       | 800.055  | 32 | .066  | .902 | .952 |
| 모형 5 : 경로 a, b 제거    | 1085.124 | 33 | .076  | .870 | .935 |
| 모형 6 : 경로 b, c 제거    | 945.967  | 33 | .070  | .889 | .945 |
| 모형 7 : 경로 a, c 제거    | 1014.260 | 33 | .073  | .878 | .939 |
| 모형 8 : 경로 a, b, c 제거 | 1254.344 | 34 | .080  | .853 | .924 |

자유도가 같은 모형은 적합도 지수의 비교를 통해 모형을 선택할 수 있다. 모형 2, 3, 4(df=32) 중에서는 모형 4가 RMSEA가 가장 작은 한편 TLI와 CFI는 큰 것으로 나타나 가장 좋은 적합도를 보여주었다. 모형 5, 6, 7(df=33) 중에서는 모형 6의 적합도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8과 모형 6, 모형 4는 모두 순차적으로 포화모형인 모형 1과 내포관계에 있으므로  $\chi^2$ 차이검증을 통해 적합도의 비교가 가능하다. 모형 8과 6은  $\chi^2$ 값의 차이가 유의수준 .001, 자유도 1에서의  $\chi^2$ 값보다 크기 때문에( $\Delta\chi^2 = 308.377 > \chi^2_{.001}(1)=10.827, \Delta df=1$ ), 자유도가 낮은 모형 6을 선택하였다. 같은 방식으로 모형 6과 모형 4의  $\chi^2$ 차이검증( $\Delta\chi^2 = 145.912 > \chi^2_{.001}(1)=10.827, \Delta df=1$ )에서는 모형 4가 선택되었다. 마지막으로 모형 4와 모형 1을 비교한 결과 두 모형의  $\chi^2$ 값의 차이가 유의수준 .001, 자유도 1에서의  $\chi^2$ 값보다 크기 때문에 자유도가 큰 모형 4가 최종모형으로 선택되었다. 모형 4는 자유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적합도 지수 비교에서 모형 1보다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어 교육환경과 교내 참여활동 경험을 설명하는 최적의 모형임을 알 수 있다. 모형 4가 선택됨에 따라 학생-교사관계와 교내 참여활동 경험의 인과적 관계를 전제로 하는 작업가설 H3는 기각되었다.

최종모형으로 선정된 모형 4 내의 모수를 추정된 결과는 <표 VI-21>과 같다. 학급토론 개방성과 교내 참여활동의 가치 인식은 모두 교내 활동참여 경험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정적인 인과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작업가설 H1과 H2가 채택되었다. 학급의 토론 분위기가 개방적일수록, 교내 활동 참여의 가치를 높게 인식할수록 청소년들의 학교내 시민적 활동참여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교육환경 관련 두 변인 중에서 학급토론 개방성의 교내 참여활동 경험에 대한 인과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 학급에서의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가 청소년들의 학교내 시민적 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주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표 VI-21 연구모형 7- 최종모형의 모수추정치

|                            | 모형4      |       | 수정모형     |       |
|----------------------------|----------|-------|----------|-------|
|                            | 비표준화계수   | 표준화계수 | 비표준화계수   | 표준화계수 |
| 연령 → 학급토론 개방성              | -.011**  | -.049 | -.011**  | -.047 |
| 연령 → 교내 참여활동 가치 인식         | .011*    | .030  | .012*    | .032  |
| 연령 → 학생-교사관계 인식            | -.016*** | -.056 | -.016*** | -.056 |
| 학업성적 → 학급토론 개방성            | .030***  | .078  | .030***  | .078  |
| 학업성적 → 교내 참여활동 가치 인식       | .093***  | .149  | .093***  | .150  |
| 학업성적 → 학생-교사관계 인식          | .081***  | .172  | .081***  | .172  |
| 연령 → 교내 참여활동 경험            | .007     | .023  | -        | -     |
| 학업성적 → 교내 참여활동 경험          | .134***  | .268  | .133***  | .267  |
| 학급토론 개방성 → 교내 참여활동 경험      | .336***  | .258  | .333***  | .256  |
| 교내 참여활동 가치 인식 → 교내 참여활동 경험 | .154     | .192  | .155***  | .194  |

수정모형 :  $\chi^2 = 475.442(df = 35)$ , CFI = .968, TLI = .940, RMSEA = .048

\*  $p < .05$ , \*\* $p < .01$ , \*\*\* $p < .001$ ; ( )는 Duncan 사후검정 결과임

모형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연령→ 교내 참여활동 경험)를 제거한 수정모형을 통해 다른 변인들이 교내 활동참여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령은 교내 참여활동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교내 참여활동의 가치 인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학업성적은 교내 참여활동 경험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또한 학급토론 개방성, 교내 참여활동 가치인식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학업성적이 좋은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학급의 토론 분위기를 개방적으로 인식하고 참여활동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교내의 시민적 활동에도 많이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시민적 지식/정치적 효능감과 시민적 참여

시민적 지식·정치적 효능감과 시민적 참여의 밀접한 연관성은 ICCS의 연구모형에 내포된 중요한 가정의 하나이다. 시민적 지식의 수준이 높고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에 자신을 갖는 청소년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적 활동에 참여하려 하고 또한 그러한 기회가 자주 부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가정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8 : 시민적 지식과 내적인 정치적 효능감의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학교안팎의 시민적 활동에 보다 많이 참여할 것이다.

연구가설 8의 검증을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은 [그림 VI-29](연구모형 8)와 같다. 모형에 투입된 외생변인은 연령과 부모의 학력 두가지이다. 연령은 단일항목 변인이므로 관측변인을 그대로 활용하였고, 부모학력 잠재변인은 아버지의 최종학력과 어머니의 최종학력을 관측변인으로 하였다. 내생변인은 시민적 지식과 내적인 정치적 효능감, 교내 참여활동 경험, 공동체 참여활동 경험의 네가지이다. 시민적 지식과 내적인 정치적 효능감은 배경변인이 참여활동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시민적 지식은 하나의 관측변인으로, 내적인 정치적 효능감 잠재변인은 두개의 관측변인<sup>50)</sup>(정치효능 1, 2)으로 구성된다. 내생변인 중 종속변인에 해당하는 교내 참여활동 경험은 두개의 관측변인<sup>51)</sup>(교내참여 1, 2)으로, 공동체 참여활동 경험은 세개 관측변인<sup>52)</sup>(공동체참여 1, 2, 3)으로 구성하였다.

연구모형에 투입된 변인들의 기술통계치는 다음의 [표 VI-22]와 같다. 관측변인 중 공동체참여1의 점도와 왜도가 구조방정식 모형의 정규분포 조건(Hong, et al., 2003)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53)</sup>. 그러나 그 차이가 그리 크지는 않기 때문에 관측변인을 재구성하지 않고 그대로 모형에 투입하기로 하였다.

50) 내적인 정치적 효능감의 관측변인 구성은 주 16 참조.

51) 교내 참여활동 경험의 관측변인 구성은 주 49 참조.

52) 공동체 참여활동 경험의 관측변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공동체참여 1: "인권운동 단체" "환경운동 단체", 공동체참여 2: "청소년 캠페인활동 단체" "자원봉사 단체", 공동체참여 3: "자선모금 단체" "종교 단체"(모두 역순으로 리코드한 값을 적용).

53) 공동체참여 1의 점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구성항목인 "인권운동 단체" "환경운동 단체"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극히 소수이기 때문이다.

표 VI-22 연구모형 8- 변인의 기술통계치

|                |         | 평균   | 표준편차 | 왜도    | 첨도     |
|----------------|---------|------|------|-------|--------|
| 연령             |         | 3.39 | 1.69 | .104  | -1.236 |
| 부모학력           | 부친학력    | 5.01 | 1.22 | -.047 | -.853  |
|                | 모친학력    | 4.77 | 1.13 | .327  | -.692  |
| 시민적 지식         |         | 7.56 | 2.95 | -.190 | -.804  |
| 내적인 정치적<br>효능감 | 정치효능 1  | 2.13 | .62  | .225  | .401   |
|                | 정치효능 2  | 2.14 | .84  | .400  | -.423  |
| 교내 참여활동<br>경험  | 교내참여 1  | 1.58 | .65  | .857  | -.429  |
|                | 교내참여 2  | 2.07 | .59  | -.158 | -.887  |
| 공동체 참여활동<br>경험 | 공동체참여 1 | 1.21 | .45  | 2.244 | 4.546  |
|                | 공동체참여 2 | 1.50 | .63  | 1.012 | -.107  |
|                | 공동체참여 3 | 1.42 | .58  | 1.196 | .394   |

연구모형에 투입된 변인(관측변인)간 상관관계(Pearson's r)는 다음의 <표 VI-23>과 같다. 모든 변인간의 상관계수가 .80 미만으로서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표 VI-23 연구모형 8- 변인간 상관관계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
| 1 연령      | -.093*** | -.128*** | .259*** | .015    | -.038** | .010    | -.011   | -.064*** | .008    | -.101*** |
| 2 부친학력    | 1        | .657***  | .117*** | .113*** | .046**  | .139*** | .109*** | .051***  | .106*** | .079***  |
| 3 모친학력    |          | 1        | .079*** | .107*** | .053*** | .112*** | .099*** | .054***  | .095*** | .093***  |
| 4 시민적지식   |          |          | 1       | .137*** | .008    | .180*** | .238*** | -.041**  | .087*** | .015     |
| 5 정치효능1   |          |          |         | 1       | .530*** | .272*** | .254*** | .172***  | .180*** | .162***  |
| 6 정치효능2   |          |          |         |         | 1       | .175*** | .161*** | .124***  | .126*** | .108***  |
| 7 교내참여1   |          |          |         |         |         | 1       | .571*** | .215***  | .291*** | .200***  |
| 8 교내참여2   |          |          |         |         |         |         | 1       | .206***  | .305*** | .262***  |
| 9 공동체참여1  |          |          |         |         |         |         |         | 1        | .563*** | .469***  |
| 10 공동체참여2 |          |          |         |         |         |         |         |          | 1       | .474***  |
| 11 공동체참여3 |          |          |         |         |         |         |         |          |         |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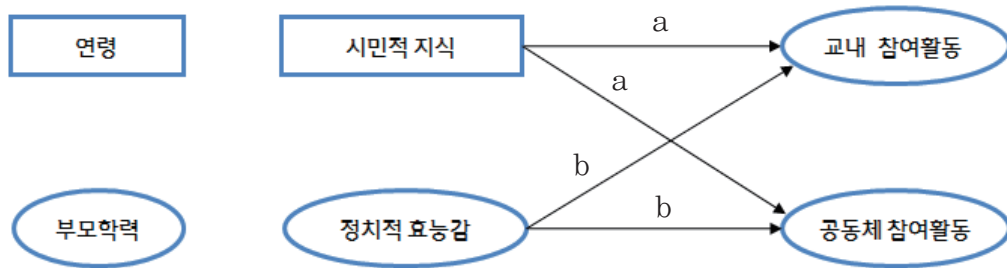
\* p< .05, \*\*p<.01, \*\*\*p<.001

연구가설 8을 보다 구체적인 작업가설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H1 : 시민적 지식은 학교 안팎의 시민적 참여활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 내적인 정치적 효능감은 학교 안팎의 시민적 참여활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위의 작업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그림 VI-29]와 같이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에서 경로 a는 작업가설 H1과, 경로 b는 H2와 관련되어 있다.



[그림 VI-29] 연구모형 8- 경로도

연구모형의 검증은 가설을 지지, 또는 기각하는 여러 경쟁모형을 설정하고 그 적합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작업가설 H1, H2와 관련된 경쟁모형은 다음의 네가지이다.

모형 1 : a, b의 경로를 모두 설정한 모형으로서, H1과 H2를 모두 지지한다.

모형 2 : 경로 a를 제거한 모형으로서, H2를 지지한다.

모형 3 : 경로 b를 제거한 모형으로서, H1을 지지한다.

모형 4 : a, b의 경로를 모두 제거한 모형으로서, H1과 H2를 모두 기각한다.

모형의 비교는 경쟁모형들의 적합도 지수와  $\chi^2$ 차이검증을 활용하였다. 각 경쟁모형들의  $\chi^2$ 값과 적합도 지수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의 <표 VI-24>와 같다. 모형 2와 3은 자유도가 같기 때문에 적합도 지수를 비교한 결과, 모형 2의 RMSEA가 작은 한편 TLI와 CFI는 큰 것으로 나타나 모형 2가 선택되었다. 모형 4와 모형 2는 포화모델인 모형 1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내포관계에 있기 때문에  $\chi^2$ 차이검증을 통해 적합도를 비교할 수 있다. 모형 4와 2는  $\chi^2$ 값의 차이가 유의수준 .001,

자유도 2에서의  $\chi^2$ 값보다 크기 때문에 ( $\Delta\chi^2 = 305.405 > \chi^2_{.001}(2) = 13.815, \Delta df = 2$ ), 자유도가 낮은 모형 2가 선택되었다. 같은 방식으로 모형 2와 1의  $\chi^2$ 차이검정을 실시한 결과( $\Delta\chi^2 = 242.086 > \chi^2_{.001}(2) = 13.815, \Delta df = 2$ ), 모형 1이 최종모형으로 결정되었다.

표 VI-24 연구모형 8- 경쟁모형의  $\chi^2$ 값과 적합도 지수

|              | $\chi^2$ | df | RMSEA | TLI  | CFI  |
|--------------|----------|----|-------|------|------|
| 모형 1 : 모든 경로 | 365.371  | 31 | .044  | .947 | .975 |
| 모형 2 : a 제외  | 607.457  | 33 | .056  | .915 | .957 |
| 모형 3 : b 제외  | 812.756  | 33 | .065  | .884 | .942 |
| 모형 4 : ab 제외 | 1118.161 | 35 | .075  | .848 | .919 |

모형 1은 a, b의 인과적 경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인과성의 크기와 방향을 알기 위해서는 모수추정이 필요하다. 모형 1내의 모수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의 <표 VI-25>와 같다. 내적인 정치적 효능감은 교내 참여활동 경험과 공동체 참여활동 경험에 대하여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정적인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민적 지식은 교내 참여활동 경험에만 정적인 인과적 영향을 미칠 뿐, 공동체 참여활동 경험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수준의 인과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작업가설 H2는 채택되었지만, H1은 부분 기각되었다. 시민적 지식의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는 청소년들과 비교하여 공동체 참여활동 정도에서 차이가 없다는 점은 주목할만한 점이다. 학생이라는 신분적 특성상 시민활동에 대한 지식과 참여의지가 있더라도 학교밖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가 매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모형 1에서 확인된 교내 참여활동 경험과 공동체 참여활동 경험의 높은 상관관계(.41)를 고려할 때 시민적 지식은 교내 활동 참여를 매개로 한 간접적인 형태로 공동체 활동 경험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VI-25 연구모형 8- 최종모형의 모수추정치

|                           | 모형1                  |       | 수정모형                 |       |
|---------------------------|----------------------|-------|----------------------|-------|
|                           | 비표준화계수               | 표준화계수 | 비표준화계수               | 표준화계수 |
| 연령 → 시민적 지식               | .488 <sup>***</sup>  | .280  | .489 <sup>***</sup>  | .280  |
| 연령 → 내적인 정치적 효능성          | .009 <sup>*</sup>    | .032  | .009 <sup>*</sup>    | .032  |
| 부모학력 → 시민적 지식             | .511 <sup>***</sup>  | .158  | .512 <sup>***</sup>  | .158  |
| 부모학력 → 내적인 정치적 효능성        | .075 <sup>***</sup>  | .145  | .075 <sup>***</sup>  | .145  |
| 연령 → 교내 참여활동 경험           | -.015 <sup>***</sup> | -.053 | -.015 <sup>***</sup> | -.053 |
| 연령 → 공동체 참여활동 경험          | -.010 <sup>**</sup>  | -.049 | -.009 <sup>**</sup>  | -.048 |
| 부모학력 → 교내 참여활동 경험         | .055 <sup>***</sup>  | .106  | .055 <sup>***</sup>  | .106  |
| 부모학력 → 공동체 참여활동 경험        | .035 <sup>***</sup>  | .096  | .035 <sup>***</sup>  | .097  |
| 시민적 지식 → 교내 참여활동 경험       | .038 <sup>***</sup>  | .237  | .038 <sup>***</sup>  | .236  |
| 시민적 지식 → 공동체 참여활동 경험      | .001                 | .005  | —                    | —     |
| 내적인 정치적 효능성 → 교내 참여활동 경험  | .318 <sup>***</sup>  | .319  | .318 <sup>***</sup>  | .319  |
| 내적인 정치적 효능성 → 공동체 참여활동 경험 | .168 <sup>***</sup>  | .243  | .169 <sup>***</sup>  |       |

수정모형 :  $\chi^2 = 365.463(df = 32)$ , CFI = .975, TLI = .949, RMSEA = .043

\*  $p < .05$ , \*\* $p < .01$ , \*\*\* $p < .001$

모형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를 제거한 수정모형을 통해 다른 변인들이 시민적 참여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령은 교내 참여활동과 공동체 참여활동 모두에 대하여 약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입시준비 등 학업부담으로 인하여 활동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부모의 학력은 교내 참여활동과 공동체 참여활동 모두에 대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시민적 지식과 내적인 정치적 효능성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4) 시민적 참여활동과 장래의 행동의사

현재의 행동(경험)과 앞으로의 행동의사의 관련성은 ICCS 연구의 주요한 이론적 관심사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통해 행동과 행동의사의 인과적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가설 9 :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시민적 참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장래에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할 것이다.

연구가설 9의 검증을 위해 관련 변인들로 구조방정식 모형([그림 VI-30])을 설정하였다. 모형에 투입된 변인은 다음과 같다. 외생변인은 연령과 부모의 학력으로서 연령은 단일 관측변인의 형태로, 부모학력 잠재변인은 아버지의 학력과 어머니의 학력을 각각 관측변인으로 하여 모형에 포함하였다. 내생변인은 현재의 시민적 참여활동 관련 변인으로 교내 참여활동 경험과 공동체 참여활동 경험을, 종속변인으로 장래의 투표 참여의사와 장래의 정치활동 참여의사를 설정하였다. 투표의사의 잠재변인은 3개의 조사항목을 각각 하나의 관측변인<sup>54)</sup>(투표의사 1, 2, 3)으로 하였고, 정치활동 참여의사는 9개의 조사항목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해 두개의 관측변인<sup>55)</sup>(정치참여1, 2)으로 구성하였다.

모형에 투입된 변인들의 기술통계치는 다음의 [표 VI-26]과 같다. 관측변인 중 공동체참여 1의 왜도가 2를 초과하였고, 첨도도 4 이상으로서 구조방정식의 정규분포 조건(Hong, et al., 2003)을 벗어났지만 기준치와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변인을 재구성하지 않고 그대로 모형에 포함하였다.

54) 투표 참여의사의 관측변인은 다음과 같다. 투표의사 1: "지역 단위 선거(시장/도지사/군수, 지방의회 의원 선거 등)에 투표하기", 투표의사 2: "국가 차원의 선거(대통령/국회의원 선거 등)에 투표하기", 투표의사 3: "투표하기 전에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 수집하기"(모두 역순으로 리코드한 값을 적용).

55) 정치활동 참여의사의 관측변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정치참여 1: "선거운동 기간 동안 후보자나 정당을 지원하는 활동하기" "정당에 가입하기"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지역 단위 선거(시장/도지사/군수, 지방의회 의원 등)에 후보자로 출마하기", 정치참여 2: "정치·사회적 문제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정치·사회적 문제에 관하여 신문사에 투고하기" "정치·사회적 문제에 관한 온라인 토론에 참여하기" "정치·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단체/조직에 가입하기"(모두 역순으로 리코드한 값을 적용).

표 VI-26 연구모형 9- 변인의 기술통계치

|                  |         | 평균   | 표준편차 | 왜도     | 첨도     |
|------------------|---------|------|------|--------|--------|
| 연령               |         | 3.39 | 1.69 | .104   | -1.236 |
| 부모학력             | 부친학력    | 5.01 | 1.22 | -.047  | -.853  |
|                  | 모친학력    | 4.77 | 1.13 | .327   | -.692  |
| 교내 참여활동<br>경험    | 교내참여 1  | 1.58 | .65  | .857   | -.429  |
|                  | 교내참여 2  | 2.07 | .59  | -.158  | -.887  |
| 공동체 참여활동<br>경험   | 공동체참여 1 | 1.21 | .45  | 2.244  | 4.546  |
|                  | 공동체참여 2 | 1.50 | .63  | 1.012  | -.107  |
|                  | 공동체참여 3 | 1.42 | .58  | 1.196  | .394   |
| 장래의 투표<br>참여의사   | 투표의사 1  | 3.25 | .83  | -1.000 | .427   |
|                  | 투표의사 2  | 3.34 | .82  | -1.173 | .758   |
|                  | 투표의사 3  | 2.80 | .88  | -.296  | -.661  |
| 장래의 정치활동<br>참여의사 | 정치참여 1  | 1.93 | .66  | .599   | .548   |
|                  | 정치참여 2  | 2.21 | .66  | .370   | .375   |

모형에 투입된 변인(관측변인)들간의 상관관계(Pearson's  $r$ )는 다음의 <표 VI-27>과 같다. 투표의사1과 2의 상관계수가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지만(.75),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수 있는 수준(.85)은 아니었다.

표 VI-27 연구모형 9- 변인간 상관관계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
| 1 연령     | -.093*** | -.128*** | .010    | -.011   | -.064*** | .008    | -.101*** | .053*** | .063*** | .083*** | -.106*** | -.074*** |
| 2 부친학력   | 1        | .657***  | .139*** | .109*** | .051***  | .106*** | .079***  | .059*** | .063*** | .060*** | .003     | .057***  |
| 3 모친학력   |          | 1        | .112*** | .099*** | .054***  | .095*** | .093***  | .027    | .033*   | .039**  | .004     | .044**   |
| 4 교내참여1  |          |          | 1       | .571*** | .215***  | .291*** | .200***  | .188*** | .169*** | .185*** | .113***  | .197***  |
| 5 교내참여2  |          |          |         | 1       | .206***  | .305*** | .262***  | .244*** | .232*** | .201*** | .058***  | .145***  |
| 6 공동체참여1 |          |          |         |         | 1        | .563*** | .469***  | .024    | .015    | .058*** | .147***  | .146***  |
| 7 공동체참여2 |          |          |         |         |          | 1       | .474***  | .123*** | .120*** | .127*** | .115***  | .168***  |
| 8 공동체참여3 |          |          |         |         |          |         | 1        | .079*** | .074*** | .077*** | .077***  | .127***  |
| 9 투표의사1  |          |          |         |         |          |         |          | 1       | .756*** | .539*** | .146***  | .227***  |
| 10 투표의사2 |          |          |         |         |          |         |          |         | 1       | .548*** | .093***  | .185***  |
| 11 투표의사3 |          |          |         |         |          |         |          |         |         | 1       | .328***  | .386***  |
| 12 정치참여1 |          |          |         |         |          |         |          |         |         |         | 1        | .616***  |
| 13 정치참여2 |          |          |         |         |          |         |          |         |         |         |          |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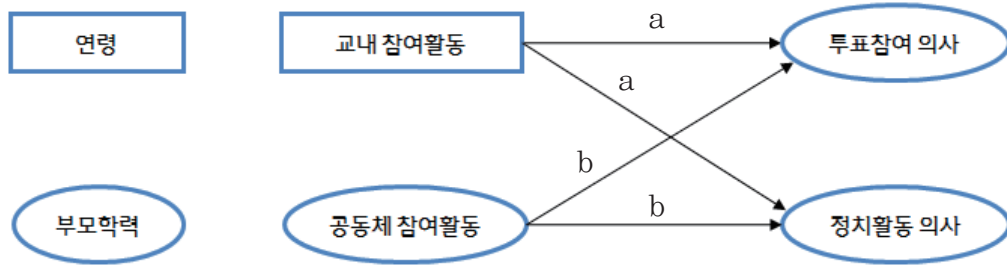
\*  $p < .05$ , \*\* $p < .01$ , \*\*\* $p < .001$

연구가설 9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작업가설을 설정하였다.

H1: 교내 참여활동 경험은 장래의 투표 참여의사와 정치활동 참여의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공동체 참여활동 경험은 장래의 투표 참여의사와 정치활동 참여의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작업가설의 검증을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은 다음 [그림 VI-30]과 같다. 그림에는 작업가설과 관련한 경로만 표시하였고, 경로 a는 H1을, 경로 b는 H2를 각각 뒷받침한다.



[그림 VI-30] 연구모형 9- 경로도

연구모형의 검증은 작업가설과 관련한 복수의 경쟁모형을 설정하고, 각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비교 대상이 되는 경쟁모형은 다음의 네가지이다.

- 모형 1 : a, b의 경로를 모두 설정한 모형으로서, H1과 H2를 모두 지지한다.
- 모형 2 : 경로 a를 제거한 모형으로서, H2를 지지한다.
- 모형 3 : 경로 b를 제거한 모형으로서, H1을 지지한다
- 모형 4 : a, b의 경로를 모두 제거한 모형으로서, H1과 H2를 모두 기각한다.

모형간 비교를 위해  $\chi^2$ 값과 적합도 지수를 산출한 결과 <표 VI-28>과 같이 나타났다. 자유도가 같은 모형 2와 3을 비교한 결과, 모형 3이 RMSEA값이 작고 TLI와 CFI값이 크기 때문에 적합도가 더 좋다고 할 수 있다. 모형 4와 3는 포화모델인 M1에 순차적으로 포함되는 내포관계에 있기 때문에  $\chi^2$ 검증을 통해 적합도 비교가 가능하다. 모형 4와 3는  $\chi^2$ 값의 차이가 유의수준 .001, 자유도 1에서의  $\chi^2$ 값보다 크기 때문에( $\Delta\chi^2 = 464.673 > \chi^2_{.001}(2) = 13.815$ ,  $\Delta df = 2$ ), M3가 선택되었다. 다음으로 모형 3와 1은  $\chi^2$ 값의 차이가 유의수준 .001, 자유도 2에서의  $\chi^2$ 값보다 크기 때문에( $\Delta\chi^2 = 63.368 > \chi^2_{.001}(2) = 13.815$ ,  $\Delta df = 2$ ), 모형 1이 최종모형으로 결정되었다.

표 VI-28 연구모형 9- 경쟁모형의  $\chi^2$ 값과 적합도 지수

|                   | $\chi^2$ | df | RMSEA | TLI  | CFI  |
|-------------------|----------|----|-------|------|------|
| 모형 1 : 경로 a, b 설정 | 1286.565 | 51 | .066  | .909 | .949 |
| 모형 2 : 경로 a 제거    | 1572.392 | 53 | .072  | .892 | .937 |
| 모형 3 : 경로 b 제거    | 1349.933 | 53 | .066  | .908 | .946 |
| 모형 4 : 경로 a, b 제거 | 1814.606 | 55 | .076  | .879 | .927 |

모형 1은 a, b의 인과경로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인과성의 방향과 통계적 유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모형 내의 모수를 알아야 한다. 모형 1의 모수를 추정된 결과는 다음의 <표 VI-29>와 같다. 교내 참여활동 경험은 투표 참여의사와 정치활동 참여의사 모두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정적인 인과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작업가설 H1이 지지되었다. 그러나 공동체 참여활동 경험은 정치활동 참여의사에 대해서만 정적인 인과적 영향을 미칠 뿐, 투표 참여의사에 대한 인과적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었다. 따라서 작업가설 H2는 부분적으로만 채택되었다.

표 VI-29 연구모형 9- 최종모형의 모수추정치

|                         | 모형1      |       | 수정모형     |       |
|-------------------------|----------|-------|----------|-------|
|                         | 비표준화계수   | 표준화계수 | 비표준화계수   | 표준화계수 |
| 연령 → 교내 참여활동 경험         | .007     | .024  | —        | —     |
| 연령 → 공동체 참여활동 경험        | -.008*   | -.038 | -.010*   | -.046 |
| 부모학력 → 교내 참여활동 경험       | .093***  | .187  | .090***  | .183  |
| 부모학력 → 공동체 참여활동 경험      | .052***  | .133  | .051***  | .132  |
| 연령 → 투표 참여의사            | .021***  | .067  | .021***  | .068  |
| 연령 → 정치활동 참여의사          | -.028*** | -.076 | -.028*** | -.075 |
| 부모학력 → 투표 참여의사          | .008     | .014  | —        | —     |
| 부모학력 → 정치활동 참여의사        | .000     | .000  | —        | —     |
| 교내 참여활동 경험 → 투표 참여의사    | .354***  | .317  | .342***  | .306  |
| 교내 참여활동 경험 → 정치활동 참여 의사 | .214***  | .160  | .209***  | .157  |
| 공동체 참여활동 경험 → 투표 참여의사   | -.034    | -.024 | —        | —     |
| 공동체 참여활동 경험 → 정치활동 참여의사 | .243***  | .144  | .251***  | .149  |

수정모형 :  $\chi^2 = 1291.219(df = 55)$ , CFI = .949, TLI = .915, RMSEA = .064

\*  $p < .05$ , \*\* $p < .01$ , \*\*\* $p < .001$

모형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를 제거한 수정모형을 통해 배경변인이 장래의 참여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연령은 투표 참여의사에 대해서는 정적인 인과적 영향을 보여주었지만, 정치활동 참여의사에 대해서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고교생 학령층 청소년들의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기본적인 정치행위인 투표에 대해서는 참여할 의사가 있지만 그 이상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의 학력은 투표, 정치활동 참여의사 모두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인 미치지 못하고, 교내/공동체 참여활동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제 7 장



## 결 론

1. 요약과 논의
2. 정책제언



# 제 7 장 결 론

## 1. 요약과 논의

본 연구의 조사결과를 일반 실태와 집단간 차이, 변인간 관계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 실태에서는 응답결과의 빈도분포를 개관하였고, 평균값 차이분석 결과를 토대로 응답결과에서 나타난 집단간 차이를 정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해 탐색한 관련 변인들의 인과적 관계를 제시하였다

### 1) 일반 실태 분석

#### 가. 시민적 자아인식

정치·사회문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5가지 조사항목 중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과반수의 청소년(65.8%)이 관심있다고 응답했을 뿐 지역·국가·국제적인 차원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가진 청소년은 4할 안팎에 머물렀다. 청소년들이 정치적인 문제보다는 사회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의 효능감을 내적인 정치적 효능감과 시민적 효능감의 두가지 측면에서 조사하였다. 내적인 정치적 효능감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과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자신이 정치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고(35.8%), 국가가 당면한 정치문제를 이해하고 있으며(32.1%), 또래에 비해 정치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28.3%)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3할 남짓에 불과하였다. 대다수의 청소년이 자신의 정치적 효능감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민적 자아효능감은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역할수행에 대한 자기확신을 의미하는데,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정치적 효능감보다는 긍정적인 자기평가를 하였다. 학급에서 정치문제에 대한 자기 의견 발표하기(82.6%), 학교변화를 위한 학생모임 만들기(85.8%) 등 대부분의 항목에 대하여 8할

이상의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 나. 시민적 가치인식과 태도

### • 민주주의와 시민역할

민주적 가치에 대한 청소년들의 지지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불공정한 법에 항의할 권리(95.2%),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권리(95.7%), 정치 지도자를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는 권리(93.2%) 등 예시한 모든 민주적 가치에 대하여 9할 안팎의 청소년들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국가안보에 위협이 있을 때 일시적인 언론·출판 통제(74.3%), 전화·이메일 체크(69.9%), 재판 없이 감옥에 가두는 일(49.1%) 등 시민권 유보에 대해서도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동의했는데, 이것은 남북분단이라는 한국의 특수한 정치적 상황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투표와 정당 가입 등 전통적인 시민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문항별로 응답결과가 상이하였다. 투표하기(92.2%)와 정치문제 보도내용 살펴보기(83.9%), 자국의 역사 공부하기(75.5%)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중요하다고 응답했지만, 정당 가입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4할에 못미쳤다. 인권 증진/환경보호 활동(82.4%, 85.9%), 평화적 항의 참여(84.8%) 등 사회운동 관련 시민역할에 대해서는 8할 이상이 중요한 것으로 평가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시민사회운동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사회적 평등관

양성 평등에 대한 청소년들의 지지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남녀의 동등한 권리(92.0%), 동등한 임금(92.0%), 공직 참여의 기회(94.3%)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긍정적인 반면, 여자의 정치 관여 금지(10.5%) 등 양성 차별 문항에 대해서는 소수의 청소년들만이 찬성 의견을 나타내었다.

국내에 거주하는 다른 민족 사람들의 평등한 권리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청소년이 대다수였다. 다른 민족을 존중하는 교육의 필요성(91.8%),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도 동등한 교육기회(89.9%), 취업기회(84.7%) 부여 등은 대부분의 청소년이 찬성하였다. 그러나 이민족 성원의 공직선거 출마에 대한 찬성응답률은 6할 수준에 머물러 정치적 참여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청소년이 상당수에 달하였다. 취업·결혼을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이민족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청소년이 관용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한국인과 동등한 권리(87.2%), 이주민 자녀의 교육 기회 부여(91.6%), 모국의 생활방식, 언어 유지(73.2%, 74.7%) 등 모든 항목에 대하여 7할 이상의 청소년들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 ● 사회제도·국가에 대한 태도

사회제도(social institutions)에 대한 청소년들의 신뢰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법원(51.1%)과 경찰(51.0%)을 신뢰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절반 남짓한 수준이고, 중앙·지방의 행정부처(30.5%, 31.7%), 정당(27.7%), 국회(28.3%)을 신뢰하는 청소년은 소수에 불과했다.

국가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문항별로 상이한 응답경향이 나타났다.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우리나라가 성취한 것에 대해 자부심(85.5%)을 느끼고, 한국은 살기 좋은 나라(71.3%)이며, 한국에서 살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75.9%), 한국의 정치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고(31.4%), 우리나라가 환경을 중요하게 여긴다(44.4%)고 응답한 청소년은 과반수에 못미쳤다. 청소년들은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지만, 정치나 환경보호 문제 등 특정 영역에 대해서는 많은 청소년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다. 시민적 참여와 행동의사

#### ● 정치·사회문제 소통

정치·사회문제에 대하여 부모님 또는 친구들과 대화(한달에 한 번 이상)하는 청소년은 전체의 절반 수준으로서 대화빈도에 있어서 부모님과 친구는 거의 동등한 수준이었다.

국내·외 소식을 알기 위해 정보매체를 이용하는 빈도를 조사한 결과, 인터넷의 활용도가 TV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다. 전통적으로 TV가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친근한 매체였음을 고려할 때, 정보화의 진전화 더불어 청소년들의 매체이용 패턴이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외 소식을 알기 위해 신문을 읽는 빈도는 TV/인터넷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여 청소년들의 문자매체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시민적 참여활동

지역사회내 다양한 시민단체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소수에 머물렀다. 자원봉사 단체의 활동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가장 많았는데(42.0%), 이것은 내신 반영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그밖에 캠페인활동 단체(25.0%), 자선모금 단체(22.7%), 환경운동 단체(22.2%) 등에 참여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2할 남짓한 수준이었다. 학교내에서의 시민적 참여활동 경험으로는 학급/학생회 선거에 투표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8할을 넘었지만, 학급 토론 참여(55.5%), 학교운영 의사결정 참여(44.7%), 학생회 토론 참여(34.6%) 등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참여활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많지 않았다.

청소년들의 시민적 참여활동과 관련한 학교교육 환경을 조사하였다. 먼저, 학생들이 힘을 모아 학교 내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함께 행동하면 학교에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86.3%),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84.1%), 학교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다(81.5%)고 응답하여 교내 참여활동에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학급 내의 토론 분위기에 대하여 청소년들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다른 친구들과 생각이 다르더라도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82.4%), 선생님이 학생들의 의사결정을 돕고(79.5%), 의견 표현을 격려한다(79.0%)는 등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소년이 대다수였다. 그러나 학생들이 공개적으로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소수에 불과하여 (18.9%), 교사의 권위와 관련하여 학급의 토론 개방성에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 내에서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학급규칙에 학생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는 응답이 과반수에 달했지만(58.2%), 학교수업과 관련된 사항(수업방식, 수업내용, 교재, 시간표)과 교칙에 학생의견이 반영되고 있다는 응답률은 5할 또는 그 이하로서 학교 운영에 대한 청소년들의 영향력은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청소년이 선생님들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고(79.8%), 학생들과 잘 지내며(77.5%), 공정하게 대하고(75.2%), 학생 의견을 경청(71.0%)한다고 응답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선생님들이 학생복지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비율은 절반을 넘지 않았다(47.1%).

#### • 장래의 행동의사

장래에 합법적인 형태의 항의행동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평화적인 시위나 행진에 참여(51.2%), 특정 상품 사지 않기(48.3%)의 긍정응답률이 절반 수준이었고, 기타 행동(청원서 서명받기, 신문사에 편지보내기, 공무원 접촉하기 등)에 참여의사를 밝힌 청소년은 3할 안팎의 낮은 수준이었다. 비합법적인 항의행동(공공건물 점거, 항의집회, 항의표어 쓰기)의 응답률은 모두 15% 안팎으로 합법적 행동보다 낮게 나타나 과격한 형태의 항의행동에 대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앞으로 투표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지만(중앙/지방선거 모두 8할 수준), 사전에 후보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의사가 있는 청소년은 6할 남짓한 수준이었다. 앞으로 투표 이외의 공식적인 정치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정당 지원활동(24.7%), 노조 가입(21.5%)의 응답률이 2할 남짓하였고, 정당에 가입하겠다는 청소년은 16.4%에 머물렀다.

정치·사회문제에 대한 의견 발표(48.2%), 정치 관련 온라인토론 참여(33.2%), 신문사 투고(22.7%) 등 비공식적인 정치활동에 대해서도 참여의사를 밝힌 청소년은 과반에 못미치는 수준이었다.

## 2) 집단간 차이 분석

조사결과 분석에서 나타난 배경변인별 하위집단의 차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분석에 활용된 배경변인은 인구학적 변인(연령, 성별, 지역), 학교관련 변인(교급, 학업성적), 가족관련 변인(부모의 학력, 가정의 경제수준)의 세가지 유형이었다.

인구학적 변인에서 연령별 응답경향은 주목할만한 특징을 나타내었다. 청소년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시민적 지식은 증가했지만 정치적·시민적 효능감에는 변화가 없었고, 다른 민족/이주민의 평등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사회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국가에 대한 공지와 자부심도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지식의 영역을 제외한 시민성·시민역량의 측면에서 가령(ageing)은 일관되게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다음의 두가지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시민적 지식은 청소년들에게 시민사회의 구성원리와 운영 메카니즘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시민적·정치적 효능감을 증진시킬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국가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한 준거기준을 상향시킴으로써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청소년을 둘러싼 열악한 교육·생활 환경의 영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연령과 다른 변인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특히 학령(중/고)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등학교 진학에 따르는 급격한 생활환경의 변화, 입시준비로 인한 과도한 학업부담, 여가시간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회적·제도적 권위와 현실에 대하여 냉소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도 있는 것이다.

성별 응답결과에서는 전통적인 성역할관이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의연히 잔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녀를 불문하고 대부분의 청소년이 여성의 정치참여를 지지하고(89.5%), 남자 못지 않게 여자도 정치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지만(73.1%), 정치·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정치적 효능감, 장래의 정치활동 참여의사 등의 측면에서 남녀간의 차이는 매우 현격한 수준이었다. 양성평등관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념적인 차원에서는 보편화되었지만, 일상적인 관심과 태도, 행동의 차원에서는 아직 정착되지 않은 단계임을 알 수 있다.

학교 관련 변인에서는 전문고 학생과 비전문고(인문고, 중학생) 학생간의 차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조사영역에서 두 집단간의 상이한 응답경향이 정형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문고 학생들의 시민적 지식과 정치적·시민적 효능감은 세 집단 중 가장 낮았고, 민주적 가치, 시민적 역할, 사회평등 의식에 대해서도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했으며, 학교 안팎에서의 시민적 참여의 경험도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비합법적 항의행동 의사에 있어서만 전문고 학생들의 긍정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전문고 학생들은 같은 고교생이지만 학력/학벌 중심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인문고 학생들과는 판이한 환경에 처해 있다. 청소년기 시민성·시민역량에 미치는 가령(ageing)의 부정적인 효과는 인문고 학생들의 과도한 학업 부담과 아울러 실업고 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족관련 배경변인의 응답결과에서는 우리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계층화 현상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부모의 학력은 시민적 태도를 제외한 모든 조사영역에서, 가정의 경제수준은 시민적 가치인식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일관되게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시민적 지식, 정치적·시민적 효능감, 사회평등의식, 시민적 참여, 장래의 행동의사 등의 측면에서 부모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집단이 고졸 이하보다, 경제적으로 상위집단이 중·하위집단보다 높은 수준의 척도점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학력과 경제수준은 별개의 사회적 범주이지만 현실에서는 중첩되어 나타나며 이것이 곧 계층화를 촉진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가정의 청소년들일수록 주류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시민성과 시민역량의 계발이 필요하지만, 교육과 활동의 기회구조는 상위계층에게 유리하다. 모든 청소년들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음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3) 변인간 관계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해 검증한 시민역량 관련 변인간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민적 지식과 정치적 효능감, 시민적 자아효능감은 긴밀한 상호 영향관계에 있다. 한편, 부모의 학력은 이들 세 변인에 대하여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청소년의 정치적·시민적 효능감은 가정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정치·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은 시민적 지식과 정치적 효능감, 시민적 자아효능감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치·사회문제에 관심이 높은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높은 수준의 정치적·시민적 효능감을 나타내었다.

정보매체의 활용도는 시민적 지식과 정치적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국내·외 정보를 얻기 위해 정보매체를 자주 활용하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높은 수준의 시민적 지식과 정치적 효능감을 나타내었다.

사회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청소년들의 국가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제도에 대하여 높은 신뢰감을 가진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국가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시민적 지식은 청소년의 양성 평등관, 민족간 평등관, 이주민 평등관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민적 지식의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높은 사회적 평등의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적 지식은 청소년의 민주적 가치 지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민적 지식의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민주적 가치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시민성과 관련된 학교의 교육환경은 청소년들의 교내 참여활동 경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급의 토론 분위기를 개방적으로 느끼고, 참여활동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학교 내의 다양한 시민적 활동에 보다 많이 참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적 지식과 정치적 효능감은 청소년들의 학교 안팎에서의 시민적 참여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민적 지식은 교내 참여활동에 대하여, 내적인 정치적 효능감은 교내 참여활동과 공동체 참여활동 모두에 대하여 인과적 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시민적 참여활동은 장래의 투표의사와 정치활동 참여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시민적 참여활동을 많이 하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투표와 정치적 활동 참여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정책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시민성과 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 1) 학생 권익기구로서의 학생자치활동 기능 강화

청소년들이 일과시간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학생들의 참여를 통한 학교의 민주적 운영은 시민교육의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시민사회의 원리와 운영 메커니즘에 관한 지식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통해 교과수업에서는 얻을 수 없는 시민적·정치적 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

그러나 현행 학교의 현실을 보면 학생들의 자치활동 기회와 여건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2012년 각급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생회실이 별도로 있다는 응답이 31%,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한다는 응답이 48%, 학생회가 사업예산 청구권을 갖는다는 응답은 31%에 머물렀다(김성기, 2012). 본 연구의 조사에서 학생회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청소년이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현행 학생회 형식적인 운영에 비한 비판적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의 정보화·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학생들의 참여의지와 욕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학교조직은 이와 같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정제영, 2004). 시대 변화에 따라 통제·규제 위주의 학생지도에서 벗어나 학생들을 학부모, 교사와 동등한 학교 운영의 주체로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학생자치활동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그 운영방식에 대한 체계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대표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4)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생활 관련 안전 심의시 학생대표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되어 있다. 강제조항이 아니므로 구속력이 없고 따라서 학생들의 참여 여부는 학교장의 재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학생은 학교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일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생활 관련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일이다. 신분적 특성상 법정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면, 학생대표가 회의를 참관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하며, 이것은 학교운영의

공동주체로서의 "합법적인 권리행사"(김성기, 2012, p. 111)로 볼 수 있다.

둘째, 교칙 제·개정에 학생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그 범위도 확대되어야 한다. 교칙 개정의 학생참여는 현행 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도 규정된 사항이지만, 주로 대도시에서 시행되고 있고 교급이 올라갈수록 참여율이 저조하다(정제영, 2012, p. 31). 또한 교칙 제·개정시 공개적인 설명회나 토론,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는 응답은 초·중·고교생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정제영, 2012, p. 33).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학생들의 참여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며, 학생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법령에 교칙 제·개정시 교사와 학부모 및 학생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과정과 절차를 명시하는 한편, 성공적인 운영사례를 정리하여 매뉴얼의 형태로 각급학교에 보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학생들의 학교운영 참여는 먼저 학급 차원에서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급의 토론 분위기가 개방적일수록 청소년들의 시민적 참여활동 경험이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학생들이 공개적으로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2할에 못미치는 것은 현행 학급 운영의 경직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ICCS의 2009년 조사에서도 한국은 학급내 토론 개방성이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Schulz, et al., 2010, p. 174), 학급이 가정과 더불어 청소년 일상생활의 가장 중요한 공간임을 고려할 때 개방적인 학급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학급회의가 HR 등의 명칭으로 교과과정에 명시되어 있지만, 형식적인 운영에 머물러 있고,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일반 교과수업으로 대체되기도 하는 실정이다. 학급회의가 학교에서 교과시간 중에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임을 고려할 때, 학급회의의 시수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청소년들의 시민성 함양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운영모델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2) 청소년참여의 제도화를 위한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

한국사회에서 청소년 참여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98년의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이 계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동 계획은 청소년을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서가 아니라 "오늘의 주인공"으로 간주하여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청소년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새로운 정책목표를 제시하였다. 이후 청소년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이 마련되었는데,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이하 "특별회의") 등을 그 사례로 들 수

있다. 그러나 특별회의를 제외한 두 기구는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청소년참여위원회) 또는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운영위원회)의 정책·사업을 모니터링하거나 자문하는 등의 제한된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어, 청소년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정책과제를 발굴·제안하고 정책과정에 반영하는 등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참여"로는 볼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특별회의는 2004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5년 청소년기본법에 근거규정이 마련되면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전국의 청소년대표로 구성되며, 이들은 각 지역별 회의와 전국 단위의 전체 회의를 통해 정책의제와 추진과제를 선정한 뒤 정부부처에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정책과정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어 제도로써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몇가지 운영상의 한계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낮은 인지도로 인하여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일반 국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청소년문제와 관련된 주요현안을 의제로 설정하여 사회적 이슈화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특별회의가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명칭 변경과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명칭을 "청소년의회"로 변경하고 참여 인원, 조직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행 "특별회의"라는 명칭은 특별한 정책사안과 관련된 제한된 규모의 한시적 기구라는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의견을 대표하는 전국 단위의 상설 대의기구로서의 위상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일부 청소년단체 등에서 "청소년의회" "청소년회의" 등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를 두고 있는데, 참여 인원이 소수이고 예산 부족 등으로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들 조직·기구의 운영진 및 구성원들과 협의하여 특별회의와의 통·폐합을 통해 전국 단위의 대규모 조직으로 확대하고 그 운영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명칭의 변경과 아울러 국회와 행정부처가 분담하여 운영을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는 특별회의 운영의 전 과정을 행정부처(여성가족부)가 전담하고 있어, 의제나 정책과제의 선정이 주로 행정적인 사항에 편중되어 청소년과 관련한 입법과정의 참여는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국회가 공동 지원기관으로 참여하게 되면, 청소년 관련 법령 제·개정시 의원이나 행정부처에 대하여 청소년의회(특별회의)가 청소년 대표기구로서 참고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능을 확대·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청소년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하여 정부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의회(특별회의)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운영의 자율성,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특별회의가 10년에 가까운 오랜 기간 운영되어 왔지만,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낮고 존재감이 미약한 것은 청소년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의 논의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기능을 등한시해 왔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일제고사나 야간자율학습 등 교육현장의 문제에서 청소년자살, 청소년대상 성범죄 등 사회문제에 이르기까지 청소년들은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과정에서 배제되어 왔다. 특별회의가 "청소년의회"로의 명칭 변경을 통해 청소년 대의기구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이들 사안에 대한 활발한 내부 논의를 통해 합일된 의견을 도출해 내고 마스크 등 활용하여 이를 공론화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청소년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창구로서 청소년의회 포털 사이트를 구축·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회가 전체 청소년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구로서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논의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매체로서는 현재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의 불가결한 일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는 인터넷이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의회의 주요 논의안건이나 결정사항, 회의내용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온라인 게시판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청소년의회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확산시키는 한편, 청소년 대의기구로서의 대표성을 강화해 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청소년참여와 관련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청소년참여 포털"; <http://www.withyouth.go.kr>)가 운영되고 있지만, 콘텐츠의 부족, 관리자 중심의 메뉴 구성, 게시판 및 의견조사 기능의 미비 등으로 그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청소년의회 내에 포털 사이트 운영을 위한 별도의 분과를 두고 수요자 중심으로 사이트를 전면 개편하여 운영을 전담케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3) 시민교육의 장으로서의 학생자치법정의 활용

학생자치법정은 법무부에서 미국의 청소년법정(teen court)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고안한 법교육 프로그램이다(이대성, 2010). 2006년 5개 고등학교의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점차 확산되어 2012년에는 시범학교가 300여개교로 증가하였으며, 중학교와 초등학교로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주로 경미한 교칙을 위반한 학생을 대상으로 동료학생들이 조사·변호·판결을 맡아 진행함으로써 학교내의 징계 처리과정의 일부분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의 운영성과에 관한 연구결과를 보면, 학생들에게 교칙 준수 의지, 교칙에 대한 우호적 태도와 신뢰도를 함양하고,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주선,

2008; 박성혁, 곽한영, 2007; 한아름, 2009). 그러나 이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 외에 운영상의 여러가지 문제점도 발견되고 있다. 학생자치법정 운영사례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법정에 참여한 학생들의 비협조적인 태도, 지도교사의 전문성 부족, 재판과정에서의 진지한 논박과정의 결여, 학교교칙과의 연계성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이대성, 2010, pp. 91-94).

학생자치법정은 사회질서 유지의 근간이 되는 법률의 중요성과 그 작동원리를 학교 현장에서 체험을 통해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학생자치법정이 청소년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학생자치법정의 운영목적은 단순한 법의식 교육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청소년들의 시민성 함양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따라서 사회교과의 일환으로 부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행사가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를 포함한 학교공동체 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행사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즉, 월 1회, 또는 분기별 1회 등 개최일자를 정례화하고, 사전에 안전내용을 고지하고 신청을 받아 재판과정에 참여할 역할을 부여하는 한편, 재판 담당자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참석자 모두에게 자유로운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학생자치법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판결내용이 실제 학생들의 권익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경미한 교칙 위반자"들을 대상으로 한 "긍정적 처벌"이라는 일관된 패턴으로 재판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획일적인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두발·복장 자율화 문제 등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사안을 교사,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여 재판의 형식으로 토론하고 그 결과를 학교 운영에 반영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사들의 과다한 업무부담, 전문성 부족 등이 학생자치법정 운영의 주요한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개별 학교에 한정된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내 인적 자원 및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지역 단위별로 학생자치법정 특성화 청소년시설을 지정하고 법률 관련 지식이 풍부한 인력을 지도자로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전담인력의 확보가 어려울 경우 변호사 등 법률가나 로스쿨 재학생 등의 자원봉사인력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내 학교들이 이와 같은 청소년시설과 전문인력을 공동으로 활용할 경우 학생자치법정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 부 록



## [ 부 록 ]

## 부록 1. 조사표

문 1] 방과 후에 학교 밖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십니까?

|                         | 전혀<br>하지 않음 | 30분<br>미만 | 30~60분<br>정도 | 1~2시간<br>정도 | 2시간<br>이상 |
|-------------------------|-------------|-----------|--------------|-------------|-----------|
| 1) TV나 비디오, DVD 보기      | 1           | 2         | 3            | 4           | 5         |
| 2) 숙제나 학교공부 하기          | 1           | 2         | 3            | 4           | 5         |
| 3) 컴퓨터/인터넷 사용하기         | 1           | 2         | 3            | 4           | 5         |
| 4) 독서하기                 | 1           | 2         | 3            | 4           | 5         |
| 5) 친구와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잡담하기 | 1           | 2         | 3            | 4           | 5         |
| 6) 친구와 만나서 놀기           | 1           | 2         | 3            | 4           | 5         |

문 2] 방과 후에 학교 밖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                                                        | 전혀/거의<br>하지 않음 | 한달에<br>한번이상 | 일주일에<br>한번이상 | 1~2시간<br>정도 |
|--------------------------------------------------------|----------------|-------------|--------------|-------------|
| 1) 정치·사회문제에 관해 부모님과 이야기한다                              | 1              | 2           | 3            | 4           |
| 2) 국내·외 소식을 알기 위해 TV를 시청한다                             | 1              | 2           | 3            | 4           |
| 3) 국내·외 소식을 알기 위해 신문을 읽는다                              | 1              | 2           | 3            | 4           |
| 4) 정치·사회문제에 관해 친구들과 대화한다                               | 1              | 2           | 3            | 4           |
| 5) 국내·외 소식을 알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다                            | 1              | 2           | 3            | 4           |
| 6) 외국에서 일어난 일들에 관해 부모님과 대화한다                           | 1              | 2           | 3            | 4           |
| 7) 외국에서 일어난 일들에 관해 친구들과 이야기한다                          | 1              | 2           | 3            | 4           |
| 8) 청소년단체 또는 클럽활동에 참여한다<br>(보이스카웃/걸스카웃, YMCA, 컴퓨터동호회 등) | 1              | 2           | 3            | 4           |

문 3] 부모님은 정치·사회적인 문제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십니까? (부모님이 안계시면 부모님 역할을 대신하는 할아버지/할머니, 친척 등 보호자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                   | 매우<br>관심 있다 | 대체로<br>관심 있다 | 별로<br>관심 없다 | 전혀<br>관심 없다 |
|-------------------|-------------|--------------|-------------|-------------|
| 1) 아버지(또는 남성 보호자) | 1           | 2            | 3           | 4           |
| 2) 어머니(또는 여성 보호자) | 1           | 2            | 3           | 4           |

문 4] 학교 밖에서 다음과 같은 단체(모임, 클럽, 동호회 포함)의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                 | 최근 1년동안<br>참여한 적이 있다 | 1년보다 더 이전에<br>참여한 적이 있다 | 참여한 적이<br>없다 |
|-----------------|----------------------|-------------------------|--------------|
| 1) 환경운동 단체      | 1                    | 2                       | 3            |
| 2) 인권운동 단체      | 1                    | 2                       | 3            |
| 3) 자원봉사 단체      | 1                    | 2                       | 3            |
| 4) 자선모금 단체      | 1                    | 2                       | 3            |
| 5) 종교 단체        | 1                    | 2                       | 3            |
| 6) 청소년 캠페인활동 단체 | 1                    | 2                       | 3            |

문 5]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지금까지 학교 내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                                             | 최근 1년동안<br>참여한 적이 있다 | 1년보다 더 이전에<br>참여한 적이 있다 | 참여한 적이<br>없다 |
|---------------------------------------------|----------------------|-------------------------|--------------|
| 1) 학교의 방과 후 예·체능(음악, 연극, 운동 등)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 | 1                    | 2                       | 3            |
| 2) 학급 토론에 적극적 참여                            | 1                    | 2                       | 3            |
| 3) 학급 또는 학생회 임원 선거에서 투표                     | 1                    | 2                       | 3            |
| 4) 학교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                        | 1                    | 2                       | 3            |
| 5) 학생회 토론에 참여                               | 1                    | 2                       | 3            |
| 6) 학급 또는 학생회 임원으로 출마                        | 1                    | 2                       | 3            |

문 6] 수업시간에 정치·사회적인 문제를 다룰 때 다음과 같은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                                            | 전혀<br>없다 | 가끔<br>있다 | 종종<br>있다 | 매우<br>자주 있다 |
|--------------------------------------------|----------|----------|----------|-------------|
| 1) 학생들이 공개적으로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 1        | 2        | 3        | 4           |
| 2)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결정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격려한다       | 1        | 2        | 3        | 4           |
| 3)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격려한다       | 1        | 2        | 3        | 4           |
| 4) 학생들이 최근의 정치문제에 관해 같은 반 친구들과 토론한다        | 1        | 2        | 3        | 4           |
| 5) 학생들은 다른 대부분의 친구들과 의견이 다를지라도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 | 1        | 2        | 3        | 4           |
| 6) 선생님들은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토론해 보도록 학생들에게 권장한다    | 1        | 2        | 3        | 4           |
| 7) 선생님들은 정치·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 준다     | 1        | 2        | 3        | 4           |

문 7]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할 때 학생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됩니까?

|                        | 전혀<br>없다 | 가끔<br>있다 | 종종<br>있다 | 매우<br>자주 있다 |
|------------------------|----------|----------|----------|-------------|
| 1)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         | 1        | 2        | 3        | 4           |
| 2) 수업에서 배울 내용          | 1        | 2        | 3        | 4           |
| 3) 수업에 활용할 교재          | 1        | 2        | 3        | 4           |
| 4) 수업시간표               | 1        | 2        | 3        | 4           |
| 5) 학급의 규칙              | 1        | 2        | 3        | 4           |
| 6) 학교의 교칙              | 1        | 2        | 3        | 4           |
| 7) 방과후 활동(활동 내용, 시간 등) | 1        | 2        | 3        | 4           |

문 8] 다음에 제시된 설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 매우<br>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br>않다 | 전혀<br>그렇지 않다 |
|--------------------------------------|-----------|-----|-----------|--------------|
| 1)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나를 공정하게 대해 주신다         | 1         | 2   | 3         | 4            |
| 2) 학생들은 대부분의 선생님들과 잘 지낸다             | 1         | 2   | 3         | 4            |
| 3)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복지에 관심이 있다        | 1         | 2   | 3         | 4            |
| 4) 나는 우리 학교에서 아웃사이더인 것 같다            | 1         | 2   | 3         | 4            |
| 5)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내가 말하는 것을 경청해 주신다      | 1         | 2   | 3         | 4            |
| 6) 내가 별도로 도움을 요청하면 선생님들은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 1         | 2   | 3         | 4            |
| 7) 다른 학생들이 나를 괴롭힐까봐 두렵다              | 1         | 2   | 3         | 4            |

문 9]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에 관한 다음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 매우<br>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br>않다 | 전혀<br>그렇지 않다 |
|------------------------------------------------------|-----------|-----|-----------|--------------|
| 1) 학교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는 학교를 더 좋게 만든다                   | 1         | 2   | 3         | 4            |
| 2) 학생들이 힘을 모으면 학교에 여러가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 1         | 2   | 3         | 4            |
| 3)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은 학교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1         | 2   | 3         | 4            |
| 4) 모든 학교는 학생회를 설치해야 한다                               | 1         | 2   | 3         | 4            |
| 5) 학생들이 혼자보다는 함께 행동한다면 학교의 여러가지 일들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1         | 2   | 3         | 4            |

문 10] 사회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다음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매우<br>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br>않다 | 전혀<br>그렇지 않다 |
|-------------------------------------------------------------------|-----------|-----|-----------|--------------|
| 1)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 1         | 2   | 3         | 4            |
| 2) 정치지도자들이 자신의 가족들을 정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                       | 1         | 2   | 3         | 4            |
| 3) 기업이나 정부가 국가의 모든 신문사를 소유해서는 안된다                                 | 1         | 2   | 3         | 4            |
| 4) 경찰은 국가안전을 위협할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재판 없이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 1         | 2   | 3         | 4            |
| 5) 모든 국민들의 사회적·정치적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                                   | 1         | 2   | 3         | 4            |
| 6) 국민들은 언제나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자유를 누려야 한다                         | 1         | 2   | 3         | 4            |
| 7) 국가안전 담당기관이 국가안전을 위협할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편지나 전화, 이메일을 체크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 1         | 2   | 3         | 4            |
| 8) 모든 시민들은 정치지도자를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 1         | 2   | 3         | 4            |
| 9) 국민들은 불공정한 법에 대하여 항의할 수 있어야 한다                                  | 1         | 2   | 3         | 4            |
| 10) 정치적 항의는 반드시 비폭력적이어야 한다                                        | 1         | 2   | 3         | 4            |
| 11)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간의 소득 차이는 적어야 한다                                   | 1         | 2   | 3         | 4            |
| 12) 국가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있을 때 정부는 언론과 출판 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 1         | 2   | 3         | 4            |

문 11]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                          | 매우<br>관심 있다 | 대체로<br>관심 있다 | 별로<br>관심 없다 | 전혀<br>관심 없다 |
|--------------------------|-------------|--------------|-------------|-------------|
| 1) 지역사회(시/군)의 정치와 관련된 문제 | 1           | 2            | 3           | 4           |
| 2) 국가 차원의 정치적인 문제        | 1           | 2            | 3           | 4           |
| 3)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문제         | 1           | 2            | 3           | 4           |
| 4) 다른나라 내부의 정치적인 문제      | 1           | 2            | 3           | 4           |
| 5) 국제적인 차원의 정치적인 문제      | 1           | 2            | 3           | 4           |
| 6) 환경보호 문제               | 1           | 2            | 3           | 4           |

문 12]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행동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매우<br>중요하다 | 대체로<br>중요하다 | 별로<br>중요하지<br>않다 | 전혀<br>중요하지<br>않다 |
|--------------------------------------------|------------|-------------|------------------|------------------|
| 1) 모든 선거에서 투표하기                            | 1          | 2           | 3                | 4                |
| 2) 정당에 가입하기                                | 1          | 2           | 3                | 4                |
| 3) 자국의 역사에 대해 공부하기                         | 1          | 2           | 3                | 4                |
| 4) 정치문제에 대한 신문, TV, 인터넷 등의 보도내용을<br>잘 살펴보기 | 1          | 2           | 3                | 4                |
| 5) 정부대표(대통령, 도지사, 시장/군수 등)들을 존중하기          | 1          | 2           | 3                | 4                |
| 6) 정치문제에 관한 토론에 참여하기                       | 1          | 2           | 3                | 4                |
| 7) 불공정한 법에 대한 평화적인 항의에 참여하기                | 1          | 2           | 3                | 4                |
| 8)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여러 활동에 참여하기                | 1          | 2           | 3                | 4                |
| 9)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기                      | 1          | 2           | 3                | 4                |
| 10)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에 참여하기                      | 1          | 2           | 3                | 4                |
| 11)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기                    | 1          | 2           | 3                | 4                |
| 12) 항상 법을 준수하기                             | 1          | 2           | 3                | 4                |

문 13] 정치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매우<br>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br>않다 | 전혀<br>그렇지<br>않다 |
|------------------------------------------|-----------|-----|-----------|-----------------|
| 1) 나는 또래 친구들에 비해 정치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         | 1         | 2   | 3         | 4               |
| 2) 정치문제에 관한 토론이 벌어지면, 나는 항상 참여한다         | 1         | 2   | 3         | 4               |
| 3) 나는 대부분의 정치문제들을 잘 이해할 수 있다             | 1         | 2   | 3         | 4               |
| 4) 나는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정치적 의견을<br>가지고 있다 | 1         | 2   | 3         | 4               |
| 5) 성인이 되면, 아마도 나는 정치에 참여할 것이다            | 1         | 2   | 3         | 4               |
| 6) 나는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정치문제들을 잘<br>이해하고 있다  | 1         | 2   | 3         | 4               |

문 14] 남자와 여자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다음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매우<br>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br>않다 | 전혀<br>그렇지 않다 |
|-----------------------------------------|-----------|-----|-----------|--------------|
| 1) 남자와 여자는 정부의 일에 참여하는 데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 1         | 2   | 3         | 4            |
| 2)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 1         | 2   | 3         | 4            |
| 3) 여자는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 1         | 2   | 3         | 4            |
| 4) 일자리가 부족하면 여자보다 남자에게 취업의 우선권을 줘야 한다   | 1         | 2   | 3         | 4            |
| 5) 같은 일을 하면 남녀 구분 없이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     | 1         | 2   | 3         | 4            |
| 6) 남자는 여자보다 정치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더 많이 갖고 있다     | 1         | 2   | 3         | 4            |
| 7)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자녀를 기르는 것이다           | 1         | 2   | 3         | 4            |

문 15]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다른 민족들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매우<br>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br>않다 | 전혀<br>그렇지 않다 |
|--------------------------------------------------------|-----------|-----|-----------|--------------|
| 1)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한국인과 동등한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       | 1         | 2   | 3         | 4            |
| 2)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한국인과 동등한 취업기회를 가져야 한다       | 1         | 2   | 3         | 4            |
| 3) 학교는 학생들이 다른 민족 사람들을 존중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 1         | 2   | 3         | 4            |
| 4)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다른 민족 사람들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 1         | 2   | 3         | 4            |
| 5)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다른 민족의 사람들에게도 한국인과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 1         | 2   | 3         | 4            |

문 16]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 출신 이주민에 관한 다음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매우<br>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br>않다 | 전혀<br>그렇지 않다 |
|--------------------------------------------------|-----------|-----|-----------|--------------|
| 1) 이주민들이 자기 모국의 언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br>해야 한다        | 1         | 2   | 3         | 4            |
| 2) 이주민의 자녀들도 한국 아이들과 동일한 교육기회를<br>가져야 한다         | 1         | 2   | 3         | 4            |
| 3) 오랜 기간 한국에 거주한 이주민들에게는 선거에 투표<br>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1         | 2   | 3         | 4            |
| 4) 이주민들이 자기 나라의 관습과 생활방식을 유지할 수<br>있도록 해야 한다     | 1         | 2   | 3         | 4            |
| 5) 이주민들도 한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br>해야 한다          | 1         | 2   | 3         | 4            |
| 6) 일자리가 부족할 때는 외국 출신 이주민의 입국을<br>규제해야 한다         | 1         | 2   | 3         | 4            |

문 17] 다음과 같은 기관이나 조직, 사람들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                            | 매우<br>신뢰한다 | 대체로<br>신뢰한다 | 별로<br>신뢰하지<br>않다 | 전혀<br>신뢰하지<br>않다 |
|----------------------------|------------|-------------|------------------|------------------|
| 1) 중앙 정부와 행정부처 (대통령, 장관 등) | 1          | 2           | 3                | 4                |
| 2) 지방 정부와 행정조직 (시장, 군수 등)  | 1          | 2           | 3                | 4                |
| 3) 법원                      | 1          | 2           | 3                | 4                |
| 4) 경찰                      | 1          | 2           | 3                | 4                |
| 5) 정당                      | 1          | 2           | 3                | 4                |
| 6) 국회                      | 1          | 2           | 3                | 4                |
| 7) 미디어 (TV, 신문, 라디오 등)     | 1          | 2           | 3                | 4                |
| 8) 군대                      | 1          | 2           | 3                | 4                |
| 9) 학교                      | 1          | 2           | 3                | 4                |
| 10) 국제연합(UN)               | 1          | 2           | 3                | 4                |
| 11) 일반 국민들                 | 1          | 2           | 3                | 4                |

문 18] 우리나라에 관한 다음의 설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매우<br>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br>않다 | 전혀<br>그렇지 않다 |
|--------------------------------|-----------|-----|-----------|--------------|
| 1) 태극기는 나에게 소중하다               | 1         | 2   | 3         | 4            |
| 2) 우리나라의 정치제도는 잘 운영되고 있다       | 1         | 2   | 3         | 4            |
| 3) 나는 우리나라를 매우 존경한다            | 1         | 2   | 3         | 4            |
| 4) 우리나라가 성취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 1         | 2   | 3         | 4            |
| 5) 나는 다른 나라로 이민가서 살고 싶다        | 1         | 2   | 3         | 4            |
| 6) 나는 한국에서 살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다      | 1         | 2   | 3         | 4            |
| 7) 우리나라는 환경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 1         | 2   | 3         | 4            |
| 8) 대체로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살기 좋은 나라이다  | 1         | 2   | 3         | 4            |

문 19] 우리나라의 여러 정당 중에서 자신이 지지하고 있는 정당이 있습니까?

1. 있다                   ⇒ 「문 20」으로 이동
2. 없다                   ⇒ 「문 21」로 이동

문 20] 만약 지지하는 정당이 있다면, 그 정당을 어느 정도 지지하십니까?

1. 많이 지지한다
2. 어느 정도 지지한다
3. 약간 지지한다

문 21] 다음과 같은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매우<br>바람직<br>하다 | 바람직<br>하다 | 바람직<br>하지않다 | 전혀<br>바람직<br>하지 않다 |
|----------------------------------------|-----------------|-----------|-------------|--------------------|
| 1) 국가간 분쟁에 대한 신문기사 토론하기                | 1               | 2         | 3           | 4                  |
| 2) 정치적 또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      | 1               | 2         | 3           | 4                  |
| 3) 학교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기                    | 1               | 2         | 3           | 4                  |
| 4) 학교의 변화를 위한 학생들의 모임을 만들기             | 1               | 2         | 3           | 4                  |
| 5) 논쟁 중인 주제에 대한 TV토론 지켜보기              | 1               | 2         | 3           | 4                  |
| 6) 현안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여 신문사에 보내기     | 1               | 2         | 3           | 4                  |
| 7) 학급에서 사회적 또는 정치적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기 | 1               | 2         | 3           | 4                  |

문 22] 잘못된 일에 대해 시민들이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장래에 자신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 확실히<br>할 것이다 | 아마도<br>할 것이다 | 아마도<br>하지 않을<br>것이다 | 확실히<br>하지 않을<br>것이다 |
|--------------------------------|--------------|--------------|---------------------|---------------------|
| 1) 신문사에 편지 보내기                 | 1            | 2            | 3                   | 4                   |
| 2) 자기 주장을 담은 배지를 달거나 T셔츠 입기    | 1            | 2            | 3                   | 4                   |
| 3) 투표로 뽑힌 공무원(국회의원, 시장 등) 접촉하기 | 1            | 2            | 3                   | 4                   |
| 4) 평화적인 시위나 행진에 참여하기           | 1            | 2            | 3                   | 4                   |
| 5) 청원서에 다른 사람 서명받기             | 1            | 2            | 3                   | 4                   |
| 6) 특정 상품을 사지 않기                | 1            | 2            | 3                   | 4                   |
| 7) 스프레이로 벽에 항의 표어 쓰기           | 1            | 2            | 3                   | 4                   |
| 8) 도로를 막고 항의집회 하기              | 1            | 2            | 3                   | 4                   |
| 9) 공공건물을 점거하고 항의집회 하기          | 1            | 2            | 3                   | 4                   |

문 23] 다음은 성인들이 할 수 있는 정치적인 행동입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 자신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 확실히<br>할 것이다 | 아마도<br>할 것이다 | 아마도<br>하지 않을<br>것이다 | 확실히<br>하지 않을<br>것이다 |
|----------------------------------------------|--------------|--------------|---------------------|---------------------|
| 1) 지역 단위 선거(시장/도지사/군수, 지방의회 의원 선거 등)에 투표하기   | 1            | 2            | 3                   | 4                   |
| 2) 국가 차원의 선거(대통령/국회의원 선거 등)에 투표하기            | 1            | 2            | 3                   | 4                   |
| 3) 투표하기 전에 후보자들에 관한 정보 수집하기                  | 1            | 2            | 3                   | 4                   |
| 4) 선거운동 기간 동안 후보자나 정당을 지원하는 활동하기             | 1            | 2            | 3                   | 4                   |
| 5) 정당에 가입하기                                  | 1            | 2            | 3                   | 4                   |
| 6)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 1            | 2            | 3                   | 4                   |
| 7) 지역 단위 선거(시장/도지사/군수, 지방의회 의원 등)에 후보자로 출마하기 | 1            | 2            | 3                   | 4                   |

문 24] 성인이 되기 이전에 자신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                                              | 확실히<br>할 것이다 | 아마도<br>할 것이다 | 아마도<br>하지 않을<br>것이다 | 확실히<br>하지 않을<br>것이다 |
|----------------------------------------------|--------------|--------------|---------------------|---------------------|
| 1) 지역사회 주민들을 돕는 봉사활동 하기                      | 1            | 2            | 3                   | 4                   |
| 2) 정치·사회적 문제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들과<br>에게 이야기하기 | 1            | 2            | 3                   | 4                   |
| 3) 정치·사회적 문제에 관하여 신문에 투고하기                   | 1            | 2            | 3                   | 4                   |
| 4) 정치·사회적 문제에 관한 온라인 토론에 참여하기                | 1            | 2            | 3                   | 4                   |
| 5) 정치·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단체/조직에 가입하기              | 1            | 2            | 3                   | 4                   |

※ 다음 문항들(문 25~문 29)은 사회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답을 하나만 골라서 응답해 주십시오.

문 25] 노동조합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1. 상품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2. 공장의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것
3. 노동자의 근무조건과 임금을 향상시키는 것
4. 공정한 조세제도를 만드는 것

문 26] 민주주의 국가에서 입법부(국회)의 주요 임무는 무엇입니까?

1. 범죄자들을 체포함으로써 법을 집행하는 것
2. 법에 대해 논의하고 투표하는 것
3. 사법부를 감독하는 것
4. 법체계가 변화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

문 27]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들은 누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1. 선진국의 기업들
2. 개발도상국의 기업들

3. 국제연합(UN)
4. 세계은행(World Bank)

문 28] 자유시장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1. 노동조합의 의무적 가입
2. 정부에 의한 광범위한 경제규제
3. 기업들간의 활발한 경쟁
4. 모든 국민들의 재산 증식

문 29] 다음 설명 중 3가지는 "의견"이고 1가지는 "사실"입니다. "사실"에 관한 설명은 어떤 것입니까?

1. 여성들이 일을 하면 가족들에게 해가 된다
2.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더 유능한 정치지도자가 될 수 있다
3. 여성들은 정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4. 세계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남성들이다

※ 다음 문항들(문 30~문 37)에 대해서는 앞에 제시된 지문을 자세히 읽은 후에 자신이 생각하는 정답을 하나만 골라서 응답해 주십시오.

어떤 청소년클럽에서 리더를 선출하려고 한다.

회원 중 한 명이 리더가 되겠다고 자청했지만, 회원들은 투표로 리더를 선출하기로 했다.

문 30] 자청해서 리더가 되려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투표로 리더를 선출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회원들이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 투표는 리더를 선출하는 가장 신속한 방법이기 때문에
3. 리더 선출에 모든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4. 결과에 대해 모든 회원들이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A는 절도죄로 3년간 교도소에서 지냈다. 석방된 뒤 A는 B의 옆집으로 이사하려 한다. 그런데 B는 "물건을 훔쳐갈 수 있기 때문에 A가 옆집으로 이사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문 31] 다음 중 A가 B의 옆집에서 사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 가장 타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A는 자신의 죄값을 치렀으므로 다시 시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2. A가 옆집의 물건을 훔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3. 이웃사람들이 잘 대해주면 A도 선량한 시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4. A는 B로부터 사회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문 32] A가 옆집에 사는 것을 허용하려면 B는 어떤 점을 깨달아야 합니까?

1. A의 권리가 자신의 권리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
2. A의 권리가 자신의 권리만큼 중요하다는 점
3. 자신과 A의 권리가 다른 사람들의 권리보다 덜 중요하다는 점
4. 자신과 A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점

많은 나라에서 신문, 라디오, TV방송과 같은 미디어를 기업이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 그런데 일부 국가에서는 법으로 한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할 수 있는 미디어의 수를 제한하고 있다.

문 33] 이와 같은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미디어 기업들의 이윤 증대를 위해
2. 미디어의 보도내용을 국가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 정부와 관련하여 충분한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4.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관점이 표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A나라에는 공식언어 이외에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소수민족이 있다.  
이 소수민족은 자신들의 고유언어만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학교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A나라 정부에서는 모든 학교가 공식언어만을 가르쳐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결정이 소수민족의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문 34] 다음 중 정부의 결정에 찬성하는 가장 타당한 논리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1. 소수민족 아이들이 집에서 그들의 고유언어를 사용하지 않게 될 것이다
2. 소수민족 아이들이 학교수업에 보다 많은 흥미를 느끼게 될 것이다
3. 소수민족 아이들이 사회생활에 보다 폭넓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소수민족 아이들이 집에서 그들의 고유언어를 보다 쉽게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문 35] 정부의 결정에 반대하는 가장 타당한 논리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1. 학교 교과목의 결정은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
2. 정부는 하나 이상의 공식언어에 대한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3. 정부는 소수민족의 문화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
4. 소수민족 아이들이 공식언어를 배우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다

철수는 얼마 전 A회사에서 만든 신발을 샀다.  
그런데 철수는 그 신발이 저임금의 어린아이들을 고용해서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철수는 다시는 A회사의 신발을 신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문 36] 철수가 A회사의 신발을 신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아이들이 만든 신발이라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2. 자신이 A회사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3. 자신이 신발을 만든 아이들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4. 실제 원가보다 비싸게 주고 신발을 산 것에 화가 났기 때문에

문 37] 다른 사람들이 A회사의 신발을 사지 않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1. 어느 누구도 신발을 살 수 없도록 A회사의 모든 신발을 산다
2. A회사에 신발을 돌려주고 환불해 줄 것을 요구한다

3.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A회사 판매점의 입구를 막는다
4. A회사의 신발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준다

※ 다음은 여러분의 일반적인 신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조사결과 분석에 꼭 필요한 항목이고 절대 비밀이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38] 학생의 성별은?

1. 남자
2. 여자

문 39] 부모님(새아버지, 새어머니도 포함)은 어떻게 되시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1. 부모님이 모두 계시다
2. 아버지만 계시다
3. 어머지만 계시다
4. 부모님 모두 안 계시다

문 40]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졸업한 학교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예: "고등학교 중퇴"는 "중학교 졸업"으로 응답).

|        | 학교에<br>안 다님 | 초등학교<br>졸업 | 중학교<br>졸업 | 고등학교<br>졸업 | 2~3년제<br>대학교<br>졸업 | 4년제<br>대학교<br>졸업 | 대학원<br>졸업 |
|--------|-------------|------------|-----------|------------|--------------------|------------------|-----------|
| 1) 아버지 | 1           | 2          | 3         | 4          | 5                  | 6                | 7         |
| 2) 어머니 | 1           | 2          | 3         | 4          | 5                  | 6                | 7         |

문 41] 자신의 학업성적(2012년 1학기)은 반에서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못하는 편 | 못하는 편 | 중간 수준 | 잘하는 편 | 매우 잘하는 편 |
|----------|-------|-------|-------|----------|
| 1        | 2     | 3     | 4     | 5        |

문 42] 가정의 경제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못 산다 |   |   | 보통 수준 |   |   | 매우 잘 산다 |
|---------|---|---|-------|---|---|---------|
| 1       | 2 | 3 | 4     | 5 | 6 | 7       |

## 부록 2. 기초통계표

(단위: 명, %)

|  | 전 체 |    | 성 별 |    | 교 급 |     |
|--|-----|----|-----|----|-----|-----|
|  | 사례수 | 비율 | 남자  | 여자 | 중학생 | 고교생 |

문 1] 방과후에 학교 밖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십니까?

## 1) TV나 비디오, DVD 보기

|              |       |      |      |      |      |      |
|--------------|-------|------|------|------|------|------|
| 1. 전혀 하지않음   | 709   | 12.8 | 13.5 | 11.9 | 9.9  | 16.1 |
| 2. 30분 미만    | 1,235 | 22.2 | 23.4 | 20.9 | 19.4 | 25.5 |
| 3. 30~60분 정도 | 1,568 | 28.2 | 29.2 | 27.2 | 29.7 | 26.5 |
| 4. 1~2시간 정도  | 1,300 | 23.4 | 22.3 | 24.6 | 26.2 | 20.0 |
| 5. 2시간 이상    | 745   | 13.4 | 11.6 | 15.4 | 14.7 | 11.9 |

## 2) 숙제나 학교공부 하기

|              |       |      |      |      |      |      |
|--------------|-------|------|------|------|------|------|
| 1. 전혀 하지않음   | 704   | 12.7 | 15.6 | 9.6  | 8.7  | 17.3 |
| 2. 30분 미만    | 1,362 | 24.5 | 25.3 | 23.7 | 23.8 | 25.5 |
| 3. 30~60분 정도 | 1,400 | 25.2 | 25.0 | 25.4 | 27.8 | 22.2 |
| 4. 1~2시간 정도  | 1,065 | 19.2 | 17.4 | 21.1 | 20.8 | 17.3 |
| 5. 2시간 이상    | 1,021 | 18.4 | 16.7 | 20.2 | 19.0 | 17.7 |

## 3) 컴퓨터/인터넷 사용하기

|              |       |      |      |      |      |      |
|--------------|-------|------|------|------|------|------|
| 1. 전혀 하지않음   | 610   | 11.0 | 9.5  | 12.6 | 10.3 | 11.8 |
| 2. 30분 미만    | 1,388 | 25.0 | 19.5 | 31.0 | 24.4 | 25.8 |
| 3. 30~60분 정도 | 1,438 | 25.9 | 26.1 | 25.7 | 26.7 | 25.0 |
| 4. 1~2시간 정도  | 1,292 | 23.3 | 25.6 | 20.8 | 24.6 | 21.7 |
| 5. 2시간 이상    | 817   | 14.7 | 19.2 | 9.9  | 14.0 | 15.6 |

## 4) 독서하기

|              |       |      |      |      |      |      |
|--------------|-------|------|------|------|------|------|
| 1. 전혀 하지않음   | 2,130 | 38.5 | 36.0 | 41.2 | 31.7 | 46.6 |
| 2. 30분 미만    | 2,080 | 37.6 | 37.3 | 37.9 | 40.0 | 34.7 |
| 3. 30~60분 정도 | 927   | 16.8 | 18.4 | 15.0 | 19.9 | 13.1 |
| 4. 1~2시간 정도  | 274   | 5.0  | 5.5  | 4.4  | 5.7  | 4.0  |
| 5. 2시간 이상    | 123   | 2.2  | 2.8  | 1.6  | 2.7  | 1.7  |

## 5) 친구와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잡담하기

|              |       |      |      |      |      |      |
|--------------|-------|------|------|------|------|------|
| 1. 전혀 하지않음   | 1,256 | 22.7 | 28.4 | 16.5 | 22.1 | 23.3 |
| 2. 30분 미만    | 2,250 | 40.6 | 40.3 | 40.9 | 42.3 | 38.6 |
| 3. 30~60분 정도 | 1,055 | 19.0 | 16.7 | 21.6 | 18.1 | 20.2 |
| 4. 1~2시간 정도  | 581   | 10.5 | 8.5  | 12.6 | 10.3 | 10.7 |
| 5. 2시간 이상    | 401   | 7.2  | 6.1  | 8.4  | 7.3  | 7.2  |

|  | 전 체 |    | 성 별 |    | 교 급 |     |
|--|-----|----|-----|----|-----|-----|
|  | 사례수 | 비율 | 남자  | 여자 | 중학생 | 고교생 |

## 6) 친구와 만나서 놀기

|              |       |      |      |      |      |      |
|--------------|-------|------|------|------|------|------|
| 1. 전혀 하지않음   | 1,226 | 22.1 | 20.3 | 24.1 | 18.7 | 26.2 |
| 2. 30분 미만    | 1,126 | 20.3 | 19.0 | 21.7 | 21.4 | 19.0 |
| 3. 30~60분 정도 | 984   | 17.8 | 18.7 | 16.7 | 19.0 | 16.3 |
| 4. 1~2시간 정도  | 911   | 16.4 | 17.9 | 14.9 | 17.4 | 15.3 |
| 5. 2시간 이상    | 1,294 | 23.4 | 24.1 | 22.5 | 23.5 | 23.2 |

문 2] 방과 후에 학교 밖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 1) 정치사회 문제에 관해 부모님과 이야기한다

|                |       |      |      |      |      |      |
|----------------|-------|------|------|------|------|------|
| 1. 전혀/거의 하지 않음 | 2,529 | 45.7 | 45.9 | 45.5 | 46.4 | 44.9 |
| 2. 한달에 한번 이상   | 1,647 | 29.8 | 29.5 | 30.1 | 28.8 | 30.9 |
| 3. 일주일에 한번 이상  | 1,073 | 19.4 | 19.7 | 19.1 | 19.4 | 19.4 |
| 4. 매일/거의 매일    | 283   | 5.1  | 4.9  | 5.4  | 5.4  | 4.8  |

## 2) 국내외 소식을 알기 위해 TV를 시청한다

|                |       |      |      |      |      |      |
|----------------|-------|------|------|------|------|------|
| 1. 전혀/거의 하지 않음 | 1,506 | 27.1 | 25.1 | 29.1 | 28.0 | 25.9 |
| 2. 한달에 한번 이상   | 1,189 | 21.4 | 20.8 | 22.0 | 22.2 | 20.4 |
| 3. 일주일에 한번 이상  | 1,746 | 31.4 | 32.4 | 30.3 | 29.5 | 33.6 |
| 4. 매일/거의 매일    | 1,123 | 20.2 | 21.7 | 18.5 | 20.2 | 20.1 |

## 3) 국내외 소식을 알기 위해 신문을 읽는다

|                |       |      |      |      |      |      |
|----------------|-------|------|------|------|------|------|
| 1. 전혀/거의 하지 않음 | 3,530 | 63.5 | 59.7 | 67.6 | 67.4 | 58.9 |
| 2. 한달에 한번 이상   | 1,077 | 19.4 | 20.7 | 18.0 | 17.4 | 21.7 |
| 3. 일주일에 한번 이상  | 622   | 11.2 | 12.3 | 9.9  | 9.9  | 12.7 |
| 4. 매일/거의 매일    | 333   | 6.0  | 7.3  | 4.5  | 5.3  | 6.8  |

## 4) 정치사회 문제에 관해 친구들과 대화한다

|                |       |      |      |      |      |      |
|----------------|-------|------|------|------|------|------|
| 1. 전혀/거의 하지 않음 | 3,310 | 59.6 | 59.4 | 59.8 | 64.8 | 53.4 |
| 2. 한달에 한번 이상   | 1,533 | 27.6 | 27.2 | 28.1 | 25.1 | 30.6 |
| 3. 일주일에 한번 이상  | 605   | 10.9 | 11.1 | 10.6 | 8.2  | 14.1 |
| 4. 매일/거의 매일    | 108   | 1.9  | 2.3  | 1.5  | 2.0  | 1.9  |

|  | 전 체 |    | 성 별 |    | 교 급 |     |
|--|-----|----|-----|----|-----|-----|
|  | 사례수 | 비율 | 남자  | 여자 | 중학생 | 고교생 |

## 5) 국내외 소식을 알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다

|                |       |      |      |      |      |      |
|----------------|-------|------|------|------|------|------|
| 1. 전혀/거의 하지 않음 | 1,465 | 26.4 | 25.6 | 27.2 | 32.0 | 19.8 |
| 2. 한달에 한번 이상   | 1,284 | 23.1 | 23.1 | 23.2 | 25.0 | 20.9 |
| 3. 일주일에 한번 이상  | 1,701 | 30.6 | 29.3 | 32.0 | 28.0 | 33.7 |
| 4. 매일/거의 매일    | 1,107 | 19.9 | 22.1 | 17.6 | 15.1 | 25.6 |

## 6) 외국에서 일어난 일들에 관해 부모님과 대화한다

|                |       |      |      |      |      |      |
|----------------|-------|------|------|------|------|------|
| 1. 전혀/거의 하지 않음 | 2,700 | 48.9 | 49.6 | 48.1 | 49.7 | 47.9 |
| 2. 한달에 한번 이상   | 1,611 | 29.2 | 27.4 | 31.1 | 28.8 | 29.6 |
| 3. 일주일에 한번 이상  | 993   | 18.0 | 18.4 | 17.5 | 17.0 | 19.1 |
| 4. 매일/거의 매일    | 221   | 4.0  | 4.6  | 3.4  | 4.4  | 3.5  |

## 7) 외국에서 일어난 일들에 관해 친구들과 이야기한다

|                |       |      |      |      |      |      |
|----------------|-------|------|------|------|------|------|
| 1. 전혀/거의 하지 않음 | 2,803 | 50.4 | 49.7 | 51.2 | 56.7 | 43.0 |
| 2. 한달에 한번 이상   | 1,732 | 31.2 | 29.3 | 33.2 | 28.7 | 34.0 |
| 3. 일주일에 한번 이상  | 866   | 15.6 | 17.2 | 13.8 | 12.3 | 19.5 |
| 4. 매일/거의 매일    | 158   | 2.8  | 3.8  | 1.8  | 2.3  | 3.5  |

## 8) 청소년단체 또는 클럽활동에 참여한다

|                |       |      |      |      |      |      |
|----------------|-------|------|------|------|------|------|
| 1. 전혀/거의 하지 않음 | 4,665 | 84.0 | 83.3 | 84.8 | 85.1 | 82.7 |
| 2. 한달에 한번 이상   | 497   | 9.0  | 8.4  | 9.6  | 8.2  | 9.9  |
| 3. 일주일에 한번 이상  | 297   | 5.3  | 6.2  | 4.5  | 5.1  | 5.6  |
| 4. 매일/거의 매일    | 94    | 1.7  | 2.2  | 1.2  | 1.6  | 1.8  |

문 3] 부모님은 정치·사회적인 문제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십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면 부모님 역할을 대신하는 할아버지/할머니, 친척 등 보호자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 1) 아버지

|              |       |      |      |      |      |      |
|--------------|-------|------|------|------|------|------|
| 1. 매우 관심 있다  | 1,212 | 21.9 | 21.9 | 21.9 | 23.9 | 19.5 |
| 2. 대체로 관심 있다 | 3,289 | 59.4 | 56.4 | 62.7 | 58.5 | 60.5 |
| 3. 별로 관심 없다  | 870   | 15.7 | 17.9 | 13.4 | 14.9 | 16.7 |
| 4. 전혀 관심 없다  | 163   | 2.9  | 3.8  | 2.0  | 2.7  | 3.2  |

|  | 전 체 |    | 성 별 |    | 교 급 |     |
|--|-----|----|-----|----|-----|-----|
|  | 사례수 | 비율 | 남자  | 여자 | 중학생 | 고교생 |

## 2) 어머니

|              |       |      |      |      |      |      |
|--------------|-------|------|------|------|------|------|
| 1. 매우 관심 있다  | 675   | 12.2 | 13.2 | 11.1 | 14.4 | 9.6  |
| 2. 대체로 관심 있다 | 3,019 | 54.6 | 50.5 | 58.9 | 54.7 | 54.4 |
| 3. 별로 관심 없다  | 1,607 | 29.0 | 31.0 | 26.9 | 26.7 | 31.8 |
| 4. 전혀 관심 없다  | 232   | 4.2  | 5.3  | 3.0  | 4.2  | 4.2  |

문 4) 학교 밖에서 다음과 같은 단체(모임, 클럽, 동호회 포함)의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 1) 환경운동 단체

|                  |       |      |      |      |      |      |
|------------------|-------|------|------|------|------|------|
| 1. 최근 1년 동안 참여   | 568   | 10.2 | 11.4 | 8.9  | 11.5 | 8.8  |
| 2. 1년보다 더 이전에 참여 | 666   | 12.0 | 12.9 | 11.0 | 13.2 | 10.5 |
| 3. 참여한 적이 없다     | 4,321 | 77.8 | 75.7 | 80.1 | 75.3 | 80.7 |

## 2) 인권운동 단체

|                  |       |      |      |      |      |      |
|------------------|-------|------|------|------|------|------|
| 1. 최근 1년 동안 참여   | 157   | 2.8  | 3.4  | 2.2  | 3.2  | 2.4  |
| 2. 1년보다 더 이전에 참여 | 291   | 5.2  | 5.9  | 4.5  | 5.2  | 5.3  |
| 3. 참여한 적이 없다     | 5,103 | 91.9 | 90.7 | 93.3 | 91.6 | 92.3 |

## 3) 자원봉사 단체

|                  |       |      |      |      |      |      |
|------------------|-------|------|------|------|------|------|
| 1. 최근 1년 동안 참여   | 1,304 | 23.5 | 21.2 | 25.9 | 21.8 | 25.4 |
| 2. 1년보다 더 이전에 참여 | 1,029 | 18.5 | 18.9 | 18.1 | 18.8 | 18.2 |
| 3. 참여한 적이 없다     | 3,222 | 58.0 | 59.9 | 56.0 | 59.4 | 56.4 |

## 4) 자선모금 단체

|                  |       |      |      |      |      |      |
|------------------|-------|------|------|------|------|------|
| 1. 최근 1년 동안 참여   | 608   | 11.0 | 10.9 | 11.0 | 12.4 | 9.3  |
| 2. 1년보다 더 이전에 참여 | 650   | 11.7 | 12.4 | 11.0 | 12.9 | 10.4 |
| 3. 참여한 적이 없다     | 4,290 | 77.3 | 76.7 | 78.0 | 74.8 | 80.4 |

## 5) 종교 단체

|                  |       |      |      |      |      |      |
|------------------|-------|------|------|------|------|------|
| 1. 최근 1년 동안 참여   | 1,068 | 19.2 | 18.6 | 19.9 | 22.0 | 16.0 |
| 2. 1년보다 더 이전에 참여 | 710   | 12.8 | 13.1 | 12.5 | 13.6 | 11.8 |
| 3. 참여한 적이 없다     | 3,777 | 68.0 | 68.4 | 67.6 | 64.5 | 72.2 |

|  | 전 체 |    | 성 별 |    | 교 급 |     |
|--|-----|----|-----|----|-----|-----|
|  | 사례수 | 비율 | 남자  | 여자 | 중학생 | 고교생 |

## 6) 청소년 캠페인활동 단체

|                  |       |      |      |      |      |      |
|------------------|-------|------|------|------|------|------|
| 1. 최근 1년 동안 참여   | 610   | 11.0 | 10.4 | 11.6 | 11.2 | 10.7 |
| 2. 1년보다 더 이전에 참여 | 778   | 14.0 | 13.5 | 14.6 | 14.7 | 13.3 |
| 3. 참여한 적이 없다     | 4,162 | 75.0 | 76.1 | 73.8 | 74.1 | 76.0 |

문 5]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지금까지 학교 내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 1) 학교의 방과후 예체능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

|                  |       |      |      |      |      |      |
|------------------|-------|------|------|------|------|------|
| 1. 최근 1년 동안 참여   | 1,882 | 33.8 | 35.1 | 32.5 | 34.6 | 33.0 |
| 2. 1년보다 더 이전에 참여 | 1,710 | 30.7 | 28.5 | 33.2 | 29.6 | 32.1 |
| 3. 참여한 적이 없다     | 1,970 | 35.4 | 36.4 | 34.3 | 35.8 | 34.9 |

## 2) 학급 토론에 적극적 참여

|                  |       |      |      |      |      |      |
|------------------|-------|------|------|------|------|------|
| 1. 최근 1년 동안 참여   | 1,313 | 23.6 | 22.4 | 24.9 | 24.5 | 22.6 |
| 2. 1년보다 더 이전에 참여 | 1,770 | 31.8 | 29.5 | 34.4 | 31.8 | 31.9 |
| 3. 참여한 적이 없다     | 2,476 | 44.5 | 48.1 | 40.7 | 43.7 | 45.5 |

## 3) 학급 또는 학생회 임원 선거에서 투표

|                  |       |      |      |      |      |      |
|------------------|-------|------|------|------|------|------|
| 1. 최근 1년 동안 참여   | 3,430 | 61.7 | 58.9 | 64.7 | 60.1 | 63.6 |
| 2. 1년보다 더 이전에 참여 | 1,130 | 20.3 | 20.6 | 20.1 | 20.8 | 19.8 |
| 3. 참여한 적이 없다     | 999   | 18.0 | 20.5 | 15.2 | 19.1 | 16.6 |

## 4) 학교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

|                  |       |      |      |      |      |      |
|------------------|-------|------|------|------|------|------|
| 1. 최근 1년 동안 참여   | 1,233 | 22.2 | 20.2 | 24.4 | 19.7 | 25.1 |
| 2. 1년보다 더 이전에 참여 | 1,251 | 22.5 | 22.2 | 22.8 | 22.2 | 22.8 |
| 3. 참여한 적이 없다     | 3,071 | 55.3 | 57.6 | 52.8 | 58.0 | 52.0 |

## 5) 학생회 토론에 참여

|                  |       |      |      |      |      |      |
|------------------|-------|------|------|------|------|------|
| 1. 최근 1년 동안 참여   | 784   | 14.1 | 14.6 | 13.6 | 14.0 | 14.2 |
| 2. 1년보다 더 이전에 참여 | 1,139 | 20.5 | 19.1 | 21.9 | 20.8 | 20.1 |
| 3. 참여한 적이 없다     | 3,641 | 65.4 | 66.3 | 64.5 | 65.2 | 65.7 |

|  | 전 체 |    | 성 별 |    | 교 급 |     |
|--|-----|----|-----|----|-----|-----|
|  | 사례수 | 비율 | 남자  | 여자 | 중학생 | 고교생 |

## 6) 학급 또는 학생회 임원으로 출마

|                  |       |      |      |      |      |      |
|------------------|-------|------|------|------|------|------|
| 1. 최근 1년 동안 참여   | 1,000 | 18.0 | 17.4 | 18.6 | 16.9 | 19.2 |
| 2. 1년보다 더 이전에 참여 | 1,377 | 24.7 | 22.4 | 27.3 | 24.8 | 24.7 |
| 3. 참여한 적이 없다     | 3,188 | 57.3 | 60.2 | 54.2 | 58.3 | 56.1 |

문 6] 수업시간에 정치·사회적인 문제를 다룰 때 다음과 같은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 1) 학생들이 공개적으로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             |       |      |      |      |      |      |
|-------------|-------|------|------|------|------|------|
| 1. 전혀 없다    | 1,052 | 18.9 | 20.7 | 17.0 | 18.7 | 19.2 |
| 2. 가끔 있다    | 2,933 | 52.7 | 51.8 | 53.7 | 53.4 | 51.9 |
| 3. 종종 있다    | 1,324 | 23.8 | 23.0 | 24.6 | 23.4 | 24.2 |
| 4. 매우 자주 있다 | 254   | 4.6  | 4.4  | 4.7  | 4.5  | 4.7  |

## 2)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결정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격려한다

|             |       |      |      |      |      |      |
|-------------|-------|------|------|------|------|------|
| 1. 전혀 없다    | 1,138 | 20.5 | 22.5 | 18.3 | 19.2 | 21.9 |
| 2. 가끔 있다    | 2,358 | 42.4 | 41.1 | 43.9 | 42.2 | 42.8 |
| 3. 종종 있다    | 1,707 | 30.7 | 30.2 | 31.2 | 31.8 | 29.4 |
| 4. 매우 자주 있다 | 354   | 6.4  | 6.2  | 6.6  | 6.8  | 5.9  |

## 3)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격려한다

|             |       |      |      |      |      |      |
|-------------|-------|------|------|------|------|------|
| 1. 전혀 없다    | 1,165 | 21.0 | 22.9 | 18.9 | 19.8 | 22.4 |
| 2. 가끔 있다    | 2,388 | 43.0 | 41.4 | 44.7 | 42.6 | 43.5 |
| 3. 종종 있다    | 1,609 | 29.0 | 28.8 | 29.1 | 30.2 | 27.4 |
| 4. 매우 자주 있다 | 394   | 7.1  | 6.8  | 7.4  | 7.4  | 6.7  |

## 4) 학생들이 최근의 정치문제에 관해 같은 반 친구들과 토론한다

|             |       |      |      |      |      |      |
|-------------|-------|------|------|------|------|------|
| 1. 전혀 없다    | 3,423 | 61.6 | 60.3 | 63.0 | 65.3 | 57.2 |
| 2. 가끔 있다    | 1,624 | 29.2 | 29.5 | 29.0 | 26.3 | 32.6 |
| 3. 종종 있다    | 422   | 7.6  | 8.4  | 6.8  | 6.8  | 8.5  |
| 4. 매우 자주 있다 | 87    | 1.6  | 1.9  | 1.2  | 1.5  | 1.6  |

|  | 전 체 |    | 성 별 |    | 교 급 |     |
|--|-----|----|-----|----|-----|-----|
|  | 사례수 | 비율 | 남자  | 여자 | 중학생 | 고교생 |

5) 학생들은 다른 대부분의 친구들과 의견이 다를지라도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

|             |       |      |      |      |      |      |
|-------------|-------|------|------|------|------|------|
| 1. 전혀 없다    | 975   | 17.6 | 20.4 | 14.4 | 18.4 | 16.6 |
| 2. 가끔 있다    | 2,515 | 45.3 | 45.5 | 45.1 | 46.1 | 44.4 |
| 3. 종종 있다    | 1,552 | 28.0 | 25.8 | 30.3 | 27.1 | 28.9 |
| 4. 매우 자주 있다 | 509   | 9.2  | 8.2  | 10.2 | 8.4  | 10.1 |

6) 선생님들은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토론해 보도록 학생들에게 권장한다

|             |       |      |      |      |      |      |
|-------------|-------|------|------|------|------|------|
| 1. 전혀 없다    | 2,280 | 41.1 | 43.0 | 39.0 | 39.3 | 43.1 |
| 2. 가끔 있다    | 2,175 | 39.2 | 37.1 | 41.5 | 39.5 | 38.8 |
| 3. 종종 있다    | 894   | 16.1 | 16.1 | 16.0 | 17.0 | 15.0 |
| 4. 매우 자주 있다 | 204   | 3.7  | 3.8  | 3.5  | 4.2  | 3.1  |

7) 선생님들은 정치·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 준다

|             |       |      |      |      |      |      |
|-------------|-------|------|------|------|------|------|
| 1. 전혀 없다    | 2,091 | 7.6  | 38.5 | 36.7 | 37.0 | 38.3 |
| 2. 가끔 있다    | 2,305 | 41.5 | 39.9 | 43.1 | 42.3 | 40.5 |
| 3. 종종 있다    | 971   | 17.5 | 17.9 | 17.0 | 16.8 | 18.2 |
| 4. 매우 자주 있다 | 193   | 3.5  | 3.7  | 3.2  | 3.8  | 3.1  |

문 7)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할 때 학생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니까?

1)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

|                |       |      |      |      |      |      |
|----------------|-------|------|------|------|------|------|
| 1. 매우 많이 반영된다  | 266   | 4.8  | 5.6  | 3.9  | 5.8  | 3.6  |
| 2. 어느 정도 반영된다  | 2,267 | 40.7 | 42.2 | 39.1 | 41.4 | 39.9 |
| 3. 별로 반영되지 않는다 | 1,939 | 34.8 | 33.0 | 36.8 | 34.2 | 35.7 |
| 4.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 1,093 | 19.6 | 19.1 | 20.2 | 18.6 | 20.9 |

2) 수업에서 배울 내용

|                |       |      |      |      |      |      |
|----------------|-------|------|------|------|------|------|
| 1. 매우 많이 반영된다  | 269   | 4.8  | 6.0  | 3.5  | 6.3  | 3.1  |
| 2. 어느 정도 반영된다  | 1,898 | 34.1 | 36.4 | 31.7 | 35.8 | 32.1 |
| 3. 별로 반영되지 않는다 | 2,017 | 36.3 | 34.5 | 38.1 | 34.9 | 37.8 |
| 4.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 1,380 | 24.8 | 23.1 | 26.7 | 23.0 | 27.0 |

|  | 전 체 |    | 성 별 |    | 교 급 |     |
|--|-----|----|-----|----|-----|-----|
|  | 사례수 | 비율 | 남자  | 여자 | 중학생 | 고교생 |

## 3) 수업에 활용할 교재

|                |       |      |      |      |      |      |
|----------------|-------|------|------|------|------|------|
| 1. 매우 많이 반영된다  | 257   | 4.6  | 5.7  | 3.5  | 5.7  | 3.4  |
| 2. 어느 정도 반영된다  | 1,539 | 27.7 | 30.3 | 24.9 | 29.5 | 25.5 |
| 3. 별로 반영되지 않는다 | 1,889 | 34.0 | 33.2 | 34.8 | 33.7 | 34.2 |
| 4.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 1,877 | 33.7 | 30.9 | 36.9 | 31.1 | 36.8 |

## 4) 수업시간표

|                |      |        |      |      |      |      |
|----------------|------|--------|------|------|------|------|
| 1. 매우 많이 반영된다  | 5.2  | (289)  | 6.4  | 3.9  | 6.6  | 3.5  |
| 2. 어느 정도 반영된다  | 20.4 | (1132) | 24.2 | 16.2 | 24.9 | 15.0 |
| 3. 별로 반영되지 않는다 | 28.9 | (1608) | 28.8 | 29.1 | 28.9 | 29.0 |
| 4.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 45.5 | (2529) | 40.7 | 50.8 | 39.6 | 52.5 |

## 5) 학급의 규칙

|                |       |      |      |      |      |      |
|----------------|-------|------|------|------|------|------|
| 1. 매우 많이 반영된다  | 681   | 12.2 | 12.5 | 11.9 | 14.2 | 10.0 |
| 2. 어느 정도 반영된다  | 2,556 | 46.0 | 45.1 | 46.9 | 47.1 | 44.7 |
| 3. 별로 반영되지 않는다 | 1,322 | 23.8 | 23.8 | 23.7 | 23.2 | 24.5 |
| 4.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 1,001 | 18.0 | 18.5 | 17.5 | 15.6 | 20.8 |

## 6) 학교의 교칙

|                |       |      |      |      |      |      |
|----------------|-------|------|------|------|------|------|
| 1. 매우 많이 반영된다  | 384   | 6.9  | 8.0  | 5.7  | 9.0  | 4.4  |
| 2. 어느 정도 반영된다  | 1,833 | 33.0 | 34.6 | 31.2 | 35.2 | 30.3 |
| 3. 별로 반영되지 않는다 | 1,726 | 31.1 | 28.7 | 33.6 | 30.2 | 32.0 |
| 4.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 1,615 | 29.1 | 28.7 | 29.5 | 25.5 | 33.2 |

## 7) 방과후 활동(활동 내용, 시간 등)

|                |       |      |      |      |      |      |
|----------------|-------|------|------|------|------|------|
| 1. 매우 많이 반영된다  | 476   | 8.6  | 9.8  | 7.2  | 9.4  | 7.5  |
| 2. 어느 정도 반영된다  | 2,023 | 36.4 | 37.2 | 35.5 | 39.4 | 32.8 |
| 3. 별로 반영되지 않는다 | 1,641 | 29.5 | 27.6 | 31.5 | 28.7 | 30.5 |
| 4.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 1,422 | 25.6 | 25.4 | 25.8 | 22.4 | 29.2 |

|  | 전 체 |    | 성 별 |    | 교 급 |     |
|--|-----|----|-----|----|-----|-----|
|  | 사례수 | 비율 | 남자  | 여자 | 중학생 | 고교생 |

문 8] 다음에 제시된 설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1)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나를 공정하게 대해 주신다

|              |       |      |      |      |      |      |
|--------------|-------|------|------|------|------|------|
| 1. 매우 그렇다    | 683   | 12.3 | 14.7 | 9.6  | 14.3 | 9.9  |
| 2. 그렇다       | 3,503 | 63.0 | 59.7 | 66.5 | 60.9 | 65.4 |
| 3. 그렇지 않다    | 1,036 | 18.6 | 18.4 | 18.9 | 19.2 | 17.9 |
| 4. 전혀 그렇지 않다 | 341   | 6.1  | 7.1  | 5.0  | 5.5  | 6.8  |

2) 학생들은 대부분의 선생님들과 잘 지낸다

|              |       |      |      |      |      |      |
|--------------|-------|------|------|------|------|------|
| 1. 매우 그렇다    | 669   | 12.0 | 13.6 | 10.3 | 14.0 | 9.7  |
| 2. 그렇다       | 3,642 | 65.4 | 62.2 | 68.9 | 63.4 | 67.8 |
| 3. 그렇지 않다    | 1,017 | 18.3 | 19.0 | 17.5 | 18.5 | 18.0 |
| 4. 전혀 그렇지 않다 | 238   | 4.3  | 5.1  | 3.4  | 4.0  | 4.6  |

3)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복지에 관심이 있다

|              |       |      |      |      |      |      |
|--------------|-------|------|------|------|------|------|
| 1. 매우 그렇다    | 244   | 4.4  | 5.3  | 3.4  | 5.3  | 3.3  |
| 2. 그렇다       | 2,374 | 42.7 | 43.5 | 41.9 | 44.7 | 40.4 |
| 3. 그렇지 않다    | 2,241 | 40.3 | 37.5 | 43.5 | 38.7 | 42.2 |
| 4. 전혀 그렇지 않다 | 696   | 12.5 | 13.7 | 11.2 | 11.3 | 14.0 |

4) 나는 우리 학교에서 아웃사이더인 것 같다

|              |       |      |      |      |      |      |
|--------------|-------|------|------|------|------|------|
| 1. 매우 그렇다    | 96    | 1.7  | 2.2  | 1.2  | 1.4  | 2.1  |
| 2. 그렇다       | 463   | 8.3  | 9.0  | 7.6  | 7.3  | 9.6  |
| 3. 그렇지 않다    | 1,838 | 33.1 | 31.6 | 34.7 | 30.8 | 35.7 |
| 4. 전혀 그렇지 않다 | 3,161 | 56.9 | 57.2 | 56.5 | 60.5 | 52.6 |

5)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내가 말하는 것을 경청해 주신다

|              |       |      |      |      |      |      |
|--------------|-------|------|------|------|------|------|
| 1. 매우 그렇다    | 508   | 9.2  | 9.9  | 8.4  | 10.8 | 7.3  |
| 2. 그렇다       | 3,427 | 61.8 | 58.3 | 65.5 | 59.5 | 64.5 |
| 3. 그렇지 않다    | 1,210 | 21.8 | 23.2 | 20.3 | 22.9 | 20.5 |
| 4. 전혀 그렇지 않다 | 401   | 7.2  | 8.6  | 5.8  | 6.8  | 7.7  |

|  | 전 체 |    | 성 별 |    | 교 급 |     |
|--|-----|----|-----|----|-----|-----|
|  | 사례수 | 비율 | 남자  | 여자 | 중학생 | 고교생 |

6) 내가 별도로 도움을 요청하면 선생님들은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              |       |      |      |      |      |      |
|--------------|-------|------|------|------|------|------|
| 1. 매우 그렇다    | 885   | 15.9 | 17.5 | 14.2 | 17.3 | 14.2 |
| 2. 그렇다       | 3,553 | 63.9 | 61.1 | 66.9 | 62.2 | 65.8 |
| 3. 그렇지 않다    | 800   | 14.4 | 14.4 | 14.3 | 15.2 | 13.4 |
| 4. 전혀 그렇지 않다 | 324   | 5.8  | 7.0  | 4.6  | 5.2  | 6.5  |

7) 다른 학생들이 나를 괴롭힐까봐 두렵다

|              |       |      |      |      |      |      |
|--------------|-------|------|------|------|------|------|
| 1. 매우 그렇다    | 127   | 2.3  | 2.8  | 1.8  | 2.6  | 1.9  |
| 2. 그렇다       | 498   | 9.0  | 9.3  | 8.6  | 9.9  | 7.9  |
| 3. 그렇지 않다    | 1,674 | 30.1 | 28.1 | 32.3 | 31.6 | 28.3 |
| 4. 전혀 그렇지 않다 | 3,264 | 58.7 | 59.9 | 57.3 | 55.9 | 61.9 |

문 9]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에 관한 다음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1) 학교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는 학교를 더 좋게 만든다

|              |       |      |      |      |      |      |
|--------------|-------|------|------|------|------|------|
| 1. 매우 그렇다    | 1,440 | 25.9 | 27.0 | 24.6 | 25.0 | 26.8 |
| 2. 그렇다       | 3,100 | 55.7 | 52.5 | 59.1 | 56.1 | 55.2 |
| 3. 그렇지 않다    | 732   | 13.1 | 13.7 | 12.5 | 13.9 | 12.2 |
| 4. 전혀 그렇지 않다 | 296   | 5.3  | 6.8  | 3.7  | 4.9  | 5.8  |

2) 학생들이 힘을 모으면 학교에 여러가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              |       |      |      |      |      |      |
|--------------|-------|------|------|------|------|------|
| 1. 매우 그렇다    | 1,563 | 28.1 | 28.6 | 27.6 | 27.8 | 28.4 |
| 2. 그렇다       | 3,121 | 56.1 | 53.1 | 59.3 | 56.5 | 55.5 |
| 3. 그렇지 않다    | 597   | 10.7 | 11.6 | 9.8  | 11.1 | 10.3 |
| 4. 전혀 그렇지 않다 | 286   | 5.1  | 6.8  | 3.4  | 4.6  | 5.8  |

3)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은 학교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       |      |      |      |      |      |
|--------------|-------|------|------|------|------|------|
| 1. 매우 그렇다    | 1,314 | 23.6 | 23.8 | 23.4 | 22.5 | 24.9 |
| 2. 그렇다       | 3,149 | 56.6 | 54.0 | 59.4 | 57.9 | 55.0 |
| 3. 그렇지 않다    | 788   | 14.2 | 14.9 | 13.3 | 14.4 | 13.9 |
| 4. 전혀 그렇지 않다 | 315   | 5.7  | 7.4  | 3.8  | 5.2  | 6.2  |

|  | 전 체 |    | 성 별 |    | 교 급 |     |
|--|-----|----|-----|----|-----|-----|
|  | 사례수 | 비율 | 남자  | 여자 | 중학생 | 고교생 |

## 4) 모든 학교는 학생회를 설치해야 한다

|              |       |      |      |      |      |      |
|--------------|-------|------|------|------|------|------|
| 1. 매우 그렇다    | 1,394 | 25.0 | 25.7 | 24.3 | 21.4 | 29.3 |
| 2. 그렇다       | 2,605 | 46.8 | 42.9 | 51.0 | 45.8 | 47.9 |
| 3. 그렇지 않다    | 1,234 | 22.2 | 23.0 | 21.2 | 26.2 | 17.4 |
| 4. 전혀 그렇지 않다 | 335   | 6.0  | 8.4  | 3.5  | 6.5  | 5.4  |

## 5) 학생들이 혼자보다는 함께 행동한다면 학교의 여러가지 일들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       |      |      |      |      |      |
|--------------|-------|------|------|------|------|------|
| 1. 매우 그렇다    | 1,745 | 31.4 | 31.5 | 31.2 | 29.6 | 33.4 |
| 2. 그렇다       | 3,059 | 55.0 | 52.6 | 57.5 | 56.3 | 53.3 |
| 3. 그렇지 않다    | 516   | 9.3  | 10.3 | 8.2  | 9.8  | 8.6  |
| 4. 전혀 그렇지 않다 | 246   | 4.4  | 5.7  | 3.1  | 4.2  | 4.7  |

## 문 10] 사회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다음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              |       |      |      |      |      |      |
|--------------|-------|------|------|------|------|------|
| 1. 매우 그렇다    | 3,351 | 60.2 | 57.3 | 63.5 | 59.8 | 60.8 |
| 2. 그렇다       | 1,974 | 35.5 | 37.1 | 33.7 | 36.3 | 34.6 |
| 3. 그렇지 않다    | 167   | 3.0  | 3.9  | 2.0  | 2.8  | 3.2  |
| 4. 전혀 그렇지 않다 | 70    | 1.3  | 1.7  | .7   | 1.1  | 1.4  |

## 2) 정치지도자들이 자신의 가족들을 정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

|              |       |      |      |      |      |      |
|--------------|-------|------|------|------|------|------|
| 1. 매우 그렇다    | 1,706 | 30.7 | 31.5 | 29.9 | 28.4 | 33.4 |
| 2. 그렇다       | 2,223 | 40.0 | 38.1 | 42.1 | 39.2 | 41.0 |
| 3. 그렇지 않다    | 1,377 | 24.8 | 25.2 | 24.3 | 27.1 | 22.1 |
| 4. 전혀 그렇지 않다 | 249   | 4.5  | 5.3  | 3.6  | 5.3  | 3.6  |

## 3) 기업이나 정부가 국가의 모든 신문사를 소유해서는 안된다

|              |       |      |      |      |      |      |
|--------------|-------|------|------|------|------|------|
| 1. 매우 그렇다    | 2,664 | 47.9 | 47.4 | 48.6 | 40.5 | 56.7 |
| 2. 그렇다       | 2,040 | 36.7 | 35.8 | 37.7 | 40.8 | 31.9 |
| 3. 그렇지 않다    | 712   | 12.8 | 13.5 | 12.1 | 15.7 | 9.4  |
| 4. 전혀 그렇지 않다 | 140   | 2.5  | 3.4  | 1.6  | 2.9  | 2.0  |

|  | 전 체 |    | 성 별 |    | 교 급 |     |
|--|-----|----|-----|----|-----|-----|
|  | 사례수 | 비율 | 남자  | 여자 | 중학생 | 고교생 |

- 4) 경찰은 국가안전을 위협할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재판 없이 감옥에 가둘 수 있는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              |       |      |      |      |      |      |
|--------------|-------|------|------|------|------|------|
| 1. 매우 그렇다    | 1,019 | 18.3 | 20.1 | 16.4 | 18.8 | 17.8 |
| 2. 그렇다       | 1,708 | 30.7 | 30.2 | 31.3 | 30.2 | 31.4 |
| 3. 그렇지 않다    | 1,973 | 35.5 | 32.3 | 39.0 | 35.1 | 35.9 |
| 4. 전혀 그렇지 않다 | 857   | 15.4 | 17.4 | 13.3 | 15.9 | 14.9 |

- 5) 모든 국민들의 사회적·정치적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

|              |       |      |      |      |      |      |
|--------------|-------|------|------|------|------|------|
| 1. 매우 그렇다    | 3,494 | 62.9 | 60.8 | 65.2 | 62.4 | 63.5 |
| 2. 그렇다       | 1,785 | 32.1 | 32.3 | 32.0 | 33.1 | 31.1 |
| 3. 그렇지 않다    | 192   | 3.5  | 4.7  | 2.1  | 3.2  | 3.7  |
| 4. 전혀 그렇지 않다 | 83    | 1.5  | 2.3  | .6   | 1.3  | 1.7  |

- 6) 국민들은 언제나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자유를 누려야 한다

|              |       |      |      |      |      |      |
|--------------|-------|------|------|------|------|------|
| 1. 매우 그렇다    | 2,998 | 53.9 | 54.6 | 53.2 | 50.6 | 57.8 |
| 2. 그렇다       | 1,967 | 35.4 | 34.0 | 36.9 | 37.8 | 32.6 |
| 3. 그렇지 않다    | 503   | 9.0  | 9.2  | 8.9  | 9.9  | 8.1  |
| 4. 전혀 그렇지 않다 | 93    | 1.7  | 2.2  | 1.1  | 1.8  | 1.6  |

- 7) 국가안전 담당기관이 국가안전을 위협할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편지나 전화, 이메일을 체크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              |       |      |      |      |      |      |
|--------------|-------|------|------|------|------|------|
| 1. 매우 그렇다    | 1,390 | 25.1 | 25.6 | 24.4 | 26.1 | 23.9 |
| 2. 그렇다       | 2,437 | 43.9 | 41.8 | 46.3 | 44.5 | 43.3 |
| 3. 그렇지 않다    | 1,242 | 22.4 | 22.6 | 22.2 | 21.0 | 24.0 |
| 4. 전혀 그렇지 않다 | 479   | 8.6  | 10.0 | 7.1  | 8.4  | 8.9  |

- 8) 모든 시민들은 정치지도자를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              |       |      |      |      |      |      |
|--------------|-------|------|------|------|------|------|
| 1. 매우 그렇다    | 3,265 | 58.8 | 57.6 | 60.1 | 57.1 | 60.8 |
| 2. 그렇다       | 1,911 | 34.4 | 33.7 | 35.1 | 36.2 | 32.3 |
| 3. 그렇지 않다    | 288   | 5.2  | 6.3  | 3.9  | 5.5  | 4.9  |
| 4. 전혀 그렇지 않다 | 89    | 1.6  | 2.3  | .8   | 1.2  | 2.1  |

|  | 전 체 |    | 성 별 |    | 교 급 |     |
|--|-----|----|-----|----|-----|-----|
|  | 사례수 | 비율 | 남자  | 여자 | 중학생 | 고교생 |

## 9) 국민들은 불공정한 법에 대하여 항의할 수 있어야 한다

|              |       |      |      |      |      |      |
|--------------|-------|------|------|------|------|------|
| 1. 매우 그렇다    | 3,759 | 67.6 | 65.7 | 69.8 | 65.4 | 70.3 |
| 2. 그렇다       | 1,530 | 27.5 | 27.4 | 27.6 | 29.9 | 24.7 |
| 3. 그렇지 않다    | 197   | 3.5  | 5.2  | 1.8  | 3.5  | 3.6  |
| 4. 전혀 그렇지 않다 | 72    | 1.3  | 1.7  | .8   | 1.2  | 1.4  |

## 10) 정치적 항의는 반드시 비폭력적이어야 한다

|              |       |      |      |      |      |      |
|--------------|-------|------|------|------|------|------|
| 1. 매우 그렇다    | 2,358 | 42.4 | 43.4 | 41.4 | 43.8 | 40.8 |
| 2. 그렇다       | 2,092 | 37.6 | 35.6 | 39.8 | 38.8 | 36.3 |
| 3. 그렇지 않다    | 853   | 15.3 | 15.4 | 15.3 | 13.0 | 18.1 |
| 4. 전혀 그렇지 않다 | 255   | 4.6  | 5.6  | 3.5  | 4.4  | 4.8  |

## 11)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간의 소득 차이는 적어야 한다

|              |       |      |      |      |      |      |
|--------------|-------|------|------|------|------|------|
| 1. 매우 그렇다    | 2,568 | 46.2 | 46.7 | 45.6 | 45.9 | 46.6 |
| 2. 그렇다       | 2,036 | 36.6 | 34.8 | 38.6 | 37.4 | 35.7 |
| 3. 그렇지 않다    | 756   | 13.6 | 13.7 | 13.5 | 13.0 | 14.3 |
| 4. 전혀 그렇지 않다 | 199   | 3.6  | 4.8  | 2.2  | 3.7  | 3.4  |

## 12) 국가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있을 때 정부는 언론과 출판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              |       |      |      |      |      |      |
|--------------|-------|------|------|------|------|------|
| 1. 매우 그렇다    | 1,594 | 28.8 | 30.5 | 26.9 | 32.8 | 24.0 |
| 2. 그렇다       | 2,521 | 45.5 | 43.3 | 47.8 | 47.1 | 43.5 |
| 3. 그렇지 않다    | 952   | 17.2 | 16.6 | 17.9 | 13.5 | 21.5 |
| 4. 전혀 그렇지 않다 | 475   | 8.6  | 9.6  | 7.4  | 6.5  | 11.0 |

## 문 11]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 1) 지역사회(시/군)의 정치와 관련된 문제

|              |       |      |      |      |      |      |
|--------------|-------|------|------|------|------|------|
| 1. 매우 관심 있다  | 257   | 4.6  | 6.0  | 3.1  | 4.6  | 4.6  |
| 2. 대체로 관심 있다 | 1,541 | 27.7 | 28.7 | 26.6 | 26.0 | 29.7 |
| 3. 별로 관심 없다  | 2,743 | 49.3 | 46.0 | 52.9 | 49.3 | 49.3 |
| 4. 전혀 관심 없다  | 1021  | 18.4 | 19.2 | 17.4 | 20.1 | 16.4 |

|  | 전 체 |    | 성 별 |    | 교 급 |     |
|--|-----|----|-----|----|-----|-----|
|  | 사례수 | 비율 | 남자  | 여자 | 중학생 | 고교생 |

## 2) 국가 차원의 정치적인 문제

|              |       |      |      |      |      |      |
|--------------|-------|------|------|------|------|------|
| 1. 매우 관심 있다  | 562   | 10.1 | 11.6 | 8.5  | 8.9  | 11.5 |
| 2. 대체로 관심 있다 | 2,011 | 36.2 | 36.0 | 36.4 | 32.5 | 40.5 |
| 3. 별로 관심 없다  | 2,129 | 38.3 | 36.3 | 40.4 | 40.5 | 35.7 |
| 4. 전혀 관심 없다  | 858   | 15.4 | 16.1 | 14.7 | 18.1 | 12.3 |

## 3)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문제

|              |       |      |      |      |      |      |
|--------------|-------|------|------|------|------|------|
| 1. 매우 관심 있다  | 930   | 16.7 | 17.8 | 15.6 | 15.0 | 18.8 |
| 2. 대체로 관심 있다 | 2,729 | 49.1 | 45.2 | 53.3 | 46.4 | 52.3 |
| 3. 별로 관심 없다  | 1,306 | 23.5 | 24.8 | 22.0 | 26.0 | 20.5 |
| 4. 전혀 관심 없다  | 595   | 10.7 | 12.2 | 9.1  | 12.6 | 8.4  |

## 4) 다른나라 내부의 정치적인 문제

|              |       |      |      |      |      |      |
|--------------|-------|------|------|------|------|------|
| 1. 매우 관심 있다  | 305   | 5.5  | 7.6  | 3.2  | 5.9  | 5.0  |
| 2. 대체로 관심 있다 | 1,284 | 23.1 | 24.7 | 21.3 | 21.8 | 24.6 |
| 3. 별로 관심 없다  | 2,847 | 51.2 | 47.6 | 55.1 | 50.8 | 51.7 |
| 4. 전혀 관심 없다  | 1,124 | 20.2 | 20.1 | 20.4 | 21.5 | 18.7 |

## 5) 국제적인 차원의 정치적인 문제

|              |       |      |      |      |      |      |
|--------------|-------|------|------|------|------|------|
| 1. 매우 관심 있다  | 482   | 8.7  | 10.7 | 6.5  | 8.2  | 9.2  |
| 2. 대체로 관심 있다 | 1,748 | 31.4 | 31.8 | 31.1 | 28.2 | 35.3 |
| 3. 별로 관심 없다  | 2,393 | 43.0 | 40.3 | 46.0 | 44.7 | 41.1 |
| 4. 전혀 관심 없다  | 936   | 16.8 | 17.2 | 16.4 | 19.0 | 14.3 |

## 6) 환경보호 문제

|              |       |      |      |      |      |      |
|--------------|-------|------|------|------|------|------|
| 1. 매우 관심 있다  | 872   | 15.7 | 16.0 | 15.4 | 16.5 | 14.7 |
| 2. 대체로 관심 있다 | 2,398 | 43.1 | 40.3 | 46.2 | 42.4 | 44.0 |
| 3. 별로 관심 없다  | 1,635 | 29.4 | 30.2 | 28.6 | 28.4 | 30.6 |
| 4. 전혀 관심 없다  | 654   | 11.8 | 13.5 | 9.9  | 12.7 | 10.6 |

|  | 전 체 |    | 성 별 |    | 교 급 |     |
|--|-----|----|-----|----|-----|-----|
|  | 사례수 | 비율 | 남자  | 여자 | 중학생 | 고교생 |

문 12]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행동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모든 선거에서 투표하기

|               |       |      |      |      |      |      |
|---------------|-------|------|------|------|------|------|
| 1. 매우 중요하다    | 2,835 | 51.0 | 48.0 | 54.2 | 48.1 | 54.3 |
| 2. 대체로 중요하다   | 2,292 | 41.2 | 42.4 | 40.0 | 42.7 | 39.4 |
| 3. 별로 중요하지 않다 | 343   | 6.2  | 7.5  | 4.7  | 7.8  | 4.3  |
| 4. 전혀 중요하 않다  | 92    | 1.7  | 2.1  | 1.1  | 1.4  | 1.9  |

2) 정당에 가입하기

|               |       |      |      |      |      |      |
|---------------|-------|------|------|------|------|------|
| 1. 매우 중요하다    | 454   | 8.2  | 9.2  | 7.0  | 10.0 | 6.0  |
| 2. 대체로 중요하다   | 1,682 | 30.2 | 29.2 | 31.4 | 32.0 | 28.2 |
| 3. 별로 중요하지 않다 | 2,966 | 53.3 | 51.3 | 55.5 | 50.7 | 56.5 |
| 4. 전혀 중요하 않다  | 459   | 8.3  | 10.3 | 6.1  | 7.4  | 9.3  |

3) 자국의 역사에 대해 공부하기

|               |       |      |      |      |      |      |
|---------------|-------|------|------|------|------|------|
| 1. 매우 중요하다    | 1,884 | 33.9 | 33.2 | 34.6 | 30.1 | 38.3 |
| 2. 대체로 중요하다   | 2,312 | 41.6 | 41.4 | 41.8 | 42.7 | 40.3 |
| 3. 별로 중요하지 않다 | 1,103 | 19.8 | 20.0 | 19.6 | 21.7 | 17.6 |
| 4. 전혀 중요하 않다  | 259   | 4.7  | 5.3  | 3.9  | 5.4  | 3.8  |

4) 정치문제에 대한 신문, TV, 인터넷 등의 보도내용을 잘 살펴보기

|               |       |      |      |      |      |      |
|---------------|-------|------|------|------|------|------|
| 1. 매우 중요하다    | 1,690 | 30.4 | 28.6 | 32.4 | 28.8 | 32.3 |
| 2. 대체로 중요하다   | 2,974 | 53.5 | 52.5 | 54.6 | 52.6 | 54.6 |
| 3. 별로 중요하지 않다 | 723   | 13.0 | 15.0 | 10.8 | 15.3 | 10.3 |
| 4. 전혀 중요하 않다  | 171   | 3.1  | 3.9  | 2.2  | 3.3  | 2.8  |

5) 정부대표(대통령, 도지사, 시장/군수 등)들을 존중하기

|               |       |      |      |      |      |      |
|---------------|-------|------|------|------|------|------|
| 1. 매우 중요하다    | 855   | 15.4 | 17.6 | 13.0 | 18.4 | 11.8 |
| 2. 대체로 중요하다   | 2,848 | 51.2 | 47.3 | 55.4 | 49.5 | 53.2 |
| 3. 별로 중요하지 않다 | 1,492 | 26.8 | 27.1 | 26.5 | 26.1 | 27.7 |
| 4. 전혀 중요하 않다  | 366   | 6.6  | 8.0  | 5.1  | 6.0  | 7.3  |

|  | 전 체 |    | 성 별 |    | 교 급 |     |
|--|-----|----|-----|----|-----|-----|
|  | 사례수 | 비율 | 남자  | 여자 | 중학생 | 고교생 |

## 6) 정치문제에 관한 토론에 참여하기

|               |       |      |      |      |      |      |
|---------------|-------|------|------|------|------|------|
| 1. 매우 중요하다    | 939   | 16.9 | 17.8 | 15.9 | 18.9 | 14.5 |
| 2. 대체로 중요하다   | 2,575 | 46.4 | 44.2 | 48.8 | 44.3 | 48.8 |
| 3. 별로 중요하지 않다 | 1,714 | 30.9 | 31.2 | 30.5 | 30.7 | 31.1 |
| 4. 전혀 중요하 않다  | 325   | 5.9  | 6.9  | 4.8  | 6.1  | 5.6  |

## 7) 불공정한 법에 대한 평화적인 항의에 참여하기

|               |       |      |      |      |      |      |
|---------------|-------|------|------|------|------|------|
| 1. 매우 중요하다    | 2,198 | 39.5 | 40.0 | 39.0 | 41.1 | 37.7 |
| 2. 대체로 중요하다   | 2,518 | 45.3 | 42.9 | 47.8 | 44.1 | 46.7 |
| 3. 별로 중요하지 않다 | 670   | 12.1 | 13.1 | 10.9 | 11.9 | 12.3 |
| 4. 전혀 중요하 않다  | 174   | 3.1  | 4.0  | 2.2  | 2.9  | 3.4  |

## 8)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여러 활동에 참여하기

|               |       |      |      |      |      |      |
|---------------|-------|------|------|------|------|------|
| 1. 매우 중요하다    | 1,680 | 30.2 | 30.4 | 30.0 | 31.3 | 28.9 |
| 2. 대체로 중요하다   | 2,902 | 52.2 | 50.2 | 54.3 | 51.5 | 53.1 |
| 3. 별로 중요하지 않다 | 795   | 14.3 | 14.9 | 13.6 | 14.0 | 14.6 |
| 4. 전혀 중요하 않다  | 182   | 3.3  | 4.4  | 2.0  | 3.2  | 3.4  |

## 9)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기

|               |       |      |      |      |      |      |
|---------------|-------|------|------|------|------|------|
| 1. 매우 중요하다    | 1,814 | 32.6 | 32.5 | 32.8 | 34.3 | 30.7 |
| 2. 대체로 중요하다   | 2,767 | 49.8 | 48.5 | 51.2 | 48.3 | 51.5 |
| 3. 별로 중요하지 않다 | 811   | 14.6 | 15.4 | 13.7 | 14.4 | 14.8 |
| 4. 전혀 중요하 않다  | 167   | 3.0  | 3.6  | 2.3  | 3.0  | 3.0  |

## 10)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에 참여하기

|               |       |      |      |      |      |      |
|---------------|-------|------|------|------|------|------|
| 1. 매우 중요하다    | 2,217 | 39.9 | 36.7 | 43.3 | 41.9 | 37.5 |
| 2. 대체로 중요하다   | 2,556 | 46.0 | 45.5 | 46.6 | 44.9 | 47.3 |
| 3. 별로 중요하지 않다 | 601   | 10.8 | 13.2 | 8.2  | 9.9  | 11.9 |
| 4. 전혀 중요하 않다  | 183   | 3.3  | 4.6  | 1.9  | 3.3  | 3.3  |

|  | 전 체 |    | 성 별 |    | 교 급 |     |
|--|-----|----|-----|----|-----|-----|
|  | 사례수 | 비율 | 남자  | 여자 | 중학생 | 고교생 |

## 11)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기

|               |       |      |      |      |      |      |
|---------------|-------|------|------|------|------|------|
| 1. 매우 중요하다    | 3,003 | 54.0 | 50.7 | 57.6 | 54.1 | 53.9 |
| 2. 대체로 중요하다   | 2,126 | 38.2 | 38.9 | 37.5 | 38.3 | 38.1 |
| 3. 별로 중요하지 않다 | 332   | 6.0  | 8.0  | 3.8  | 5.9  | 6.1  |
| 4. 전혀 중요하 않다  | 100   | 1.8  | 2.5  | 1.1  | 1.8  | 1.8  |

## 12) 항상 법을 준수하기

|               |       |      |      |      |      |      |
|---------------|-------|------|------|------|------|------|
| 1. 매우 중요하다    | 2,264 | 40.7 | 39.3 | 42.2 | 42.1 | 39.1 |
| 2. 대체로 중요하다   | 2,584 | 46.5 | 45.2 | 47.8 | 44.8 | 48.5 |
| 3. 별로 중요하지 않다 | 582   | 10.5 | 12.2 | 8.6  | 10.6 | 10.3 |
| 4. 전혀 중요하 않다  | 132   | 2.4  | 3.3  | 1.4  | 2.5  | 2.2  |

## 문 13] 정치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나는 또래 친구들에 비해 정치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

|             |       |      |      |      |      |      |
|-------------|-------|------|------|------|------|------|
| 1. 매우 그렇다   | 270   | 4.9  | 6.7  | 2.8  | 5.5  | 4.1  |
| 2. 그렇다      | 1,305 | 23.5 | 25.5 | 21.3 | 23.0 | 23.9 |
| 3. 그렇지 않다   | 3,246 | 58.3 | 54.9 | 62.1 | 57.2 | 59.6 |
| 4. 전혀 그렇지않다 | 743   | 13.4 | 12.9 | 13.8 | 14.2 | 12.3 |

## 2) 정치문제에 관한 토론이 벌어지면, 나는 항상 참여한다

|             |       |      |      |      |      |      |
|-------------|-------|------|------|------|------|------|
| 1. 매우 그렇다   | 178   | 3.2  | 4.1  | 2.2  | 3.4  | 3.0  |
| 2. 그렇다      | 759   | 13.6 | 15.7 | 11.5 | 12.8 | 14.7 |
| 3. 그렇지 않다   | 3,257 | 58.6 | 57.9 | 59.3 | 57.0 | 60.4 |
| 4. 전혀 그렇지않다 | 1,368 | 24.6 | 22.3 | 27.1 | 26.9 | 21.9 |

## 3) 나는 대부분의 정치문제들을 잘 이해할 수 있다

|             |       |      |      |      |      |      |
|-------------|-------|------|------|------|------|------|
| 1. 매우 그렇다   | 258   | 4.6  | 6.3  | 2.9  | 5.1  | 4.1  |
| 2. 그렇다      | 1,731 | 31.1 | 32.0 | 30.2 | 31.1 | 31.1 |
| 3. 그렇지 않다   | 2,695 | 48.5 | 47.1 | 50.0 | 46.7 | 50.6 |
| 4. 전혀 그렇지않다 | 877   | 15.8 | 14.7 | 16.9 | 17.1 | 14.2 |

|  | 전 체 |    | 성 별 |    | 교 급 |     |
|--|-----|----|-----|----|-----|-----|
|  | 사례수 | 비율 | 남자  | 여자 | 중학생 | 고교생 |

## 4) 나는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정치적 의견을 가지고 있다

|             |       |      |      |      |      |      |
|-------------|-------|------|------|------|------|------|
| 1. 매우 그렇다   | 217   | 3.9  | 5.5  | 2.2  | 4.2  | 3.5  |
| 2. 그렇다      | 1,157 | 20.8 | 22.6 | 18.9 | 21.2 | 20.4 |
| 3. 그렇지 않다   | 3,108 | 55.9 | 54.3 | 57.7 | 54.1 | 58.0 |
| 4. 전혀 그렇지않다 | 1,075 | 19.3 | 17.6 | 21.2 | 20.5 | 18.0 |

## 5) 성인이 되면, 아마도 나는 정치에 참여할 것이다

|             |       |      |      |      |      |      |
|-------------|-------|------|------|------|------|------|
| 1. 매우 그렇다   | 384   | 6.9  | 8.6  | 5.0  | 7.5  | 6.1  |
| 2. 그렇다      | 1,309 | 23.5 | 23.7 | 23.3 | 24.0 | 22.9 |
| 3. 그렇지 않다   | 2,586 | 46.5 | 45.9 | 47.1 | 44.9 | 48.3 |
| 4. 전혀 그렇지않다 | 1,283 | 23.1 | 21.7 | 24.5 | 23.5 | 22.6 |

## 6) 나는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정치문제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

|             |       |      |      |      |      |      |
|-------------|-------|------|------|------|------|------|
| 1. 매우 그렇다   | 286   | 5.1  | 7.0  | 3.2  | 5.8  | 4.4  |
| 2. 그렇다      | 1,501 | 27.0 | 28.0 | 25.9 | 26.5 | 27.6 |
| 3. 그렇지 않다   | 2,773 | 49.9 | 48.0 | 51.9 | 48.3 | 51.7 |
| 4. 전혀 그렇지않다 | 1,002 | 18.0 | 17.0 | 19.1 | 19.5 | 16.2 |

문 14] 남자와 여자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다음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남자와 여자는 정부의 일에 참여하는 데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             |       |      |      |      |      |      |
|-------------|-------|------|------|------|------|------|
| 1. 매우 그렇다   | 3,405 | 61.2 | 49.9 | 73.4 | 59.6 | 63.1 |
| 2. 그렇다      | 1,845 | 33.2 | 41.0 | 24.6 | 34.6 | 31.4 |
| 3. 그렇지 않다   | 218   | 3.9  | 6.1  | 1.5  | 4.0  | 3.8  |
| 4. 전혀 그렇지않다 | 97    | 1.7  | 2.9  | .4   | 1.8  | 1.7  |

## 2)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             |       |      |      |      |      |      |
|-------------|-------|------|------|------|------|------|
| 1. 매우 그렇다   | 3,286 | 59.1 | 47.7 | 71.4 | 58.7 | 59.5 |
| 2. 그렇다      | 1,827 | 32.9 | 40.1 | 25.0 | 34.5 | 30.9 |
| 3. 그렇지 않다   | 342   | 6.2  | 9.0  | 3.1  | 5.0  | 7.6  |
| 4. 전혀 그렇지않다 | 105   | 1.9  | 3.1  | .5   | 1.8  | 2.0  |

|  | 전 체 |    | 성 별 |    | 교 급 |     |
|--|-----|----|-----|----|-----|-----|
|  | 사례수 | 비율 | 남자  | 여자 | 중학생 | 고교생 |

## 3) 여자는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             |       |      |      |      |      |      |
|-------------|-------|------|------|------|------|------|
| 1. 매우 그렇다   | 205   | 3.7  | 5.7  | 1.5  | 4.0  | 3.3  |
| 2. 그렇다      | 379   | 6.8  | 9.7  | 3.7  | 7.2  | 6.4  |
| 3. 그렇지 않다   | 1,519 | 27.3 | 37.1 | 16.6 | 28.3 | 26.1 |
| 4. 전혀 그렇지않다 | 3,458 | 62.2 | 47.4 | 78.2 | 60.5 | 64.2 |

## 4) 일자리가 부족하면 여자보다 남자에게 취업의 우선권을 줘야 한다

|             |       |      |      |      |      |      |
|-------------|-------|------|------|------|------|------|
| 1. 매우 그렇다   | 453   | 8.2  | 13.0 | 2.9  | 8.2  | 8.1  |
| 2. 그렇다      | 951   | 17.1 | 24.7 | 9.0  | 16.3 | 18.1 |
| 3. 그렇지 않다   | 1,727 | 31.1 | 35.6 | 26.3 | 32.0 | 30.1 |
| 4. 전혀 그렇지않다 | 2,421 | 43.6 | 26.7 | 61.9 | 43.5 | 43.7 |

## 5) 같은 일을 하면 남녀 구분 없이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

|             |       |      |      |      |      |      |
|-------------|-------|------|------|------|------|------|
| 1. 매우 그렇다   | 3,219 | 57.9 | 44.9 | 71.9 | 58.1 | 57.7 |
| 2. 그렇다      | 1,739 | 31.3 | 39.3 | 22.6 | 31.1 | 31.5 |
| 3. 그렇지 않다   | 425   | 7.6  | 11.1 | 3.9  | 7.3  | 8.0  |
| 4. 전혀 그렇지않다 | 177   | 3.2  | 4.6  | 1.6  | 3.5  | 2.8  |

## 6) 남자는 여자보다 정치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더 많이 갖고 있다

|             |       |      |      |      |      |      |
|-------------|-------|------|------|------|------|------|
| 1. 매우 그렇다   | 386   | 6.9  | 10.0 | 3.6  | 7.7  | 6.0  |
| 2. 그렇다      | 1,108 | 19.9 | 25.7 | 13.7 | 20.2 | 19.6 |
| 3. 그렇지 않다   | 2,084 | 37.5 | 42.4 | 32.1 | 37.1 | 37.9 |
| 4. 전혀 그렇지않다 | 1,982 | 35.6 | 21.9 | 50.6 | 34.9 | 36.5 |

## 7)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자녀를 기르는 것이다

|             |       |      |      |      |      |      |
|-------------|-------|------|------|------|------|------|
| 1. 매우 그렇다   | 393   | 7.1  | 10.8 | 3.0  | 7.6  | 6.5  |
| 2. 그렇다      | 1,208 | 21.7 | 29.3 | 13.6 | 22.0 | 21.4 |
| 3. 그렇지 않다   | 2,055 | 37.0 | 38.3 | 35.5 | 36.7 | 37.3 |
| 4. 전혀 그렇지않다 | 1,902 | 34.2 | 21.6 | 47.9 | 33.6 | 34.9 |

|  | 전 체 |    | 성 별 |    | 교 급 |     |
|--|-----|----|-----|----|-----|-----|
|  | 사례수 | 비율 | 남자  | 여자 | 중학생 | 고교생 |

문 15]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다른 민족들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한국인과 동등한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

|             |       |      |      |      |      |      |
|-------------|-------|------|------|------|------|------|
| 1. 매우 그렇다   | 2,298 | 41.3 | 41.1 | 41.6 | 44.2 | 37.9 |
| 2. 그렇다      | 2,702 | 48.6 | 47.1 | 50.2 | 47.5 | 49.9 |
| 3. 그렇지 않다   | 408   | 7.3  | 8.4  | 6.2  | 6.2  | 8.7  |
| 4. 전혀 그렇지않다 | 154   | 2.8  | 3.5  | 2.0  | 2.1  | 3.5  |

2)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한국인과 동등한 취업기회를 가져야 한다

|             |       |      |      |      |      |      |
|-------------|-------|------|------|------|------|------|
| 1. 매우 그렇다   | 2,099 | 37.7 | 37.2 | 38.3 | 42.5 | 32.2 |
| 2. 그렇다      | 2,613 | 47.0 | 46.4 | 47.6 | 45.9 | 48.2 |
| 3. 그렇지 않다   | 677   | 12.2 | 12.6 | 11.7 | 9.3  | 15.5 |
| 4. 전혀 그렇지않다 | 172   | 3.1  | 3.7  | 2.4  | 2.3  | 4.1  |

3) 학교는 학생들이 다른 민족 사람들을 존중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             |       |      |      |      |      |      |
|-------------|-------|------|------|------|------|------|
| 1. 매우 그렇다   | 2,485 | 44.7 | 41.4 | 48.2 | 45.8 | 43.4 |
| 2. 그렇다      | 2,618 | 47.1 | 47.8 | 46.3 | 46.3 | 48.0 |
| 3. 그렇지 않다   | 341   | 6.1  | 8.0  | 4.1  | 5.9  | 6.4  |
| 4. 전혀 그렇지않다 | 117   | 2.1  | 2.7  | 1.4  | 2.0  | 2.2  |

4)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다른 민족 사람들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             |       |      |      |      |      |      |
|-------------|-------|------|------|------|------|------|
| 1. 매우 그렇다   | 1,323 | 23.8 | 25.6 | 21.9 | 27.7 | 19.3 |
| 2. 그렇다      | 2,243 | 40.4 | 40.4 | 40.3 | 41.9 | 38.5 |
| 3. 그렇지 않다   | 1,486 | 26.7 | 24.8 | 28.9 | 23.0 | 31.2 |
| 4. 전혀 그렇지않다 | 505   | 9.1  | 9.2  | 9.0  | 7.5  | 11.0 |

5)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다른 민족의 사람들에게도 한국인과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             |       |      |      |      |      |      |
|-------------|-------|------|------|------|------|------|
| 1. 매우 그렇다   | 1,984 | 35.7 | 35.1 | 36.4 | 38.6 | 32.3 |
| 2. 그렇다      | 2,803 | 50.4 | 49.7 | 51.3 | 50.2 | 50.7 |
| 3. 그렇지 않다   | 568   | 10.2 | 11.0 | 9.3  | 8.3  | 12.5 |
| 4. 전혀 그렇지않다 | 202   | 3.6  | 4.2  | 3.0  | 2.9  | 4.5  |

|  | 전 체 |    | 성 별 |    | 교 급 |     |
|--|-----|----|-----|----|-----|-----|
|  | 사례수 | 비율 | 남자  | 여자 | 중학생 | 고교생 |

문 16]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 출신 이주민에 관한 다음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이주민들이 자기 모국의 언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      |      |      |      |      |
|-------------|-------|------|------|------|------|------|
| 1. 매우 그렇다   | 1,040 | 18.7 | 21.0 | 16.2 | 21.1 | 15.9 |
| 2. 그렇다      | 3,113 | 56.0 | 53.4 | 58.7 | 55.3 | 56.8 |
| 3. 그렇지 않다   | 1,168 | 21.0 | 20.0 | 22.1 | 19.6 | 22.6 |
| 4. 전혀 그렇지않다 | 242   | 4.4  | 5.5  | 3.1  | 4.0  | 4.8  |

2) 이주민의 자녀들도 한국 아이들과 동일한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

|             |       |      |      |      |      |      |
|-------------|-------|------|------|------|------|------|
| 1. 매우 그렇다   | 2,113 | 38.0 | 36.0 | 40.1 | 40.0 | 35.6 |
| 2. 그렇다      | 2,983 | 53.6 | 53.6 | 53.6 | 52.4 | 55.0 |
| 3. 그렇지 않다   | 349   | 6.3  | 7.4  | 5.1  | 5.7  | 6.9  |
| 4. 전혀 그렇지않다 | 120   | 2.2  | 3.0  | 1.2  | 1.9  | 2.4  |

3) 오랜 기간 한국에 거주한 이주민들에게는 선거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      |      |      |      |      |
|-------------|-------|------|------|------|------|------|
| 1. 매우 그렇다   | 1,727 | 31.1 | 31.1 | 31.0 | 34.8 | 26.7 |
| 2. 그렇다      | 2,767 | 49.8 | 48.8 | 50.8 | 48.4 | 51.4 |
| 3. 그렇지 않다   | 853   | 15.3 | 15.5 | 15.2 | 13.6 | 17.4 |
| 4. 전혀 그렇지않다 | 214   | 3.8  | 4.7  | 2.9  | 3.3  | 4.5  |

4) 이주민들이 자기 나라의 관습과 생활방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      |      |      |      |      |
|-------------|-------|------|------|------|------|------|
| 1. 매우 그렇다   | 1,162 | 20.9 | 23.8 | 17.7 | 24.4 | 16.8 |
| 2. 그렇다      | 2,909 | 52.3 | 50.1 | 54.8 | 51.8 | 53.0 |
| 3. 그렇지 않다   | 1,234 | 22.2 | 20.4 | 24.2 | 19.9 | 24.9 |
| 4. 전혀 그렇지않다 | 255   | 4.6  | 5.8  | 3.3  | 4.0  | 5.3  |

5) 이주민들도 한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      |      |      |      |      |
|-------------|-------|------|------|------|------|------|
| 1. 매우 그렇다   | 1,799 | 32.4 | 31.9 | 32.8 | 36.5 | 27.4 |
| 2. 그렇다      | 3,051 | 54.9 | 53.7 | 56.1 | 52.3 | 57.9 |
| 3. 그렇지 않다   | 549   | 9.9  | 10.5 | 9.2  | 9.0  | 10.8 |
| 4. 전혀 그렇지않다 | 162   | 2.9  | 3.9  | 1.8  | 2.1  | 3.8  |

|  | 전 체 |    | 성 별 |    | 교 급 |     |
|--|-----|----|-----|----|-----|-----|
|  | 사례수 | 비율 | 남자  | 여자 | 중학생 | 고교생 |

6) 일자리가 부족할 때는 외국 출신 이주민의 입국을 규제해야 한다

|             |       |      |      |      |      |      |
|-------------|-------|------|------|------|------|------|
| 1. 매우 그렇다   | 798   | 14.3 | 16.9 | 11.6 | 15.0 | 13.6 |
| 2. 그렇다      | 2,230 | 40.1 | 39.7 | 40.5 | 39.4 | 40.9 |
| 3. 그렇지 않다   | 1,964 | 35.3 | 32.7 | 38.1 | 34.7 | 36.1 |
| 4. 전혀 그렇지않다 | 569   | 10.2 | 10.7 | 9.7  | 10.9 | 9.4  |

문 17] 다음과 같은 기관이나 조직, 사람들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1) 중앙 정부와 행정부처 (대통령, 장관 등)

|                |       |      |      |      |      |      |
|----------------|-------|------|------|------|------|------|
| 1. 매우 신뢰한다     | 246   | 4.4  | 6.6  | 2.1  | 5.9  | 2.7  |
| 2. 대체로 신뢰한다    | 1,453 | 26.1 | 29.2 | 22.8 | 31.5 | 19.8 |
| 3.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 2,503 | 45.0 | 39.6 | 50.9 | 42.1 | 48.4 |
| 4.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 1,360 | 24.5 | 24.7 | 24.2 | 20.4 | 29.2 |

2) 지방 정부와 행정조직 (시장, 군수 등)

|                |       |      |      |      |      |      |
|----------------|-------|------|------|------|------|------|
| 1. 매우 신뢰한다     | 193   | 3.5  | 5.5  | 1.3  | 4.7  | 2.0  |
| 2. 대체로 신뢰한다    | 1,569 | 28.2 | 31.2 | 25.0 | 33.1 | 22.5 |
| 3.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 2,759 | 49.6 | 43.9 | 55.8 | 46.7 | 53.0 |
| 4.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 1,038 | 18.7 | 19.5 | 17.8 | 15.4 | 22.5 |

3) 법원

|                |       |      |      |      |      |      |
|----------------|-------|------|------|------|------|------|
| 1. 매우 신뢰한다     | 555   | 10.0 | 12.7 | 7.0  | 13.9 | 5.3  |
| 2. 대체로 신뢰한다    | 2,285 | 41.1 | 40.0 | 42.3 | 43.2 | 38.7 |
| 3.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 1,943 | 35.0 | 32.0 | 38.2 | 31.5 | 39.1 |
| 4.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 772   | 13.9 | 15.2 | 12.5 | 11.3 | 16.9 |

4) 경찰

|                |       |      |      |      |      |      |
|----------------|-------|------|------|------|------|------|
| 1. 매우 신뢰한다     | 614   | 11.0 | 14.8 | 7.0  | 16.1 | 5.1  |
| 2. 대체로 신뢰한다    | 2,220 | 39.9 | 41.5 | 38.2 | 43.3 | 35.9 |
| 3.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 1,842 | 33.1 | 27.7 | 39.0 | 28.0 | 39.2 |
| 4.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 885   | 15.9 | 15.9 | 15.9 | 12.6 | 19.8 |

|  | 전 체 |    | 성 별 |    | 교 급 |     |
|--|-----|----|-----|----|-----|-----|
|  | 사례수 | 비율 | 남자  | 여자 | 중학생 | 고교생 |

## 5) 정당

|                |       |      |      |      |      |      |
|----------------|-------|------|------|------|------|------|
| 1. 매우 신뢰한다     | 237   | 4.3  | 6.2  | 2.1  | 6.3  | 1.9  |
| 2. 대체로 신뢰한다    | 1,302 | 23.4 | 24.9 | 21.8 | 29.5 | 16.2 |
| 3.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 2,697 | 48.5 | 43.7 | 53.7 | 44.9 | 52.7 |
| 4.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 1,326 | 23.8 | 25.2 | 22.4 | 19.2 | 29.3 |

## 6) 국회

|                |       |      |      |      |      |      |
|----------------|-------|------|------|------|------|------|
| 1. 매우 신뢰한다     | 286   | 5.1  | 7.1  | 3.0  | 7.8  | 2.0  |
| 2. 대체로 신뢰한다    | 1,288 | 23.2 | 24.5 | 21.8 | 29.9 | 15.2 |
| 3.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 2,520 | 45.3 | 41.1 | 49.9 | 41.8 | 49.5 |
| 4.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 1,463 | 26.3 | 27.3 | 25.2 | 20.5 | 33.2 |

## 7) 미디어 (TV, 신문, 라디오 등)

|                |       |      |      |      |      |      |
|----------------|-------|------|------|------|------|------|
| 1. 매우 신뢰한다     | 452   | 8.1  | 10.2 | 5.9  | 11.0 | 4.7  |
| 2. 대체로 신뢰한다    | 2,530 | 45.5 | 44.8 | 46.3 | 47.7 | 43.0 |
| 3.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 1,960 | 35.3 | 32.5 | 38.3 | 32.5 | 38.6 |
| 4.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 615   | 11.1 | 12.5 | 9.5  | 8.8  | 13.7 |

## 8) 군대

|                |       |      |      |      |      |      |
|----------------|-------|------|------|------|------|------|
| 1. 매우 신뢰한다     | 588   | 10.6 | 14.3 | 6.5  | 13.4 | 7.3  |
| 2. 대체로 신뢰한다    | 2,369 | 42.6 | 40.0 | 45.4 | 45.0 | 39.8 |
| 3.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 1,924 | 34.6 | 31.4 | 38.0 | 31.4 | 38.4 |
| 4.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 679   | 12.2 | 14.2 | 10.0 | 10.2 | 14.6 |

## 9) 학교

|                |       |      |      |      |      |      |
|----------------|-------|------|------|------|------|------|
| 1. 매우 신뢰한다     | 565   | 10.2 | 13.5 | 6.6  | 13.0 | 6.8  |
| 2. 대체로 신뢰한다    | 2,614 | 47.0 | 44.1 | 50.1 | 47.7 | 46.2 |
| 3.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 1,640 | 29.5 | 27.1 | 32.1 | 27.5 | 31.8 |
| 4.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 741   | 13.3 | 15.3 | 11.2 | 11.8 | 15.2 |

|  | 전 체 |    | 성 별 |    | 교 급 |     |
|--|-----|----|-----|----|-----|-----|
|  | 사례수 | 비율 | 남자  | 여자 | 중학생 | 고교생 |

## 10) 국제연합(UN)

|                |       |      |      |      |      |      |
|----------------|-------|------|------|------|------|------|
| 1. 매우 신뢰한다     | 1,216 | 21.9 | 26.4 | 17.0 | 25.8 | 17.3 |
| 2. 대체로 신뢰한다    | 2,537 | 45.7 | 41.3 | 50.4 | 45.1 | 46.3 |
| 3.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 1,273 | 22.9 | 21.6 | 24.3 | 21.1 | 25.0 |
| 4.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 531   | 9.6  | 10.8 | 8.3  | 8.1  | 11.3 |

## 11) 일반 국민들

|                |       |      |      |      |      |      |
|----------------|-------|------|------|------|------|------|
| 1. 매우 신뢰한다     | 699   | 12.6 | 16.4 | 8.4  | 14.6 | 10.2 |
| 2. 대체로 신뢰한다    | 2,721 | 48.9 | 46.0 | 52.2 | 48.4 | 49.6 |
| 3.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 1,652 | 29.7 | 27.6 | 32.0 | 29.1 | 30.4 |
| 4.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 487   | 8.8  | 10.0 | 7.4  | 7.9  | 9.8  |

문 18] 우리나라에 관한 다음의 설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태극기는 나에게 소중하다

|             |       |      |      |      |      |      |
|-------------|-------|------|------|------|------|------|
| 1. 매우 그렇다   | 1,764 | 31.7 | 32.3 | 31.0 | 34.4 | 28.5 |
| 2. 그렇다      | 2,993 | 53.8 | 50.8 | 57.0 | 51.8 | 56.1 |
| 3. 그렇지 않다   | 645   | 11.6 | 12.8 | 10.3 | 11.1 | 12.2 |
| 4. 전혀 그렇지않다 | 164   | 2.9  | 4.1  | 1.7  | 2.7  | 3.2  |

## 2) 우리나라의 정치제도는 잘 운영되고 있다

|             |       |      |      |      |      |      |
|-------------|-------|------|------|------|------|------|
| 1. 매우 그렇다   | 268   | 4.8  | 7.2  | 2.2  | 6.8  | 2.5  |
| 2. 그렇다      | 1,477 | 26.6 | 29.2 | 23.7 | 33.6 | 18.3 |
| 3. 그렇지 않다   | 2,620 | 47.1 | 42.3 | 52.3 | 43.0 | 52.0 |
| 4. 전혀 그렇지않다 | 1,195 | 21.5 | 21.2 | 21.8 | 16.6 | 27.3 |

## 3) 나는 우리나라를 매우 존경한다

|             |       |      |      |      |      |      |
|-------------|-------|------|------|------|------|------|
| 1. 매우 그렇다   | 1,101 | 19.8 | 23.8 | 15.5 | 24.6 | 14.1 |
| 2. 그렇다      | 2,637 | 47.4 | 44.7 | 50.4 | 48.7 | 45.9 |
| 3. 그렇지 않다   | 1,422 | 25.6 | 23.2 | 28.1 | 20.9 | 31.0 |
| 4. 전혀 그렇지않다 | 403   | 7.2  | 8.4  | 6.0  | 5.8  | 8.9  |

|  | 전 체 |    | 성 별 |    | 교 급 |     |
|--|-----|----|-----|----|-----|-----|
|  | 사례수 | 비율 | 남자  | 여자 | 중학생 | 고교생 |

## 4) 우리나라가 성취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             |       |      |      |      |      |      |
|-------------|-------|------|------|------|------|------|
| 1. 매우 그렇다   | 1,675 | 30.1 | 31.6 | 28.5 | 31.5 | 28.5 |
| 2. 그렇다      | 3,077 | 55.4 | 51.3 | 59.8 | 55.2 | 55.5 |
| 3. 그렇지 않다   | 576   | 10.4 | 11.5 | 9.2  | 9.6  | 11.2 |
| 4. 전혀 그렇지않다 | 230   | 4.1  | 5.6  | 2.5  | 3.6  | 4.7  |

## 5) 나는 다른 나라로 이민가서 살고 싶다

|             |       |      |      |      |      |      |
|-------------|-------|------|------|------|------|------|
| 1. 매우 그렇다   | 800   | 14.4 | 13.5 | 15.4 | 12.1 | 17.2 |
| 2. 그렇다      | 1,663 | 29.9 | 26.6 | 33.6 | 25.8 | 34.8 |
| 3. 그렇지 않다   | 2,067 | 37.2 | 36.9 | 37.5 | 39.3 | 34.8 |
| 4. 전혀 그렇지않다 | 1,024 | 18.4 | 23.0 | 13.5 | 22.8 | 13.3 |

## 6) 나는 한국에서 살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다

|             |       |      |      |      |      |      |
|-------------|-------|------|------|------|------|------|
| 1. 매우 그렇다   | 1,233 | 22.2 | 24.5 | 19.7 | 26.8 | 16.8 |
| 2. 그렇다      | 2,981 | 53.7 | 50.1 | 57.6 | 54.0 | 53.3 |
| 3. 그렇지 않다   | 1,061 | 19.1 | 18.9 | 19.4 | 15.1 | 23.8 |
| 4. 전혀 그렇지않다 | 277   | 5.0  | 6.5  | 3.3  | 4.1  | 6.1  |

## 7) 우리나라는 환경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             |       |      |      |      |      |      |
|-------------|-------|------|------|------|------|------|
| 1. 매우 그렇다   | 709   | 12.7 | 15.8 | 9.5  | 16.2 | 8.6  |
| 2. 그렇다      | 1,761 | 31.7 | 33.3 | 29.9 | 34.5 | 28.3 |
| 3. 그렇지 않다   | 2,128 | 38.3 | 34.0 | 42.9 | 34.8 | 42.3 |
| 4. 전혀 그렇지않다 | 965   | 17.3 | 17.0 | 17.8 | 14.5 | 20.7 |

## 8) 대체로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살기 좋은 나라이다

|             |       |      |      |      |      |      |
|-------------|-------|------|------|------|------|------|
| 1. 매우 그렇다   | 1,060 | 19.1 | 22.5 | 15.3 | 23.7 | 13.5 |
| 2. 그렇다      | 2,907 | 52.2 | 51.1 | 53.5 | 54.2 | 50.0 |
| 3. 그렇지 않다   | 1,187 | 21.3 | 17.9 | 25.1 | 16.9 | 26.6 |
| 4. 전혀 그렇지않다 | 410   | 7.4  | 8.5  | 6.2  | 5.2  | 9.9  |

|  | 전 체 |    | 성 별 |    | 교 급 |     |
|--|-----|----|-----|----|-----|-----|
|  | 사례수 | 비율 | 남자  | 여자 | 중학생 | 고교생 |

문 19] 우리나라의 여러 정당 중에서 자신이 지지하고 있는 정당이 있습니까?

|       |       |      |      |      |      |      |
|-------|-------|------|------|------|------|------|
| 1. 있다 | 663   | 12.1 | 13.8 | 10.1 | 12.9 | 11.0 |
| 2. 없다 | 4,836 | 87.9 | 86.2 | 89.9 | 87.1 | 89.0 |

문 20] 만약 지지하는 정당이 있다면, 그 정당을 어느 정도 지지하십니까?

|               |     |      |      |      |      |      |
|---------------|-----|------|------|------|------|------|
| 1. 많이 지지한다    | 132 | 20.0 | 24.1 | 14.0 | 20.6 | 19.2 |
| 2. 어느 정도 지지한다 | 345 | 52.4 | 53.6 | 50.6 | 53.3 | 51.1 |
| 3. 약간 지지한다    | 182 | 27.6 | 22.3 | 35.5 | 26.1 | 29.7 |

문 21] 다음과 같은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국가간 분쟁에 대한 신문기사 토론하기

|                |       |      |      |      |      |      |
|----------------|-------|------|------|------|------|------|
| 1. 매우 바람직 하다   | 738   | 13.3 | 13.7 | 12.9 | 12.8 | 14.0 |
| 2. 바람직 하다      | 3,794 | 68.6 | 64.4 | 73.1 | 68.2 | 69.1 |
| 3. 바람직하지 않다    | 787   | 14.2 | 16.4 | 11.9 | 14.8 | 13.5 |
| 4.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 213   | 3.9  | 5.5  | 2.1  | 4.2  | 3.4  |

2) 정치적 또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

|                |       |      |      |      |      |      |
|----------------|-------|------|------|------|------|------|
| 1. 매우 바람직 하다   | 1070  | 19.3 | 18.1 | 20.7 | 19.4 | 19.3 |
| 2. 바람직 하다      | 3,758 | 68.0 | 64.8 | 71.4 | 68.0 | 67.9 |
| 3. 바람직하지 않다    | 526   | 9.5  | 12.5 | 6.3  | 9.3  | 9.7  |
| 4.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 176   | 3.2  | 4.6  | 1.7  | 3.2  | 3.1  |

3) 학교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기

|                |       |      |      |      |      |      |
|----------------|-------|------|------|------|------|------|
| 1. 매우 바람직 하다   | 954   | 17.3 | 17.2 | 17.4 | 18.0 | 16.4 |
| 2. 바람직 하다      | 3,627 | 65.6 | 60.9 | 70.7 | 64.8 | 66.6 |
| 3. 바람직하지 않다    | 743   | 13.4 | 16.7 | 9.9  | 13.4 | 13.5 |
| 4.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 203   | 3.7  | 5.2  | 2.0  | 3.8  | 3.5  |

4) 학교의 변화를 위한 학생들의 모임을 만들기

|                |       |      |      |      |      |      |
|----------------|-------|------|------|------|------|------|
| 1. 매우 바람직 하다   | 1,332 | 24.1 | 22.0 | 26.3 | 23.3 | 25.1 |
| 2. 바람직 하다      | 3,414 | 61.7 | 59.3 | 64.4 | 62.3 | 61.1 |
| 3. 바람직하지 않다    | 590   | 10.7 | 13.5 | 7.6  | 10.9 | 10.4 |
| 4.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 193   | 3.5  | 5.2  | 1.6  | 3.5  | 3.5  |

|  | 전 체 |    | 성 별 |    | 교 급 |     |
|--|-----|----|-----|----|-----|-----|
|  | 사례수 | 비율 | 남자  | 여자 | 중학생 | 고교생 |

## 5) 논쟁 중인 주제에 대한 TV토론 지켜보기

|                |       |      |      |      |      |      |
|----------------|-------|------|------|------|------|------|
| 1. 매우 바람직 하다   | 887   | 16.0 | 16.3 | 15.8 | 15.3 | 17.0 |
| 2. 바람직 하다      | 3,567 | 64.5 | 59.9 | 69.5 | 64.9 | 64.1 |
| 3. 바람직하지 않다    | 850   | 15.4 | 18.1 | 12.5 | 15.7 | 14.9 |
| 4.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 224   | 4.1  | 5.8  | 2.2  | 4.1  | 4.0  |

## 6) 현안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여 신문에 보내기

|                |       |      |      |      |      |      |
|----------------|-------|------|------|------|------|------|
| 1. 매우 바람직 하다   | 837   | 15.1 | 15.4 | 14.8 | 14.6 | 15.8 |
| 2. 바람직 하다      | 3,468 | 62.7 | 57.9 | 67.9 | 63.0 | 62.4 |
| 3. 바람직하지 않다    | 983   | 17.8 | 20.7 | 14.7 | 18.0 | 17.6 |
| 4.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 240   | 4.3  | 6.0  | 2.6  | 4.5  | 4.2  |

## 7) 학급에서 사회적 또는 정치적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기

|                |       |      |      |      |      |      |
|----------------|-------|------|------|------|------|------|
| 1. 매우 바람직 하다   | 1,028 | 18.6 | 18.1 | 19.1 | 19.5 | 17.5 |
| 2. 바람직 하다      | 3,542 | 64.0 | 60.0 | 68.4 | 63.7 | 64.5 |
| 3. 바람직하지 않다    | 742   | 13.4 | 16.1 | 10.6 | 12.8 | 14.2 |
| 4.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 219   | 4.0  | 5.8  | 2.0  | 4.0  | 3.9  |

문 22] 잘못된 일에 대해 시민들이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장래에 자신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1) 신문에 편지 보내기

|                  |       |      |      |      |      |      |
|------------------|-------|------|------|------|------|------|
| 1. 확실히 할 것이다     | 293   | 5.3  | 6.2  | 4.2  | 6.3  | 4.0  |
| 2. 아마도 할 것이다     | 1,375 | 24.7 | 26.1 | 23.2 | 25.8 | 23.5 |
| 3. 아마도 하지 않을 것이다 | 2,976 | 53.5 | 50.7 | 56.5 | 50.8 | 56.7 |
| 4. 확실히 하지 않을 것이다 | 920   | 16.5 | 17.0 | 16.0 | 17.1 | 15.9 |

## 2) 자기 주장을 담은 배지를 달거나 T셔츠 입기

|                  |       |      |      |      |      |      |
|------------------|-------|------|------|------|------|------|
| 1. 확실히 할 것이다     | 262   | 4.7  | 5.8  | 3.6  | 5.2  | 4.2  |
| 2. 아마도 할 것이다     | 1,168 | 21.0 | 21.9 | 20.0 | 21.2 | 20.7 |
| 3. 아마도 하지 않을 것이다 | 2,888 | 51.9 | 50.1 | 53.8 | 51.5 | 52.4 |
| 4. 확실히 하지 않을 것이다 | 1,246 | 22.4 | 22.2 | 22.6 | 22.1 | 22.7 |

|  | 전 체 |    | 성 별 |    | 교 급 |     |
|--|-----|----|-----|----|-----|-----|
|  | 사례수 | 비율 | 남자  | 여자 | 중학생 | 고교생 |

## 3) 투표로 뽑힌 공무원(국회의원, 시장 등) 접촉하기

|                  |       |      |      |      |      |      |
|------------------|-------|------|------|------|------|------|
| 1. 확실히 할 것이다     | 327   | 5.9  | 7.5  | 4.2  | 6.8  | 4.8  |
| 2. 아마도 할 것이다     | 1,255 | 22.6 | 25.5 | 19.4 | 23.6 | 21.4 |
| 3. 아마도 하지 않을 것이다 | 2,890 | 51.9 | 48.4 | 55.8 | 49.6 | 54.8 |
| 4. 확실히 하지 않을 것이다 | 1,092 | 19.6 | 18.7 | 20.7 | 20.1 | 19.1 |

## 4) 평화적인 시위나 행진에 참여하기

|                  |       |      |      |      |      |      |
|------------------|-------|------|------|------|------|------|
| 1. 확실히 할 것이다     | 656   | 11.8 | 12.5 | 11.1 | 12.6 | 10.9 |
| 2. 아마도 할 것이다     | 2,191 | 39.4 | 40.1 | 38.7 | 36.1 | 43.3 |
| 3. 아마도 하지 않을 것이다 | 1,977 | 35.6 | 33.8 | 37.5 | 36.4 | 34.5 |
| 4. 확실히 하지 않을 것이다 | 735   | 13.2 | 13.6 | 12.8 | 14.9 | 11.3 |

## 5) 청원서에 다른 사람 서명받기

|                  |       |      |      |      |      |      |
|------------------|-------|------|------|------|------|------|
| 1. 확실히 할 것이다     | 408   | 7.3  | 8.0  | 6.7  | 7.3  | 7.4  |
| 2. 아마도 할 것이다     | 1,540 | 27.7 | 26.5 | 29.1 | 25.5 | 30.3 |
| 3. 아마도 하지 않을 것이다 | 2,720 | 48.9 | 48.8 | 49.1 | 49.8 | 47.9 |
| 4. 확실히 하지 않을 것이다 | 891   | 16.0 | 16.8 | 15.2 | 17.4 | 14.5 |

## 6) 특정 상품을 사지 않기

|                  |       |      |      |      |      |      |
|------------------|-------|------|------|------|------|------|
| 1. 확실히 할 것이다     | 635   | 11.4 | 10.7 | 12.3 | 10.7 | 12.3 |
| 2. 아마도 할 것이다     | 2,053 | 36.9 | 33.7 | 40.4 | 34.3 | 40.0 |
| 3. 아마도 하지 않을 것이다 | 2,097 | 37.7 | 39.7 | 35.5 | 40.2 | 34.8 |
| 4. 확실히 하지 않을 것이다 | 775   | 13.9 | 15.9 | 11.8 | 14.8 | 13.0 |

## 7) 스프레이로 벽에 항의표어 쓰기

|                  |       |      |      |      |      |      |
|------------------|-------|------|------|------|------|------|
| 1. 확실히 할 것이다     | 205   | 3.7  | 5.4  | 1.9  | 4.5  | 2.7  |
| 2. 아마도 할 것이다     | 678   | 12.2 | 15.1 | 9.0  | 13.5 | 10.7 |
| 3. 아마도 하지 않을 것이다 | 2,653 | 47.7 | 46.0 | 49.5 | 47.3 | 48.2 |
| 4. 확실히 하지 않을 것이다 | 2,026 | 36.4 | 33.5 | 39.6 | 34.8 | 38.4 |

|  | 전 체 |    | 성 별 |    | 교 급 |     |
|--|-----|----|-----|----|-----|-----|
|  | 사례수 | 비율 | 남자  | 여자 | 중학생 | 고교생 |

## 8) 도로를 막고 항의집회 하기

|                  |       |      |      |      |      |      |
|------------------|-------|------|------|------|------|------|
| 1. 확실히 할 것이다     | 207   | 3.7  | 5.3  | 2.0  | 4.2  | 3.1  |
| 2. 아마도 할 것이다     | 678   | 12.2 | 15.4 | 8.7  | 13.0 | 11.2 |
| 3. 아마도 하지 않을 것이다 | 2,627 | 47.3 | 45.1 | 49.6 | 46.5 | 48.2 |
| 4. 확실히 하지 않을 것이다 | 2,047 | 36.8 | 34.2 | 39.7 | 36.3 | 37.5 |

## 9) 공공건물을 점거하고 항의집회 하기

|                  |       |      |      |      |      |      |
|------------------|-------|------|------|------|------|------|
| 1. 확실히 할 것이다     | 227   | 4.1  | 5.8  | 2.2  | 5.0  | 3.1  |
| 2. 아마도 할 것이다     | 665   | 12.0 | 15.0 | 8.6  | 13.5 | 10.1 |
| 3. 아마도 하지 않을 것이다 | 2,628 | 47.3 | 44.5 | 50.3 | 46.5 | 48.1 |
| 4. 확실히 하지 않을 것이다 | 2,041 | 36.7 | 34.7 | 38.9 | 35.0 | 38.7 |

문 23] 다음은 성인들이 할 수 있는 정치적인 행동입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 자신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1) 지역 단위 선거(시장/도지사/군수, 지방의회 의원 선거 등)에 투표하기

|                  |       |      |      |      |      |      |
|------------------|-------|------|------|------|------|------|
| 1. 확실히 할 것이다     | 2,550 | 45.8 | 41.1 | 50.9 | 44.0 | 48.0 |
| 2. 아마도 할 것이다     | 2,149 | 38.6 | 39.7 | 37.4 | 39.3 | 37.8 |
| 3. 아마도 하지 않을 것이다 | 604   | 10.8 | 12.8 | 8.8  | 12.0 | 9.5  |
| 4. 확실히 하지 않을 것이다 | 264   | 4.7  | 6.4  | 3.0  | 4.8  | 4.7  |

## 2) 국가 차원의 선거(대통령/국회의원 선거 등)에 투표하기

|                  |       |      |      |      |      |      |
|------------------|-------|------|------|------|------|------|
| 1. 확실히 할 것이다     | 2,922 | 52.5 | 46.8 | 58.7 | 49.8 | 55.7 |
| 2. 아마도 할 것이다     | 1,872 | 33.6 | 35.5 | 31.6 | 35.5 | 31.4 |
| 3. 아마도 하지 않을 것이다 | 533   | 9.6  | 12.0 | 6.9  | 10.3 | 8.7  |
| 4. 확실히 하지 않을 것이다 | 238   | 4.3  | 5.7  | 2.8  | 4.3  | 4.3  |

## 3) 투표하기 전에 후보자들에 관한 정보 수집하기

|                  |       |      |      |      |      |      |
|------------------|-------|------|------|------|------|------|
| 1. 확실히 할 것이다     | 1,289 | 23.2 | 21.7 | 24.8 | 21.8 | 24.9 |
| 2. 아마도 할 것이다     | 2,322 | 41.8 | 40.4 | 43.3 | 39.5 | 44.4 |
| 3. 아마도 하지 않을 것이다 | 1,501 | 27.0 | 27.8 | 26.1 | 29.7 | 23.8 |
| 4. 확실히 하지 않을 것이다 | 447   | 8.0  | 10.1 | 5.8  | 9.1  | 6.9  |

|  | 전 체 |    | 성 별 |    | 교 급 |     |
|--|-----|----|-----|----|-----|-----|
|  | 사례수 | 비율 | 남자  | 여자 | 중학생 | 고교생 |

## 4) 선거운동 기간 동안 후보자나 정당을 지원하는 활동하기

|                  |      |      |      |      |      |      |
|------------------|------|------|------|------|------|------|
| 1. 확실히 할 것이다     | 385  | 6.9  | 8.6  | 5.1  | 8.7  | 4.9  |
| 2. 아마도 할 것이다     | 986  | 17.7 | 20.5 | 14.8 | 19.2 | 16.0 |
| 3. 아마도 하지 않을 것이다 | 2847 | 51.2 | 47.5 | 55.2 | 49.7 | 53.0 |
| 4. 확실히 하지 않을 것이다 | 1341 | 24.1 | 23.3 | 25.0 | 22.3 | 26.2 |

## 5) 정당에 가입하기

|                  |      |      |      |      |      |      |
|------------------|------|------|------|------|------|------|
| 1. 확실히 할 것이다     | 210  | 3.8  | 4.9  | 2.5  | 4.6  | 2.8  |
| 2. 아마도 할 것이다     | 701  | 12.6 | 14.9 | 10.1 | 14.4 | 10.4 |
| 3. 아마도 하지 않을 것이다 | 2913 | 52.3 | 49.6 | 55.4 | 51.8 | 52.9 |
| 4. 확실히 하지 않을 것이다 | 1742 | 31.3 | 30.6 | 32.0 | 29.1 | 33.8 |

## 6)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                  |      |      |      |      |      |      |
|------------------|------|------|------|------|------|------|
| 1. 확실히 할 것이다     | 265  | 4.8  | 6.8  | 2.5  | 5.0  | 4.5  |
| 2. 아마도 할 것이다     | 929  | 16.7 | 20.0 | 13.1 | 15.6 | 18.0 |
| 3. 아마도 하지 않을 것이다 | 2904 | 52.2 | 48.7 | 56.0 | 53.6 | 50.5 |
| 4. 확실히 하지 않을 것이다 | 1466 | 26.3 | 24.5 | 28.4 | 25.8 | 27.0 |

## 7) 지역 단위 선거(시장/도지사/군수, 지방의회 의원 등)에 후보자로 출마하기

|                  |      |      |      |      |      |      |
|------------------|------|------|------|------|------|------|
| 1. 확실히 할 것이다     | 236  | 4.2  | 5.9  | 2.4  | 5.0  | 3.4  |
| 2. 아마도 할 것이다     | 639  | 11.5 | 14.6 | 8.1  | 13.0 | 9.7  |
| 3. 아마도 하지 않을 것이다 | 2455 | 44.1 | 44.3 | 43.9 | 44.1 | 44.2 |
| 4. 확실히 하지 않을 것이다 | 2234 | 40.2 | 35.2 | 45.5 | 37.9 | 42.8 |

문 24] 성인이 되기 이전에 자신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1) 지역사회 주민들을 돕는 봉사활동 하기

|                  |      |      |      |      |      |      |
|------------------|------|------|------|------|------|------|
| 1. 확실히 할 것이다     | 929  | 16.7 | 15.3 | 18.2 | 16.9 | 16.4 |
| 2. 아마도 할 것이다     | 2868 | 51.5 | 49.7 | 53.5 | 52.1 | 50.8 |
| 3. 아마도 하지 않을 것이다 | 1469 | 26.4 | 28.1 | 24.5 | 25.5 | 27.4 |
| 4. 확실히 하지 않을 것이다 | 301  | 5.4  | 6.9  | 3.8  | 5.4  | 5.4  |

|  | 전 체 |    | 성 별 |    | 교 급 |     |
|--|-----|----|-----|----|-----|-----|
|  | 사례수 | 비율 | 남자  | 여자 | 중학생 | 고교생 |

## 2) 정치·사회적 문제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                  |       |      |      |      |      |      |
|------------------|-------|------|------|------|------|------|
| 1. 확실히 할 것이다     | 576   | 10.3 | 11.1 | 9.5  | 10.5 | 10.2 |
| 2. 아마도 할 것이다     | 2,107 | 37.9 | 36.9 | 38.8 | 37.1 | 38.8 |
| 3. 아마도 하지 않을 것이다 | 2,376 | 42.7 | 41.8 | 43.6 | 42.8 | 42.6 |
| 4. 확실히 하지 않을 것이다 | 507   | 9.1  | 10.1 | 8.0  | 9.7  | 8.4  |

## 3) 정치·사회적 문제에 관하여 신문에 투고하기

|                  |       |      |      |      |      |      |
|------------------|-------|------|------|------|------|------|
| 1. 확실히 할 것이다     | 272   | 4.9  | 6.6  | 3.1  | 5.8  | 3.9  |
| 2. 아마도 할 것이다     | 992   | 17.8 | 21.1 | 14.3 | 20.2 | 15.0 |
| 3. 아마도 하지 않을 것이다 | 3,234 | 58.2 | 54.2 | 62.5 | 56.4 | 60.2 |
| 4. 확실히 하지 않을 것이다 | 1,062 | 19.1 | 18.1 | 20.2 | 17.6 | 20.9 |

## 4) 정치·사회적 문제에 관한 온라인 토론에 참여하기

|                  |       |      |      |      |      |      |
|------------------|-------|------|------|------|------|------|
| 1. 확실히 할 것이다     | 423   | 7.6  | 8.5  | 6.6  | 8.3  | 6.8  |
| 2. 아마도 할 것이다     | 1,424 | 25.6 | 26.9 | 24.2 | 26.0 | 25.2 |
| 3. 아마도 하지 않을 것이다 | 2,794 | 50.2 | 47.8 | 52.9 | 49.3 | 51.3 |
| 4. 확실히 하지 않을 것이다 | 921   | 16.6 | 16.8 | 16.3 | 16.4 | 16.7 |

## 5) 정치·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단체/조직에 가입하기

|                  |       |      |      |      |      |      |
|------------------|-------|------|------|------|------|------|
| 1. 확실히 할 것이다     | 289   | 5.2  | 6.7  | 3.5  | 6.4  | 3.8  |
| 2. 아마도 할 것이다     | 945   | 17.0 | 19.6 | 14.1 | 18.1 | 15.6 |
| 3. 아마도 하지 않을 것이다 | 3,036 | 54.5 | 51.0 | 58.4 | 53.6 | 55.7 |
| 4. 확실히 하지 않을 것이다 | 1,296 | 23.3 | 22.7 | 24.0 | 21.9 | 24.9 |

## 문 25] 학생의 성별은?

|       |       |      |       |       |      |      |
|-------|-------|------|-------|-------|------|------|
| 1. 남자 | 2,897 | 52.0 | 100.0 | .0    | 54.0 | 49.7 |
| 2. 여자 | 2,671 | 48.0 | .0    | 100.0 | 46.0 | 50.3 |

## 문 26] 부모님(새아버지, 새어머니도 포함)은 어떻게 되시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      |
|-----------------|-------|------|------|------|------|------|
| 1. 부모님이 모두 계시다  | 5,084 | 91.4 | 89.9 | 93.1 | 92.3 | 90.4 |
| 2. 아버지만 계시다     | 184   | 3.3  | 4.1  | 2.4  | 3.1  | 3.5  |
| 3. 어머니만 계시다     | 267   | 4.8  | 5.3  | 4.3  | 4.1  | 5.7  |
| 4. 부모님 모두 안 계시다 | 25    | .4   | .7   | .2   | .5   | .4   |

|  | 전 체 |    | 성 별 |    | 교 급 |     |
|--|-----|----|-----|----|-----|-----|
|  | 사례수 | 비율 | 남자  | 여자 | 중학생 | 고교생 |

문 27]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졸업한 학교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예: "고등학교 중퇴"는 "중학교 졸업"으로 응답).

1) 아버지

|                |      |      |      |      |      |      |
|----------------|------|------|------|------|------|------|
| 1. 학교 안다님      | 9    | .2   | .2   | .2   | .1   | .2   |
| 2. 초등학교 졸업     | 80   | 1.6  | 1.7  | 1.4  | 1.1  | 2.1  |
| 3. 중학교 졸업      | 195  | 3.8  | 4.3  | 3.2  | 2.7  | 5.1  |
| 4. 고등학교 졸업     | 2104 | 41.0 | 40.8 | 41.3 | 38.2 | 44.3 |
| 5. 2-3년제 대학 졸업 | 487  | 9.5  | 9.9  | 9.0  | 11.2 | 7.5  |
| 6. 4년제 대학 졸업   | 1701 | 33.2 | 31.8 | 34.6 | 34.2 | 31.9 |
| 7. 대학원 졸업      | 555  | 10.8 | 11.2 | 10.4 | 12.4 | 8.9  |

2) 어머니

|                |      |      |      |      |      |      |
|----------------|------|------|------|------|------|------|
| 1. 학교 안다님      | 9    | .2   | .2   | .2   | .1   | .2   |
| 2. 초등학교 졸업     | 56   | 1.1  | 1.3  | .9   | .8   | 1.4  |
| 3. 중학교 졸업      | 211  | 4.1  | 4.3  | 3.8  | 3.5  | 4.7  |
| 4. 고등학교 졸업     | 2698 | 51.8 | 51.4 | 52.2 | 46.9 | 57.4 |
| 5. 2-3년제 대학 졸업 | 466  | 8.9  | 9.0  | 8.9  | 11.0 | 6.6  |
| 6. 4년제 대학 졸업   | 1412 | 27.1 | 25.8 | 28.5 | 28.5 | 25.5 |
| 7. 대학원 졸업      | 355  | 6.8  | 8.0  | 5.5  | 9.0  | 4.3  |

문 28] 자신의 학업성적(2012년 1학기)은 반에서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
| 1. 매우 못하는 수준 | 388  | 7.0  | 7.5  | 6.4  | 6.3  | 7.8  |
| 2. 못하는 수준    | 1428 | 25.7 | 27.0 | 24.3 | 24.3 | 27.3 |
| 3. 중간 수준     | 2334 | 42.0 | 39.5 | 44.7 | 42.2 | 41.8 |
| 4. 잘하는 수준    | 1034 | 18.6 | 17.8 | 19.5 | 19.6 | 17.5 |
| 5. 매우 잘하는 수준 | 375  | 6.7  | 8.2  | 5.2  | 7.7  | 5.6  |

문 29] 가정의 경제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
| 1. 매우 못산다 | 82   | 1.5  | 2.0  | .9   | 1.0  | 2.0  |
| 2.        | 272  | 4.9  | 5.5  | 4.2  | 3.1  | 7.1  |
| 3.        | 867  | 15.6 | 15.5 | 15.7 | 13.5 | 18.0 |
| 4. 보통 수준  | 2437 | 43.8 | 41.4 | 46.5 | 43.6 | 44.2 |
| 5.        | 1368 | 24.6 | 24.1 | 25.2 | 27.4 | 21.3 |
| 6.        | 393  | 7.1  | 8.1  | 6.0  | 8.7  | 5.2  |
| 7. 매우 잘산다 | 139  | 2.5  | 3.4  | 1.5  | 2.8  | 2.2  |



## 참 고 문 헌

- 김기현, 장근영, 조광수, 박현준 (2010).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Ⅲ: 총괄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성기 (2012). 학생자치와 학교공동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교육행정학회 편, **학교 규칙과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실천 방안**(학술대회 자료집) (pp. 99-114).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교육행정학회.
- 김주선 (2008). 강의식 법교육과 학생자치법정이 고등학생의 법의식에 미치는 영향. **법과인권교육연구**, 1(1), 1-24.
- 김태준, 이영민 (2011).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 I: 민주시민역량 교육환경 및 효과**.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
- 박성혁, 곽한영 (2007). **학생자치법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한국학술정보.
- 이대성 (2010). 학생자치법정을 활용한 학교 법교육의 실천 가능성. **법교육연구**, 5(2), 75-103.
- 이영현 (2006). **사회적 자본 연구동향**.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종원, 김영인 (2009). 세대간 의식구조 비교를 통한 미래사회 변동 전망 II: 사회·정치·의식 및 참여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종원, 오승근, 김은정 (2010). 세대간 의식구조 비교를 통한 미래사회 변동 전망 III: 가족과 가정생활에 관한 의식 및 가치관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근영, 박수익 (2011a).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 2011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근영, 박수익 (2011b).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 총괄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근영, 이종원 (2009). **2009 청소년 양성평등 의식 조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정제영 (2004). **초·중등학교의 지식경영 수준과 유형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정제영 (2012).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과 민주시민교육.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교육행정학회 편, **학교규칙과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실천 방안**(학술대회 자료집) (pp. 21-40).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교육행정학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0). **OECD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연구(PISA 2009) 결과보고서**.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아름 (2009). 학생자치법정 운영을 통한 법교육의 효과 분석. **법과인권교육연구**, 2(2), 79-115.
- 홍세희 (2007). **구조 방정식 모형의 이론과 응용**. 서울: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Amadeo, J. A., Torney-Purta, J., Lehmann, R. H., Husfeldt, V., & Nikolova, R. (2002). *Civic knowledge and engagement among upper secondary students : Citizenship and education in sixteen countries*. Amsterdam :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 Anderson, B. (1992). *Imagined communities :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New York : Routledge.
- Angvik, M., & von Borries, B. (Eds.). (1997). *Youth and history: A comparative European survey on historical consciousness and political attitudes among adolescents*. Hamburg, Germany : Korber-Stiftung.
- Baldi, S., Perie, M., Skidmore, D., Greenberg, E., Hahn, C., & Nelson, D. (2001). *What democracy means to ninth-graders : U.S. results from the international IEA civic education study*. DIANE Publishing.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 W. H. Freeman and Company.
- Barnes, S. H., & Kaase, M. (1979). *Political action : Mass participation in five Western democracies*. Beverly Hills, CA : Sage Publications.
- Brese, F., Jung, M., Mirazchiyski, P., Schulz, W., & Zuehlke, O. (2011). *ICCS 2009 User Guide for the International Database – Supplement 3*. Amsterdam :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 Bronfenbrenner, U. (1988). Interacting systems in human development. In C.

- Caspi, G. Downey & M. Moorehouse (Eds.), *Person in context : Developmental process* (pp.25–50).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ed equation models*. Newbury Park, CA: Sage.
- Dalton, R. (1999). Political support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In P. Norris (Ed.), *Critical citizens : Global support for democratic government* (pp.52–77). Oxford, UK : Oxford University Press.
- Dalton, R. (2002). The decline of party identifications. In R. Dalton & M. Wattenberg (Eds.), *Parties without partisans* (pp.19–36). Oxford, UK : Oxford University Press.
- Hahn, C. (1998). *Becoming political : Comparative perspectives on citizenship education*. Albany, NY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Hair, J. F., Anderson, R. E., Tatham, R. L., & Black, W. C. (1998). *Multivariate data analysis*. Prentice–Hall.
- Hong, S., Malik, M. L., & Lee, M. 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y Measurement*(63), 636–654.
- Inglehart, R.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lingemann, H. (1999). Mapping support in the 1990s: A global analysis. In P. Norris (Ed.), *Critical citizen : Global support for democratic governance* (pp.40–44). Oxford, UK:Oxford University Press.
- Lave, J., & Wenger, E. (1991). *Situated learning : Legitimate peripheral particip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edrano, J., & Koenig, M. (2005). Nationalism, citizenship and immigration in social science research: Editorial introduction. *International Journal on*

- Multicultural Societies*, 7(2), pp. 82–89.
- Mosher, R., & Kenny, R. A. (1994). *Preparing for citizenship : Teaching youth to live democratically*. Westport/London : Praeger.
- Nelson, J., & Kerr, D. (2006). *Active citizenship in INCA countries : Definitions, policies, practices and outcomes : Final report*. London, UK : Qualification and Curriculum Authority.
- Newton, P., & Norris, P. (2000). Confidence in public institutions: Faith, culture or performance? In S. J. Pharr & R. D. Putnam (Eds.), *Disaffecting democracies : What's troubling the trilateral countries?* (pp.52–73).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Norris, P. (1999). *Critical citizens : Global support for democratic government*. Oxford, UK : Oxford University Press.
- Norris, P. (2000). *A virtuous circle : Political communication in postindustrial societies*. Cambridge, U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Rourke, K. H., & Sinnott, R. (2006). The determinants of individual attitudes towards immigration.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22(4), pp. 838–861.
- Pasek, J., Feldman, L., Romer, D., & Jamieson, K. (2008). Schools as incubators of democratic participation: Building long-term political efficacy with civic education.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12(1), pp. 236–237.
- Putnam, R. D. (2001). *Bowling alone*.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Richardson, W. (2003). *Connecting political discussion to civic engagement : The role of civic knowledge, efficacy and context for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ryland.
- Rychen, D. S., & Salganik, L. H. (2000).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http://www.oecd.org/edu/statistics/deseco> 에서 인출)
- Rychen, D. S., & Salganik, L. H. (2002). DeSeCo symposium discussion paper.
- Rychen, D. S., & Salganik, L. H. (2003). *Key competencies for a successful life and a well-functioning society*. Cambridge : Hogrefe & Huber Publishers.

- Schulz, W., Ainley, J., & Fraillon, J. (2011). *ICCS 2009 Technical Report*. Amsterdam: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 Schulz, W., Ainley, J., Fraillon, J., Kerr, D., & Losito, B. (2010). *ICCS 2009 International Report, Civic knowledge, attitudes and engagement among lower secondart school students in thirty-eight countries*. Amsterdam :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 Schulz, W., Fraillon, J., Ainley, J., Losito, B., & Kerr, D. (2008).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 Assessment framework*. Amsterdam :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 Torney-Purta, J., Lehmann, R., Oswald, H., & Schulz, W. (2001). *Citizenship and education in twenty-eight countries : Civic knowledge and engagement at age fourteen*. Amsterdam :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 Torney, J., Oppenheim, A. N., & Farnen, R. F. (1975). *Civic education in ten countries: An empirical study*. NewYork : John Wiley & Sons.
- Trier, U. P. (2001). *Twelve countries contributing to DeSeCo – A summary report*. OECD.
- van Deth, J. W., Maraffi, M., Newton, K., & Whiteley, P. F. (1999). *Social capital and European democracy*. London, NewYork : Routledge.
- Verba, S., Schlozman, K. L., & Brady, H. E. (1995). *Voice and equality : Civic voluntarism in American politics*. Harvard University Press.
- Wenger, E. (1998). *Communities of practice: Learning, meaning, andident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BSTRACT

### **Study for the International Comparison of Civic Competency of Children and Youth and the Development of Support Systems II : General report • 2011 youth's civic competency survey**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youth's civic competency and suggest policy orientations and tasks in national and civic society levels. As part of the three-year-long project commenced in 2011, this year's activities included the publication of reports that presented the results of a civic competency survey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Volume 1) and the results of the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conducted in 2009 by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IEA) for youths (second grade middle school students) in 38 countries(Volumes 2 and 3).

The results of the domestic surve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age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youth's civic knowledge and attitudes. The older, the more civic knowledge they had: however, at the same time they showed an increasingly negative attitude against other ethnic groups' and immigrants' rights to equality, lower trust in social systems and decreasing pride for the nation.

Secondly, in terms of civic self-recognition and behavior, the traditional concept of gender roles still had strong influence on youth. Ideologically, both males and females supported gender equality: however, there were diametrical differences between males and females for their interests in political and social issues and expected adult participation in political activities.

Thirdly, there were wide differences between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and ones in non-vocational schools(general high school and middle school). Among the three groups, vocational school students showed the

lowest level of civic knowledge, political efficacy and citizenship self-efficacy, and experience in civic engagement. They also showed the most negative attitude to democratic values, civic roles and social equality.

Fourthly, family background significantly influenced youth's civic consciousness and competency. Youths whose parents had higher academic background and stronger financial power marked constantly higher scores in terms of civic knowledge, political and civic efficacy, consciousness of social quality, civic engagement and expected adult participation in political activities than others.

Lastly, based on the abovementioned results, the study suggested policy tasks to improve youth's civic competency.

Key words : civic competence, civic knowledge, civic participation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2-01

연구보고 12-R16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Ⅱ**  
**연구총괄·2012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인 쇄 2012년 12월 21일

발 행 2012년 12월 26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2003. 9. 53 제 20-444호

인쇄처 경성문화사 전화 02)786-2999 대표 박진태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학술정보실)

ISBN 978-89-7816-657-7 94330

978-89-7816-648-5 (세트)

